



本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情勢動向 等を
綜合整理한 것으로서 南北韓의 統一對
話 過程에서 研究資料로 活用될 수 있
도록 作成한 것임.

00-2-1

300.P11

3202

南北對話年表

1999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目 次

1月	1
2月	31
3月	57
4月	91
5月	117
6月	144
7月	176
8月	201
9月	232
10月	260
11月	287
12月	312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	<p>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발표</p> <p>-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 민·관의 의식이 개혁되고 구국의 활동과 노력이 힘차게 일어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음.</p> <p>-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과 공조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p>	<p>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발표</p> <p>*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p> <p>- '98년은 최후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 강행군의 해, 투쟁과 전진의 해였음.</p> <p>- '99년은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강성대국 건설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 총진격의 해임.</p> <p>-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이 자주화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외세임.</p> <p>-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근본 초석이며,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임.</p>	<p>美 워싱턴 타임즈, “북한, 미사일 발사 2월로 연기” 보도</p> <p>* 미 정보소식통 인용</p> <p>- 북한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던 미사일 발사를 2월까지 연기한 것으로 보임.</p> <p>- 발사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 북한과 기상 악화 때문인 것이 분명하나,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시기를 노려 발사를 연기했을 수도 있음.</p>
1. 2			<p>홍콩 亞洲週刊, “대만,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 내 사무소 개설 계획” 보도</p>
1. 3		<p>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민족대단결 5대방침’ 관철 강조</p> <p>- 조국통일에 대한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고 민족번영을 이룩하자면 남조선에 대한 외</p>	<p>일 방위청, 정세보고서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기지 수 개소 건설” 지적(讀賣신문)</p> <p>- 사거리 1,500km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		<p>세의 지배와 간섭, 반북대결 정책이 중식되어야 함.</p>	<p>상의 미사일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포동 외에 지하리 등 여러 곳에 발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사중시 노선으로 기울고 있음.</p> <p>- 대포동 미사일의 재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됨.</p>
1. 4	<p>'99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p> <p>- 남북화해와 협력에서 핵심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며 이를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함.</p> <p>-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개별 현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병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p> <p>- 안보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한반도의 평화</p>	<p>노동신문,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비난 논평</p> <p>* 반역자의 가증스러운 녀두리</p> <p>- 남조선 집권자가 정초부터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면서 미일상전들과 공조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떠든 것은 올해에도 미제의 각본에 따라 반북대결정책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임.</p> <p>- 남조선 집권자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데 대한 민족의 일치한 요구에 호응해 나설 의사를 표명했어야 옳음.</p>	<p>EU 방북 대표단, “EU·북한간 외교관계 강화 필요성” 언급</p> <p>* 의회 외교안보방위위원회 보고</p> <p>- EU가 한반도 문제 관여를 심화시켜야 할 때가 왔으며, 한국과의 관계 증진과 함께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의 역할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평화공존과 EU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임.</p> <p>- 특히 EU 15개 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p>와 안정 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등임.</p> <p>- 북한의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이나 미사일 등 당면 현안들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p> <p>통일부, 북한 농민시장 실태 및 물가동향 발표</p> <p>- 북한에는 현재 3백~3백50개 정도의 농민시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각종 물품이 품목에 따라 북한 당국이 매긴 국정가격보다 최고 1천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p> <p>- 쌀 1kg의 국정가격은 0.08 원이나 농민시장에선 지역에 따라 75원에서 90원 정도에 거래돼 국정가보다 937~1,12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p>	<p>중방, 신년 공동시설 관련 정론 발표</p> <p>* 강성대국을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p> <p>- 우리의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본때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함.</p> <p>-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김정일의 의지임.</p> <p>-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늘의 시대정신인 강계의 정신을 발휘하여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함.</p> <p>- 강력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를 담보함.</p> <p>- 조선은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의 제일강국, 군사의 제일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미구에 경제강국의 높이에 오르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p> <p>중·평방, 신년 공동시설 관련 행사 동향 보도</p>	<p>원국 중 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있는 10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 발전과 효율성을 감안해 공동대사관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임.</p> <p>대만 중국시보, “대만·北간 전세기 직항로 개설 논의” 보도</p> <p>* 국민당 투자사업 담당 관계자 인용</p> <p>- 대만 국민당은 타이베이~평양간 전세기 직항로 개설 및 자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개선 문제 등을 북한과 논의 중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김일성광장) - 인민 무력성 군인 쫓기모임 (조명록 보고) 	
1. 5	<p>천용택 국방장관, “주한미군, 평시 대간첩작전에도 참가” 언급</p> <p>-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 정규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간첩작전시 한·미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최근 합의했음.</p> <p>- 이에 따라 그 동안 전면전 발발 징후가 포착된 뒤 발령되는 대북경계태세인 데프콘-Ⅲ 이상 상태에서만 작전에 참여한 주한미군은 앞으로 평시 대간첩작전에도 참가하게 됨.</p> <p>정부 고위당국자, “남북 당국간회담 北 의사 존중하여 비공개라도 추진” 언급</p> <p>- 북한의 대화 의지만 확인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p>	<p>신년 공동시설 관련행사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성 군무자들의 쫓기모임(봉화예술극장) - 청년전위들·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각각 진행 - 황해남도·함경북도·평안남도·남포시·개성시 군중대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5	<p>북한당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임.</p> <p>-남북간 대화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처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지만 결렬될 경우 부담이 크므로 북측이 원할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갖고 결과가 좋으면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음.</p>		
1. 6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언급 * 뉴스 브리핑</p> <p>-4자회담이 오는 1. 19 제네바에서 재개되며, 이에 앞서 1. 6~17일 제네바에서 미·북간 별도 회담을 갖고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를 논의할 것임.</p> <p>-이번 회담에서는 본 회담과 병행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긴장완화 방안을 다룰 2개 분과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게 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6			<p>교도통신, “WFP, 올해 대북 식량지원으로 53만톤 각국에 요청” 보도 * WFP 당국자 인용</p> <p>-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135만톤 정도) 가운데 53만톤을 각국이 지원하고, 30만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입하며, 나머지는 중국 등 WFP를 통하지 않는 양국간 원조로 충당하게 될 것임.</p>
1. 7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올해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방안” 등 논의</p> <p>-남북대화시 상호주의원칙을 지키되 대북 농업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동시적·비대칭적·비등가적으로 연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함.</p> <p>한·일 국방장관, “북한 핵 및 미사일 공동대응” 등 합의 * 양국 장관회담 후 차영구 국방부 대변인 언급</p> <p>-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과</p>	<p>「조선반핵평화위원회」,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 이행 지연 ‘고발장’ 발표</p> <p>1. 제네바 합의의 위반자는 누구인가?</p> <p>-미국이 조·미사이의 합의된 조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제네바 합의의 위반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p> <p>2. 제네바 합의의 유린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전략의 산물</p>	<p>교도통신, “츠 하오텐(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4자회담 성공위해 북한 설득 방침” 보도 * 야마다 사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면담시</p> <p>-남북회담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북한에 촉구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7	<p>미사일 위협 해소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함.</p> <p>대한펜싱협회, “북한에 그랑프리대회 초청장 발송” 발표</p> <p>-한국체대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99 대우그랑프리 국제펜싱대회(2.26~28)에 북한팀 참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제펜싱연맹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음.</p>	<p>-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압살전략, 반공화국 대결정책에 있음.</p> <p>3.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 미국은 우리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어떤 형태라도 그 값을 반드시 물어야 함.</p> <p>북한·부르나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p>	<p>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 “미국의 북한 핵사찰 요구는 국제규범에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p> <p>*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p> <p>- 국제사회의 어느 나라도 의심만을 근거로 주권국가의 시설에 대한 사찰을 행할 수는 없음.</p> <p>- 미국측의 현장접근 요구는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며, 미·북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함.</p>
1. 8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 직접 지원 검토” 등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정부는 그 동안 약품이나 식량 등에 국한한 대북 인도적 지원물품 범위를 비료, 종자, 엠블런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p> <p>- 그 동안 제3국이나 국제단체를 통해 지원하던 것을</p>	<p>중방,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p>	<p>요미우리신문, “북한, 지하 미사일 발사기지 5곳 건설 중” 보도</p> <p>* 미·일 소식통 인용</p> <p>- 북한의 미사일 지하발사기지는 중국 국경 근처의 3곳과 휴전선 근처의 2곳으로, 깊이가 50m 이상이며 각 기지에서 복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p>

■ 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8	<p>정부가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p> <p>- 인도적 대북지원이 결정 되면 가능한 빨리 전달할 것이며,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깊이있게 검토할 것임.</p> <p>당정회의, 경수로 분담금 전기료에 부과 방침 결정</p> <p>- 경수로 총사업비 46억달러중 한국측 부담분인 약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전기세 징수방식으로 마련하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 ▲소득별, ▲계층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해 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하기로 함.</p> <p>- 상호주의는 비등가성·비동시성을 염두에 둔 것임. 북이 우리의 일방적 조치에 100% 만족 안되더라도 부응하는 태도를 표시해야 함. 정책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것임.</p>		있음.
1. 9		「조평통」 서기국, 일본 방위청 장관의 판문점 방문(1.7) 관련 비난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9		<p>-일본의 호전광인 군부 우두머리가 판문점에까지 활개치며 돌아친 사실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조선재침 야망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임.</p>	
1. 10		<p>중방, "제네바 합의의 위반자, 파괴자는 미국"이라고 주장</p> <p>- 미국이 책임진 2기 경수로 는 오늘까지 터도 제대로 닦지 못한 상태이며 기본공사는 착수도 하지 않아 2003년까지 완공될지 막연한 형편이며, 중유제공도 계속 체납되고 있음.(합의서 1조 불이행)</p> <p>- 미국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키면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행동했음.(합의서 2조 불이행)</p> <p>-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체 계수립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미장성급회담도 외면했음.(합의서 3조 불이행)</p> <p>- 합의문 4조의 이행여부는 경수로 건설을 책임진 미국의 실천행동에 달려 있음.</p>	<p>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美대사,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관련 언급</p> <p>* KBS 정책진단 출연</p> <p>- 금창리 시설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끈기를 갖고 북한을 대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p> <p>- 미국은 금창리 시설이 핵용도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접근허용에 따른 보상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p> <p>- 북·미관계 정상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0			은 그 과정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1. 11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미·북관계 정상화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 * MBC 라디오 전화 인터뷰</p> <p>-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북관계에도 좋을 것임.</p> <p>농림부, “남북 농산물 교환 추진” 언급</p> <p>-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주)남양알로에는 올해부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농장을 조성, 이곳에서 재배한 쌀을 북한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콩 등 농산물을 받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음.</p>	<p>「외무성」 대변인, 금창리 핵사찰 허용조건으로 3억달러 요구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는 조·미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증상모독한데 대한 보상으로 3억달러를 낸다면 특례적으로 단 한번 금창리 대상에 대한 방문을 허용할 수 있음.</p> <p>- 따라서 미국이 이 대상에 대한 방문을 실현하려면 3억달러의 현금을 보상하거나 보상하는데 사정이 있다면 다른 적절한 형식으로라도 이에 맞먹는 경제적 혜택이 우리에게 차려지게 해야 함.</p> <p>김정일, 과학원 현지지도(1.11) 및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신년 경축공연 관람(1.12)</p>	<p>한·미 양국, 4자회담 대비 사전협의 개최 (1.11~12, 워싱턴) * 한국: 권종락 외교부 북미국장, 미국: 찰스 카트만 평화회담 담당특사</p>
1. 12	<p>「민화협」, '99년도 역점사업 방향 발표</p> <p>- 올해 민화협 사업 3대방향으로 ‘민족화해’, ‘국민적 합의’, ‘민간통일운동 지원’ 등을 설정함.</p>	<p>노동신문, “국회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통과” 관련 비난 논평</p> <p>- 며칠전 남조선은 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에서 매국적인 어업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초부터</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북의 3억불 핵사찰대가 요구 불응 방침” 언급 * 방일 중 미군기지 방문시</p> <p>-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2		<p>사대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다는도 더 엄중한 역적질을 감행하려는 의도임.</p> <p>「조평통」 서기국, 청년학생 탄압 비난 보도 발표</p> <p>- 청년학생들이 반미,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 수 없음.</p>	<p>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이 필요하다는 점임.</p> <p>스텐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北 지하시설 의혹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p> <p>* 외신 기자회견</p> <p>-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미국은 이 문제 해결에 큰 비중을 두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나가겠음.</p> <p>- 미국은 내주 북한과 가질 제네바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함.</p> <p>쑨위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핵합의 이행에 공헌의사” 언급</p> <p>* 정례 뉴스 브리핑</p> <p>- 중국은 한반도 핵합의 이행과 영구적인 평화촉진 등에서 이미 취득한 성과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기 바라며, 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2			<p>국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공헌할 것임.</p>
1. 13	<p>정세현 통일부차관, “북한의 남북당국간회담 호응 기대” 표명 *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p> <p>-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북한 농업구조 개선 지원을 병행하는 쪽으로 남북당국간회담에 호응해 나오길 기대함.</p> <p>-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농약, 비닐 등 영농 자재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고, 또 계약재배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임.</p> <p>- 이런 사안을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음.</p> <p>현대, ‘금강산시설물 30~50년 독점권’ 합의 발표 * 김윤규 현대건설사장 기자회견</p> <p>- 현대가 금강산 지구에 건설할 온천·골프장·스키장·해수욕장·호텔 등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30~50년 장기간 독점권을 갖기로 했음.</p>	<p>노동적위대 창건 4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중앙노동자회관) * 김일철, 백학립, 김국태, 김익현 참가</p> <p>민주조선, 미국에 경제적 보상 요구 논평</p> <p>- 조선은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미국은 처음부터 지연진술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유린해 왔음.</p> <p>- 미국은 제네바 합의 유린행위로 조선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남한 당국과 일본도 그 이행에 제동을 건 범죄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함.</p>	<p>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 합의(동경) *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노로타 호세이 일본 방위청 장관간 미·일 국방장관회담</p> <p>- 미국과 일본은 북한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공조체제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p> <p>경수로 기획단, “원자력 안전 자문그룹 첫 회의개최” 발표</p> <p>- KEDO 사무총장 산하의 원자력 안전 자문그룹(NSAG)이 1.14~15 미국 뉴욕에서 첫 출범 회의를 가짐.</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3	<p>- 이번 협상에서 북한측과 금강산 1·2차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협의했으며, 북한 무역성과, 「아태평화위」로부터 '금강산 지역 각종 시설의 독점권에 대한 보증'을 받기로 했음.</p>		
1. 14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지원관련 언급 * 코리아헤럴드 인터뷰</p> <p>- 인도적 지원에 관한한 쌀이든 비료든 조건없이 주겠다는게 정부입장임.</p> <p>- 북한이 공개적으로 요청하기 곤란하다면 비공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보내는 방법에 대해선 그렇게 구해 받을 필요가 없음.</p> <p>- 금년도 대북정책 방향은 경제협력 확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임.</p> <p>한·미 합참의장, '전시연합심리전 사령부' 창설 합의 (서울) * 제20차 한·미 군사위원회 (MCM) 회의</p> <p>- 전쟁직전 단계인 '데프콘</p>	<p>평방,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반통일 제도적 장치들</p> <p>- 남조선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통일부는 역대적으로 동족사회의 접촉과 대화·통일을 가로 막아온 암적 존재들로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음.</p>	<p>윌리엄 코언 미국국방장관, "대북 외교는 강은 양면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언급 * 방일 중 자민당 3역과 회담</p> <p>- 對북한 외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당근과 몽둥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p> <p>-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핵시설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음.</p> <p>프랑크 헤스크 주한 EU대사 지명자, 방북 계획 언급 * 기자회견(주한 독일대사관)</p> <p>- EU집행위 국장급으로 구성된 대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4	<p>(DEFCON)Ⅲ이 발령될 경우 한·미 연합사 예하에 한국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하는 '전시 연합 심리전 사령부'를 구성,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선무작전을 수행키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음.</p> <p>경수로 기획단,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5개월 연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 DO)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부지준비 공사를 1.16~6.15까지 5개월 연장함. -현재 진행 중인 부지준비 공사는 약 1,350만달러 규모로 오는 6월까지 외상 방식에 따라 한전이 계속해 나갈 것임. 		<p>단이 1.22~25까지 방북, 대북 경제지원방안, 지원식량의 배분상황감시, 북한의 개방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p>
1. 15	<p>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점진적 해소 기대 표명</p> <p>* 연합뉴스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무상으로 북한에 비료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 어느때 보다도 남북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p>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후 공동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남북 당사자 대화를 통해 해결함.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의 성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5	<p>있으므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바람.</p> <p>- 이산가족 상봉이 안되면 서신교환을, 서신교환도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음.</p>		<p>공적 진전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p> <p>-북 지하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p>
1. 16			<p>북·미, 제3차 북한 핵관련 회의 개최(1. 16~24, 제네바)</p> <p>* 제1차 회담('98.11. 16~18, 평양), 제2차 회담('98.12. 4~11, 워싱턴·뉴욕)</p> <p>-북한과 미국은 스위스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특사간에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성격규명 협상을 개최하였음.</p>
1. 17	<p>통일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 계획” 언급</p> <p>-올 상반기 중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을 고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직종에 따</p>	<p>국토환경보호부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7	<p>라 임금의 5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취업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p> <p>-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방향임.</p>		
1. 18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지원물품 전달계획 통보 *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p> <p>- '98.3.27 합의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우리측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99년도 첫번째 추가지원 구호물자 전달 계획을 통보함.</p> <p><「한적」 직접 전달분></p> <p>· 지원단체 및 품목: ▲한적(밀가루, 어린이 비스킷, 사이다), ▲한국무역대리점협회(밀가루), ▲제주도민 일동(감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류),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류)</p> <p>· 전달일정: 1.22~25</p>	<p>평양, "남한 정부가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p> <p>- 남조선은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핵 문제를 들고 나온 때로부터 현재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반대하는 핵소동을 벌여 왔음.</p> <p>- 미국의 지하 핵시설 의혹에 맞장구를 치면서 응징이니 타격이니 하고 떠들면서 반복대결 책동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시키기 위한 책동의 일환임.</p> <p>故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행사 개최(평양) * 김영대, 류미영, 오익제, 여원구, 박관오, 김수익, 김인호, 허혁필 등 참석</p>	<p>日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 "北 핵사찰 압력 필요" 언급 *박정수 전 외교통상장관회담</p> <p>-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핵사찰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 의회가 납득하지 않을 것임.</p> <p>美 하버드대 우주물리학센터, "북 인공위성은 실패한 위성"이라고 발표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p> <p>- 동 센터가 최근 발표한 '98년도 '인공위성발사 통계서'에</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8	<p><민간단체 별도 전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이티에스(옥수수등): 1.31~2.2 ·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밀가루): 1.22~25 <p>- 이번 추가지원 물자전달시에도 인도지원의 편의제공 등 남북적십자간 합의사항 준수와 우리측 선박·송무원의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을 기대함.</p>	<p>평방, 김대통령의 미 국방장관 코언 접견 사실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주구의 아침 	<p>따르면 '98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과 우주왕복선을 발사한 횟수는 모두 82차례, 이 가운데 실패한 발사횟수는 6차례이며 이 중에 북한 광명성 1호가 포함돼 있다고 발표함.</p>
1. 19	<p>4차 4자회담 본회담 개막 (1.19~22, 제네바)</p> <p>- 박건우 4자회담 대사(한국): 내실있는 분과위 운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p> <p>긴장완화 분과위에서 ▲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 주요 군사훈련 상호 통보, ▲ 군사 인사 상호 교환 방문 등 군사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우선 협의할 것을 제안함.</p> <p>- 김계관 외무부상(북한): 4</p>	<p>김정일,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현지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평해, 김국태, 박송봉, 이용철 동행 <p>「조평통」, 독일 북 외교관 납치 주장 관련 성명 발표</p> <p>- 남조선 안기부에 의하여 독일 베를린에서 이권대표부 서기관과 그의 부인이 백주에 납치 당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음.</p> <p>-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납치 행위는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파국적 후과를 몰아오고 있으며, 납치와 테러로서 사실상 우리와의 화해도 부정하고 접촉과 대화도 부정하였음.</p>	<p>빌 클린턴 미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개발 억제 노력"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국정연설 <p>- 북한에서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기 까지 핵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p> <p>日 오부치 게이조 총리, 대북 관계 개선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국회 시정연설 <p>- 북한이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19	<p>자회담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함.</p> <p>-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 회담특사(미국):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이고 특히 적대적 당사자가 만나 적대상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부수적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음.</p> <p>-첸융넨(錢永年) 4자회담 전담대사(중국): 이번 회담의 과제는 2개 분과위를 가동하는 실질적 작업에 착수하는 것임.</p>	<p>「조평통」 대변인, 한·미간 군사회의 개최 비난 성명 발표</p> <p>- 남조선과 미국은 1.14~16까지 제20차 한·미 군사위원회 및 제3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음.</p> <p>- 남조선과 미국의 이번 전쟁 모의는 전쟁발발 직전이나 할 수 있는 위협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핵전쟁 선전포고로 됨.</p>	<p>오면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할 용의가 있음.</p> <p>-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비밀핵시설 의혹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일·북한간 제반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과 긴밀한 연대를 취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임.</p>
1. 20	<p>안기부, 「조평통」의 독일 주재 북 외교관 납치 주장관련 논평 발표</p> <p>-북한 「조평통」은 1.19 성명을 통해 베를린 주재 이의대표부 서기관 김경필 부부의 망명사건과 관련 안기부가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했음.</p> <p>-북한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안기부는 김</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대북 적대시 정책관련 언급</p> <p>*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최근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 하고 자극하는 일본 당국자들의 언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p> <p>-이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남조선과 야합하여 조선을 고립 압살해 보려는 노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현임.</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언급</p> <p>* 기자회견</p> <p>-북한은 지난해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 위협은 해외주둔 군대뿐만 아니라 미 본토 국민에</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0	<p>경필 부부의 망명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p> <p>- 북한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는 중상·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 일본이 우리의 적대세력들과 공조, 반공화국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 인민의 반일 감정과 투지는 더욱 강해질 것임.</p> <p>백인준 78세 일기로 사망</p> <p>※ 백인준은 백두산창작단 단장(80.5)을 거쳐 86.3 「문예총」 위원장에 올라 지난해 11월 까지 재직</p>	<p>계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p> <p>-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달러를 추가 투입,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임.</p>
1. 21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언급</p> <p>* 제32차 통합방위중앙회의</p> <p>- 우리는 세계 유일의 냉전 국가로 50년이 넘도록 냉전상태에 있음.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세계적 지원으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p> <p>-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에 돈을 주어 손해보는 것 같으나, 크게 보면 현대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북한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 결국은 북한을 우리 영향권으로 안게 되는 것임.</p> <p>제4차 4자회담 분과위 종료</p>	<p>중방, “중국의 대북 무상제공 원유 8만톤 전량 납입” 보도</p> <p>- 중국이 지난해 10.13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원유 8만톤이 1.14 현재 전량 납입되었음.</p> <p>「외무성」 대변인, 한·미간 군사회의 개최 비난 성명 발표</p> <p>- 남조선과 미국은 1.14~16까지 제20차 한·미 군위원회 및 제30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를 개최하였음.</p> <p>- 미국이 이번 전쟁 모의에서 우리를 핵으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2의 조선전쟁이 핵전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전포고임.</p>	<p>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북에 관계 개선과 고립 중 택일” 요구</p> <p>* 미 국가정책센터 초청 모임</p> <p>-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와 협의를 벌이고 있음.</p> <p>- 북한은 향후 1년 동안 두 갈래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임.</p> <p>- 특히 북한은 상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1	<p>- 분과위 회의는 명칭이나 의제 선정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부 운영절차 문제에 관한 문안작업만을 마친 채 종료</p> <p>- 북한은 1.20 회의시 독일에서 발생한 북한 외교관 망명사건을 거론</p>	<p>- 미국의 핵전쟁 도발기도를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배신행위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규탄함.</p>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평양)</p> <p>-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대치시키려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책동을 저지시키고 북과 남, 해외의 연대를 강화하여 올해 송환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였음.</p>	<p>존중 및 평화 공약에 입각한 관계개선과 고립의 심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p> <p>일 방위청 정보협의회, 대북 정보활동 강화 합의</p> <p>-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장관 등 고위 국방 당국자들은 대북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음.</p> <p>- 노로타 장관은 여러 상황에 즉각적이고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p>
1. 22	<p>제4차 4자회담 종료, '공동언론 발표문' 발표</p> <p>- 2개 분과위원회는 운영절차에 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4자회담의 실질적 문제에 있어 진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하였음.</p> <p>- 다음 5차 본회담은 4월</p>	<p>「범민련」 유럽지역본부, 북 외교관 망명사건관련 성명서 발표</p> <p>- 독일 당국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의 정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얻은 결론은 안기부 공작조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사건은 제2의 동백림사건으로 부각 될 것임.</p>	<p>EU 대표단, 식량원조 논의차 방북(1.22~25)</p> <p>- EU 대표단은 베이징을 경유해 1.22 평양에 도착, 오는 25일까지 머물면서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EU의 식량 원조에 따른 제반 조건을 논의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2	<p>중순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차기 본회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차석대표간 준비회의를 본회담 개최 하루 전 제네바에서 개최함.</p>		
1. 23		<p>중방, 안기부의 국가정보원 개명(1.22) 비난 보도 * 민의에 도전하는 행위</p> <p>- 안기부의 개명은 여론을 오도해서 국정원의 파쇼적 본성을 가리우고 내외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허튼 수작에 지나지 않음.</p>	
1. 24	<p>천용택 국방장관, “北에 군사접촉 제의 방침” 언급 * KBS-1TV 정책진단 출연</p> <p>-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Y2K 문제가 남북간에 군사적 우발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측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접촉을 제의할 방침임.</p> <p>- 조만간 남북간 비공식 채널이나 유엔사·북한군간장군급 접촉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임.</p> <p>군 합동신문조, 北 반잠수정</p>		<p>북·미, 핵의혹 해명 필요성에 합의(제네바)</p> <p>- 북한과 미국은 제3차 협상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현장접근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으나 보상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음.</p> <p>-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측</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4	<p>인양 시체 노동당 호송안내 원으로 발표</p> <p>- 시체에서 수거된 무전기, 통신조직표, 복장 등을 분 석한 결과 노동당 작전부 남포연락소 소속 해상 호 송안내원인 것으로 판명 되었음.</p>		<p>의 의견이 일치했 으나 방법에 대해서 는 의견차가 있었 다”며 “우리가 요구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대로 만날 것이며 장소는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p>
1. 25	<p>통일부, “「탈북자 동지회」 내 달 출범 예정” 언급</p> <p>- 황장엽씨를 고문으로, 김 덕홍씨가 대표로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탈북자동 지회」(가칭)가 최근 구성 돼 지난주 통일부에 등록 단체 신청을 했음.</p> <p>- 형식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금명간 등록을 받아 줄 방침임.</p>	<p>평방, 국가정보원 출범관련 오 익제 글 보도</p> <p>* 파쇼모략기구에 의거하는 자 의 목숨은 단명</p> <p>-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되었지 만 직원도 이전 그대로 다 있 고 기구도 그냥 그대로 이며, 오히려 북에 대한 모략과 모 해책동을 하는 대북 정보기능 은 더 강화되었음.</p> <p>「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성 도절’(1.25) 즈음 연단 보도</p> <p>* ‘남조선의 자주화, 민족대단 결’ 문제라고 선동함.</p>	<p>제임스 폴리 미 국무 부 대변인, 지하 핵 의혹 협상에 기대감 표시</p> <p>* 브리핑</p> <p>- 미·북 양측은 진 지하게 제3차 협상 에 임했으며, 제4 차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 할 만함.</p> <p>- 양측이 문제를 해 결하는 쪽으로 접 근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진전 여부 를 잘라 말한다면 아직도 견해차들 이 남아있음.</p>
1. 26	<p>강인덕 통일부장관, 민간차 원 통일운동 적극 지원 언급</p> <p>* 북녘동포돕기운동 전북본</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 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공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6	<p>부 주최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p> <p>- 21세기는 비정부기구(NGO)가 중심이 되는 만큼 통일운동도 민간단체가 앞장서야 하며, 정부도 민간단체의 통일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p> <p>통일부 이종열 인도지원국장, “남북이산가족 상봉료 양성화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 * 최연홍 서울시립대 객원교수가 LA 타임스지(1.25자)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서는 상봉 이산가족당 3천~1만달러의 돈을 북한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p> <p>-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언급은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임.</p> <p>-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해결에 금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p> <p>국립국어연구원, 북한 어휘 조사 결과 발표</p>	<p>- 사회주의 헌법 제133조에 따라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3월 7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p> <p>평방, 미·북 기본합의문 이행 관련 보도 * 괴뢰들의 양탈질에 놀아나</p> <p>-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크리스토퍼는 기본합의문의 한 조항으로 북조선은 북남대화를 재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북남대화 재개가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에 최대의 전제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었음.</p> <p>- 미국이 남조선의 양탈질에 놀아나 그 무슨 대화요, 관계 개선이요 하는 것을 들고나와 압력을 가하려고 한 것은 대화·협상을 바라지 않으며 핵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없다는 점을 폭로하는 것임.</p> <p>「조평통」 서기국, 김경필부부 납치사건 진상공개장 발표</p> <p>- 이번에 발생한 납치사건은 오래전부터 독일 교포단체들과 베를린 주재 우리 대표부에 대한 체계적인 모략행위를 감행하여 온 안기부의 계획</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6	<p>- 연구원이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백두산 기슭' 등 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북한 장편소설을 분석한 결과 남한 국어사 전에는 없는 단어가 2,510개 가량이 발견되었음.</p>	<p>적인 책동의 산물임.</p> <p>-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우리 서기관을 납치하여 가두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그를 통해 어떤 모략적 요설을 퍼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저열성을 보여주게 될 것임.</p> <p>중방, 한·일어업협정 발효관련 비난 보도</p> <p>* 친일매국노들의 죄악은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p> <p>- 남조선에서 한·일어업협정이 정식으로 발효(1.22)된 것은 현 집권자들이 얼마나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해 있고 남조선어민들의 목숨을 끊어 놓는 원수들 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임.</p>	
1. 27	<p>서울고법, "북한어린이 돕기 기부금품 모집은 정당하다"고 판결</p> <p>*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는 '97년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신청했으나 정부가 "과다한 기부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모집은 억제할 수밖에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p>	<p>「민민진」, 황장엽씨 경영자총협회 강연(1.21) 비난 보도</p> <p>- 황씨가 햇볕정책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분수도 모르는 것이며, 햇볕타령을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임.</p>	<p>로버트 칼루치 전 국무부 핵전담대사, 美정부의 대북정책 비판</p> <p>* 워싱턴 타임즈 회견</p> <p>-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동결을 대가로 약속한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95년부터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언론의 보수파로부터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7	<p>- 북한어린이를 위한 성금 및 의약품 모금은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므로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모금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행자부측의 조치는 재량권 남용임.</p> <p>강인덕 통일부장관, “금강산 개발사업,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등 언급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p> <p>-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환경문제 등을 고려,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부 내 협의와 민간자문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대그룹의 개발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할 것임.</p> <p>- 김정일 총비서의 공개활동은 군부대 시찰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해와 달리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p> <p>-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389만톤으로 최종 평가되었으나 금년에도 16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p>		<p>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임.</p> <p>왕 임판 중국 외교부 부부장, “북한 대규모 소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베이징 방문 중인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 면담</p> <p>-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 및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정일이 북한군과 정치상황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소요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p> <p>- 중국은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화가 지속되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접촉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p> <p>재일조총련 영문 월간지 피플즈 코리아, “대우 남포공단 합영회사 작년 매출 실적”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7	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우 남포공단 합영 회사는 작년 1월부터 일본의 미즈노상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제(OEM)방식으로 가방, 셔츠, 스키 재킷 등의 판매를 시작, 한해동안 총 2천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음.
1. 28	<p>강인덕 통일부장관, “北에 식량 및 농자재 동시 지원” 등 언급 * 동아시아연구회 초청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식량과 식량증산에 도움이 되는 농자재의 동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한국과 미국은 실패한 위성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음 인공 위성 발사시 북한은 공식적으로 예고한 후 발사할 것으로 추측됨. -남북한은 당국자간 접촉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당국자간 회담의 개최가 가 	<p>「외무성」 대변인, 미·북 3차협상 및 4자회담관련 언급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측이 3억달러나 그에 맞먹는 것을 보상으로 내놓으면서 협조적으로 지하시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 특수하게 단 한번 금창리 대상에 대한 현지방문을 허용해주는 식의 해결방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미국과 남조선이 4자회담을 통해 신뢰조성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원한다면 협박하여 유쾌한 우리 외교관을 돌려 보내며 다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담보를 해야 할 것임. <p>「법정화련」 남·북·해외 본부, 투쟁선포식 진행</p>	<p>존 킬리리 주한 미군사령관, “북한 위협 증대 증거없다”고 언급 * 기자회견(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미루어 사용가능한 미사일 기술개발에박차를 가해 왔을지 모르지만 북한군의 준비태세는 최근 수개월 사이 심각한 경제문제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음. -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몇몇 사건과 도발행위로 긴장이 고조됐었으나, 지난 2년여 동안 그들의 태세나 군의 편제에서 어떤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8	<p>능할 것이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p>	<p>- 「범청학련」 남·북·해외본부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평양, 서울, 도쿄에서 각각 공동집회 방식으로 일제히 진행했음.</p> <p>조선중앙통신, “러·독 등 여러 나라에서 외교관 망명사건을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p>	
1. 29	<p>통일부, 탈북자 232명에 특별생계비 첫 지급</p> <p>- 탈북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4~'98년에 귀순한 탈북자 232명에 매월 특별생계비 20만~35만원을 지원키로 결정, 이날 첫 지급을 했음.</p> <p>- 3천 7백여만원으로 높아진 정착지원금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나 대신 이들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은 앞으로도 3년간 계속될 것임.</p> <p>국가정보원, 북한주민 2명 귀순 발표</p> <p>- 6.25때 북한으로 끌려간 이종호(69)씨와 북한주민 송정봉(37)씨가 제3국을 통</p>	<p>「외무성」 대변인, 한·일어업협정 무효 주장 담화 발표</p> <p>- 새로운 어업협정(1.22)은 내용과 성격 모두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범죄 문서이며 조선의 자주권과 영토를 중대하게 침략하는 것임.</p> <p>- 이번 어업협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이 완전히 무효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함.</p> <p>「민민전」, 「탈북동지회」 출범관련 비난 보도</p> <p>- 탈북자들을 규합해 반북대결을 위한 어용단체를 조작하는 것은 북에 대한 새로운 도발인 동시에 대화 상대에 대한 비열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음.</p>	<p>일 교도통신, “김정일, 금년 상반기 방중 가능성” 보도</p> <p>* 서울 외교소식통 인용</p> <p>- 북한과 중국이 김정일의 방중을 작년 10월에 실현시키기 위해 협의했으나 양측의 국내사정으로 연기했음.</p> <p>-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공식 방문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일정과 방문형식, 의제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29	<p>해 귀순함.</p> <p>강인덕 통일부장관, “北백두산·칠보산 관광 개방 가능성” 언급 * 대한매일 회견</p> <p>- 칠보산은 연변(延邊)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미 나진·선봉을 통해 들어와 1일관광이나 2일관광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금강산관광처럼 백두산도 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p> <p>- 대북지원과 관련 상호주의 원칙을 지난해보다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적용할 방침임.</p>		
1. 30		<p>조선중앙통신, '민간급 협력사업에 대한 불순한 방해책동' 제하의 논평</p> <p>- 남조선 당국이 불순한 기도로부터 민간급 협력사업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며 체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사업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함.</p> <p>「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국정원」 개명관련 비난 성명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0		<p>- 안기부의 간판을 국정원으로 바꾸어 단 것처럼 국민의 정부라고 광고하는 현 남조선 통치집단도 그의 간판이나 교체한 것으로서 정치사찰과 첩보모략으로 악명을 떨친 역대 파쇼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p>	
1. 31	<p>법무부, “미전향장기수 준법서약서 없이 3.1절 특사로 석방” 발표</p> <p>- 북한에 가족을 둔 미전향 장기수들은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준법서약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키로 했음.</p> <p>국가정보원, “월·납북자 22명 정치범수용소에 피감” 언급</p> <p>- 이들 22명은 월북 또는 납북 1~2년 이내에 수감됐음.</p> <p>-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월·납북자의 정확한 숫자와 소재지를 공개토록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UN인권위원</p>	<p>「아·태평화위」, 조·일관계 개선관련 질문 제기 ‘비망록’ 발표</p> <p>1. 일본은 조·일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p> <p>2. 조·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의 본심은 무엇인가?</p> <p>평방,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즈음 비난 보도</p> <p>*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p> <p>- 김대통령의 지난 행적은 문민정부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고, 현정권이 보여준 지난 기간은 실망스러움.</p>	<p>미국, 일본에 대북 식량 지원 요청</p> <p>*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p> <p>- 미국은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3억달러나 1백만톤의 식량지원에는 응할 수 없지만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늘임으로써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에 일본의 동참을 촉구했음.</p> <p>日 요미우리신문, “북한, 핵기폭 실험 성공” 보도</p> <p>- 북한은 작년에 핵</p>

■ 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 31	<p>회와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촉구할 계획임.</p>		<p>무기 개발을 위한 기폭실험에 성공했으며,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통보했음.</p> <p>데이비드 모턴 WFP 북한주재 대표, “북한 어린이 기근으로 발육부진 심각” 언급</p> <p>* 미 워싱턴 포스트 지, 베이징 기자회견 내용 보도</p> <p>-북한의 식량난은 발육부진과 현저한 체중미달 상태의 한세대 어린이들을 양산하고 있음.</p> <p>-또한 북한에서는 풀뿌리와 옥수수대가 대응 식량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교수, 의사, 간호원 등의 약 25%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		<p>「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한·미연합훈련(RSOI) 실시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 미국과 남조선의 연합훈련을 제2의 틴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단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준열히 규탄함.</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미·북 4차 협상 곧 개최 전망” 언급</p> <p>* 브리핑</p> <p>- 아직 일정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 금창리 지하 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미·북간 추가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기대됨.</p>
2. 2	<p>김대중 대통령, “대북관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진전” 강조</p> <p>* 박지원 공보수석 금강산 관광(1.31~2.1) 결과 보고서</p> <p>- 대북관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살려나간다면 우리가 북한에 갖는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임.</p> <p>-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남쪽을 알게 되면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진전된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함.</p> <p>정세현 통일부차관, 남북대</p>	<p>평방, “접촉과 대화는 민족단합의 전제”라고 보도</p> <p>- 우리 겨레가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관계없이 조국통일 위업을 언제나 우위에 놓고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진행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임.</p>	<p>조지 테넷 미 CIA국장, “북 대포동 2호 美 본토 공격 가능” 언급</p> <p>*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p> <p>- 대포동 2호 미사일은 2단계 추진 로켓만으로도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대 규모 탄두를 운반할 수 있으며, 소형 탄두를 장착할 경우 미국 내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함.</p> <p>- 미·북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밀리에 핵 개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	<p>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외신 보도관련 언급</p> <p>- 정부가 대북지원 용의를 밝힌데 대해 아직 북한측 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 으며, 남북대화를 위한 물 밑 접촉도 없는 상태임.</p>		<p>계획을 추진 중이 며, 금창리 지하시 설은 핵무기 제조 에 필요한 플루토 늬 생산시설은 물론 재처리 공장까 지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임.</p> <p>러 이타르타스 통신, “중국 외교부, 김정일 의 방중 가능성 부인” 보도 * 중국 외교부 브리핑</p> <p>- 우리는 북한 지도 자와 장쩌민 주석 이 베이징에서 만 날 것이라는 보도 와 관련해 어떤 정 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p>
2. 3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한반 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과 병 행, 안보현안 대처” 강조 * 방일 중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p> <p>-북한 미사일과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안이 재발할 수도 있음.</p>	<p>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남 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p> <p>-올해를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온 민족의 힘과 슬기를 합쳐 나가자.</p> <p>-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자.</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 장관, “주한미군, 북한 화학전 대비 완료” 언급 * 상원 군사위청문회</p> <p>-존 킬러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화 학무기 전쟁 환경에 서 작전할 수 있는 전력을 조직 했다는 보고를 받았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는 큰 작업과 병행해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등 안보현안에 단계적, 포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p> <p>-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일의 협력을 받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남북한이 오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나가야 함.</p> <p>통일부, '98년도 남북교역현황 발표</p> <p>- '98년에 북한은 남한과의 명목교역수지에서 3천 741만 5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실질교역수지에서 4천 60만달러의 흑자를 보았음.</p>	<p>- 당국대화를 포함한 남북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p> <p>- 국가보안법 폐지, 외세와의 공조파기·합동군사훈련중지,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의 권리보장 등 선행실천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그 해결이 늦어도 상반기안에 실현되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p> <p>- 선행실천사항들이 해결된 기초 위에 올해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열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안함.</p> <p>- 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면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재확인되어 있는 북남합의서의 이행, 협력교류문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 등 북남관계의 당면문제들도 협의될 수 있을 것임.</p> <p>평방, "미 클린턴 대통령의 국방비 120억달러 추가 지출 제안" 비난 보도</p> <p>* 대조선 압살을 노린 군비증강 책동</p> <p>- 미국이 새해부터 군사비를 급격히 늘여 무력증강과 현대화를 다그치는 것은 군사적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것이</p>	<p>- 전 세계적인 미사일 확산 추세를 감안,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p> <p>오부치 게이조 일 총리, "북한과 관계증진 노력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p> <p>* 기자회견</p> <p>- 북한이 1.31 "양자관계가 최악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본이 적대행위를 할 경우 파멸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3		<p>며, 새로운 조선 침략 전쟁을 위한데 그 목적이 있음.</p>	
2. 4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긍정적 변화” 언급 * 정례 브리핑</p> <p>- 북한이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한 것이나 금창리 의혹시설 방문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p> <p>- 우리는 북한의 부정적인 면을 축소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 나간다면 교류·협력의 좋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 북고위급정치회담 제의 환영 성명</p> <p>- 남북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당국간 대화제의를 의미 있게 평가하며 환영함.</p> <p>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편지</p>	<p>민족화해협의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김영대 회장 등 참가</p> <p>- 민족화해협의회의 활동정형을 총화하고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음.</p> <p>「여맹」 중앙위 대변인, 주한미군 부녀자 살인사건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 지난 1.30 미제침략군 부대의 사무실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음.</p> <p>- 이는 미제침략군이 야수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성폭행이자 추악한 살인범죄로 전체 조선여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함.</p>	<p>아사히 신문,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2회 사찰 허용” 보도 * 한국 정부소식통 인용</p> <p>- 제3차 미·북협상(1.16~24)에서 북한이 40만톤의 식량을 지원받는 대신 금창리에 대한 사찰을 2회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음.</p> <p>- 미국은 현장 사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WFP를 통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북한은 식량지원 대가로 금창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허용하는데 합의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4	<p>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통해 남북 당국간회담을 제의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함. <p>정주영 명예회장, 서해안 공단 조성계획 협의차 방북(2. 4~6) * 입북전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방북기간 중 서해안 공단조성과 관련,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등을 만나 가능한 한 합의서까지 교환할 계획임. 		
2. 5		<p>노동신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편지관련 논평 * 새로운 획기적 중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회의가 강조한 것처럼 남조선 당국자들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상반기 안으로 해결한다면 하반기에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폭넓은 대화들이 마련되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데서 획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5		<p>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임.</p> <p>- 우리의 획기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대화제의에 대하는 태도는 통일의 입장과 분열의 입장, 애국의 입장과 매국의 입장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임.</p> <p>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장,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일행과 담화</p> <p>농업법 채택</p> <p>- 농업법(6장 78조)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농업분야에 규제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의 기본법임.</p>	
2. 6	<p>김순권 교수, “北 1천여개 마을에 개량 옥수수 재배 계획” 언급</p> <p>* 방북(1.30~2.6) 후 기자회견</p> <p>- 지난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83개 마을에서 실시한 옥수수 시험재배가 성공을 거두었음.</p> <p>- 올해 북한 1천여개 마을에서 개량 옥수수를 재배키로 북한측과 협약을 체결</p>		

일시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6	했으며, 2.8 통일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을 예정임.		
2. 7		<p>평방, “통일애국단체의 통일운동 보장을 통한 대화분위기 조성” 주장</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대화를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제기한 제안대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의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p>	<p>日 니혼게이지가이 신문, “무라야마 사민당 전총리, 방북 의지 피력” 보도</p> <p>- 무라야마 전 총리가 2.6 “한국이 참을성 있게 대화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턱대고 긴장관계를 조성해 대립을 부채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방북 의지를 피력함.</p>
2. 8	<p>경수로기획단, “KEDO와 북한간 경수로 실무협의 개최 계획” 언급</p> <p>- KEDO와 북한은 2.9~13 북한의 평남 향산에서 경수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임.</p> <p>- 실무협의에서는 의정서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비롯해 본공사 시작에 대비한 제반 법적·기술적 문제 등 경수로사업과 관</p>	<p>「조평통」 대변인, ‘고위급정치회담’ 관련 담화 발표</p> <p>- 연합회의 제안은 내외에서 전례없이 광범한 지지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도 새로운 통일지향적인 북남대화 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로 본대 대하여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함.</p> <p>- 말씨름으로 일관하던 과거 대화와 단호히 결별하고 새로</p>	<p>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차관보, “北 미사일 추가발사 징후 없다”고 언급</p> <p>* 권중락 북미국장과의 북 미사일관련 대응전략 협의시</p> <p>-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8	<p>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의될 것임.</p> <p>통일부, 금강산국제그룹 박보희 회장 등 방북 승인</p> <p>-박보희 회장 등 회사관계자 4명이 금강산관광사업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도록 승인했음.</p>	<p>운 기초 위에 대화를 시작하여야 함.</p> <p>-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제기한 선행 실천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것이 이행된다면 북남대화가 아무때나 열려도 무방함.</p> <p>- 우리의 편지를 깊이 연구하고 선행 실천사항들을 이행, 좋은 분위기가 마련된 기초위에서 북남 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길 기대함.</p> <p>중방,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제하의 시사논평 발표</p> <p>- 남조선 당국이 떠들고 있는 조건없는 대화란 본질에 있어서 결실있는 진정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p> <p>- 이제 더는 조국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런 순수 대화를 위한 대화는 단호히 결별해야 함.</p>	
2. 9	<p>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 개최(서울)</p> <p>* 한국: 권중락 외교통상부</p>	<p>김정일, 금성천위 제615 군부대 시찰</p> <p>*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현철</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 식량원조 계속" 시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9	<p>북미국장, 미국: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전담대사, 일본: 데라다 데루스케 일·북 수교협상 대표</p> <p>- 금창리 사찰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추가시험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3국간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함.</p>	<p>해, 박재경, 이명수 등 수행</p>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대변인 성명 발표</p> <p>- 남조선 법무부는 1.30 3.1절 특별사면에 대해 운운하면서 비전향장기수들에 한해서는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서도 모두 석방시킬 것이라고 하였음.</p> <p>- 비전향장기수 석방늘음이라는 것이 그들을 차가운 감방에서 사회라는 큰 감옥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한층 더 높이려는 또 하나의 악랄한 인권유린 책동임.</p>	<p>*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협의관련 브리핑</p> <p>-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원조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임.</p> <p>유럽연합, 대북 원조 식량 분배 감시 확대 추진</p> <p>* EU 소식통 언급</p> <p>- EU는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원조 식량의 분배 감시를 확대하는 서면 위임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음.</p>
2. 10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남북 당국간회담 연내 꼭 실현" 등 언급</p> <p>* 「경실련」 통일협회 초청 강연</p> <p>- 올해 어쨌든 남북 당국간회담을 실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이산</p>	<p>김정일,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 및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p> <p>*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김국태, 이용철 등 동행</p> <p>평방, '연합회의' 제안 관련 보도</p> <p>* 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p>	<p>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미국과 미사일협상 재개 동의" 언급</p> <p>*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증언</p> <p>- 미·북 제4차 미사일협상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0	<p>가족문제에 진전이 있도록 할 방침임.</p> <p>- 북한은 최근 전제조건을 제시,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는데 과거에도 북한은 남북대화에 항상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전제를 달면서 실제로는 회담에 임해 왔으므로 전제조건 때문에 회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음.</p> <p>통일부, '98년 남북간 선박운항 횡수 등 발표</p> <p>-'98년 남북간 오간 선박운항 횡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602회로 전년도 대비 68.6% 증가하였음.</p> <p>현대정유, 유조차 14대 입북 발표</p> <p>- 경유 29만ℓ를 실은 대형 유조차 14대가 바지선에 실려 2.10 울산항을 떠났으며, 오는 13일 울산항으로 되돌아 올 예정임.</p> <p>- 현대정유의 북한 주유소 1호점인 금강산 오일뱅크와 금강산 관광단지 내에서 쓰일 차량연료 및 각종 편의시설 난방용 유류</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통일지향적인 북남대화 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놓은 선행 실천사항들을 외면하며, 그 무슨 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음.</p> <p>- 우리가 주장하는 선행 실천사항들은 북남대화의 결정적인 걸림돌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북남대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임.</p> <p>이근 유엔주재 차석대사, "위성 탑재 로켓 발사 계획" 언급 * 일 교도통신 전화 회견</p> <p>- 위성발사는 주권국에 부여된 권리이므로 광명성 제2호와 제3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는 자연스런 일이 될 것임.</p>	<p>만 북한으로부터 협상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미국은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음.</p> <p>- 그 동안 북한과의 접촉에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미·북 제네바 합의와 KEDO의 경수로 사업에 연계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했음.</p> <p>에드윈 플너 헤리티지재단 총재, "북·미 기본합의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더 좋은 틀"이라고 언급 * 미 하원 국제위 「아·태소위」 청문회</p> <p>- 북·미 기본합의보다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더 좋은 틀이므로 미국은 대북정책을 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0	에 공급됨.		
2. 11	<p>김대중 대통령, “대북 일괄 타결 구상” 언급 * 도쿄신문 회견</p> <p>-북한에 대해 북·미 국교 정상화, 경제협력 및 경제제재 완화, 김정일체제 보전 등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 한반도에서의 무력 도발 배제약속 등 얻을 것은 얻어야 함.</p> <p>-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p> <p>한·일 외무장관, 대북현안 논의 * 한국: 홍순영 외교부장관, 일본: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p> <p>-양국 장관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지역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출 중단을 촉구키로 함.</p> <p>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한</p>	<p>김문덕(김경필 서기관 처남), “김경필이 한국 「정보원」에 납치되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 기자 면담</p> <p>-독일에서 누이와 매부가 실종된 것은 철두철미 남조선 「정보원」의 강제납치에 의한 것임.</p> <p>-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들과 단체들, 국제민주법률가 단체와 인사들이 남조선 「정보원」에 의하여 납치된 누이와 매부를 구원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함.</p>	<p>게오르기 솔로라야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 “북 미사일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라고 언급 * 이즈베티아지 회견</p> <p>-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영토까지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두고 있었으며, 이번의 3단계 미사일도 이전의 것과 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님.</p> <p>- 지금은 미사일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며,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임을 준수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p> <p>제4차 유엔사·북 정상급회담 개최(판문점)</p> <p>-유엔사: Y2K문제 협의 제의</p> <p>-북측: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제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1	<p>일어업협정으로 감축되는 어선 중 일부 北에 제공 방안 검토” 언급 * 자민련 출입기자 간담회</p> <p>-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어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감축하는 어선 중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p> <p>- 2004년까지 3천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중 6백척은 이미 감축한 상태이며, 나머지 어선을 북한에 기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p>		
2. 12	<p>김대중 대통령, “조만간 北과 대화 시도” 등 언급 * LA 타임스 회견</p> <p>-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상당한 레벨에서 북한과 대화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전망이나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함.</p> <p>- 대북정책은 포용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미사일과 핵문제, 침략포기 문제에 대해 확</p>	<p>평방, ‘남북고위급정치회담’ 제의 관련 보도 *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중대조치</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선행해야 할 사항들을 상반기 안으로 해결한다면 하반기에는 남북 고위급정치회담을 비롯한 폭넓은 대화들이 마련될 것임.</p> <p>평방,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불변의 통일강령’ 제하 보도</p> <p>- 남조선 당국과 정당단체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입장으로 돌아와 북남관계를 전진</p>	<p>인도정부, 쌀 1천톤 북에 무상으로 제공, 인수식이 남포항에서 진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2	<p>고히 보장받으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국제적 지위보장 등을 일괄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시켜 나가야 함.</p> <p>「범민련」 남·북·해외본부, 합동결의대회 개최 후 공동성명 발표</p> <p>-미국은 '5027작전계획'을 폐기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또한 북·미간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며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해야 함.</p>	
2. 13	<p>국방부, “헬기부대 통합,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계획” 발표</p> <p>- 북한의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투헬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재 군단 단위로 배치된 헬기부대를 통합, 항공작전사령부를 4월에 창설키로 함.</p>	<p>중방, “인도정부, 쌀 1천톤 북에 무상 제공” 보도</p> <p>평방, ‘연합회의’ 제의관련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전제”라고 주장</p> <p>-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한 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야 하며, 서로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p> <p>-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이나, 지난 날과 같은 반통일적이고 대결적인 대화와는 단호히 결별해야 함.</p>	
2. 13		<p>노동신문, 대미 비난 논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3		<p>* 어떤 압력도 통할 수 없다</p> <p>-미국이 우리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헬름즈 버튼법과 같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에 불과함.</p> <p>※ 헬름즈 버튼법: 미국이 쿠바와 교역을 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한 법</p>	
2. 14		<p>노동신문, 대일 비난 논평</p> <p>*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p> <p>-일본이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방위청에 중요사태 대응회의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해외침략준비를 완성해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임.</p>	
2. 15		<p>김정일 생일(2.15) 57돌관련 행사동향</p> <p>-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p> <p>* 김영남, 이종욱, 박성철, 조명록, 이을설, 홍성남(보고), 김기남(사회), 서만술 등 참가</p> <p>-노동신문, '위대한 혼연일체의</p>	<p>러시아방송, "백남순 北외무상, 중국 방문 계획" 보도</p> <p>* 日 지지통신 인용</p> <p>-백남순 외무상이 김정일 당총비서의 중국 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중국을 방문할 것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5		<p>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사설 발표</p>	<p>며, 방문기간 중 탕 자취엔(唐家旋)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게 될 것임.</p>
2. 16	<p>과학기술부, IAEA의 '추가 의정서' 서명 방침 발표</p> <p>-정부는 3월말경 IAEA 이 사회의 서명승인을 받아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뒤 비준 및 원자력법 개정 등 국내절차를 거쳐 2000년 하반기부터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계획임.</p>	<p>김정일, 제682 군부대 동계훈련 참관 및 제991 군부대 관하 여성고사총중대 시찰</p>	<p>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대변인, "북·미 4차 협상 개최 계획" 언급</p> <p>* 브리핑</p> <p>- 미국과 북한은 2. 27 뉴욕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상이 얼마동안 계속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음.</p> <p>-이번 협상에서 금강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을 포함한 모든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추구할 것임.</p>
2. 17	<p>강인덕 통일부장관, 귀순자 가정 방문</p> <p>* '93년 귀순한 박수현씨 가정</p>		<p>日 아사히신문,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 방북 계획" 보도</p> <p>- 페리 조정관이 다음달 중반까지 북한 관련 보고서를 마무리 한 뒤 북한을 방문, 북한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7			<p>정책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임.</p> <p>- 방문이 실현될 경우 북·미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될 것임.</p>
2. 18	<p>외교부, '99년 핵심과제로 '포괄적 대북정책' 추진 발표 * '99년도 업무계획</p> <p>-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 일본, EU 등 서방국가들의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는 '포괄적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임.</p>	<p>이근 유엔주재 차석대사,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위 계획은 북에 대한 중대한 도전" 언급 * 日 마이니치 신문 전화 인터뷰</p> <p>-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로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 계획이 북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대응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음.</p> <p>- 미사일의 시험과 개발은 국가로서의 권리이므로 제2, 제3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p> <p>「조평통」대변인, "국방장관 발언을 반복대결과 반통일책동"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남조선 국방장관은 2.12 그 무슨 대비태세 점검시 북은 준 병영국가라고 헐뜯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을 바라고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p>	<p>일 산케이신문, "북한, 페리 조정관 방북 수락" 보도 * 미 행정부소식통 인용</p> <p>- 북한이 페리 조정관의 방북 수락 의사를 미국측에 전해와 4월경 방북이 실현될 전망이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8		<p>다면 우리의 새로운 대화 제의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반북대결 책동을 그만두고 연북화해의 길로 나와야 함.</p>	
2. 19	<p>김대중 대통령, “북 협력하면 인센티브 제공” 등 언급</p> <p>* 미 방문(2.1~5) 국회의원단 외교활동 결과 보고서</p> <p>- 우리는 철저한 안보태세로 북한이 전쟁 생각을 못하게 하면서 북한이 협력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함.</p> <p>- 북한도 처음엔 우리를 의심했으나 이제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조금씩 변하고 있음.</p> <p>-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대처할 게 아니라 이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p>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당국간 대화 조속 재개 촉구</p> <p>*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p>- 북한측이 이산가족 문제</p>	<p>노동신문, 김정일 2.19노작(74.2.19) 발표 25돌 관련 사설 발표</p> <p>* 당의 영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p> <p>-우리 인민은 25년전 김정일동지의 노작을 받아안던 그 때의 그 격동된 심정으로 ‘온사회적 주체사상화’를 위한 총진군을 더 힘차게 다그쳐 나갈 것임.</p> <p>김정일 2.19노작 발표 25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19	<p>해결에 다소라도 성의를 보인다면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비료 등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p> <p>-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하루속히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함.</p> <p>탈북자 9명,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p> <p>-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자 9명은 「민변」을 통해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음.</p>		
2. 20		<p>평방, “애국적인 통일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반북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보도</p> <p>-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대화를 바란다면 ‘연합회의’가 제기한 대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의 통일운동을 보장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p>	<p>日 산케이신문, “북한 무기수출 외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가 독점” 보도</p> <p>-북한은 미사일 등의 무기를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으로 수출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0			<p>칠만 국방위원)가 독점, 군비확장에 돌려지고 있음.</p>
2. 21			<p>日 교도통신, “일 방위 청, 북한 미사일 재발 사 대응책 마련” 보도</p> <p>- 방위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탄두가 일본영토에 떨어지 면 자위대를 현지에 파견해 피해조사와 복구를 하며, ▲그 탄두에 대량살상무 기가 실렸다면 일본 에 대한 무력공격으 로 간주, 자위대에 방위 출동령을 내리 기로 했음.</p>
2. 22	<p>현대, “서해안공단 실무협의 단 23명 방북” 발표</p> <p>- 남북경협사업 전담사인 (주)아산의 김고중 부사 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협의단이 2.22 북한으로 떠났음.</p> <p>- 실무협의단은 1주일정도평 양에 머물면서 북한측과</p>	<p>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연 합회의’ 제안 지지담화 발표</p> <p>- 남조선 당국이 북남대화 불가분리적인 선행 실천사항 들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결 코 동족과 화해하고 단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임.</p> <p>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제6</p>	<p>이고르 이바노프 러 외무장관, “북한과 동 아시아 안보 문제 협 의 예정” 언급</p> <p>* 방일 중 기자회견</p> <p>- 북한과 새로운 기 본조약을 가조인하 기 위해 가까운 시 일 내에 카라신 외 무차관을 평양에 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2	<p>서해안공단 조성사업 및 1만 2천명 수용 능력의 평양실내체육관 건립, 금강산관광 종합개발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관해 협의의 발이게 됨.</p> <p>이홍구 주미대사, “한·미, 대북정책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 *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p> <p>- 한·미 양국정부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북접근 방법을 긍정평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장기적인 구상을, 미국은 단기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p> <p>- 우리측의 포괄적인 안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라는 장기적 계획을 중심으로 구상되고 있으나, 미국은 금창리 핵의혹시설 문제 등 몇 주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p> <p>-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관심의 차이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양쪽 모두 수긍하고,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안으로 결집시키느냐가 당면과제임.</p>	<p>기 제20차 전원회의 개최 *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연합회의’ 제안을 지지</p> <p>조순백(73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사망</p> <p>-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사망을 알리는 부고를 냈음.</p>	<p>견, 북한측과 동아시아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할 방침임.</p> <p>-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 협조와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p> <p>퀴노네스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대북 포용정책은 北의 군사적 위협 감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 *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문제’ 주제 강연(프레스 클럽)</p> <p>-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p> <p>-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른 것으로 미 정부는 방북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협상 내용을 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2			<p>명하는 등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음.</p>
2. 23	<p>통일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교환이나 장·차관급 상설 대화기구 창설 등 당국간 회담과 비공개 대화채널을 적극 모색하며,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 등 준당국·민간급 대화도 적극 추진함. - 4자회담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2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함.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최소한 생사 확인과 편지왕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올해 대북지원은 농업기술 지원 등 북한의 농업 개발에 역점을 두되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를 병행기로 함. - 민간 차원의 농업협력을 지속 추진하며, 유휴 어선과 어구 자재를 활용하는 어업협력 사업을 추진함. 	<p>장재언 「북적」 위원장, 미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 대남 서한 발송 * 정원식 「한적」 총재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옹계 해결하는 길은 그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데 있음. - 귀족이 비전향 장기수들을 모두 무죄석방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은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노인들을 하루빨리 송환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제 석방하려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처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려 보내리라는 기대를 표시함. <p>태천3호 발전소 착공식(현지) * 김평해, 장윤선, 이용수 등 참석</p>	<p>日 마이니치신문, “美의원들, 北 미사일 대항 한·미·일 방위기구 창설 제의” 보도 * 미 의회 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의원들은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한국과 미국, 일본에 의한 ‘동북아시아 탄도미사일 방위기구’ 창설을 포함시키도록 제의했음. - 이 제의는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일에 한국을 추가해 3개국의 공동 기구를 설립, 탄도미사일 방위의 공동연구·개발·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3	<p>강인덕 통일부장관, “대북지원,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탄력성 있게 전개” 등 언급</p> <p>* '99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기자간담회</p> <p>-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과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융통성·탄력성 있는 대북지원 정책을 펼 것임.</p> <p>- 하반기에 회담 개최가 가능한지는 금창리 협상 등 북측의 동향을 봐야 하며, 북측이 과거에 비해 조금 변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검토 중임.</p>		
2. 24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 전망” 등 언급</p> <p>* 취임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p> <p>-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고 나오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추진해 정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음.</p> <p>- 일괄타결은 양측의 모든</p>	<p>노동신문,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 즈음 비난 논평 발표</p> <p>* 국민통치배의 1년간 죄악을 결산함</p> <p>- 국민 통치배들의 집권 1년간의 궤적은</p> <p>· 친미, 친일 사대매국과 외세 의존, 인민들에 대한 파쇼칼부림과 반복, 반통일 대결책 등으로 엮어 졌으며</p> <p>· 자주, 민주,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인민들의 의로운 진출</p>	<p>日 교도통신,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일가 실종” 보도</p> <p>* 현지 소식통 인용</p> <p>-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과학기술참사관 일가족이 2.19부터 실종상태이며, 북한측은 태국 외무부에 이들의 외교관 지위 박탈을 요청했음.</p> <p>울브라이트 미 국무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4	<p>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것이며, 북한이 남북 평화, 교류협력에 응하며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전 보장, 경제지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돕는 것임.</p> <p>통일부, “미전향장기수를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으로 표현” 언급</p> <p>-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전향장기수라는 용어를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으로 정리해서 표현하기로 했음.</p> <p>- 2.25 사면 이후에는 미전향장기수란 존재하지 않게 됨.</p>	<p>을 짓밟겠으며</p> <p>·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증대시킨 반복, 반통일, 대결, 전쟁책동의 1년이었음.</p> <p>‘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p> <p>* 김영남, 박성철, 홍성남(보고), 최태복, 양형섭, 이하섭(사회) 등 참가</p>	<p>관,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지하핵시설 문제 해결” 등 언급</p> <p>* 미 상원 외무위원회 출석</p> <p>- 북한이 금창리 지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임.</p>
2. 25	<p>김대중 대통령, “대북 햇볕 정책 계속 추진” 등 언급</p> <p>* 취임 1주년 축하만찬시</p> <p>- 올해도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대북 햇볕 정책을 아주 주의깊게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속 추진할 것임.</p> <p>-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을 세우기 위해 필요없는 조치를</p>	<p>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16차 전원회의 개최</p> <p>* 새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 조직들의 과업 토의</p> <p>「외무성」 대변인, “경수로 건설이 늦어질 것”이라는 여론관련 언급</p> <p>*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측이 조·미기본합의문과 경수로 제공 협정 사항들을 위</p>	<p>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대북 식량원조 계속” 시사</p> <p>*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출석</p> <p>- 미국의 대북원조는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WFP의 식량상황 평가에 대해 미국은 계속 부응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5	서두르지도 않을 것임.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함.	<p>-WFP 모니터링에 의하면 북한에 제공된 식량이 전용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북한측에 미국의 원조를 반드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p> <p>러 브레마紙, “김대통령, 대북 일괄타결 제안” 보도</p> <p>-김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일본·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를 제시하였음.</p>
2. 26	<p>탈북자 동지회, 창립총회 개최(한국자유총연맹)</p> <p>- 2백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앞으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성금 모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간지 발행, 강연·세미나 개최 등 사업을 벌일 예정임.</p>	<p>중방, “김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시 장기수 송환문제 언급” 비난</p> <p>* 월북자 윤성식의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형식</p> <p>- 그 어떤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은 北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달리 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6	<p>국가정보원, “北 안전보위부 소좌 출신 윤대일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귀순” 발표</p> <p>김대중 대통령, “北에 필요한 모든 분야 지원” 등 언급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의 정치지도자 원탁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전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오늘이라도 실현됨. - 식량이나 농업생산증대, 전력문제 등 북한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것이며, 북한의 노동력은 우리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됨. - 북한에 대해 큰 욕심은 없으며, 당장 할 일은 한반도 대화를 통해 남북이 공존하는 일임. -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정권과 국민이 합의해 이뤄나가야 할 것임. 	<p>석할 수 없음.</p>	
2. 27		<p>조선인민군 중대장 대회(2.27~28, 평양체육관)</p>	<p>佛 르몽드지, “한·미, 대북접근 방법론에 차</p>

■ 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2. 27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전재선, 이하일 등 참가</p> <p>- 혁명무력 발전과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대들의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에 대해서 토의</p> <p>북·중, 1999~2000년 문화교류 계획서 조인</p> <p>*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와 쑨자정 중국 문화부장 서명</p>	<p>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p> <p>- 미국은 국제협약이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 문제가 전반적인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p>
2. 28	<p>금강산 공연장 및 휴게소 준공</p> <p>* 남북분단 이후 민간차원에서 양측 인력이 함께 건설한 첫 건축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	<p>김대중 대통령, “남북은 경제건설에 매진, 민족전체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p> <p>* 제80주년 3.1절 기념사</p> <p>- 현단계에서 최소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남북이 다같이 경제건설에 매진해 민족전체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함.</p> <p>- 남한의 미전향장기수와 북한의 국군포로 및 억류 민간인 송환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람.</p>	<p>노동신문, 3.1절 기념 사설 발표</p> <p>*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p> <p>-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북남대화에 필수적인 외세와의 공조파기 등 선행 실천사항들을 하루빨리 처리, 해결하고 북남대화를 시작할 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서야 함.</p> <p>3.1절 8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p> <p>* 양형섭, 김중린, 김영대, 류미영, 오익제 등 참가</p> <p>※보고: 조규일 「조국전」 서기국장</p>	<p>북·미, 금창리 핵관련 제4차 협상(뉴욕, 2.27~3.16) 이틀째 회의 속개</p> <p>* 미국: 찰스 카트만 특사,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p> <p>크리스천 르메르 UNDP 평양사무소장, “北 식량위기 심화” 언급</p> <p>- 본질적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원조를 받는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소방 연습에 그치고 있음.</p> <p>-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이 2년마다 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일고 있음.</p>
3. 2	<p>강인덕 통일부장관, “올해 유엔의 대북지원에 참여 방법 검토” 등 언급</p> <p>* KNCC 통일위원회 정책협의회 초청 강연</p> <p>-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호소</p>	<p>평방, 통일부 창설 30주년 관련 ‘대담’ 내용 보도</p> <p>* 반통일모략집단 괴뢰 통일부의 정체</p> <p>- 통일부는 조직된 후 30년동안 통일을 반대하고 반북대</p>	<p>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중국, 北미사일 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p> <p>* 離中전 기자회견</p> <p>- 중국은 미국이 주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	<p>에 '97년 2천만달러, '98년 1천 100만달러를 각각 지원했던 정부는 올해 유엔의 대북지원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검토하고 있음.</p> <p>- 북한에 전기를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만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가 관건임.</p> <p>한국무역협회, '98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동향' 발표 * 중국 해관 통계 인용</p> <p>-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4억 1천만달러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지난 '90년의 교역액 4억 8천만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90년대 들어 가장 적은 교역액수임.</p>	<p>결 정책과 모략책동만을 일삼아 왔음.</p> <p>노동신문, 통일부장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발언(2.25) 관련 논평</p> <p>-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이산가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p> <p>조선중앙통신, "지방주권기관 선거 준비 상황" 보도</p> <p>- 3.7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임.</p> <p>-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음.</p> <p>중방, 식수절 관련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 껌기모임 및 봄철나무심기 진행 보도</p>	<p>하는 전역미사일 방위구상을 우려하기 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실험규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임.</p> <p>북·미, 금창리 핵의혹 규명 4차협상 사흘째 회의 속개</p> <p>FAO, "북한, 올해도 식량난 심각" 발표 * '최근 식량동향' 보고서</p> <p>- 지구촌의 이상기후현상의 충격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북한은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올해에도 식량상황이 좋지 않을 것임.</p>
3. 3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진전 가능성" 등 언급 * KBS 창사기념 회견</p> <p>- 여러 국제정세 움직임, 남북의 동향, 북한의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p> <p>- 공화국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없애고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을 내움.</p>	<p>존 킬리리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美와 전면전 가능성 가장 큰 나라"라고 언급 *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	<p>사 표시 등으로 봐서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 경우에 따라 남북 정상간 대화도 배제할 수 없음.</p> <p>-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 어떤 회담에도 적극 응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음.</p> <p>- 출소 남파간첩 복송과 대북 비료지원 등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p> <p>- 대량의 비료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양은 북한 영농기 등을 감안, 적십자 등을 통해 인도적 입장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p>	<p>조선중앙통신, “금강산 관광비용의 군사적 전용가능성 제기” 관련 비난</p> <p>*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2.24) 관련</p> <p>- 이들의 발언은 동포애적 조치에 따라 지금 진척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어떻게 하던 중도 차단시켜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의 발로로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p>	<p>-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이며, 북한의 상황은 갈수록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있음.</p> <p>칼라닌 러시아군 참모본부 대변인, “북한 Y2K 문제 검토” 언급</p> <p>- 북한군의 Y2K 문제로 빚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정식으로 통보 받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임.</p>
3. 4	<p>외교통상부, “북한, 러시아 나훗카 주재 총영사 교체” 언급</p> <p>- 이성덕 나훗카 주재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 후임에 고성국(평양건설건축대학 졸업, 도시계획 전문가) 임명(2.19)</p> <p>통일연구원, “북한, 식량난으로 생존권 악화”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4	<p>* '99년 북한인권백서</p> <p>-북한의 공식배급체계는 특수계층의 생존보장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의 경우 식량의 70% 이상을 암시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만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p> <p>북한동포후원회, 아동 의류 북한 지원</p> <p>*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2.10, 통일부) 이후 첫 번째 사례</p> <p>-20여개 전문의류업체로부터 기탁받은 7억 1천만원 상당의 아동복 2천 500벌을 인천~남포 항로를 통해 북한에 보냈음.</p>		
3. 5		<p>「외무성」 대변인, 미 국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p> <p>-미 국무부가 연례보고서(2.26)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황당무계하게 걸고든 것은 유치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불과함</p> <p>「범청학련」 북측본부, 교육부장관 및 서울 검찰청이 대학 신입생에 보낸 편지관련 규탄성명 발표</p>	<p>日 산케이신문, “北 노동미사일 數基 용오동에 배치” 보도</p> <p>* 미·일 군사 소식통 인용</p> <p>- 북한은 중국 국경 근처의 용오동에 노동 탄도미사일 여러 수기를 배치해 놓았음.</p> <p>-일본 대부분의 지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5		<p>-이러한 탄압만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녘 청년 학생들에 대한 전면 도전행위로 낙인함.</p>	<p>을 사거리에 넣고 있는 노동미사일이 한 곳에 배치돼 있는 것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며, 용오동 근처에 미사일 양산 공장이 있음도 확인되었음.</p>
3. 7	<p>정몽준 축구협회장, “월드컵 두 경기 평양 개최 제의 방침” 언급 * 방일 중 요미우리신문 회견</p> <p>-3.19경 북한을 방문, 월드컵의 2경기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할 것이며, 어느 정도 합의될 경우 5월경 국제축구연맹의 조사팀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임.</p>	<p>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관련</p> <p>-전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실시 (10:00~18:00)</p> <p>-김정일,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제171호 선거구, 제72호 분구에서 투표)</p> <p>「조평통」 서기국,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관련 비난 보도 *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3.3) 시 “북한의 전력증강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등 언급</p> <p>- 미국은 새 전쟁도발 책동을 그 누구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궤변으로 합리화하여 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책동의 일환임.</p>	
3. 8	<p>김경재의원(국민회의), “자전거 1만여대 북송계획” 언급</p>	<p>중앙선거지도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관련 보도</p>	<p>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 “한국 정부와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8	<p>* 국회 본회의 5분 발언</p> <p>- 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장과 3.6 중국 베이징에서 '평화의 자전거 운동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음.</p> <p>- 오는 6월경 자전거 1만여대와 기초 의약품을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에 보낼 예정임.</p> <p>국방부, "유엔사·북 장성급 회담 개최 계획" 발표</p> <p>- 유엔사 부참모장인 마이클 헤이든 소장이 최근 중장으로 진급, 3.11 미국으로 떠남에 따라 이임인사를 겸해 3.9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담장에서 개최됨.</p>	<p>- 전체 선거자의 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가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에게 찬성 투표하였으며, 29,442명의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됨.</p> <p>노동신문, 김대통령의 KBS 특별회견(3.3) 관련 비난 논평</p> <p>* 상호주의는 통할 수 없다</p> <p>- 남조선 집권자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출신 비전향장기수들과 군포로 및 납북어민들을 바꾸자고 했는데 북에는 군포로요, 납북어민이요 하는 남조선 사람들이 없음.</p> <p>「직총」, 남한 노동자 투쟁지지 비상회의 개최</p> <p>* 염순길 위원장 보고</p>	<p>조을 후 페리보고서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p> <p>* 방한 도착성명</p> <p>- 페리보고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와의 조율이 이루어진 후 최종 결론을 내겠음.</p> <p>- 한국 정부의 의견은 대북정책 결정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클린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김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어함.</p> <p>-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기반으로 삼아야 할 매우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현실문제를 야기하고 있음.</p>
3. 9	<p>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방북 (3.9~3.11)</p> <p>* 판문점 기자회견</p> <p>- 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p>	<p>노동신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7) 관련 사설 발표</p> <p>*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우리의 혁명정권은 필승불패이다</p>	<p>日 아사히신문, "북·일, 미사일 발사문제 비공식회담 개최 사실"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9	<p>장 등과 만나 관광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 등을 논의할 것이며, 서해공단에 대한 전기공급문제도 한전에서 협조키로 한 만큼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음.</p> <p>민주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계획” 등 언급 * 남북노동자회담(3.3~4, 베이징) 결과 기자회견</p> <p>- 지난 1월 민주노총이 제안한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축구대회는 빠르면 오는 7.4이나 8.15, 10.3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회를 열게 될 것임.</p> <p>국정원, “남북자 송환 국제사회에 협조 요청” 예정 발표</p> <p>- 휴전 이후 북한에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 중인 남북자는 4백 54명,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2백 31명이며, 곧 국제사회에 이들의 송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p>	<p>조선중앙통신,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방북(3.9~13) 보도 *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제12차 협상 참석</p> <p>조선중앙통신,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2.26) 비난 논평</p> <p>-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큰소리 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일심단결의 토대를 침식하려는 것일 뿐임.</p>	<p>- 일본 외무성 국장급과 북한 대사급 간 부간의 비공식 회담을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갖고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화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미·북 핵 의혹 협상” 관련 언급 * 정례 브리핑</p> <p>- 그 동안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조속한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음.</p> <p>- 미국은 인도적 식량원조의 경우, 필요성이나 평가, 자원 등에 의해 원조 여부를 결정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식량 원조를 연계하고 있음.</p> <p>- 미국은 미·북 핵동결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0	<p>당정회의, “대북 지원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논의 *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 회의 결과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인도적 지원방식을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정부차원의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기로 함. - 투명성을 높이고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십자사 등을 통해 비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음.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직접 지원은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및 민간차원의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음. - 출소 남파간첩 송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 일방적인 송환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남북자 및 국군포로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음. 		<p>태국 네이션지,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부부, 피납후 탈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순경 참사관 부부가 3.9 밤 태국에서 북한인 4명에 의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으며, 북한인들은 아들(홍원명)을 데리고 도주했음. <p>日 아사히신문, 페리 조정관 방한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 고위당국자들과 페리 조정관의 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 일치를 강조했으나 우선순위를 둘러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0	<p>현대,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 계획 발표</p> <p>- 불교계와 공동으로 신계사를 복원키로 하고, 최근 평양을 방문한 대북경협실무단이 이를 「아·태평화위」측에 제의했음.</p>		
3. 11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대북문제 포괄적 해결” 강조 * 「민화협」 초청 조찬강연</p> <p>- 한반도 냉전구조 근본해체는 ▲남북간 불신해결과 화해협력,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북한의 개방 및 시장경제화,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 ▲정전체제를 남북평화체제로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p> <p>-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창리 지하시설과 미사일 문제 등을 안보문제로서만 아니라 정치·경제·통상까지 합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함.</p> <p>-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수 없</p>	<p>노동신문, “연합회의’ 제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촉구</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제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이 말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 행동에서는 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p> <p>- 우리가 제기한 선행 실천사항들은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의 새 출발을 위한 것이며, 통일지향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임.</p> <p>-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선행 실천사항들을 하루빨리 이행한다면 상반기 안에라도 대화를 하자는 입장임.</p> <p>김정일, 강원도 토지정리사업再현지 지도 * 이용무, 김국태, 김기남, 박송봉, 이용철 등 동행</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북·미 뉴욕협상 10일째 회의관련 브리핑</p> <p>- 미·북 양측은 10일 협상내용에 대해 본국정부와 협의했으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진전이 이루어 졌음.</p> <p>페리 조정관,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김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 *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진 「예방적 방위」 저서 설명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1	<p>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과 위기를 회피하면서 해야 함.</p> <p>정세현 통일부차관,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통일을 위한 대안” 등 언급</p> <p>* 금강산관광 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p> <p>-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임.</p> <p>- 남북간에 군사력 경쟁 등 분단비용도 엄청난 만큼 북한을 자극해 벼랑끝으로 몰아 넣지 않는 포용적인 자세가 중요함.</p>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p> <p>* 기자회견</p> <p>-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백 85억원 상당의 비료 5만톤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생산 및 수송과정과 관련 정부당국과 협의 중임.</p> <p>- 정부의 승인 등 필요한 준</p>		<p>-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한·일 양국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p> <p>- 그러나 포용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것인데 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즉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폭넓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p> <p>-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상황이 전쟁 위기는 아니며, 이번 재검토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1	<p>비철차를 거쳐 3.15부터 6.15까지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비료는 파종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북한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p> <p>방북 정주영회장, 판문점 통해 귀환 * 기자회견</p> <p>-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지역에서의 해수욕장 개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음.</p>		
3. 12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전역 미사일체계’ 수립” 관련 언급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미국의 전역미사일체계 수립 책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국화를 지향하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패권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음.</p> <p>조선중앙통신, “Y2K 문제는 남한의 군사장비들에 있다”고 주장</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컴퓨터 오동작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군사장비들의 질적 수</p>	<p>러 이타르타스 통신, “카라신 외무차관, 중국·북한 방문 계획” 보도</p> <p>- 카라신 차관은 3.13 중국을 방문, 한반도 문제와 미·일의 TMD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어 3.15~18 북한을 방문, ‘북·러 우호·협력·선린조약(가칭)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2		<p>준과 통신체계가 낙후 하다는 인상을 조성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군대의 위신을 깎아 내리려는 것임.</p> <p>-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래식 무기에 의거하고 있는 남조선의 낙후한 군사장비들에 있음.</p> <p>노동신문,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 수립 계획 비난 논평 * 전쟁위험을 증대시킬 뿐이다</p> <p>- 미국이 대조선 전략을 포기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면 구태여 이 지역에 있는 미군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도 없고, 막대한 자금과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전역미사일방위체계를 전개하지 않아도 될 것임.</p> <p>- 이 같은 책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과 냉전을 몰아오며 전쟁위험을 증대시킬 뿐임.</p> <p>노동신문, '통일을 거부하는 본심이 무엇인가?' 제하의 논평 발표</p> <p>- 남조선 집권자는 '임기 중에는 통일이 될 수 없다'는 등</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2		<p>민족과 통일문제를 우롱하는 언동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제기한 선행 실천사항들을 이행하는 데로 나와야 함.</p>	
3. 13	<p>국가정보원, '북한용어 영문 표기집' 발간</p> <p>-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기사 중에서 사용되는 특수 용어, 복합문장, 주요 단체명 및 지명의 영문표기를 종합한 조영(朝英)·영조(英朝) 사전을 제작, 3.15부터 일반 판매됨.</p>	<p>노동신문, 생화학무기 보유설 유포관련 비난 논평</p> <p>* 극히 파렴치한 날조 모략선전</p> <p>- 미국은 북의 생화학무기개발과 보유설을 내돌리면서 반공국 모략소동을 더한층 악랄하게 벌이고 있음.</p>	<p>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日 총리, "대북 제재조치 해제 검토" 시사</p> <p>* 주일 한국특파원 회견</p> <p>- 북한이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한다면 대북 국교정상화협상·식량지원 중단 등 기존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p> <p>-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KEDO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이지만 미·북협상에서 확실한 사찰 협의가 없는 한 일본 국회에서 KEDO 분담금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임.</p>
3. 15	<p>정원식 「한적」 총재,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요청 '서한' 발송</p>	<p>「조평통」, '한자병용정책' 추진관련 비난 성명</p>	<p>주룽지(朱鎔基) 中 총리, "미사일·핵무기 개발관련 北에 영향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5	<p>*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앞</p> <p>-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납북자 454명의 명단과 생존이 확인된 한국군 포로 231명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였음.</p> <p>- 한국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요청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외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북한 내에 한국군 포로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음.</p> <p>- 납북자들의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이들이 하루 빨리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이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의 한자병용 정책 추진을 언어에서까지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는 극악한 반역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온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함.</p> <p>증방, “카라신 외무차관 일행 평양 도착” 보도</p>	<p>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p> <p>*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기자회견</p> <p>-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무기 개발 현황을 모르며, 이와 관련해 독립국가인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음.</p> <p>- TMD 구상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향해 6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임.</p> <p>러시아방송, “북·러, 정치·경제·동북아 정세 논의” 보도</p> <p>- 방북 중인 카라신 외무차관 일행과 이인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새 조약 체결문제와 함께 정치·경제·통상·접촉 추진문제, 동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5			<p>아 정세문제를 논의하고 있음.</p> <p>- 이번 협상에서 북·러간 새 조약이 가조인될 것임.</p>
3. 16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미·북간 금창리협상 매듭 단계” 등 언급 * 기자 브리핑</p> <p>- 미·북간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 협상이 거의 매듭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문 채택만 남겨 놓은 것 같음.</p> <p>- 금창리 협상이 타결되나면 미·북간 미사일회담 4차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임.</p>	<p>평방, ‘3단계 일괄타결안’ 관련 대담 보도 *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찬 3단계 일괄타결안</p> <p>- 3단계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은 대북 현안이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마치도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고, 저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있는 현실도피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임.</p>	<p>미·북, 금창리 지하 시설 관련 제4차 미·북협상 타결 * ‘공동언론 발표문’ 발표</p> <p>- 북한은 미국 대표단이 '99년 5월 금창리 시설을 최초로 방문토록 초청하고, 동 시설의 장래 용도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추가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에게 금창리 시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p> <p>- 미국은 양국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음.</p>
3. 17	<p>정원식 「한적」 총재, ‘국회의장 서한’ 및 남북기본합의서</p>	<p>평방,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변종”이라고 보도</p>	<p>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日 외상, 미·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7	<p>이행·실천 촉구 '국회결의문' 판문점 통해 北에 전달 *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p> <p>< 박준규 의장 서한 > * 수신: 김영남 위원장</p> <p>-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p> <p>- 위 결의문을 귀하에게 보내니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함.</p> <p>< 국회 결의문 ></p> <p>-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민족화해의 대장전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함.</p> <p>- 남북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함.</p> <p>- 남북 쌍방 의회차원의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함.</p>	<p>- 햇볕이든 포용이든 다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완전히 배치되는 철저한 반공화국, 반통일 대결론임.</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4.7) 소집 공시 * 대의원 등록: 4.5~6, 만수대 의사당</p> <p>중방, '고위급정치회담' 제의관련 보도 *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p> <p>-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자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햇볕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우리의 연합회의 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야 함.</p>	<p>협상 타결 환영 성명</p> <p>-북한이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강리를 충분히 방문하도록 미국에 허용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함.</p> <p>추안 립파이 태국 총리, “북한외교관 추방 방침” 언급 * 홍순경씨 납치사건 관련</p> <p>-태국은 북한이 홍순경씨의 아들 원명군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납치 사건 관련 외교관을 추방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임.</p> <p>러 이타르타스 통신, “북·러간 신조약 가조인” 보도 * 이인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 가서명</p> <p>-양국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신조약에 가조인 했으며, 두 나라가 외부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7	<p>외교부 대변인, 금창리 시설 관련 미·북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금번 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길 기대함. - 나아가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확산 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 협정, 미·북한 제네바 합의 등 제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 나감으로써 여하한 핵의혹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람. <p>해군, “남해안 격침 北 잠수정 인양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2.18 남해안 침투도중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p>홍순영 외교부장관,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 발생시 엄중한 대응”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외신기자 초청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이 생기게 되면 이는 제네바 합 		<p>침략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한 지난 '61년의 '조·소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삭제됨.</p> <p>日 요미우리신문, “北 핵의혹시설 금창리 외 4군데 더 있다”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영변 북동쪽의 자강도에서 대규모 지하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또 이 공장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지하시설이 건설 중임을 확인했음. - 이 밖에 평북 태천과 구성사이의 지역에서 지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평북 구성군 하갑 지역에도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7	<p>의 및 금창리 합의 정신에 반하고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한·미 양국은 이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임.</p>		
3. 18	<p>대한축구협회, 정몽준회장 남북 연기 발표</p> <p>- 정 회장의 방북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양측에 일부 이견이 있고 실무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북한 방문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음.</p> <p>통일부, '남북경협 민·관 자율조정실무기구' 출범 예정 발표</p> <p>- 정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남북경협추진실무협의회'(가칭)가 3.19 정식으로 출범함.</p> <p>- 3.19~20 경기도 용인 한국수출입은행 연수원에서 정부, 민간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의 남북경협 실무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기구</p>	<p>노동신문, '핵 및 생화학 전쟁도발 기도의 산물' 제목의 글 보도</p> <p>-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 보유설은 평화애호적인 우리를 중상모해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 및 생화학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전주곡임.</p> <p>「외무성」 대변인, 제4차 북·미 뉴욕협상관련 언급</p> <p>*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 입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우리의 요구를 접수한다는 데 대하여 약속하였음.</p> <p>- 우리측은 철두철미 사찰이 아니라 우리의 초청에 따라 미국 대표단이 금창리 현지를 방문하여 건설대상을 참관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로 하였음.</p>	<p>태국 네이션지, "북한, 홍순경씨 아들 무조건 석방의사 표명" 보도</p> <p>- 협상 대표 단장으로 북한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고 온 이도섭 북한 외무성의전국장은 3.17 위라삭 푸트라쿰 태국 외무부 동아시아국장과 3시간 동안 회담을 마친 후 태국기자들에게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나, 석방시기는 말하지 않았음.</p> <p>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日 총리, "금창리 시설 현장방문시 일본도 참여 희망" 표명</p> <p>* 중의원 방위지침 특별위원회</p> <p>- 미국의 현장방문시 일본이 동참, 관련 시설을 직접 확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18	명칭과 운영 방안을 확정함.		할 수 있다면 일본 국민에게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협력을 구하기가 쉬워질 것임.
3. 19	<p>각계 인사 70여명,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수 연세대 총장 등 학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 국내외 양식적인 시민들이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 <p>정부, 「한적」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5만톤 상당의 비용 지원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인덕 통일부장관 주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인도적 차원에서 「한적」 대북 비료지원사업에 비료 5만톤 구입과 수송에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포함한 18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 	<p>중방, '한·일투자협정' 체결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국적인 투자협정 체결은 저지되어야 한다 - 새로 체결될 한·일투자협정은 일본 독점자본에 남조선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임. 	<p>카라신 러 외무차관, "북·러 신조약 한반도 안정에 기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회견 - 이 조약이 러·북한 관계 발전의 훌륭한 법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러시아가 현재 한국 및 북한과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의 안정에도 부합 될 것임.
3. 20	한·일 정상, "대북포용정책	노동신문, "美 정보국장의 訪韓	日 교도통신, "北,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0	<p>공조 강화" 등 합의</p> <p>*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청와대)</p> <p>-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에게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당면 현안 해결과 함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과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음.</p> <p>-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실험발사는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p> <p>- 오부치 게이조 日 총리: 북한에 대해선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 등 안전보장 상의 당면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북 대립구조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함.</p>	<p>을 칼을 품은 호전광의 비밀행각"이라고 논평</p> <p>- 미 방위정보국장의 빈번한 남조선 행각은 남조선에 전역 미사일방위체계를 전개하여 북남대화 제의 실현에 제동을 걸고 대결을 조장시켜 군사적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것임.</p>	<p>드컵경기 평양 개최 곤란 표명" 보도</p> <p>* 장 옹 북한 IOC위원 교도통신 기자회견(스위스 로잔 IOC 본부)</p> <p>- 장 위원은 "정치를 떠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월드컵 경기를 평양에서 여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견해를 표명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0	<p>-일본으로서도 한·미 양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북간의 제반 문제의 해결과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p>		
3. 21		<p>노동신문, 출소남파간첩 송환문제 관련 비난 논평 * 천만부당한 행위</p> <p>- 北 출신 비전향장기수들과 군 포로 및 남북자들을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내용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새로운 모략 책동임.</p>	<p>日 아사히신문, “북·미, 금창리 주변 지역도 사찰 합의” 보도 * 미 정부당국자 인용</p> <p>-미국과 북한은 3.16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합의하면서 지하시설 부근 산에 건설 중인 댐 등의 지상 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기한 부속문서에 합의했음.</p>
3. 22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대북포용정책 추진방안” 등 언급 * '99년 국정개혁 과제 보고</p> <p>- 만약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하겠음.</p> <p>국가정보원, “북한군 영양실</p>	<p>조선중앙통신, “북한 식량사정 을 해도 심각하다”고 보도</p> <p>-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고립압살 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사정은 올해에도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p> <p>- 곡물 생산량은 평년 생산량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었으며, 우리는 다양한 대용식품으로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제임스 폴리 美 국무부 대변인, “北에 식량 10만톤 원조” 언급 * 브리핑</p> <p>-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WFP의 평가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0만톤의 식량을 원조키로 했으며, WFP가 추가로 대북지원을 호소할 경우 이에 부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2	<p>조로 부대별 보양소 운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군부대별로 콩 재배, 염소사육 등을 통해 부식을 조달하여 영양실조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 영양실조 사병관리를 위해 '90년대 초 사단급 부대에 8백명 규모의 보양소를 신설한데 이어 '95년 이후에는 연대·대대급 부대에도 각각 1백명·30명 규모의 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p>중방, “민족자주와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본담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과 정당들은 사대와 외세의존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진정으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길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연합회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p>중방, 홍 장관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우선 않는다”는 언급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3.19) 내용을 ‘허황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난 -홍순영 외교부 장관이 남조선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있다고 하면서 통일된 조선도 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문제와 북남관계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요약해 놓고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흡수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p>할 것임.</p> <p>모하메드 IAEA사무총장, “대북 실무협상 성과없이 끝났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이사회 기조연설 -IAEA와 북한은 제12차 실무 협상(3.9~12, 평양)을 갖고 몇몇 사소한 문제들을 해소했으나, IAEA가 지난 '94년 11월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조치를 시작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p>日 지지통신, “미국, 北에 미사일수출 규제대가로 경제제재 완화제의 방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정부당국자 인용 -美 정부는 평양에서 개최(3.29~30)되는 북한과의 4차 미사일협상에서 미사일수출 규제 대가로 금수완화와 대북 투자 허가 등 포괄적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2			<p>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북한에 제의할 방침임.</p> <p>-미사일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측은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북한 내 광산 개발과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미기업의 투자 허용, ▲한국기업과 북한의 합작기업이 제조하는 상품 수입 해금 등 완화조치를 취할 계획임.</p> <p>美 국제개발처(AID), 대북 감자 증산 계획 발표</p> <p>- 북한의 감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술팀을 북한에 파견, 향후 2년간 북한 3개 지역에서 감자 증산 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음.</p> <p>- 미국 내 민간자원기구들과 협력, 북한에 1천톤의 씨감자를 지원하고 감자생산에 종사하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2			<p>북한주민들을 위해 10만톤의 옥수수과 쌀을 별도로 지원할 것임.</p>
3. 23	<p>정원식 「한적」 총재, 대북지원물품 전달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p> <p>-‘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 합의서’와 우리측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99년도 두 번째 추가지원 구호물자로 의약품 및 부자재를 귀측에 전달함을 알림.</p> <p>-3.24~27 사이에 인천에서 출항하는 정기선 소나편을 이용, 귀측 남포항으로 운송될 예정임.</p>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출소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송환 요구 성명 발표</p> <p>-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노인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두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 모두를 무조건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제14차 중앙과학기술전(3.23~27) 개최</p>	<p>유럽의회, EU-북한간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레오 틴데만스 벨기에 전 총리 발의</p> <p>-EU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할 시기임.</p> <p>-EU 각료회의와 집행위가 브뤼셀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함.</p> <p>전 태국 외교관 홍순경 씨 아들 홍원명씨 타이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석방 후 기자 회견(태국 외무성 청사)</p> <p>-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북한에 가고 싶음.</p> <p>-북한은 김일성 수령 밑에서 변영과 안정을 이룩했고 '90년대 들어서는 경</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3			제·사회적으로 급속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 돌아가서 실상을 보고 싶음.
3. 24	<p>김대중 대통령, “출소남파간첩 北送 용의 국군포로·납북자도 보내야 함” 등 언급 * 통일부 국정개혁 보고서</p> <p>- 이번에 석방된 장기수(출소남파간첩)들을 북한에 보낼 용의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도 억류 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보내 가족 품에 안기도록 해야 할 것임.</p> <p>-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전을 앞세우지 말고 실리를 취하도록 해야 함.</p> <p>-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북한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북한의 장단점과 김정일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함.</p> <p>- 북한과 실무자급이나 정부 지도자급 대화는 물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등 어떤 레벨에서도 대화를</p>	<p>「조평통」 서기국, 洪 외교부 장관의 ‘자유민주주의’ 발언(3.19) 관련 비난 보도 발표</p> <p>-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통일할 필요도, 통일이라는 의미도 없다고 망발한 것은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공화국 북반부까지 연장하려는 추악한 속심임.</p> <p>조선중앙통신, 「탈북자동지회」 결성 관련 비난</p> <p>- 탈북자들 속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불평불만과 반항심을 무마시켜 그들을 순종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임.</p> <p>평방, “외세와의 공조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도</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지향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해야하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4	<p>할 생각이 있으나 서두르지 않는 것임.</p> <p>강인덕 통일부장관, “통일부 '99년도 국정개혁 과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의 지속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금년 하반기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할 것임. - 남북당국간의 대화창구 개설에 역점을 뒀 실무차원의 접촉창구를 통해 남북관계 현안을 타개해 나갈 것임. - 대북지원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적십자 협의 채널 유지 및 적십자회담 개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p>정원식 「한적」 총재, 비료 전달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물자는 복합비료 5천톤으로 우리측 선박 'SELPA' 호에 실려 3.30 오전 여수항을 출항, 4.1 오전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 	<p>노동신문,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군사훈련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침전쟁 발발을 기정 사실화하여 전쟁연습을 보다 실전으로 접근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준비를 완성하고 있는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5	<p>홍순영 외교부장관, 北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 첫 공론화 *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p> <p>-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북한 당국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p> <p>-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돼 있듯이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음.</p> <p>통일부 대변인, (주)CNA 코리아 '협력사업자' 승인 발표</p> <p>- 정부는 '99.3.25자로 (주)CNA코리아를 '99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였음.</p>	<p>조선중앙통신, "국회의장 남북의 회 대화 제의 '대북서한'(3.16)" 관련 반응 보도 * 정원식 「한적」 총재, 장재언 「북적」 위원장 앞 전달(3.17)</p> <p>- 남조선 국회의장이 진실로 통일지향적인 대화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측에 편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에 대화의 선행 실천사항을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셨어야 할 것임.</p> <p>- 남조선의 국회의장은 예의와 상식도 없이 편지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북남대화의 선행 실천사항이 이행되도록 자기가 할 일이나 바로 처신해야 할 것임.</p> <p>조선중앙통신, 새 '양어법'(6장 49조) 채택 보도</p> <p>-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양어정책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음.</p> <p>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 개막 (3.25~26, 인민문화궁전)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및 보고</p> <p>- 과학자·기술자들은 전기문제</p>	<p>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北 위협 줄어들면 주한미군 재평가" 언급 * 한국지역 정책연구원 초청강연</p> <p>- 시간이 지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면 주한미군과 관련한 대응수위 등을 재평가할 수 있지만, 대응이 바뀌려면 위협 자체가 사라져야 함.</p> <p>산케이신문, "日 해역 침범 괴선박은 北공작선"이라고 보도 * 일 정부소식통 인용</p> <p>- 日 해역을 침범한 괴선박은 선체의 특징 등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 공작선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한 3.24 오후 괴선박 1척이 북한 북부 나진으로 입항한 사실이 미군 정보로 밝혀졌음.</p> <p>쉴미과학자협회, "北 미사일 공장 4곳 보유"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5		<p>와 식량문제를 풀고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긴절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p>	<p>* 귀순자 최주환· 임영선 증언 인용</p> <p>- 현재 북한에 적어도 4곳 이상의 미사일 제조공장과 10곳 이상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p> <p>- 미사일 생산시설로는 ▲부품을 생산하는 26호 공장(자강도 강계시), ▲발사체 엔진을 생산하는 118호 공장(평남 개천시 가감리), ▲미사일을 조립하는 125호 공장(평양시 형제산구역 중계동), ▲폭약을 만드는 약전 기계공장(평양시 만경대리) 등이 있음.</p>
3. 26	<p>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러시아 방문 예정” 언급</p> <p>- 임 수석은 3.28~31까지 러시아를 방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 외무고위당국자 등과 협의할</p>	<p>노동신문, “국회의장 남북의회 대화 제의 ‘대북서한(3.16)’ 관련 논평</p> <p>* 분수에 맞지 않는 주제넘는 행동</p> <p>- 남조선 국회의장의 편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의장’ 앞으로 보내져야 할 것임.</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미·북 미사일 협상시 엄격한 규제 추구” 언급</p> <p>* 브리핑</p> <p>-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수출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6	예정임.	<p>- 남조선 국회의장은 편지놀음을 거듭하면서 대화에 대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남대화의 선행 실천사항이 이행되도록 자기가 할 일이나 챙겨야 할 것임.</p> <p>조선중앙통신, "전 태국외교관 아들 홍원명 北으로 인도 요청" 보도</p> <p>- 그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박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홍원명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로 됨.</p> <p>중·평방, '美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 보도</p> <p>- 미국 정부는 10만톤의 식량과 감자생산을 위한 작업 식량 10만톤, 감자종자와 감자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각각 제공할 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음.</p> <p>「외무성」 대변인, 나토(NATO)의 유고공격 비난 담화</p> <p>- 코소보문제는 유고슬라비아의 내부분제로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 군사적 힘의 사용으로는 결코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p>	<p>므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추구할 것임.</p> <p>태국 경찰, "홍순경씨 납치사건 관련 북한인 4명 자수" 발표</p> <p>장주환(張九桓) 中 외교부 아주국장, 김정일의 방중협의 부인(서울)</p> <p>- 김정일 방중설과 관련 북·중 사이에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북한도 김정일의 방중의사를 전달해 온 바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7	<p>한·미, 북·미 미사일협상 관련 사전 협의(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권종락 미주국장 · 미국: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p>「외무성」 대변인, 괴선박 일본 영해 침범 부인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심선(괴선박)이라는 선박들에 대해 애당초 아는 바 없으며, 이는 일본반동들이 꾸며낸 또 하나의 계획적인 반공화국 모략책동임. - 일본 우익반동세력들은 불심선 추적사건이라는 유치한 자작극으로 저들의 군국화 책동을 합법화하고 조미·조일관계를 파괴하려 함. <p>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및 학위학직 수여식(인민문화궁전)</p> <p>* 이종옥, 최대복, 조창덕, 이광호, 최기룡, 김수학 등 참가</p>	
3. 28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한·미·일 3국 협조체제 강조(베를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함. <p>韓·美, 북한 미사일 생산·발사 기지 15곳 위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생산·저장시설은 평양근교 산음동 병기연구 	<p>「조평통」 대변인, 문익환 목사 평양 방문 10돌 즈음 담화</p> <p>제7차 「범민련」 의장단 회의 진행(3.28~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련」 남측본부대표는 ‘문건교환방식’으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는 첫째 주체 88(1999)년 범민련 투쟁방향과 과업, 둘째 제10차 범민족대회 개최문제, 셋째 해내외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문제, 넷째 조직문제 등을 의제로 상정· 	<p>日 요미우리신문, ‘노동 미사일’ 배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지난 2월 하순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 북부 용오동 부근에 배치된 여러 기의 ‘노동 미사일’을 촬영해 일본정부에 전달했음. - 미국은 노동미사일이 이미 10기 이상 실전 배치된 것으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8	<p>소 외에 별하리 병기공장 (자강도), 금천리 지하기 지(강원도) 등 8곳, 발사기 지는 대포동(함북), 신오리 (평북)를 비롯한 7곳으로 대부분 지하화 되어 있음.</p>	<p>토의했음.</p> <p>-제7차 범민련 공동 의장단 회의 결의문과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민족자주와 대단결 호소문이 채택됨.</p>	<p>로 보고 있으나 배치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임.</p> <p>-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 1,300km로 일본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감.</p>
3. 29		<p>조선중앙통신, 출소남파간첩송환 관련 미국 책임·의무 이행 촉구 논평</p> <p>- 원래 포로문제는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우리와 미국사이에 토의, 완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음.</p> <p>- 미국은 이제라도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도록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 그렇게 하는 것이 유골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p> <p>평방, 노동신문, '호국99' 합동훈련' 관련 비난 논평</p> <p>- 국민 통치배들이야 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가장 악랄한 전</p>	<p>제4차 북·미 미사일 협상 개최(3.29~30, 평양)</p> <p>* 미국: 아이훈 미국 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북한: 한창언 외무성 북미국장</p> <p>- 이번 회의기간 중 5월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단의 방북 관련 전문가회의도 개최 예정임.</p> <p>日 아시히신문, "北 바코드 도입 예정" 보도</p> <p>-북한은 작년 10월 바코드 번호를 관리하는 국제 바코드협회가입을 신청, 5월 총회에서 90번째 가입국으로 정식 승인될 예정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29		<p>쟁 미치광이 무리라는 것이 다시금 똑똑히 드러났음.</p>	<p>ASEM 외무회담,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확립 노력 지지” 표명 (베를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폐막 성명 - 대량 파괴무기 확산 예방을 포함한 공동의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대화와 접촉이 계속 되길 희망함. -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확립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미·북 기본합의서의 지속과 KEDO 사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3. 30	<p>「한적」, 2차 대북 비료(5천톤)지원 4월 7일 예정 * 통일부 관계자 언급</p> <p>- 1차 대북 지원 비료 5천톤을 실은 화물선(셀파호)이 3.30 여수항에서 남포항으로 떠난 데 이어 4.7 2차분 비료 5천톤을</p>	<p>노동신문, “미·북협상 합의 이행에 한·일 양국이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 논평</p> <p>- 일본 당국자들이 ‘사찰에 참가할 의향’을 내비치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핵개발 욕망을 포기시키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느니 얼빠진 망</p>	<p>북·미 제4차 미사일 회담 종료(평양)</p> <p>자유아시아방송(REF), “미국인천우봉사회, 대북 물품지원 계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리스 앤드루 북한담당 REF 기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0	북한에 보낼 예정임.	받을 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뒤집어 얹으려는 책동임.	회견 - 올해 40만달러 상당의 비료와 농업용 비닐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며, 감자와 옥수수 등 최신 작물연구에 관한 정보도 지원할 것임.
3. 31	<p>김대중 대통령, “중소기업 유휴설비 北 이전시 지원” 시사 * 산업자원부 '99 국정개혁 보고회의</p> <p>-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이나 중국에 이전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함. 특히 북한으로 이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p> <p>담배인삼공사, “북한산 잎담배 465톤 반입” 발표</p> <p>- 북한산 황색종 잎담배 465톤을 인천항을 통해 반입했으며, 이 물량은 '98년 맺은 남북 잎담배 교류 계약분 694톤 가운데 작년 12월 1차로 반입된 황색종 229톤에 이은 마감</p>	<p>「외무성」 대변인, 제4차 미사일 회담 언급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미사일을 개발, 시험, 생산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임.</p> <p>-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게 미사일 수출증지 대 현금보상제안을 내놓았음.</p> <p>「조평통」 대변인, ‘대북참구 다원화 조치’ 발표(2.10)관련 비난 담화</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창구 다원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과도 모순되는 뒤집어 놓은 창구 단일화 책동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님.</p> <p>-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北에 300km 이상의 미사일 발사중단 요구” 언급 * 미·북 미사일협상관련 브리핑</p> <p>- 국제규범인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 CR)는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비록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 범주를 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서는 안 될 것임.</p> <p>오부치 日 총리, “괴선박 사건 불구 대북 대화노선 견지” 표명 * 중의원 미·일 방위협력지침 특별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3. 31	<p>분입.</p> <p>강인덕 통일부장관, “남북경협 참가 기업, 대북투자 타당성 검토 필요” 언급</p> <p>* 신경영 혁신 최고경영자 조찬회 특강</p> <p>- 남북경협에 나서는 기업은 경제성 조사 등을 통해 대북투자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남한 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함.</p> <p>- '98년 말에서 '99년 초 남북경협이 주춤한 것은 나진·선봉 등에 있는 무역요원의 교육 및 교체시기였기 때문이었으나 이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북한 경제의 미비한 제도적 장치, 열악한 투자환경 등으로 남북경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p> <p>- 북한은 지난해 UNDP 등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중견간부 110명을 해외에서 자본주의 교육을 받게 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간부를 미국, 중국, 호주 등지에서 교육시킬 예정임.</p>	<p>창구 다원화 조치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회의에서 내놓은 북남대화의 선행 실천사항들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처럼 책동하고 있는 것임.</p> <p>「외무성」 대변인, 美의회의 ‘국가미사일방위체계 개발 법안’ 채택 (3.17~18) 관련 비난</p> <p>*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국가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책동은 세계 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별세계 전쟁계획의 재판임.</p> <p>- 미국이 핵미사일과 대량 파괴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체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생산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응당한 권리임.</p> <p>금창리 핵관련 북·미 실무 회담 (3.31~4.3, 평양) 개최</p> <p>- 미국측이 ‘참관료’를 내는 조건에서 5월부터 진행될 금창리지역과 관련 지역에 대한 방문내용과 방법, 장비 등 기술·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했음.</p>	원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	<p>해양수산부, “남북 화물선 인도양서 충돌” 발표</p> <p>-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현대 듀크호’와 북한 화물선 ‘만폭호’가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수마트라섬 중간해역에서 충돌, ‘만폭호’가 침몰했음.</p> <p>- ‘만폭호’에 타고 있던 선원 39명 중 2명이 구조되고 37명이 실종되었음.</p>	<p>「조평통」 대변인, 「국가정보원」 비난 성명</p> <p>평방, ‘여성기동경찰대’ 조직 관련 비난</p> <p>* 국민과소광의 광대놀음</p> <p>- 여성기동경찰대를 시위현장의 교통질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침투시켜 핵심 성원들을 색출하여 체포 투옥하며, 인민들의 정의의 진출을 막아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p>	<p>로버트 아인혼 美 국무부 부차관보, “北의 미사일 수출 중지 대가 요구 거부” 언급</p> <p>* 안도 히로야쓰 日 아시아국 심의관과 회담</p> <p>- 미·북 미사일 협상 시 북한측은 미사일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북한의 권리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미사일 수출을 중지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음.</p> <p>- 또한 북한에 미사일 수출 뿐만 아니라 개발, 배치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전했다.</p>
4. 2	<p>국가정보원, “북한, 주민 배치사업 추진” 언급</p> <p>*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p> <p>- 북한은 지난해부터 평양과 지방도시 주민 2백만 명을 지방과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주민 재배</p>		<p>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 5천톤 이상 화학무기 보유” 보도</p> <p>* 美 과학자연합 자료 인용</p> <p>- 북한이 안주, 청진 등 적어도 8개 지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	<p>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업은 북한 정권 수립이후 최대 규모로 전체 주민의 8%를 차지하며, 이주 대상은 무직자, 징계처분자, 범법자 등 성분 불량자와 지방출신자 및 농촌 연고자임. - 주민 재배치 과정에서 이주 대상자를 강제로 할당함에 따라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살하거나 이혼하는 일이 빈발하고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p>장영식 한전사장, "평양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언급 * 기자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해 말 방북한 정주영 회장을 통해 평양근처에 10만KW급 발전소를 지어 달라는 요청을 해왔음. -현재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평양 발전소 건설 문제를 협의 중임. 		<p>에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 5천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p> <p>-북한은 1954년부터 중국과 구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지금까지 생화학 무기 개발과 생산을 계속하고 있음.</p>
4. 3	<p>김대중 대통령, "통일 후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p>	<p>조선중앙통신, "유럽의회 글린 포드일행, 열차로 평양에 도착"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3	<p>언급</p> <p>* 육·공군 장성들의 진급 및 보직 신고</p> <p>- 북한은 미군이 평화군이 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해도 좋다고 미군의 존재 를 인정하는 말을 했음.</p> <p>- 이는 주한미군 철수반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햇볕정책에 대한 하나의 호응이라고 생각함.</p> <p>-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뿐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균 형과 현상유지를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 야 함.</p>		
4. 4	<p>외교통상부, “북한, 만폭호 생존 선원 2명 인수” 발표</p>	<p>「조선 묘향해운운선중개회사」 대 변인, ‘남북선박 충돌사건’ 관련 담화</p> <p>- 이번 사건이 북남 민간선박 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므로 당국은 물론 3국이나 3자가 개입함이 없이 쌍방 당사자 들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 장에서 문제를 순조롭게 해 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 정함.</p>	<p>日 도쿄신문, “북한 정 탐선 7척 日 영해 침 범” 보도</p> <p>* 日 방위청 소식통 인용</p> <p>- 日 항공자위대 레이 더가 3.21 동해쪽 이시키와현 노토반 도 부근 해역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북 한 정탐선 7척을 발 견했으며, 이 중 5 척은 당일 바로 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4			반도 해역으로 돌아갔으나 2척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가 3.24 일본군의 추격을 받고 도주했음.
4. 5	<p>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한 공동상표 부착 담배 생산·판매 계획” 언급</p> <p>-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조만간 베이징에서 잎담배 계약 재배, 제조공장 설립 등 기존의 대북 예정 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북한의 공동상표가 부착되는 담배를 시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임.</p> <p>- 이미 북측에 공동브랜드 시판 등 담배관련 대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에 대해 내부의견을 정리하고 있음.</p>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67 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p> <p>* 조명록, 김영춘, 현철해 등 수행</p>	
4. 6	<p>김성훈 농림부장관, “남북 공동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실시 계획” 언급</p> <p>* 국무회의</p> <p>- 북한이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지원을 요청해 오</p>	<p>장재언 「북적」 위원장, 남북산 박 총돌 사건관련 ‘대남 전통문’ 발송</p> <p>* 정원식 「한적」 총재 앞</p> <p>- 이번 사고는 북과 남의 민간 회사 사이의 예상치 않던 충</p>	<p>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미국 방문</p> <p>* 빌 클린턴 대통령 및 앨 고어 부통령과 회담(4.8)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광범위하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6	<p>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우리측 방침에 민간차원에서 반응을 보여 공동방제를 하게 되었음.</p> <p>- 이를 위해 오는 4.9~10 남북간에 공동방제를 위한 협의를 하고, 5월중 보다 상세한 실무협의를 거쳐 6월 중 약제·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p>	<p>돌사고로서 여기에 당국이 기여들 명분은 없다고 봄.</p> <p>- 북과 남의 동족사이에 발생한 이번 사고의 성격에 부합되게 다른 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푸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함.</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국토환경보호상 장일선·도시경영상 최중건 임명</p> <p>「조평통」 서기국, '자유총연맹 창립 10주년 기념행사(3.31)' 관련 비난 보도 발표</p> <p>- 남조선 집권자가 자유총연맹이라는 최악의 집단을 찬양하면서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한 것은 앞으로 계속 반북대결과 파쇼화책동의 일선에 서달라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님.</p> <p>중방, “北 의회대표단, IPU(101차 총회) 참가차 평양 출발” 보도</p>	<p>계 협의할 예정임.</p>
4. 7	<p>통일부, “남북한, 의약품 교역문제 논의 예정” 언급</p> <p>-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고 김영배</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4.7~9) 개막(만수대 의사당)</p> <p>*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등</p>	<p>KEDO·북한, 북한측 경수로 발전소 운영요원 훈련에 관한 2차회담(뉴욕 KEDO 본부)</p> <p>*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2기를 운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7	<p>회장 등 대표단 6명이 '한약재교역협약 및 의약품 지원실태 파악'을 위해 5일간의 일정으로 4.6 방북했음.</p> <p>- 이번 방북에서는 남북한 간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 교역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될 것임.</p> <p>국가정보원, "손재술(국군포로) 등 5명, 최근 제3국 통해 귀순" 발표</p>	<p>- 채택의안: ①'98년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99년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p> <p>- '98년 국가예산 수입총액은 197억 9,080만원으로서 계획을 98%로 수행하였으며, 국가예산 지출총액은 200억 1,521만원으로 계획을 99%로 집행하였음.</p> <p>- '99년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총액은 각각 203억 8,172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수입총액은 103%로, 지출총액은 101.8%로 늘어나게 됨.</p> <p>중방, "99년 1/4분기 공업생산량, 지난해 대비 30% 성장" 보도</p> <p>-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2월에는 1월보다, 3월에는 또다시 2월에 비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력, 석탄, 강철, 압연강재 등의 생산이 늘어났음.</p>	<p>할 북한 요원들의 훈련에 관한 일반 원칙과 훈련계획 수립 등을 논의함.</p> <p>노니카 日 관방장관, "KEDO 분담금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기자회견</p> <p>- 북한의 경수로 2기 건설을 위한 KEDO 지원분담금 10억달러 제공 계약이 최종 단계에 달했음.</p> <p>- KEDO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구라고 생각하며, 최근 일본과 북한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KEDO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임.</p> <p>클린턴 美 대통령, "중국, 북한 플루토늄 생산 중단 설득" 등 언급 * 미 평화연구소 연설</p> <p>-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치 못하도록 납득시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7			고, 현재는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4. 8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주한미군 문제' 관련 정부 기존 입장 재확인</p> <p>-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이나 미·북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p> <p>-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 논의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함.</p> <p>-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 제2일회의 진행(만수대 의사당)</p> <p>* '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보고 및 토의</p> <p>- 인민경제계획화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유력한 수단이며,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임.</p> <p>- 인민경제계획법은 지난 기간 계획사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구체적인, 혁명적인 사회주의 계획법전임.</p> <p>- 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어떠한 분권화나 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것임.</p>	<p>WFP, "7월부터 1년간 북한에 식량 58만 4천톤 지원 방침"</p> <p>* 한국 정부관계자 언급</p> <p>- 데이비드 모튼 WFP 인도조정관 겸 평양사무소 소장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새로운 호소(appeal) 기간 북한의 어린이, 노약자를 위해 모두 58만 4천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p> <p>노틸러스 연구소, "북한, 나토의 유고공습에 자극받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p> <p>* 러 현대국제문제 연구센터의 보고서 '유고공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 인용</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8	<p>강인덕 통일부장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포괄적 타결” 강조</p> <p>*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축사</p> <p>-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타협과 대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타결하고 이행해 나가야 함.</p> <p>- 한반도 냉전구조의 발전적인 해체문제는 평화와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관건임.</p> <p>정부,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협의차 남측 대표단 방북” 언급</p> <p>* 정부당국자 인용</p> <p>- 유종근 수목보호회장을 비롯한 우리 민간 전문가 4명이 4.9 북한 장전항으로 들어가 「아·태평화위」측과 공동방제 문제를 협의함.</p>	<p>중방, 김대통령의 미군주둔 발언(4.6) 관련 비난 논평</p> <p>* 통일에 역행하는 행위</p> <p>- 그 누구의 침략이요, 세력군형이요, 뭐요 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합리화하는 수작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님.</p>	<p>- 유고공습을 지켜본 북한 당국은 미국이 최소한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독수리처럼 달려들어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치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북한은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p>
4. 9	<p>韓·이집트 정상회담 개최</p>	<p>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9	<p>- 양국 정상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데 합의했음.</p> <p>-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반응을 김대통령에게 알리기로 했음.</p>	<p>폐막</p> <p>- '98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99 국가예산, 인민경제계획법 채택</p> <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전문 6장 48조) 발표</p> <p>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p> <p>-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사상 이론의 절대적인 숭배자, 옹호자가 되어 당 및 국가, 군 건설과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함.</p>	
4. 10	<p>LG칼텍스정유, "北에 중유공급 예정" 발표</p> <p>- KEDO가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올해 4월분 북한 중유 공급자로 선정돼, 4.11 여수항 내 전용부두에서 중유 2만 3천톤을 선적할 예정임.</p>	<p>「조평통」 전원회의 진행(인민문화궁전)</p> <p>* 박성철, 김용순, 김영대, 류미영, 오익제, 안경호(신임 「조평통」 서기국장) 등 참가</p> <p>-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구호' 만장일치로 채택</p> <p>-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구호'를 남조선과 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낼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p>	

■ 4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0		<p>데 대해서 언급</p>	
4. 11	<p>통일부, “北, 95년 이후 경제 관련법 14건 제정” 등 발표</p> <p>- 북한은 지난 '95년 이래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2차 회의 때까지 기존의 시행 사항을 종합정리, 성문화 하는 형식으로 경제관련 법 14건과 시행규정 3건을 만들었음.</p> <p>- '95년 이후 제정된 경제관련법은 ▲인민경제계획법, ▲양어법, ▲농업법, ▲발명법, ▲공중위생법, ▲에너지관리법, ▲무역법, ▲의료법, ▲도로법, ▲물(水)자원법, ▲가격법, ▲전력법, ▲재정법, ▲수산업 등임.</p> <p>- 경제관련 시행규정은 ▲전력법 시행규정, ▲재정법 시행규정,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등임.</p> <p>국가정보원, “北, 1억달러 규모 모르핀·헤로인 밀매” 발표 * ‘북한의 마약 밀매 실태 및 확산동향’ 자료</p> <p>-북한은 약 50톤의 아편 중 1억달러 상당인 5톤의 정</p>	<p>'4월축전' 및 '태양질' 관련 행사 동향</p> <p>-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 개막(4.25문화회관)</p> <p>- 제1차 김일성화 전시회 개막(평양 국제문화회관)</p>	<p>태국 방콕 포스트지, “美, 홍참사관 일가 망명처 제공” 보도</p> <p>- 미 대사관 직원들이 태국 당국에 대해 홍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며칠 뒤 홍씨 일가에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1	<p>제된 모르핀과 헤로인의 밀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최종판매 대상국임은 물론 이들 국가를 한국을 겨냥한 경유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p>		
4. 12	<p>통일부,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4.10)” 언급</p> <p>-남북한의 민간 수목전문가들이 4.10 금강산 아산사무소에서 두 차례 접촉을 갖고 금강산 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해 협의 후, 4.11 구룡폭포 관광코스 주변의 소나무 피해상황도 둘러보았음.</p>	<p>‘태양절’ 관련 행사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구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수령님과 전우관’ 개관식(조선혁명박물관) - 전국여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여성회관) <p>조선중앙통신, “올해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도 농업부문에서 전년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증편하고, 전당, 전군, 전인민이 농업에 매달렸으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음. - 올해 국가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1%나 늘려 편성하고 감자농사와 가축사육, 경작지 확대 등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나, 올해의 	<p>아에라 日 시사주간지, “김덕홍, 北 핵무기 이미 보유 언급” 보도</p> <p>* 아에라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병호 북 군수담당 비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우라늄을 들여와 핵무기 개발을 시작,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갖고 있으며, ‘서상곡’이라는 60세 전후의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핵개발에 주요 역할을 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2		<p>식량사정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p>	
4. 13	<p>외교부 당국자, “「한총련」 8.15 축전 대표(김대원), 북한 망명 사실” 언급</p> <p>- 지난해 8.15통일대축전 참가차 밀입북 했다가 네팔 주재 북한대사관에 머물러 오던 김대원씨가 4.12 네팔을 떠나, 4.13 베이징을 경유, 북한으로 입국했음.</p>	<p>「외무성」 대변인, “한·미연합 전시증원 훈련 계획 비난 담화” 발표</p> <p>- 4.13부터 시작한 한·미연합 전시증원 훈련은 한반도에 미군증원을 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임.</p> <p>- 만일 미국이 코소보나 이라크에서처럼 우리에게 대해 힘의 논리를 시험하려 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파멸을 초래하는 부주의한 자살행위가 될 것임.</p> <p>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114호를 통해 군장성(79명) 승진인사 단행</p> <p>*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p> <p>- 상장 이병삼, 중장 권옥필·김선주, 소장 김동인 외 75명</p> <p>‘태양절’ 관련 행사동향</p> <p>- 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예식(금수산기념궁전)</p> <p>- 외무성, 북한주재 외교단 성</p>	<p>제임스 폴리 美 국무부 대변인, “제5차 ‘4자회담’ 개최” 언급</p> <p>-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 5차 본회담이 4.24 제네바에서 재개되며, 이번 회담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를 벌이게 될 것임.</p> <p>- 이번 회담을 전후해 미·북간 양자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3		<p>원들을 초청, 기록영화 '위대한 생애의 1994년' 감상</p>	
4. 14	<p>김대중 대통령,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준수 의지" 표명 * 월레 기자간담회</p> <p>-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준수 의지는 확고하며,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와 있고, 주권 국가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p> <p>-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임.</p> <p>통일부, '98년 하반기 북한 경제 동향 발표</p> <p>- 북한의 지난해 하반기 무역실적이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8년도 북한 수출입 총액은 '97년의 21억 8천만 달러 규모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줄어든 14억~15억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음.</p> <p>-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기</p>	<p>김일성 생일 8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보고), 이종욱, 박성철, 이을설, 서만술, 최홍희, 김기남(사회) 등 참석</p> <p>조선중앙통신, 한·이집트 정상회담(4.9)관련 비난 보도</p> <p>- 한·이집트간 정상회담을 갖고,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공조를 요청한 것은 남북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지각없는 행동임.</p>	<p>英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紙, "북한, 베트남에 미사일 판매" 보도</p> <p>- 러시아제 스커드 B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이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1억달러 상당의 스커드 C 미사일을 구입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4	<p>상조건의 좋아 전년보다 11% 가량 증가하였고, 국제사회로부터 90만톤의 식량지원을 받아, 올해 식량사정은 작년보다 나은 것으로 예상함.</p>		
4. 15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작업 시작” 강조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강연</p> <p>-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법적 통일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만드는 데 현 정부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p> <p>-대북 포용정책은 동구 시민혁명을 초래한 유럽의 데탕트정책을 본뜬 것이며, 한반도에선 아직 데탕트 과정을 못 밟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 함.</p> <p>김순권 박사, “방북 계획” 언급</p> <p>-4천여종의 옥수수 종자를 북한 내 10개 농장에 시험 파종하고, 비료와 옥수수 지원사업과 남북 결연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YMCA, 한국 선한 사마리아인회 관계자 등 3</p>	<p>‘태양절’ 관련 행사동향</p> <p>-노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제하의 사설 발표</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p> <p>·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붉은기, 영예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p> <p>·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p> <p>-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영원한 태양의 노래 진행(김일성광장)</p> <p>조선중앙통신, “김정일, 조총련 교육 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 보도 * 1억 1,990만엔</p> <p>대동강 유람선 ‘평양 1호’ 올해 첫 운항</p>	<p>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규제 추진” 언급 * 미 하원 세출위원회 답변</p> <p>-금창리 지하시설의 흑해소를 위한 현장접근에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규제를 추진할 것임.</p> <p>-오늘날 한반도 상황만큼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없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일 양국 및 중국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음.</p> <p>리일즈 美 공군중장, “북한, 전역미사일 600기 보유” 등 언급 * 미 상원 국방소위원회 증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5	<p>명과 함께 4.16부터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함.</p>	<p>-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평양 1호'가 운항을 시작했다.</p> <p>- 800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이 배는 '86년 5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1백 50만명의 유람객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주었음.</p>	<p>-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약 600기의 전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p> <p>- 북한은 지난해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통해 3단계 탄도미사일에 소형 탄두를 실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배치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p>
4. 16	<p>통일부, "5개 민간단체, 대북 지원 독자활동 추진" 언급</p> <p>- ▲KNCC 북한동포후원연합회, ▲한국 조인 투게더 소사이어티, ▲한국이웃사랑회, ▲유진벨 재단, ▲월드비전 등 5개 민간단체가 북한과 개별적으로 대북지원을 협의, 추진하고 있음.</p> <p>통일부, 서울·평양교환 국제음악회 '남북협력사업' 승인</p>		<p>美 국무부 고위관리, "페리 대북정책권고안, 내달 北사찰 후 제시" 언급</p> <p>-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이후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것임.</p>

■ 4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6	<p>- (주)CNA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음악회의 서울·평양공연을 문화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승인했음.</p>		<p>- 대북정책 권고안과 관련해 페리 조정관이 한·일 양국의 고위관리들과 재차 협의하기 위해 4.24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간 고위 정책 협의를 가질 것임.</p>
4. 17	<p>통일부, “올 1/4분기 방북인원” 등 발표</p> <p>- 올 1/4분기 방북인원은 125건 638명으로 작년 대비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작년 6월 이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공사 인력의 대거 방북(76건 399명)에 따른 것임.</p>	<p>김용순 노동당 비서, “남북고위급회담 상반기 개최 희망” 표시</p> <p>- 김정일 노작 ‘은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발표 1돌기념 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p> <p>-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앞에 나서는 당면한 중심 과업은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내놓은 제안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임.</p> <p>- 연합회의 제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의 당국대화, 진실로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마련하는 것임.</p> <p>- 남조선에서 선행 실천사항들이 이행된다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이라도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음.</p>	<p>佛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ING베어링은행 평양지점 폐쇄” 보도</p> <p>* 북한 금융소식통 인용</p> <p>-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원조금을 들여오는 주요 창구인 ING 베어링은행(네덜란드계 투자은행) 이사회는 앞으로 6주 이내에 평양지점을 철수하기로 최근 결정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18		<p>중방,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4.10~18) 폐막 보도 * 폐막사: 장 철 축전조직위원장</p> <p>- 김정일에게 보내는 참가자들의 편지가 채택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양형섭이 낭독함.</p>	
4. 19		<p>민족화해협의회 상무일군협의회 개최(평양)</p> <p>- 백범 김 구 선생 피살 50돌이 되는 올해 6.26에 평양에서 김 구 선생 회고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함.</p> <p>- 여기에 김 구 선생과 함께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기로 함.</p> <p>김영남, 방북 중인 콘라드 라이저 총무 등 WCC 대표단 면담</p>	
4. 20		<p>노동신문, "4자회담 의제로 주한 미군 철수문제 채택" 주장 * 잠꼬대 같은 소리</p> <p>- 4자회담을 진행하는 목적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서인 만큼 미군철수문제가 기본토의 의제로 되어야 하</p>	<p>슐레진저 전 미국 국방장관, "北 핵보유시 일본의 핵무장 촉발 가능성" 언급 * 미 상원 외교위원회</p> <p>- 만약 북한이 핵능력을 획득하게 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0		<p>며, 이것을 떠난 4자회담은 필요가 없음.</p> <p>- 미국이 미군철수문제를 4자 회담에서 제쳐 놓으려는 목적은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흥정판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임.</p> <p>남북 등진호 선원, “自意에 의한 북한 체류” 주장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가 공화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공화국에 남았음.</p>	<p>다면 일본이 이 같은 사태발전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 방향으로 나갈 것임.</p>
4. 21	<p>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남북경협, 합영·합작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p> <p>-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 방식은 위탁가공보다는 합영·합작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p> <p>필립공(엘리자베스 여왕 부군)일행, 판문점 방문 * 영국 BBC 등 내외신 기</p>	<p>조국통일연구원, 「국정원」 정채고발 '진상공개장' 발표</p> <p>-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바꾼 것은 ▲기만적인 기구 개편 놀음, ▲수사권의 보유와 대북관련 기능의 확대, ▲반북모략과 파괴, 암해 책동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국정원」이 이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를 훨씬 능가하는 반북 파쇼집단임을 실증하는 것임.</p> <p>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남조선 생화학무기개발 관련 성</p>	<p>日 산케이신문, “김국태 北 노동당 중앙위 비서, 뉴욕병원 입원” 확인 보도 * 미 정부 소식통 인용</p> <p>- 김국태 비서가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음.</p> <p>- 북한 고위간부의 신병치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반적인데 미국의 최고 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1	<p>자 10명 동행</p> <p>- 4.21 판문점을 방문, 자유의 집 및 군정위 회의실 등을 시찰</p>	<p>명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생화학 무기 개발과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반복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생화학 보유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것임.</p>	<p>준의 병원에서의 치료는 그가 김정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임.</p>
4. 22	<p>통일부, 민주노총 방북 승인</p> <p>- 민주노총의 이규재 통일위원장과 조준호 통일위원이 4.26~30까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p> <p>장선섭 경수로 사업지원 기획단장, “한·일 경수로 차관 제공, 사실상 타결” 언급</p> <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의 분담금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협상이 최근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차관제공 협정의 서명을 앞두고 이를 비준받기 위한 국내절차에 들어갔음.</p>	<p>「범청학련, 북측본부,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 봉쇄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 제7차 총회 개최(평양)</p> <p>*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단 성원 및 중앙위원 참가</p> <p>- 첫째 안건 ‘범민련 운동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고,</p> <p>- 둘째 안건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단 성원 및 중앙위원 보선에 대하여’를 제기, 일부 의장단 성원들과 중앙위원을 보선함.</p>	<p>라이저 WCC 총무, “남북 정부접촉,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p> <p>* 방북(4.17~20) 결과 기자회견</p> <p>-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외국의 시장경제와 교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등 서서히 개방으로 나오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어 올해 안으로 남북한 정부의 접촉이 성사될 것으로 보임.</p>
4. 23	<p>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예정</p>	<p>김정일, 방북 중인 서만술 총련 중앙상임위 제1부의장 접견</p>	<p>추안 태국총리, “망명北 외교관 홍순경 가족</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3	<p>* 정부 고위당국자 언급</p> <p>-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윌리엄 페리 조정관, 가토 료조 외무성 종합정책실장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4. 24~25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p> <p>- 이번 협의회는 내달로 예정된 페리 보고서 완성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3국 간 협의 내용이 페리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며,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임.</p> <p>통일부, “남북교역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건수 증가” 발표</p> <p>- 금년 1~3월 중 대북 물자 반입·반출, 위탁가공 협의 등을 목적으로 105건, 181명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을 승인 하였음.</p> <p>-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5건, 107명에 비해 건수로 61.5%, 인원은 69.2%가 증가한 것임.</p>	<p>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남조선 생화학 무기개발관련 비난성명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비축 채동을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규탄함.</p>	<p>보호 중”이라고 언급</p> <p>- 지금 홍씨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으며,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태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태국의 입장임.</p> <p>교도통신, “미·북, 금창리 핵사찰 美 대표단 15명선 합의” 보도</p> <p>* 미 외교소식통 인용</p> <p>- 다음 달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을 방문 조사할 미국 대표단 규모를 15명선으로 하는데 미·북 간 합의했음.</p> <p>- 그러나 방문기간과 촬영장비 사용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자회담 기간 중 협상을 계속할 것임.</p>
4. 24	제5차 4자회담(4.24~27)개막(제네바)	조선인민군 창건 67돌 관련 행사동향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4	<p>- 박건우 수석대표: 4차 본 회담에서 분과위 운영절 차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전체회의 보다는 분과위 회의에 주력하기 바람.</p> <p>- 김계관 수석대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문 제가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미국과 북한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함.</p> <p>- 카트만 수석대표: 이미 이루어진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회담을 발전시켜야 하며, 분과위를 활용, 4차 회담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함.</p> <p>- 첸용년(錢永年) 수석대표: 이번 회담의 주된 과제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각 분과위의 세부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임.</p>	<p>-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 문화회관)</p> <p>* 김영남, 조명록, 이종욱, 박성철, 홍성남, 이을설, 김영춘(보고) 등 참가</p>	
4. 25	<p>제5차 4자회담 '긴장완화 분과위'·'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회의 개최(4.25~26)</p> <p>* 의제선정 미합의</p>	<p>조선인민군 창건 67돌 관련 행사동향</p> <p>- 노동신문,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필승불'</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의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함. -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북한측 입장과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대립됨. 	<p>패이다' 사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및 조선인민군 제963 군부대 관하 군분대와 제690 군부대 군인들의 군사훈련 참관 	
4. 26	<p>국가정보원, '북한의채현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채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권 국가들에 45억 5천만달러, 중국, 러시아, 체코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73억 5천만달러 등 총 119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음. 	<p>「외무성」 대변인, "미국, 미사일 문제에 2중 기준적용"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이 사정거리 300km의 '현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다고 함. - 이에 대해 미국은 양해각서에 위반된다고 외형상 항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300km 이하 미사일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등 2중기준을 적용함. - 지금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협상 중에 있는데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개발을 묵인, 조장하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행위이며,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6		적대행위임.	
4. 27	<p>제5차 4자회담 폐막, 공동언론 발표문 발표</p> <p>-2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실질적 문제에 관한 상세한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환되었고, 그들의 활동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으나, 이 보고에는 각측 입장간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포함됨.</p> <p>-4자는 차기 회담에서 한반도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긴장완화 조치들을 검토,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평화체제의 윤곽을 더 심도있게 모색할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함.</p> <p>박건우 수석대표, 제5차 4자회담 폐막관련 기자회견</p> <p>- 이번 회담은 4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p> <p>- ▲남북한 군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 인사교류, ▲군사훈련 사전 통</p>	<p>민주노총 대표단 평양 도착</p> <p>*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규재 등 2명</p> <p>-이규재 통일위원장은 평양 도착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의 노동계급이 민족의 화해와 민족대단결 및 조국의 통일을 위한 걸림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남과 북의 노동계급이 만났다”고 언급</p>	<p>미·북, 금창리 시설 현장조사 최종 타결</p> <p>* 美 국무부 관계자 언급</p> <p>-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 참석 중인 미·북 대표는 그 동안 핵시설로 의심 받아온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의 일정과 조사단 규모 등에 관해 합의하였음.</p> <p>-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으며, 곧 발표가 이루어질 것임.</p> <p>조선신보, “조총련, 대북 농업지원 중요성 강조” 보도</p> <p>* ‘농업의 실정과 전망에 관하여’ 주제로 열린 강연회</p> <p>-북함미생물비료가 토질 개량, 농산물의 내병, 내한성 제고에 효과적이기 때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7	<p>보 및 참관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해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문제 의제화를 고집,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음.</p>		<p>에 재일 조총련 과학기술협회는 북한에 비료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p> <p>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중의원 통과</p> <p>-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은 주변사태 법안의 수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력(ACSA) 등 3개 법안임.</p>
4. 28	<p>정세현 통일부 차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 등 언급</p> <p>* 한림대 한림과학원 주최 DMZ 야외토론회 참석</p> <p>-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협의, 타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음.</p> <p>-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p>	<p>「조평통」 서기국, 방북 한총련 대표 ‘황 선’에게 징역형 선고 관련 비난 보도</p> <p>-남조선 통치배들은 황 선 대표를 비롯한 모든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내외 인민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반통일적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해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8	<p>과제는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북한의 정상적인 대외관계 회복,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협력관계 구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및 한반도 군비통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임.</p>		
4. 29		<p>「외무성」 대변인, 제5차 4자회담 관련 언급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번 회담에서 미군 철수와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토의는 한사코 외면하면서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려는 것은 4자회담을 탁상공론으로 대치해 보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음.</p> <p>「외무성」 대변인, 「미·일방위협력지침」日 국회 통과(4.27) 관련 비난 담화</p> <p>- 일본은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법적으로 조일관계를 교전관계로 고착시킨 것이나 다름 없음.</p> <p>노동신문, 「한미연합 전시증원」(ROSI)연습 비난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4. 29		<p>* 힘에 의한 공화국 압살은 미국의 변함없는 기도</p> <p>-미국이 결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으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p>	
4. 30	<p>통일부, “문의환목사 추모행사관련 전국연합의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 발표</p> <p>-북측이 오는 6.1 중국 룡징에서 열자고 제의한 문목사 추모모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16 홍근수 전국연합공동의장 등 2명이 낸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음.</p>	<p>조선중앙TV,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동정 보도</p> <p>- 방북 중인 민주노총 대표단이 4.28~30사이 만수대 창작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하였음.</p> <p>「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 대통령의 미사일문제 언급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계획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p> <p>- 중동평화의 유린자인 이스라엘이 남의 자주권 문제까지 걸고 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 단임.</p>	<p>美 국무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계속 지정</p> <p>* 올해의 ‘테러지원국 보고서’</p> <p>- 美 국무부는 '87년 11월 KAL기 폭파 사건으로 '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올해까지 11년째 지정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		<p>노동신문, 5.1절 관련 사설 발표</p> <p>* 강성대국 건설에서 조선 노동계급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p> <p>-우리 노동계급은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대오이며, 견결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임.</p> <p>노동신문, 미·일방위협력지침 중 의원 통과 관련 비난 논평</p> <p>* 재침은 파멸의 길이다</p> <p>- 새 일·미방위협력지침은 바로 조선침략전쟁을 노린 일·미의 공동시나리오이며, 주변 유사시 법안들은 그 연출 각본임.</p>	<p>교도통신, “파키스탄 시험발사 미사일은 北노동 1호 개량형” 보도</p> <p>* 美 정부당국자 인용</p> <p>- 파키스탄이 지난달 중순 시험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우리 2’는 북한이 개발한 ‘노동 1호’의 개량형으로 확인되었음.</p> <p>-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가 파키스탄에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우리 2’의 시험발사 자료가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p>
5. 2	<p>통일부, “민주노총 방북 승인 기간 넘겨 북한 체류 중” 입을 언급</p> <p>- 4.26~30까지 방북승인을 받아 평양에 들어간 민주노총 대표단이 현재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은 채 북한에 체류 중임.</p> <p>- 지난 4.30 베이징으로 향</p>	<p>민주노총 방북(4.27~5.4) 동정</p> <p>-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제2차 실무회담 개최</p>	

■ 5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	<p>하는 북한 항공편이 없어 민주노총 대표단이 평양을 떠날 수 없었더라도 5.1에는 예정된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어야 했음.</p> <p>- 만약 민주노총 대표단이 북한의 노동절을 비롯한 정치성 행사에 참가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검토 등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음.</p> <p>통일부,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건수(’99.1~4월)” 등 발표</p> <p>- ’99년 1~4월 제3국에서 이뤄진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82건으로 작년 동기 19건에 비해 4.3배 증가했음.</p> <p>- 또한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은 128건, 서신교환은 24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배, 1.3배 늘어났음.</p>		
5. 3		<p>평방, 대북포용정책 철회 요구 논평</p> <p>- 원래 북남관계에서 포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북남관</p>	<p>美·日 정상, “북한 핵·미사일 의혹관련 한·미·일 공조” 등 합의</p> <p>* 정상회담 후 공동</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		<p>계와 통일문제에서 이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우렁이 자 모듬으로 당장 건어 치워야 함.</p> <p>평방,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불변의 통일강령”이라고 보도</p> <p>-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들은 진실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입장으로 되돌아 와 확고한 공동의 기초 위에서 북남 관계를 전진시켜 나가야 함.</p>	<p>기자 회견(워싱턴)</p> <p>-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의혹과 관련 한·미·일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억지 전략을 병행하기로 합의함.</p> <p>-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을 위해 일본이 KEDO에 10억달러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함.</p>
5. 4	<p>민주노총 방북단 귀국</p> <p>- 4.26 북한을 방문한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과 조준호 통일위원이 5. 4 오후 중국 베이징을 거쳐 귀국함.</p> <p>- 이들은 공항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 많은 교류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5.5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p>		<p>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p> <p>* 연례보고서</p> <p>- 지난해 심각한 기아와 경제난 등으로 북한 정권의 미래는 암울한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등 경제회복 단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4	<p>「민화협」,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2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北에 제의</p> <p>* 상임의장 공동기자회견</p> <p>- 「민화협」은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27주년을 맞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내달 초 서울, 평양 또는 북한이 희망하는 제3의 장소에서 갖자고 제의함.</p>		<p>에 접어들고 있음.</p> <p>- 이에 따라 남북한간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통일은 한국 주도하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졌음.</p>
5. 5	<p>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 언급</p> <p>* CNN 주최 '제10회 세계 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p> <p>-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남북간 화해·협력, ▲북한의 대외 개방 환경조성,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함.</p> <p>민주노총 대표단,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평양 개최 합의" 등 발표</p> <p>* 방북(4.27~5.4) 결과 기</p>	<p>「직총」 중앙위 대변인, 남한 각계 노동자 투쟁관련 성명 발표</p> <p>-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야수적 폭압만행을 공화국 북반부 전체 노동계급과 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함.</p> <p>「조평통」 대변인, 중국 동북 3성지역에서의 남한 정보활동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 남조선은 중국 동북 3성지역을 대북 정탐모략 책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용, 정보원과 통일부의 지령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첩보, 모</p>	<p>대북지원 비정부기구(NGO) 국제회의, 4개 실무그룹회의 후 폐막(베이징)</p> <p>- 대북지원과 관련, ▲이슈제기, ▲NGO 네트워킹, ▲지원방법, ▲경제적 포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 4개 실무그룹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상황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긴급구호와 함께 장기적인 발전 지향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5	<p>자회견</p> <p>-남북 노동자축구대회를 오는 8.10 평양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8월 중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 노동자축구대회를 정례화시킬 방침임.</p>	<p>략, 압해 채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 있음.</p> <p>-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채동을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선전포고로 간주함.</p>	
5. 6	<p>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北에 평화보장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p> <p>* 佛 르몽드지 회견</p> <p>-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에 평화 보장을 제안할 것임.</p> <p>- 우리는 북한에 대해 위협하지 않을 것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며, 북한도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생산 및 핵개발 계획을 단념해야 할 것임.</p>	<p>조선중앙통신, “민주노총(남)과 「직총」(북)간 남북축구대회 개최 합의” 보도</p> <p>- 양측은 5.2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오는 8.10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번 축구대회를 내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p> <p>평방, “김정일, 4년간 3백 30여 군부대 시찰” 보도</p> <p>- 김정일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 사후 4년여에 걸쳐 3백 30여 곳의 군부대를 현지시찰 했으며, 이는 11만 5천 7백여리의 머나먼 길이였으며, 국방공업의 새로운 비약을 위한 길이였음.</p>	
5. 7	<p>이수성 백범기념사업협회 회</p>	<p>평방, 탈북자들의 美 의회 북한</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장, 김 구 선생 50주기 추모 행사 관련 대북 서한 판문점 통해 전달</p> <p>*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앞</p> <p>- 백범 서거 50주기 추모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 보다는 서울에서 여는 것이 유족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함.</p> <p>- 이번 행사에 귀족 인사들이 참석할 경우 그 의의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백범 50주기 추모행사에 귀족 인사들을 정중히 초청함.</p> <p>한광옥 「민화협」 공동상임의장 등 9명, 7.4성명 27주년 관련 '예비회담' 개최 제의 대북서한 판문점 통해 전달</p> <p>*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앞</p> <p>- 7.4성명 27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6월초 서울, 평양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인권 증언 관련 비난 논평</p> <p>* 백해무익한 어리석은 모략 책동</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처럼 너절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벌이면서 그 무슨 화해와 대화에 대하여 떠벌이는 것은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기만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p>	<p>부 대변인, “금창리 지하시설 첫 현장조사 실시” 등 언급</p> <p>* 정례 브리핑</p> <p>- 금창리 지하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미국의 기술 전문가단이 5.18 북한에 도착할 것임.</p> <p>- 이번 방문의 목적은 금창리 지하시설의 성격과 이곳에서 벌어진 활동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7	<p>-예비회담에서는 행사시기, 장소, 행사내용, 참가범위 등 제반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음.</p> <p>고위 당정 협의, “경수로 비용 국제발행을 통한 조달” 등 합의</p> <p>-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기료의 3% 이내에서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이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음.</p> <p>-대신 올해 필요한 3,300억 원의 자금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국제로 조달하기로 했음.</p>		
5. 8	<p>강인덕 통일부 장관, “北 지도부, 세계사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p> <p>* ‘새 세기와 한국, 21세기 신동북아 질서’ 주제 국제학술회의 참석, 기조연설</p> <p>-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채 대결과 통제 아래서 체제 생존 전략을 구하고 있으나, 이제라도 경직된 대결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p>	<p>김정일,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동지’ 관람</p>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김용순 등 관람</p>	<p>日 니혼게이자이 신문, “페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등 보도</p> <p>* 관계 소식통 인용</p> <p>-북한정책 수정 보고서의 골격은 억지와 대화에 의한 포괄적인 대처를 기적으로 삼아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문제에서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8	<p>흐름에 동참해야 함.</p> <p>-우리는 북한이 정상적이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역내 국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에서 안보와 협력의 큰 틀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p>		<p>고 있음.</p> <p>-또한 남북대화의 촉진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인 납치의혹의 해명 요구에 대해 미국측의 지지입장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임.</p> <p>- 특히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북, 일·북 관계개선을 검토하되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원조를 중지토록 명기하고 있음.</p>
5. 9		<p>노동신문, 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비난 논평</p> <p>* 검은 속심은 버려야 한다</p> <p>- 일본의 최고위 당국자가 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 회견이 라는데서 미사일 발사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를 결코 든 것은 하나와 같이 사실 무근한 고질적인 악습임.</p>	<p>“미·북 2차 유해공동 발굴, 5.25부터 실시” 언급</p> <p>* 한국 정부소식통</p> <p>-북한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양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미군 유해발굴 공동작업이 5.25부터 6.17까지 평북 구장과 운산 지역에서 시작됨.</p>
5. 10	<p>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서둘러야겠다”고 언급</p>	<p>평방, “출소 남파간첩 송환 촉구” 논평 발표</p>	<p>리루이환(李瑞環) 중국 「정협」 주석, “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0	<p>* 전북도청 방문시 지역기 자들과 회견</p> <p>-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 고 평화공존을 하면서 교 류·협력을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며, 꼭 정상회 담을 해야 모든 것이 된 다고 생각하지 않음.</p> <p>-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여 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도 이 과정에서 할 여건이 되 면 당연히 하겠지만 서들 지는 않을 것임.</p>	<p>* 새로운 모략책동의 이면에 무 엇이 있는가</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비전향장 기수들에 대한 표현이나 바 꾼다고해서 남조선 사회에 붙은 인권 후진 지역이라는 오명이 벗겨질 수 없고, 비전 향 장기수 송환을 가로막는 반민족·반통일행위가 가리워 질 수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전향장 기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비열한 모략책동을 당장 견 어 치우고 인민들의 일처한 요구대로 그들을 지체없이 가족이 기다리는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함.</p> <p>北·쿠바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의위원회' 제19차 회의 개최 (평양) * 회의 의정서 조인</p>	<p>북 평화정책 퍼면 곧 통일 이를 것"이라고 언급</p> <p>* 방한 중 김종필 국 무총리와 회담</p> <p>- 남북 쌍방이 평화 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 서로 의견차를 좁 히고 관계를 개선 한다면 조속한 시 일 내에 평화적 통 일을 이를 것으로 확신함.</p> <p>윌리엄스버그, 국제회 의 폐막(5.7~10) 후 토론결과 발표</p> <p>-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폭넓 게 지지하며, 한국 이 미·일의 전역 미사일방어(TMD) 체제 가입을 거부 한 것은 동북아 안 정을 위해 매우 의 미가 큼.</p>
5. 11	<p>김대중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남북대 화 추진" 등 언급 * 미국의 소리(VOA) 방송 과의 회견</p>	<p>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성의 '테 러 연례보고서' 비난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 공화국은 존엄있는 유</p>	<p>튼 미아트 WFP 자 원국장, "北 기아에 점차 적응 중"이라고 언급 * 방북(5.4~11)결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1	<p>- 현재로선 남북한간 정상 회담이나 당국자간 대화가 예정된 것은 없으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대화해 나갈 것이며,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주저 없이 수용할 것임.</p> <p>-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에 대해 휴전선과 서울간의 거리가 가까워 국방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참가할 생각이 없음.</p>	<p>엔성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p> <p>-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제재완화 등 적대시 정책의 해소를 위해 응당 취하게 되어 있는 조치들을 회피하고, 우리에게 테러감투를 씌우는 비열한 수법으로 저들의 행위를 합리화 해 보려하고 있음.</p> <p>조선중앙통신, “외무성, 금창리 관련 미국 실무대표단 초청” 보도</p> <p>- 외무성은 미 국무부 「아·태 문제담당국」 조엘 위트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 실무대표단의 금창리 지역을 방문(5.18~20)토록 초청하였음.</p> <p>「외무성」 대변인, 나토의 중국 대사관 폭격관련 비난 담화</p> <p>- 이는 한 나라의 자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파렴치하게 침해·모독한 범죄행위로서 치솟는 격분으로 준열히 규탄하며, 중국정부와 인민의 항의조치들에 전적인 연대성을 표시함.</p>	<p>언급</p> <p>- 북한에서 기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식량 의존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지난 '97년에 최악의 식량난을 맞이했으나 그 후 차츰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p> <p>- 식량지원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북한인들이 옥수수 껍데기, 식물줄기, 야생동물 등 이른바 '대체식량'을 대규모로 비축하고 있으며, 이 대체식량이 기아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 발생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p>
5. 12	한·일 정상, “전화회담을 통	「조평통」 대변인, ‘연합회의’ 제	교도통신, “중·북한 국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2	<p>해 오부치 총리의 방미 결과” 등 의견 교환</p> <p>*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언급</p> <p>-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방미를 성공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대북 포용 햇볕정책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언급함.</p> <p>- 오부치 총리는 미국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 주기로 했으며, 6자회담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고 언급함.</p>	<p>안 선행조건 이행 촉구 담화 발표</p> <p>- ‘연합회의’에서 당국대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마련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100일이 되어 옴.</p> <p>- 선행 실천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중단과 파탄의 길을 거듭해 온 과거 대화의 총화이며, 북남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차단봉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p> <p>- 남조선 당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대화의 장애물들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용단을 시급히 내려야 할 것임.</p>	<p>경 철조망 신설” 보도</p> <p>* 북한민중구체 긴급행동 네트워크 (RENK) 사무국장 인용</p> <p>- 두만강을 끼고 중국과 접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국경 경비병들이 나무 말뚝을 수십미터 간격으로 세우고 철조망을 치고 있었음.</p> <p>- 이는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음.</p> <p>日 외교소식통, “북·일간 국교 정상화 회담 극비 개최 사실” 언급</p> <p>-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나미 고레시게 日 외무성 아시아국장 과 북한의 「아·태 평화위」 고위 당국자간에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가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2			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
5. 13	<p>홍순영 외교부 장관, 美 방문차 출국</p> <p>- 방미 중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페리 조정관이 준비 중인 대북정책 권고안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며, 올 여름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일정 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p>	<p>평방,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관련 보도</p> <p>- 황해북도에 살고 있는 의거자 한대식(66), 이수갑(68), 조선희(69), 엄일수(72), 김도현(69)은 “자기들은 포로가 아니므로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함.</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카트만 방북 연기” 발표</p> <p>-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조사 준비차 5.13 방북 예정이었던 카트만 특사의 방북 계획이 아메리칸 항공사의 운항 문제로 5.14로 연기되었음.</p>
5. 14	<p>김대중 대통령, “4강외교 마무리하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p> <p>* 대구시 방문, 지방기자들과 회견</p> <p>- 5월말 러시아를 방문, 엘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등 4강외교를 마무리하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있을 것임.</p> <p>- 남북관계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으며, 4강외교가 마무리 되면 북한도 우리 정부의 화해와 협력 등 햇볕정책을 지지하게 될</p>	<p>노동신문, 美 국무성의 연례보고서 관련 비난 논평</p> <p>* 제 코나 똑똑히 씻으라</p> <p>- 미국 내에서 수많은 테러조직들이 정부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각종 테러를 일삼고 있는 사실이 미국이야말로 테러의 본산지이고 테러의 조적국, 집행국, 후원국임을 입증해 주고 있음.</p> <p>- 제 코도 씻지 못하는 주제에 미국이 감히 남을 걸고 들면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음.</p> <p>김영대 「민화협」 회장, 김 구 선생 추모행사관련 이수성 회장과</p>	<p>유엔사, 북한지역 발굴 미군유해 6구 인수</p> <p>- 유엔사측은 '99년도 제1차 미·북 유해 공동발굴단이 지난 4.20~5.13 기간 중 평북 구장군, 운산군에서 발굴한 미군유해 6구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인수함.</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올해 북한에 중유 9만 배럴 제공” 언급</p> <p>* 정례 브리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4	것임.	<p>남북접촉 제의 * 이수성 백범기념사업회 회장 앞 대남 서한</p> <p>- 김 구 선생 추모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6월초 베이징에서 귀하와 만날 것을 제의함.</p>	<p>- 미국은 금년초 북한에 2만 2천t의 중유를 보낸데 이어, 4월부터는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3.4 승인한 올해계연도 KEDO분담금 1차 지출분 1천 5백만달러를 이용, 중유공급을 계속하고 있음.</p> <p>- 금년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된 중유는 총 9만t이며, 이달과 6월에도 공급을 계속할 것임.</p> <p>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방북(5.14~15)</p>
5. 15		<p>노동신문, 코언의 한반도 등 국지전 대비 발언(5.11) 관련 비난 논평</p> <p>* 전쟁 전주곡</p> <p>- 미 국방장관 코언이 "미국은 3개의 국지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대 유고 공격과 함께 조선반도에서도 한차례의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소리임.</p>	<p>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 북한과 금창리 현장조사 협의 등 방북 결과 언급</p> <p>* 방북(5.14~15) 후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초청 만찬 참석</p> <p>-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세 차례 회합을 가졌으며, 금창리 현장조</p>

■ 5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5			<p>사의 기술적 문제를 총점검하고 예정대로 5.18 조사팀이 방북할 수 있는 제반 준비상황에 대한 협의를 완료 했음.</p>
5. 16	<p>통일부, '탈북자 종합생활상담센터' 5.18 개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자들에게 생활편의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생활상담센터가 5.18 이북5도 위원회 청사에서 문을 옴. -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공공기관 이용 안내, 법률상담 등 탈북자의 실제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p>日 산케이신문, "북한, 유고에 군사조사단 파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의 한반도 소식통 인용 -김정일 총비서는 나토에 의한 공습 개시전 유고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4월 하순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조사단을 유고에 파견했음. -조사단의 목적은 유고의 전투방식·공습 대피 방법·나토의 공습실태 등의 조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나토군이 사용한 지하시설 공격 레이저 유도탄의 파괴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6			<p>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북한 식량난 해소 위해 원조 제공” 언급</p> <p>- 식량부족으로 초래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에 400만 호주달러를 즉각 지원할 것임.</p>
5. 17	<p>김대중 대통령, “포괄적 포용정책 북한서 수용 기대” 등 표명</p> <p>*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p> <p>-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북한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함.</p> <p>-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합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하겠으나 이를 최우선시 하거나 최대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균형있게 처리하되 기회가 오면 언제든 할 용의가 있음.</p>	<p>김정일, 탱크자동차병 군관학교 시찰</p>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김국태, 장성택 등 동행</p>	<p>홍순영 장관·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양자회담 후 기자회견(미국)</p> <p>- 홍순영 장관: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한·미·일 3국의 의견이 반영된 대북 권고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음.</p> <p>- 올브라이트 장관: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난 4월 호소를 수용, 북한에 40만톤의 인도주의적 긴급 식량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을 한국측에 통보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7	<p>문익환목사 기념사업단체, 北 「민화협」에 예비접촉 제의</p> <p>-남북 공동의 문목사 회고 모임을 위한 예비접촉을 5.30 중국 룡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 페리 조정관의 방북이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며, 구체적인 방북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p> <p>-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음.</p>
5. 18	<p>이수성 백범기념사업협회 회장, 김구선생 추모행사관련 남북접촉 수락 서한 전달</p> <p>*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앞</p> <p>-6.3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귀하와 만나 추모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p> <p>-만일 귀측의 사정으로 판문점에서 만남이 어렵다면 본인을 대리하는 우리측 관계자를 6.3 베이징에 보낼 용의가 있음.</p>	<p>「직총」, 남한당국 노동정책 비난 성명 발표</p> <p>-지금 남조선에서는 대중적 투쟁에 일떠선 민주노총과 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괴뢰 통치배들의 파쇼적 탄압만행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음</p> <p>-이러한 탄압책동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정의와 인권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행위임.</p>	<p>제임스 폴리 美 국무부 대변인, "금창리 조사단 5.20부터 활동 개시" 등 언급</p> <p>- 미 조사단이 5.18 북한에 도착,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첫 번째 조사 준비에 들어갔으며, 오는 5.20 금창리로 이동해 활동을 시작,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그 부근에 머물 것임.</p> <p>- 조사단의 구성원은 모두 14명으로 미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차출됐으며, 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8			<p>들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만큼 조사를 완료한 후 북한을 떠날 것임.</p>
5. 19	<p>김대중 대통령, “대북포용정책 목표” 등 언급</p> <p>* 빌 텔런트 로이터통신 서울지국장과의 회견</p> <p>-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 번영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임.</p> <p>- 전쟁방지와 화해협력을 위해 북한의 김정일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p> <p>- 북한에 전달될 페리보고서의 내용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재건에 협력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점을 제시할 것임.</p> <p>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조치 입법 예고 발표</p> <p>-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보호키 위해 탈북자 고용기업에 대해 임금의 50%를 정부재원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p>	<p>중방, “UNDP, 북한 지원설비 기증식 개최” 보도</p> <p>* 이원중 농업성 부상, 크리스티앙 르메르 북한주재 UNDP 대표 참석</p> <p>- UNDP가 북한에 지원하는 농업부문피해복구 지원설비 기증식이 5.18 남포항에서 진행되었음.</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787호 발표</p> <p>*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이전 군부파쇼독재자들을 다시 내세우려 한다고 비난</p> <p>- 남조선 통치배들은 유신파쇼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당장 견어치우고 인민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광주 살인마를 역사의 심판대로 끌어내야 함.</p>	<p>벤저민 길먼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북한지원 새규제 법안 의회 상정” 언급</p> <p>- 미 하원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5.19 상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지난 '94년 이뤄진 미·북 기본합의를 이행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권한을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19	<p>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5.21부터 6.1까지 입법예고 함.</p> <p>-또한 탈북자의 최초 취업 일로부터 2년간 보호하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기로 했음.</p>		
5. 20	<p>통일부, “현대실무단, 풍악호 사태 해결 위해 방북” 발표</p> <p>-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등 금강산 관광사업 실무단 12명이 풍악호 사태 해결을 위해 5.21 서울을 출발, 중국 베이징을 거쳐 5.22 평양으로 들어감.</p> <p>- 김 부사장 일행은 평양에서 「아·태평화위」 측과 만나 풍악호 사태를 포함, 금강산 관광 전반과 남북경협 등 포괄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임.</p>	<p>평방, “강원도, 모내기 준비 한창” 보도</p> <p>- 4월초 토지정리를 끝낸 강원도 농촌에서 도내 농업근로자들은 새로 정리된 땅에서의 첫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충천한 기세를 안고 모내기 준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음.</p> <p>평방,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관련 ‘대담’ 보도</p> <p>* 비열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비열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그들을 지체없이 가족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함.</p>	<p>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계획” 언급</p> <p>* 상원 세출위원회 대외활동소위</p> <p>- 페리 조정관이 웬니 셔먼 대사(국무장관 자문관)를 비롯한 소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5.25부터 5.28까지 평양을 방문하며, 방북 기간 중 북한 고위관리들의 견해를 직접 탐색하고 평가하게 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1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금창리 지하시설 조사활동 순조” 언급</p> <p>-14명으로 구성된 미국 조사단이 현재 금창리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단은 북한측으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5. 22		<p>조선중앙통신, “美서 식량 40만 톤 제공” 보도</p> <p>-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난 4월 호소에 호응해 우리나라에 40만t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5.18) 했음.</p> <p>-이런 조치는 두 나라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현안 문제 논의 과정과도 관련됨.</p> <p>「아·태평화위」 대변인, 현대 ‘풍악호’ 입항 지연관련 담화 발표</p> <p>- 현대 풍악호 문제는 우리와 현대사이에 그 입항을 위한 준첩이 끝나고 현대측이 관광객 명단을 우리에게 보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2		<p>오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정식 입항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측이 일방적으로 배를 출항시킴으로써 탄생된 문제임.</p>	
5. 23	<p>현대그룹, “北과 공동 영농 사업 추진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온정리 일대 1만 8천평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 등 농산물을 현대 아산의 금강산 사업소 및 금강산 관광선에 납품하기로 북측의 조선 금강산 관광총회사와 합의했음. - 모두 83만달러가 투자되며 투자대금은 농산물 납품을 통해 3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곧 통일부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 		<p>日 요미우리 신문, “페리 조정관 방북시 한·미 대통령 친서 휴대 예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5 방북하는 페리 조정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며, 오부치 총리는 페리조정관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임.
5. 24	<p>임동원 신임 통일부장관, “대북 포용정책 지속적 추진”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장관 취임 인터뷰(도쿄) - 대화를 구걸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 아래 착실하게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임. 	<p>노동신문, 워싱턴타임즈 기자의 비핵의혹 거론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열한 모략행위 - 워싱턴타임즈 기자는 미 중앙정보국 허위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사그라진 핵개발 의혹 열풍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음. - 이것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금창리 조사단, 활동 종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 브리핑 -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조사(5.18~24)를 위해 북한에 들어갔던 미국 조사팀이 조사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4	<p>-대북 정책은 무엇보다 인내심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금강산관광,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베이징 비료회담 및 남북적십자 회담 등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임.</p> <p>-북한이 헌법개정을 통해 자본주의 이념을 일부 도입한 것도 햇볕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며, 북한 측이 제안한 올 하반기 남북고위급정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p> <p>한·미·일 3국, 고위급 정책 협의회 개최(도쿄)</p> <p>* 임동원 통일부장관, 페리 조정관, 가토 료조 외무성 종합정책국장 참석</p> <p>- 3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3국의 공동된 입장과 각국별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p> <p>-또한 페리 조정관이 5.25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 북측에 전달할 대북 권고</p>	<p>핵개발 의혹을 계속 걸고 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p>	<p>활동을 종결했으며, 조사기간 중 북한 관리들로부터 충분한 협력을 받았음.</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페리 조정관, 美 대통령 친서 휴대” 등 언급</p> <p>* 정례 브리핑</p> <p>- 페리 조정관은 방북 중(5.25~28) 북한 고위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북한 최고위 당국자도 포함됨.</p> <p>-그리고 대통령의 특사가 클린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한 일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4	<p>안은 3국간에 긴밀히 조율된 것임을 확인, 대북 권고안의 내용이 3국의 공동 제안임을 강조했다.</p>		
5. 25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 대화 추진” 등 언급</p> <p>*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참석 후 귀국 기자회견</p> <p>- 남북관계에 역사적인 전기가 오고 있으며, 이 기회를 살려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임.</p> <p>-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포용정책을 한·미·일 3국이 공동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는만큼 북한도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됨.</p> <p>- '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주변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으나 최근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p>	<p>조선중앙통신, “페리 조정관, 평양 도착” 보도</p> <p>- 클린턴 美 대통령 특별고문이자 특사인 페리 조정관과 일행이 이날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들을 맞이했음.</p> <p>중·평방, “김영남 등 공화국 대표단, 중국 방문예정” 보도</p> <p>- 김영남 등 대표단 일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국무원의 초청으로 곧 중국을 공식 방문함.</p> <p>평방, “日 민주당 의원의 평양 도착” 보도</p> <p>- 日 민주당 소속 마스모토 유키코 중의원 등 일행이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음.</p>	<p>美 하원 콕스위원회, “중국, 美 미사일 기술 훔쳐 北 이전” 등 발표</p> <p>- 중국이 미국의 핵 기술을 훔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췄으며, 올해 안으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할 수 있을 것임.</p> <p>- 또한 중국이 훔친 미사일 기술을 북한, 리비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전하였음.</p>
5. 26	<p>임동원 통일부 장관, “한·</p>	<p>페리 조정관 방북동정</p>	<p>러 이타르타스 통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p>미·일 대북정책협의 2원화로 추진" 언급 * 기자간담회</p> <p>- 한·미·일의 대북 정책 협의는 3국의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약과 그 뒷선의 협의로 나뉘어 추진될 것임.</p> <p>-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협의를 계속 맡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오던 사람이 마저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임.</p> <p>- 페리 조정관이 북한방문을 마치고 5.29 서울에 오면 방북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p>	<p>- 김영남에게 클린턴대통령 친서 전달, 만경대 방문, 종합교예공연 관람(조선중앙 TV)</p> <p>조선민주법률가협회, 출소 남파 간첩 등 공안사범 송환 요구 성명 발표</p> <p>- 비전향장기수들을 부당하게 억류해 놓고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처사를 조선정전협정 및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불법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규탄함.</p>	<p>“김영남 등 北 대표단 방중 목적은 김정일 訪中 논의” 보도</p> <p>- 김영남 최고회의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의 중국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의 올 여름 베이징 방문 문제를 논의하는 것임.</p> <p>- 또한 중국·북한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정보요원 문제도 이번 대표단의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p>
5. 27	<p>KOTRA, '98년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발표</p> <p>- 지난해 북한의 수출입액을 합한 대외 무역총액은 14억 4천 2백만달러에 그쳐 '97년에 비해 33.7% 감소했음.</p> <p>- 수출은 5억 6천만달러로 전년대비 38.2%가 감소했으며, 수입은 8억 8천만</p>	<p>페리 조정관 방북동정</p> <p>- 김영남 위원장과 오찬 담화 * 최태복, 강석주, 김계관, 이상우 등 참석</p> <p>- 평양지하철·주체사상탑·대성협동농장 모내기 현장 참관</p> <p>- 페리 특사, 저녁 연회 개최 * 강석주, 김계관, 주북 스웨덴 임시 대리대사 및 국제기구</p>	<p>日 지지통신, “北 핵 개발 관리 중국서 잠적” 보도 * 美 정부 소식통 인용</p> <p>- 북한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박옥경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리가 베이징에서 잠적, 북한 공안당국의 추적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6	<p>달러로 30.6%가 감소하였음.</p> <p>-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지난 '90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는 북한의 경제력이 최악의 상황에도 달했음을 시사함.</p>	<p>대표들 참석</p> <p>노동신문,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 제하의 정론 발표</p> <p>- 조선노동계급은 혁명의 영도계급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자랑 높은 핵심부대임.</p> <p>- 조선노동계급은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자랑 높은 충성의 혁명대오임.</p> <p>- 조선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창조대오임.</p>	<p>받고 있음.</p> <p>- 이 사건과 관련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의 소재 파악을 위해 중국측에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p>
5. 28	<p>한·러 정상, "남북대화 촉진" 등 합의</p> <p>* 정상회담(모스크바) 후 공동성명 발표</p> <p>-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유의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함.</p> <p>-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p>	<p>페리 조정관, 강석주와 회담</p> <p>- 미국측은 대조선정책 검토와 관련한 문제 통보</p> <p>- 북측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근본적 철회 강조</p> <p>※ 페리 일행 5.28 평양 출발</p> <p>'조평통', 5027작전계획 개정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 미국이 '작전계획 5027'을 '작</p>	<p>제임스 루빈 美 국무부 대변인, "페리 조정관, 김정일 면담 불성사" 등 언급</p> <p>* 브리핑</p> <p>- 미 행정부가 페리 조정관과 김정일의 면담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여겨왔으나, 이 바램은 충족되지 않았음.</p> <p>- 그러나 미 대표단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28	<p>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함.</p> <p>통일부, 문익환목사 회고 행사를 위한 北 주민접촉 신청 불허 결정</p> <p>- 문익환 목사 회고 남북공동모임 참석을 위한 홍근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14명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 신청(5.20)을 남북관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불허했음.</p>	<p>전계획 5027-98'로 개정하여 종전보다 몇 배 위험한 북침전쟁 각본을 작성하였음.</p>	<p>북한의 정치, 외교 및 국방분야의 고위관리들과 만나 북한 당국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음.</p> <p>- 한편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을 조사한 미 전문가팀이 현지에서 대규모 터널단지를 조사했으나, 지난 '94년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에 관한 기본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음.</p>
5. 29	<p>「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시민선언' 발표</p> <p>- 새로운 21세기에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준수 되어야 함.</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교육상에 최기룡 해임, 변영립 임명</p>	
5. 30	<p>이종찬 前 국정원장, “北 주</p>	<p>자강도 위원립산사업소, 양강1</p>	<p>美 워싱턴포스트지, “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0	<p>민 40만명 餓死” 등 언급 * KBS 제2TV 출연</p> <p>- 현재 학자들까지 동원해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아사자 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 아사자 수를 19만명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약 40만명 정도로 추산됨.</p> <p>- 금년도 북한의 식량 소요량은 550만t이고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390만t으로 160만t이 부족하나 북한은 300만t 정도가 부족하다고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음.</p>	<p>호 발전소 준공식 개최</p>	<p>핵무기 보유한 통일한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 ‘미묘한 변화의 나라: 일본’ 제하의 칼럼</p> <p>- 일본이 최근 군사 및 안보문제와 국제정치,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 자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으며, 일본의 가장 큰 악몽은 급작스럽게 통일된 한국이 핵무기에 접근하는 것임.</p>
5. 31	<p>통일부, “이산가족의 北 주민접촉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p> <p>-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을 제정, 이산가족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나거나 편지 등을 주고 받기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현행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6.1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로 대신함.</p>	<p>노동신문, 미·북 기본합의문에 새 합의나 합의에 대한 추가조치 필요 주장 관련 논평 *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p> <p>- 이것은 사실상 조·미 기본합의문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발로임.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문이 깨진다고 하여 손해볼 것이 없음.</p>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833 군부대 시찰 및 제526 군부대와 제264 군부대 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p>	<p>日 요미우리신문, “페리 조정관, 대북교섭 일원화 특사 신설 건의 방침” 보도 * 美 정부당국자 인용</p> <p>- 페리 조정관은 6월 초순 매듭지을 정책 권고안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괄적으로 감독, 조정하는 특사의 신설을 제안할 방침임.</p> <p>- 특사는 대통령에 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5. 31	<p>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진전 조짐” 등 언급</p> <p>* 러시아 및 몽골 방문 결산 기자 간담회(몽골)</p> <p>- 페리 조정관의 방북 등을 계기로 잘하면 남북관계에 좋은 진전이 있을 조짐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며칠 내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p> <p>- 페리 조정관은 이번 방북에서 한·미·일 3국 수반의 의사와 공동합의점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우리는 미·일과 대책을 세우고, 북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것임.</p>		<p>해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실무급 접촉을 통해 병행 추진해 오던 미·북 교섭이 사실상 일원화, 격상되는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 관계 진전 기대” 등 언급 * 기자간담회</p> <p>- 새 정부들어 남북간 비공개 접촉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비공개 접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김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작전계획 5027-98’을 조선인민에 대한 도전으로 낙인하며 비난 성명 발표</p> <p>北 사회단체들, ‘남조선 인권고발장’ 발표</p> <p>- 남조선에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인권형편이 더욱 악화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마저 유린되고 있는 참혹한 실태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 고발장을 발표함.</p> <p>• 중세기적인 인권말살 제도 인권유린의 파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도,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정보원의 존재는 남조선의 중세기적인 인권말살제도를 고발하는 산 증거로 됨.</p> <p>• 인권유린의 전시장 남조선은 사찰, 도청, 고문, 탄압 등 인권유린의 모든 행위와 수단, 도구, 방법의 전시장임.</p> <p>「조평통」 대변인, 5.24 개각관련 담화 발표</p> <p>- 이번 개각은 통치력을 강화하고 파산에 직면한 개혁정</p>	<p>주방지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김영남 방문으로 중·북관계 증진 기대” 표명</p> <p>- 중국과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교류를 계속해 온 우방이며,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6.3~7)은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	<p>국가정보원, "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北측 감독 귀순" 발표</p> <p>- '90년 10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통일축구대회의 북측선수단 감독이었던 윤명찬(50)이 최근 북한을 탈출, 한국에 귀순했음.</p>	<p>책을 되살려 보려는 구차한 놀음임.</p>	<p>日 NHK방송, "日 중의원 외무위, KEDO에 10억달러 출자 승인" 보도</p> <p>- 일 중의원 외무위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에 KEDO가 북한에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46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를 일본이 각출하는 출자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음.</p>
6. 3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합의" 발표 * 기자회견</p> <p>- 남북한은 4.23~6.3 베이징에서 예비접촉 1차레와 차관급 3차레 접촉 결과, 6.21부터 베이징에서 차관급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했음.</p> <p>-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 진전 과정에 진입하게 됐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에</p>	<p>김영남 등 북한대표단 訪中(6.3~7) 동정</p> <p>-평양 출발 및 베이징 도착 * 김영남, 홍성남, 김일철, 최태복, 백남순, 류미영, 박동춘 및 기타 수행원</p> <p>-환영의식 및 리펑(理鵬) 전인대위원장과 회담개최 * 회담에서 쌍방은 호상 자국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p>	<p>日 중의원, KEDO 협정 만장일치 승인</p> <p>-중의원은 KEDO 자금 각출 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참의원에 넘겼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	<p>대한 공식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음.</p> <p>남북 비공개 차관급 협의,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합의·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보현 총리특보(南) - 전 금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北) <p>- 남측은 '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t을 북측에 제공하며, 그 중 6.20까지 10만t을 전달함.</p> <p>- 남과 북은 6.21부터 쌍방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함. • 회담장소는 1차는 베이징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함. •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함. 	<p>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견해 일치를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평(李鵬)위원장 주최 저녁 연회참석(인민대회당) <p>중방, “제9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5.19~21, 베이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본부는 문건 교환방식으로 회의 참가 - 회의에서는 북측 연합회의 제안 환영 및 실천결의문과미제의 전쟁책동을 단죄 규탄하는 「범청학련」 공동의장단 특별성명을 비롯한 문건들이 채택되었음. 	
6. 4		<p>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의 포용 정책을 해부한다’ 제하의 논평원의 글 보도</p>	<p>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北에 식량·코크스 무상 원조” 등</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p>- 포용의 의미: 애국, 애족, 애민에 바탕</p> <p>- 포용정책의 실상과 허상: 반인민적 식민지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연장시키려는 대결정책</p> <p>- 우리민족의 선택: 조국통일 3대원칙 준수, 민족 대단결 도모, 연방제 통일국가 창립</p> <p>김영남 등 북한대표단 訪中 동정</p> <p>- 김영남 등 대표단, 장쩌민(江澤民)과 면담</p> <p>• 장쩌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정치 경제질서를 수립할 데 대해서 강조</p> <p>- 김영남·홍성남, 주룽지(朱鎔基)와 회견(인민대회당)</p> <p>- 백남순 외무상과 탕자취엔(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담화</p> <p>- 김일철 무력상과 츠하오텐(崔浩田) 국방부장 담화</p> <p>중방, “홍콩특별행정구역 주재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협정조인” 보도</p>	<p>언급 * 김영남과 회담</p> <p>-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국내의 실제 상황을 고려, 식량 15만과 코크스 40만을 무상 원조하기로 결정했음.</p> <p>- 중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우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양국간의 우의는 쌍방의 공동노력을 통해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주재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의 협정이 6.1 베이징에서 조인됨. - 중국주재 주창준 특명전권대사와 중국외교부 양원창(楊文昌) 부부장이 협정문에 각각 서명함 	
6. 5	<p>임동원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해외가 아닌 남북한에서 상봉 기대” 등 언급</p> <p>* KBS-1TV ‘심야토론’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이 해외가 아닌 남북한에서 상봉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식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한 다음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 베이징 비공개 접촉에서 상봉장소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가 안돼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며, 규모와 빈도는 두고 볼 일이나 이번에 이산가족 	<p>김영남 등 북한대표단 訪中 동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강성 소재지 항주 도착, 서호, 악비묘, 서호항, 매가호천 등 참관 * 김영남, 홍성남, 김일철, 최태복, 백남순, 류미영, 주창준, 박동춘 및 기타 수행원 <p>중방, “모내기 실적(6.4 현재)이 전국 45%이상, 평안도 60% 초과”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5	<p>의 만남이 이뤄지기는 할 것임.</p> <p>「민주노총」 관계자, “남북 노동자 축구 추가 협상” 언급</p> <p>- 이달 중순께 축구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이규재 통일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협상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음.</p> <p>- 이번 협상에서는 선수단을 포함한 방북 인원수와 경기진행 방식 및 기간 등 축구대회 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게 될 것임.</p>		
6. 6		<p>김영남 등 북한대표단 訪中 동정</p> <p>-상해에 도착, 중국공산당 제1차 대회장 기념관 및 상해박물관, 예원 등 참관</p>	<p>美 자유아시아방송, “北 관리, 월드컵 분산개최 관련 언급” 보도</p> <p>* 美 여자월드컵대회 참가한 북한선수단의 류성일 체육성 대외사업국장 언급 (6.5)</p> <p>-남북한 노동자 축구 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8.10에 열릴 수 있을 것이지만, 월드컵 분산개최 가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6			성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봄.
6. 7	<p>김보현 총리특보, 대북 비료 지원 계획 통보</p> <p>* 전금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앞 대북통지문</p> <p>- 지원비료 6천t을 실은 수송선박이 6.8 여수항을 출발, 6.10 해주항에 도착할 예정이다.</p> <p>- 쌍방의 합의대로 남북적십자간 제반 합의사항에 따라 물자검수 및 인도인수, 분배결과통보, 우리측 인도요원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리측 선박·인원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을 기대함.</p> <p>한·미 대북정책협의회, 한반도 정세·대북현안 논의</p> <p>* 하와이 호놀룰루(6.7~8)</p> <p>- 양국은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 8월로 예정된 제6차 4자회담 준비,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문제 등 대북현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p>	<p>노동신문, '일·미방위협력지침 관련법 채택(5.24)' 관련 비난 논평</p> <p>* 어리석은 속임수</p> <p>- 이번의 관련법 채택을 통해서 미제는 교전권을 되찾아서 미군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해외 침략을 버젓이 감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함께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음.</p> <p>김영남 등 북한대표단 중국방문 후 귀국</p> <p>- 이번의 공식 친선방문은 공동의 투쟁 속에서 뿌리내리고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음.</p> <p>조선중앙통신, "중국, 북한에 15만톤 식량 및 40만톤의 콕스탄 무상원조 결정" 보도</p> <p>- 중국 정부는 조선에 15만톤의 식량과 40만톤의 콕스탄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했음.</p>	<p>中 베이징방송, "김영남, 상하이 시장과 회담" 보도</p> <p>-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6.6 상하이시 현지에서 쉬광디 시장과 회담했으며, 양측은 중·조 양국간 관계와 공동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7	<p>통일부, 삼성그룹 대표단 방북 승인</p> <p>- 통일부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관 등 3개 삼성 계열사와 동원정공·동남수산 등 2개 협력사 대표 경험 관계자 16명이 6.15부터 1주일 일정의 방북을 승인함.</p>	<p>- 조선 대표단의 중국 방문시 (6.4) 국무원 주룽지 총리가 이런 결정을 조선 대표단에 통보했음.</p>	
6. 8	<p>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정례화 방침 피력</p> <p>* 한국일보 회견</p> <p>-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서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면서 특사교환이나 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위 가동 등 남북간 대화를 확대하고 정례화할 방침임.</p> <p>외교부, “한·중, 북한 핵금지조약 가입 필요 의견 합의” 발표</p> <p>- 한국과 중국은 7일 서울에서 첫 군축 비확산회의를 갖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억제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p> <p>- 양국은 회의에서 포괄적</p>	<p>평방, “접촉과 대화로 통일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도</p> <p>- 북과 남 사이에 자유로운 접촉과 내왕, 광범한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민족 내부에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려는 기운이 더욱 높아 질 것이며,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8	<p>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와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북한의 CTBT, CWC 가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p> <p>합동참모본부, 북한 경비정 6척 영해 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비정 6척이 8일 오후 1시부터 서해안 연평도 서북방 10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2~6km 정도 남하해 우리 해역을 침범, 11시간 동안 해군과 대치하다가 퇴각했음. - 해군은 경비정 8척을 동원, 북한 경비정에 NLL을 넘어갈 것을 요구하는 경고방송과 함께 고속질주 시위를 통해 귀환을 종용했음. 		<p>미 국무부 폴리 대변인, 북방한계선 관련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경비정이 한국 영해를 침입했다는 보도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게 아님.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경비정이 NLL에 접근했지만,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음.
6. 9	<p>합동참모본부, 북 경비정 이틀째 영해침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비정 6척이 9일 오전 6시 20분에서 8시 사이 연평도 서북방 10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또다시 우리 영해를 침범했음. 	<p>중방, “남측 전투함선의 북 영해 침입” 보도</p> <p>* 군사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8 5시경 5척의 남한 전투함이 강령군 쌍고리 동남쪽 우리측 영해를 침입, 6시경에 3척의 전투함선을 더 증강해 해상경계선을 넘어 군사적 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9		<p>발을 감행함.</p> <p>- 이에 앞서 6.7 6시 10분경과 12시 30분경에 전투함선 9척이 우리 영해를 침입했음.</p> <p>외무성 대변인, “금창리 시설은 핵과 무관하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미국대표단의 현지방문(5.20~22)을 통해 문제의 지하시설이 핵과 무관한 텅빈 굴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혔음.</p> <p>- 금창리 굴간의 미래용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미 뉴욕합의 이행과 관련한 미국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음.</p>	
6. 10	<p>김대중 대통령, “남북 차관급회담(6.21) 잘되면 장관급 이상 격상될 것”이라고 언급 * 토지문화관(이사장: 박경리) 개관식 참석차 강원도 원주 방문, 지역인사들과 오찬시 발언</p> <p>정부, 베이징 남북차관급 회담 수석대표에 양영식 차관 임명</p> <p>-정부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 수석대표</p>	<p>중방, “남한의 서해 북측 영해에 전투함선 증강배치” 주장</p> <p>- 남조선은 지난 7일부터 대청도와 인천 부근의 전투함선들을 대연평도 계선으로 계속 집결시키며 이 수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음.</p>	<p>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대북보고서 발표 연기” 언급 * 저서 「예방적 방위」의 독자모임에서</p> <p>-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고위관리의 미국 방문이 현재 검토 중이며 ▲자신의 새로운 대북정책 권고안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0	<p>에 양영식 통일부차관, 대표로 서영교 통일부 국장, 조명균 심의관을 선임.</p>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서해해역에 해군함정 증가 결정</p> <p>* 국방부 대변인 발표</p> <p>- NLL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히 지키고 이를 위해 서해 해상지역에 해군함정을 증강 투입하기로 함.</p> <p>- 북한의 모든 함정을 북방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며 철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이 북한에 있음.</p> <p>정부, 남북협력기금에서 비료지원 결정</p> <p>- 정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남북차관급회담 재개와 함께 북에 지원키로 한 비료 20만톤 구입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키로 의결함.</p>		
6. 11	<p>해군, 북 경비정 강제 퇴각</p>	<p>북한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서해 해상 남북충돌 비난 성명</p>	<p>미 국무·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p>-군당국이 5일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경비정들을 해군 고속정으로 들이받는 충돌식 공격을 감행, 북한경비정을 퇴각시켰으나 다시 북한경비정 3~7척은 어선들과 함께 넘어와 오후 11시 40분까지 해군 고속정과 대치하는 등 서해에는 밤 늦도록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음.</p>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 차관급회담시 북방한계선 논의 제외” 언급 * 기자간담회</p> <p>-북한의 북방한계선 침입과 관련 차관급회담이나 차후 격상된 당국간 회담시 북한이 북방한계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고 정한 남북 비공개접촉 합의를 위반한 것임.</p>	<p>- 남조선 당국은 우리 영해를 침범시킨 모든 전투함정들을 즉각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p> <p>- 우리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사죄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을 견어치워야 함.</p> <p>- 이번 해상도발사건으로 빚어진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p> <p>조선육류무역회사 대변인, 육류관 서울 분점 개설과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6.11)을 통해 “포용정책을 위한 선전용으로 꾸며진 사기와 협잡의 산물”로 비난</p>	<p>관련 논평</p> <p>- 미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p> <p>- 동맹국인 한국정부와 이번 사태진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p> <p>유엔사령부, 북에 장성급회담 제의</p> <p>- 유엔군사령부는 11 북한의 잇단 서해상 영해 침범 사건과 관련,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음.</p> <p>러 일간지 브레마, “북, 관계개선 보상노려 영해침범” 보도</p> <p>-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 영해를 연속 침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치 않는 북한내 ‘매파’들이 양보의 대가로 최대한</p>

■ 6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1			의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일 수 있음.
6. 12		<p>미국의 작전계획 '5027-98'을 고강도 공지전을 노린 시험작전으로 비난</p> <p>- 미제는 지금 유고슬라비아에서 이 전쟁계획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조선반도에서 실천에 옮길 기회만을 엿보고 있음</p>	<p>미 랜드연구소 베네트 교수, "북한의 대포동 1호 내년 실전 배치" 언급</p> <p>- 연세대 주최로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내년까지 15~20기의 대포동 1호를 실전 배치하며 2010년까지 1백50~2백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음.</p>
6. 13		<p>중방, 문익환목사 회고모임(6.1, 중국 용정) 개최 보도</p> <p>- 남한측 「전국연합」과 북한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공동주최로 문익환 목사 출생일을 계기로 회고 모임을 진행하고, 남한측 당국자들의 「전국연합」 대표들의 행사참가 불허 조치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함.</p>	<p>유엔사, "북, 장성급회담 수락" 발표</p> <p>- 북한은 유엔군사령부가 북측의 서해영해 침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의한 장성급회담을 수락했음</p> <p>- 북한은 서해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제의한 유엔군사령부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오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3			10시 판문점 군사 정전위 회의장에서 회담을 갖자고 통보해왔음.
6. 14		<p>평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전쟁때 포로로 된 비전향 장기수들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과 조선 정전협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극히 정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들에게 수십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강요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즉각 국제사회 앞에 사죄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희망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함. 	
6. 15	<p>국방부, “서해교전 준 전시 상황 돌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9일째,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 사이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져 북한 함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대파됨. -우리 해군은 초계정 1척 	<p>조선중앙통신, 서해사태 관련 남측이 도발 사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에서의 교전사태는 남한측에 의한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로 즉시 사죄해야 함. -남조선 당국자들이 강령군 쌍교리 남동쪽 우리 영해에서 인민군 해군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총포사격을 가하 	<p>리수정(李淑錚) 전 중국공산당 연락부장, “김정일, 방중초청 수락”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방문 중 민주당 하타 쓰토무 간사장과 회담 중 - 중국이 김정일 총비서를 초청, 김총비서가 수락의사를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5	<p>과 고속정 4척이 일부 파손되고 7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음.</p> <p>제58차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6.15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로 인해 야기된 교전사태에 대하여 북측에 엄중히 항의함. -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행위는 중대한 도발로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정부는 앞으로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p>국내언론, “북, 포괄접근방안 거부” 보도 * 외교소식통 인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지난달 하순 방북 	<p>는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 인해 인민군 군인들의 생명이 엄중히 위협 당했음. <p>중방, 장성급 회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수석대표는 정전협정에 따라 서해 5개 섬만 남측이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남측당국들이 제멋대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이란 애당초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음. - 또한 남조선 함정들은 당장 철수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해당지역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전달했다고 리 전 부장이 밝힘.</p> <p>마이클 해머 미 국가 안보회의 대변인, 서해 교전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15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 교전에 대해 잘못된 북한측에 있으며, 북한 선박은 자국 영해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임. <p>장치웨이(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 모두 자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양측은 서로 자제함으로써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p>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대화로 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양측이 자제해 이번 분쟁을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5	<p>(5.26~28)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한·미·일 3국의 대북 포괄접근 방안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 <p>-또 페리를 면담한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권고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p> <p>제6차 장성급회담 개최</p> <p>* 유엔사 대표: 마이클 던 소장(미국), 존 베이커 준장(영국), 금기연(한국), 프란세즈 토레스 대령(프랑스)</p> <p>* 북한 대표: 이찬복 중장,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p> <p>-판문점에서 열린 북한·유엔사간 장성급회담은 서해교전사태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 됐다.</p> <p>합동참모본부, "미군의 전력 일부 한반도 주변에 증강" 발표</p> <p>- 서해안의 남북합정 무력</p>		<p>미 국무부 대변인, "북 NLL 침범" 경고</p> <p>-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분계선 구실을 해 온 현실을 인정하고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을 북방한계선 위에 머물게 할 것을 촉구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5	<p>총돌 사태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를 열어 일본 오키나와와 하와이, 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 합의.</p>		
6. 16	<p>임동원 통일부장관, “차관급 당국회담 예정대로 개최 기대” 표명 * 국회본회의 보고</p> <p>- 서해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한 대북비료지원은 계속 해 나갈 방침임.</p> <p>- 서해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21일로 예정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은 약속대로 개최되어야 하며 차관급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할 것임.</p> <p>청와대 대변인, 국가안보 초당적 협력 언급</p> <p>-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등 3당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만나 국가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확고한 결의로 북방한계선을 지켜</p>	<p>「조평통」 대변인, 남한측 인사 평양방문 제한 성명 발표</p> <p>- 당분간 남측인사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함.</p> <p>- 남조선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총돌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앞에 나서서 강경대응을 지령하고 국방부장관이 직접작전을 지휘하면서 우리 합정들에 수천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는 위협천만한 불장난도 서슴지 않았음.</p> <p>- 전면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군대의 자제력과 인내성의 결과임.</p>	<p>미 국무부 대변인, “교전 지역 공해 표현은 오류” 언급</p> <p>- 북방한계선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없음.</p> <p>- 군사적 총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모두 이 선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함.</p> <p>- 한편 외교부대변인은 “폴리 부대변인이 ‘공해’ 표현을 쓴 것은 오류이며 17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의 언급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밝혔음.</p> <p>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일 의원단 방북 연기 시사 * 참의원 답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6	<p>야 한다는 데 합의했음.</p>		<p>- 한국이 단호한 대응을 취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함.</p> <p>-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함.</p> <p>덴 글릭먼 미 농무장관, “북한 포함 식량부족 국가에 올해 1000만톤 지원” 발표</p> <p>-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연설에서 이 물량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제공한 연평균 300만톤의 3배가 넘는다고 강조했음.</p>
6. 17	<p>통일부 대변인, 베이징 남북차관급당국회담 명단 북한측에 통보</p> <p>- 정부는 수석대표로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비롯, 서영교 통일부 국장, 조명균 통일부 심의관 등 3명을 회담대표로 파견할 것이며, 차관급회담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베이징 쉴펄스키 호텔에서 열</p>	<p>김정일, 자강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 현지도</p> <p>- 향하혁명사적지 대규모발전소(장자강, 강계청년), 중소형발전소(장강3호, 군민청년), 공장·기업소(압록강다이아, 강계뜨락또르), 협동농장(만포시구성, 장강군 읍, 만포 고치농장)</p> <p>중방, “북·러, 무역경제 및 과</p>	<p>미국, 평양에 미사일 발사 중지 압력</p> <p>* 미 국방부 대변인</p> <p>-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평양측에 이를 중지토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음.</p> <p>제임스 폴리 미 국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7	<p>자고 제의했음.</p> <p>삼성그룹, “북, 삼성대표단 체류 허용” 언급</p> <p>- 북한이 「조평통」의 성명 발표 직후 현재 평양에 체류 중인 남한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방북대표단을 통해 알려왔음.</p> <p>- 대표단은 예정대로 22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남북 경협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임.</p>	<p>학기술협조 제3차회의 의정서 조인(6.11, 모스크바)” 보도</p> <p>- 조선측에서 과학원 김호현 부원장과 러시아측 유리 과학기술성 부상이 의정서에 서명함.</p>	<p>부 대변인, ‘공해’ 발언 해명</p> <p>- 남북한 해군 함정들이 교전을 벌인 NLL일대 해역이 ‘공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당국의 입장이 아님.</p> <p>김영규 유엔사 공보관, “북한, 미군 유해 반환 연기” 언급</p> <p>- 17일로 예정됐던 판문점 미군유해 5구의 반환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연기됐음.</p> <p>- 북한측의 취소는 사소한 절차 때문이며, 유엔사는 18일 오전 11시 유해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음.</p>
6. 18	<p>조성태 국방장관, 북 어뢰정 인양위한 월선 허용 검토</p> <p>* 국회 국방위</p> <p>- 북한이 침몰한 어뢰정의 선체와 시체 인양을 목적</p>	<p>주유엔 북한대표부, 서해교전관련 안보리의장 앞 서한</p> <p>- 이형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서해상의 남북한 교전과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p>	<p>미 국무부, “북·미 베이징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발표</p> <p>- 북한과 미국은 23일 베이징에서 북한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8	<p>으로 NLL에 대한 월선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p> <p>국회, 대북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무력도발의 즉각중지, ▲도발책임의 북한귀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 호응 등을 북측에 요구하고 - ▲도발행위의 신속한 차단, ▲국민불안 최소화 등을 정부와 군에 촉구함. 	<p>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한측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p>	<p>외무성 김계관 부상과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화회담 담당특사가 만나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 의제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한반도 제6차 4자회담 개최 문제, 북·미 핵 동결 합의 이행 문제 등임. <p>한·미연합사, “항공모함 배치 서해교전과 무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해군 항공모함 컨스털레이션호의 한반도 이동은 코스보사태에 파견된 키티호크 항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이번 ‘서해교전’과는 관련이 없음. <p>미·일, 북 미사일 억제 공동 협의</p> <p>* G8 정상회담, 오부치 일본 총리와 미 클린턴 대통령 회담 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18			<p>-미 대통령은 핵개발에 관한 미·북 합의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日 수상은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하고 있는 대북포괄적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함.</p>
6. 19	<p>홍순영 외무부장관,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언급 *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p> <p>-만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해 무력도발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협의할 의사가 있음.</p> <p>- 21일 차관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제기되면 응하기는 할 것이나 본격적인 논의는 다른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도록 제안할 방침임.</p> <p>현대, “남녀농구단 7.12 방북 계획” 발표</p> <p>- 현대 농구단이 다음달 12~15 방북, 이틀간 하루 두 경기씩 4게임을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음.</p>	<p>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3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개최</p> <p>* 중앙보고대회에 김영춘 군 총참모장 불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0	<p>양영식 통일부 차관 기자 브리핑</p> <p>* 남측대표단 비행기편으로 베이징 도착 후</p> <p>- 이번 회담은 의견을 주장하는 연설식이 아니라,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실무회담이 되어야 함.</p> <p>- 북한 대표단 명단을 아직까지 확인 못함. 북경 주재 통일관을 통해 3~4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받지 못함.</p>	<p>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오전 9시 30분께 열차편으로 베이징역을 통해 5~6명의 수행원과 함께 현지에 도착</p> <p>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사태 관련 보도 제1호 발표</p> <p>- 남조선당국들이 6.20 또 다시 전투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영해 깊이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음.</p>	<p>G8,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p> <p>-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미사일 확산 추세에 깊이가 우려하고 있음.</p> <p>- 정상들은 미사일 개발 확산 방지에 대처하는 개별 또는 공동수단을 검토할 것이며,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p> <p>교도통신,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대북 비료지원 검토” 보도</p> <p>* 독일 쾰른에서 열린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p> <p>- 북한에 대해 농업용 비료의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p>
6. 21	<p>양영식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수석대표 기자회견</p> <p>-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비료전달이 늦어짐을 이미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알려준 상태임.</p>	<p>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사태 관련 보도 제2호 발표</p> <p>- 남조선 당국들은 6.20에 이어 21일 또다시 4차에 걸쳐 10여척의 전투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p>	<p>유엔사, 장성급 회담 (판문점) 개최 발표</p> <p>- 최근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북한측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해 음에 따라 6.22</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1	<p>현대그룹, “북한, 금강산 관광객 1명 억류” 발표</p> <p>- 민영미씨가 20일 아들 송중훈(6)군과 함께 금강산 구룡폭포 관광 도중 북한 관리인에게 귀순자들의 남한생활과 관련한 말을 해, 귀순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쪽에 의해 하루가 넘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음.</p> <p>제59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p> <p>- 억류되어 있는 민영미씨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귀환 요구함.</p> <p>- 6.21 저녁 출항예정인 ‘봉래호’의 출항을 당분간 불허하고 우리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문제 발생 시 금강산 사업 중단을 북에 전달함.</p> <p>- 북측의 남북차관급 당국 회담 일방적 연기에 대한 부당성 지적 및 조속한 개최 촉구함.</p>	<p>- 우리는 우리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연이어 침입시키는 남조선 당국들의 무분별한 도발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킴.</p> <p>「아·태평화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조사관련 담화 발표</p> <p>- 우리 해당기관은 금강산 관광과 아무 관련도 없는 판짓을 하여 우리 법을 위반한 정체불명의 여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것임.</p> <p>- 남조선 당국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 보려는 어리석은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함.</p>	<p>오전 10시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에서 회담을 개최기로 했음.</p> <p>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페르시아만 항공모함 곧 태평양북귀” 언급</p> <p>- 발칸사태가 진정된 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원래 위치했던 서태평양 지역으로 북귀시킬 계획임.</p>
6. 22	<p>‘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베이징)</p>	<p>평방, 남북차관급당국회담 북측 단장 기조발언 보도</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문제에 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대표: 통일부 차관, 서영교 통일부 국장, 조명균 통일부 심의관, • 북측 대표: 박영수 내각 책임참사, 최성익 내각 과장, 권 민 「아·태평화 위」 참사. - 남북한은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에서 1년 2개월만에 차관급회담을 재개했으나 서해 교전사태 등에 관한 입장차이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양측은 이날 오후 전화접촉을 가졌으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23일 다시 전화접촉을 갖고 회담재개 문제를 논의키로 했음. 김대중 대통령, “국민안전문제 확고히 해결” 천명 *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갖고 해결해야 함. - 베이징회담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단장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데 대해 지적하였음. - 남측은 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무장도발 책동으로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상태로 몰아간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태도로 일관했음. 중·평방, 유엔사·북한 장성급 회담 개최 내용 보도 -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측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명백히 확인된 조건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생각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TCOG) 협의 개최 발표 - 6.25~26 이틀동안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 미국 대표단은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 한국측은 장재룡 외교부 차관보, 일본측은 가토 료조(加藤良三) 외무성 종합정책 국장이 참석 예정임. 제7차 장성급회담 개최 (판문점) * 유엔 대표: 마이클던 미군 소장, 북한측 대표: 이찬복 중장 -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의 교전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열었으나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2	<p>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은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p> <p>현대, 금강산 관광 중지 발표</p> <p>- 북한측에 의해 사흘째 억류 중인 민영미씨가 풀려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키로 했음.</p>		
6. 23	<p>임동원 통일부장관, “이산가족문제 협의 돼야 비료를 준다”고 발표</p> <p>*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p> <p>- 남북간 비공식접촉에서의 합의는 우리측이 회담전에 비료 10만톤을 전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해 합의하자는 것이었음.</p> <p>- 북측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7월말까지 북송키로 한 나머지 10만톤은 보낼 수 없음.</p> <p>현대, 민영미씨 선 석방 후 협상 방안 제시</p> <p>-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서 교환시 신변안전 보장각서에 따라 민씨를 무조건 석방하고 귀순공작 발언문제는 후에 토의</p>	<p>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사태 관련 보도 제3호 발표</p> <p>- 서해상에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6.23 8척의 전투함선들을 또다시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p> <p>- 우리는 계획적인 해상도발 행위를 연이어 연출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또다시 주의를 환기시킴.</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 및 안전담당 조정상 일행과 담화</p>	<p>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베이징)</p> <p>*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와,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조사 결과와 ‘4자회담’ 재개문제, 미북 핵동결 합의 이행 문제 등 논의</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시설 핵합의 위반 안했다고 결론” 표명</p> <p>* 정례 브리핑</p> <p>- 미 조사단이 금창리 터널의 용도 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기술분석을 한 결과 의혹은 남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3	<p>하자고 제시했으나 북측은 귀순 유도공작협의 조사 이유로 석방 거부함.</p>		<p>있으나 현재로서는 기본합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을 만한 것은 없다고 판단 했음.</p>
6. 24	<p>김대중 대통령, “북한이 민영미씨를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선도 달려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p> <p>* 국민회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과 간담회</p> <p>제60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p> <p>- 민영미씨 신속한 석방을 위한 조치와 유사사태 방지 대책을 협의함.</p> <p>-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비료추가 지원 보류 입장을 재확인함.</p> <p>수석대표 양영식 차관, “남북 차관급회담 26일 재개” 언급</p> <p>* 기자 브리핑</p> <p>-북한측이 전화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일차 회담 때와 같은 장소에서 2일차 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왔음.</p>	<p>중방, 서해사태 관련 보도</p> <p>-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엄중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함.</p> <p>평방, 보안법 철폐 촉구</p> <p>-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의무임.</p> <p>- 남조선이 우리가 제기한 실천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할 데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 없음.</p>	<p>북·미 고위급 회담 (6.23~24) 이틀째 회의 개최</p> <p>- 대표들은 ▲금창리 시설 조사결과 등 핵문제, ▲미사일, ▲제6차 4자회담 개최,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문제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 후 회담을 마쳤음.</p> <p>미 로스 차관보, “북,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 땀 심각한 결과 초래” 경고</p> <p>*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강연시</p> <p>교도통신, “북한·호주, 방콕서 고위급회담 개최(6.25)” 보도</p> <p>- 원조문제, 지역안전보장,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들에 대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4	<p>- 이번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및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게 될 것임.</p>		<p>비자발급 문제 논의할 것임.</p>
6. 25	<p>통일부 대변인, 민영미씨 석방 발표</p> <p>- 민씨가 억류에서 풀려나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함.</p> <p>정부, "선 안전보장 후 관광재개" 지시</p> <p>-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잠정 연기하고, 북한 「아·태평화위」와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라고 현대측에 통보</p>	<p>「아·태평화위」 대변인, 민영미 석방관련 담화 발표</p> <p>- 앞으로 남조선 당국이 「아·태평화위」와 현대그룹 사이에 뜨거운 동포애적 입장에서부터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관광사업에 끼어들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크든 작든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p> <p>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사태 관련 보도 제4호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6.25, 26 또다시 슬한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영해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p> <p>- 인민군 해군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거듭 주의를 환기행위를 계속한다면 타격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경고함.</p>	<p>미 국무부, "북, 미국인 여자 1명 구금" 발표</p> <p>- 북한은 6.17부터 자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인(한국계 카렌 한) 1명을 구금하고 있음.</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금창리현장조사 보고서' 발표</p> <p>* 미 국무부팀(14명)은 금창리의 지하시설 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5.18~24) 했음.</p> <p>- 금창리 현장에 완공됐거나 건설 중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또는 재처리 공장은 없음.</p> <p>- 그럼에도 현장이 방대한 지하구역인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개조를 하면 재처리 공장 등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5			<p>- 미국은 현재로서는 금창리 지하현장이 '94년 미·북 기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p> <p>한·미·일 대북정책 협의 개최(6.25~26, 워싱턴)</p> <p>카트먼 특사 방한, 북·미 회담 결과 설명</p>
6. 26	<p>'남북차관급회담' 제2일차 회의 개최(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p> <p>-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서해사건이 이번 회담 진전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과를 재차 요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차기 회담을 7.1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음.</p> <p>김대중 대통령, "이산가족 면회사업 추진 안되면 비료 10만톤 더 줄 수 없다"고 언급</p> <p>* 청와대에서 미국 외교협회 인사들과 회동시</p>	<p>계순희, '99년 아시아 여자유도대회 우승(중국)</p> <p>평방, '남북차관급당국회담' 2차 회의 진행 보도</p> <p>- 회담 앞에 긴박하고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 서해사건 문제이며, 무장도발을 일으킨 남측이 응당한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함.</p> <p>「조평통」 서기국, 서해사태 관련 보도 발표</p> <p>- 저들의 참패로 끝난 서해교전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함.</p> <p>- 조선 정전협정에 서해 미군측</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6	<p>-북한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더 진행되려면 투자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힘.</p> <p>안보회의, 남북한 문제 조정기구 신설 결정 * 김종필 주재로 임동원 통일·홍순명 외교통상·조성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장관 참석</p> <p>-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중지시키고, 남북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10만톤의 대북 비료지원을 하기로 했음.</p> <p>-또한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기로 함.</p>	<p>관할 5개 섬과 우리측 지역사이의 해상분계선이나 한계선이 설정된 것이란 없음.</p> <p>-영해규정 규제협약이나 12해리를 영해로 밝힌 괴뢰들 자체의 영해법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의 수역은 우리의 영해임.</p>	
6. 28	<p>현대, 북한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 협상 착수</p> <p>- 현대는 28일부터 베이징에서 북측 「아·태평화위」와 관광세칙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음.</p> <p>-벌금의 종류와 금액을 명</p>	<p>노동신문, 서해사태 관련 논평 * 적들이 불몽치를 들었다</p> <p>-이번 서해사태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미·일·남조선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임.</p>	<p>미 국무부 제임스 루빈, 페리 보고서 관련 브리핑</p> <p>-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는 북한측 반응 없이도 마무리될 수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8	<p>시화하는 등 관광세척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p> <p>합동참모본부, 서해표류 탈북자 구조</p> <p>-6.28 오후 3시경 충남 태안반도 인근 서해상에서 북한 사회안전성 소속의 이경수(34) 중사와 주민 주성규(34)씨 등 탈북자 2명과 중국인 2명 등 모두 4명을 대운 중국어선 1척이 표류 중인 것을 해군 함정이 구조했음.</p>		<p>-페리 조정관은 협상하러 북한에 간 것이 아니었으며 특정시기까지 북한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성질의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p>
6. 29	<p>정부 합동조사반, "민영미씨 발언 북한측 확대 해석" 발표</p> <p>-북한은 민씨가 20일 구룡폭포 관광 도중 환경감시원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금강산에 오듯이 선생님도 남한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귀순공작으로 단정해 억류조치를 취했음.</p> <p>현대, 500만불 대북송금 발표</p> <p>-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북한에 전달해야 할 이달 치 대금을 6.29 오후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제3국</p>	<p>「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p> <p>* '남북고위급정치회담'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세와의 반복공조를 계속 추구하겠는가. 2. 국가보안법으로 연북을 차단하겠는가. 3.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 탄압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이나마 있는가. 4. 대결인가 대화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p>홍콩의 엠펜러 그룹, "북 카지노 7.31 개장" 발표</p> <p>-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대에 7.31부터 첫 카지노장이 문을 연다고 밝힘.</p>

■ 6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29	<p>을 통해 송금했음.</p> <p>-송금액은 800만달러 가운데 이미 지불한 금강산 입산료를 제외한 498만 1,800달러임.</p> <p>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원로 80명, 남북대화·화해정책 유지 촉구 * 홍사단 강당</p> <p>- 남북한 당국자들은 서해 교전과 민영미씨 억류사건 등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함.</p>		
6. 30	<p>양영식 통일부 차관 등 '남북차관급회담' 대표단,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p>	<p>중방, "서·동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뭄과 고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p> <p>- 6.1~28까지 평양시 26mm (27%) 평남·북, 황해, 강원도 25~50mm(25~34%), 그리고 자강, 함경남·북도는 평년의 50% 정도의 비밖에 내리지 않았음.</p> <p>-6.25부터 덥고 건조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 지역에 걸쳐 낮 최고 온도가 평년보다 2~</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6. 30		<p>5℃ 더 높음.</p> <p>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사태 관련 보도 제5호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6.29, 30 우리측 영해에 전투함선을 불법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	<p>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비료 20만톤 중 잔여분 10만톤을 제공할 수 없다며 북한측에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함. - 북한측은 잔여비료 수송계획을 통보해 달라며 비료수송이 시작되는 날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박영수 북측 수석대표는 수석대표간 단독접촉을 제안, 월간조선 7월호에 게재된 황장엽씨의 서해사태 관련 인터뷰 내용이 북한체제를 모독했다며 우리측 당국의 책임있는 대답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읽은 뒤 일방적으로 퇴장함. 	<p>조선중앙통신,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진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단장은 서해사태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만한 대담요구, 비료 10만톤 수송계획 제시, 첫배를 띄우는 날짜에 회담을 재개하여 기본 문제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기하였음. <p>범민족통일대촉진 북측 준비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p>북·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38차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대표단은 관련 합의를 조인하였음. 	<p>미국, 한국 미사일 개발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 국무부 대변인 <p>-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에 따른 방위 및 억지노력이 정당함을 인정, 오랫동안 한국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해 왔음.</p>
7. 2	<p>한·미 정상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취임 이후 세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음. - 한·미 양국은 서해북방 	<p>중방, 제8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찬복 중장은 남북합정간 충돌방지를 위해 5개안 제시함. -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철회해야 함. 	<p>화학무기금지지구 총회, 북 가입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 <p>- 화학무기금지지구(OPCW)는 6.28~7.2 네덜란드 헤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한계선 침범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함.</p> <p>- 김대통령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대북포용정책 추진을 재확인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 했음.</p> <p>유엔사·북, 제8차 장성급회담 개최(판문점)</p> <p>- 북한측은 서해사태는 우리측이 북한영해를 침범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북방한계선(NLL)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함.</p> <p>- 유엔사측은 서해교전은 북측의 장기간 남한 영해 불법침범과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함.</p> <p>정부, KEDO에 차관 32억불 제공 결정</p> <p>- 정부는 KEDO에 32억 2,000만 달러를 20년간 빌려주는 내용의 차관공여 협정에 서명했음.</p> <p>- 차관공여에 따른 원리금은 경수로 완공 후 3년의</p>	<p>- 문제수역에 모든 함선들을 철수시켜야 함.</p> <p>- 우리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해야 함.</p> <p>- 서해교전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현지 지휘관을 처벌해야 함.</p> <p>- 장성급회담에서 충돌방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본 다음 그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별도로 토의함.</p>	<p>그에서 제4차 당사국 총회를 열고 북한 이라크 등 화학 무기 보유추정국들의 조속한 기구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	<p>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회수하게 됨.</p> <p>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한국 500km 미사일 개발” 제기 *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p> <p>-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 사거리가 300km까지 양해됐으나 앞으로 500km까지는 연구하고 실험발사 정도는 해야 한다는 우리 뜻을 설명했다.</p> <p>- 그러나 미국측은 잘못된면 미사일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해 결국 실무자들끼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음.</p>		
7. 3	<p>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제2차 수석대표 접촉(베이징)</p> <p>- 남북은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비료지원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담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회담 종료함.</p>	<p>남북차관급당국회담 북측 단장 박영수, 회담결렬 관련 기자회견</p> <p>- 남측이 빠른 시일안에 비료를 실은 첫배를 띄운다면 그 날에 다시 남측과 마주앉아 상정된 기본문제를 토의할 수 있음.</p> <p>- 남측이 모처럼 남북간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4	<p>「민화협」, 남북 정당·사회단체공동회의 제의</p> <p>-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7돌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남북정당·사회단체공동회의'와 '겨레손잡기대회 남북공동개최' 등을 제의했음.</p>	<p>노동신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7돌 기념 사설 발표</p> <p>-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은 불변의 통일 원칙</p>	<p>미국 주간지 「주간 항공 & 우주기술」, “북한, 사정거리 1만 5000km 대포동 3호 개발 중” 보도</p> <p>-북한은 사정거리 1만 5,000km의 미국 영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3호 미사일을 개발 중임.</p>
7. 5	<p>양영식 통일부 차관, “이산가족 문제 합의 땀 비료 추가 지원” 언급</p> <p>* 출입기자 간담회</p> <p>-원론적으로 말해 북이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료 지원을 박절하게 20만톤에서 끊지는 않을 것임.</p>	<p>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국 일간지에 김일성 광고</p> <p>- 영자지 방콕 포스트에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게재</p> <p>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공동준비위원회 결성</p> <p>-안경호, 송석환, 김용성(북측), 김양무, 윤영식, 김민우(남측), 양동민, 최일수, 양은식(해외), 임민식(공동사무국)</p>	<p>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사무차장, “북한, 일본과 국교정상화 강력 희망” 표명</p> <p>* 日 관방장관에게 방북(6.29~7.3) 결과 보고</p> <p>-북한은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측과 여러 수준에서 대화할 마음을 갖고 있음.</p> <p>-북한측은 또 국교정상화에 앞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6	<p>김대중 대통령, “북한·캐나다 관계 개선 희망” 언급</p> <p>-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과 대북 식량지원 참여를 평가한 뒤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북한과 캐나다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p> <p>김대중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땀 상당한 대응” 시사 * 캐나다 방문 중 기자 간담회</p> <p>-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할 경우 그것이 결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하는 상당한 대응이 필요함.</p> <p>- 그러나 현 단계에선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음.</p> <p>통일부 관계자 “남한 망명 북한주민 1천명 넘어” 언급</p> <p>- 올해 북한이탈 주민 53명이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p>	<p>김일성 사망 5돌 관련 전국 연구 토론회(청년중앙회관) 진행</p> <p>김일성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 모임, 판문점 김일성 친필비 앞에서 진행</p>	<p>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공식 친선 방북(7.6~17)</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6	<p>지난 '48년 정부 수립 이 후 남한으로 넘어 온 북한이탈 주민 수가 6일 현재 1,001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음.</p> <p>-이 수치는 6.25 당시 피난민이나 반공포로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p> <p>금강산국제그룹 박상권 사장 방북</p> <p>- 박사장의 방북은 서해교전 발생 직후 북한의 「조평통」대변인 성명(6.16)을 통해 남측인사의 평양방문·접촉 잠정중단을 발표한 후 남한 인사로는 처음임.</p>		
7. 7		<p>김일성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정부 비망록 발표</p> <p>-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 ①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조국통일 3대원칙, ②조국통일대강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③민족단합의 대헌장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p> <p>- 김정일의 빛나는 계승: 공화국 정부는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7		<p>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p>	
7. 8	<p>김종필 국무총리, “보안법 개정 검토” 언급 * 국회 통일외교 분야 질문 답변</p> <p>- 국가보안법은 현행 남북 교류협력과 상충돼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폐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p> <p>탈북자 수용시설 「하나원」 개원</p> <p>- 경기도 안산에 문을 연 「하나원」은 연건평 2천 2백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탈북자 1백명이 동시에 생활하면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음.</p>	<p>김일성 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 진행(금수산 기념궁전)</p> <p>-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음.</p> <p>조선중앙통신,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의 걸림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p> <p>- 북경회담 결렬의 책임은 6.3 합의사항에 따르는 비료제공 문제를 놓고 이산가족 문제에서 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나머지 10만톤을 제공한다는 인위적인 조건을 건 데 있음.</p>	<p>일본참의원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과 아사모 게이치로 의원, “북한 미사일에 일제 부품 사용” 언급 * 일본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p> <p>- 대포동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과 잠수함·잠수정에 다량의 일본 전자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음.</p> <p>-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대북 수출규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음.</p>
7. 9	<p>현대 장전항 건설인력 방북</p> <p>- 민영미씨 억류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가운데 현대의 장전항 건설인력 108명이 속초항을 통해 방북했음.</p>	<p>평방, “대북포용정책은 민족의 영구 분열을 꾀하는 반동적인 정책”이라고 주장</p> <p>-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끝자로 한 포용정책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 데 대하여 확약</p>	<p>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 중국의 주룽지 총리·장쩌민 국가주석·리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p> <p>- 중국을 방문중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p>금강산 관광 중단 후 현지 근로자 첫 귀향</p> <p>-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대야고속해운 소속 오션플라워호 편으로 장전항 건설노무자와 현대직원 등 48명이 속초항으로 귀환 했음.</p> <p>정몽준 축구협회장, 북한 여자축구대표팀 초청</p> <p>-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축구연맹총회에서 북한대표로 참가한 북한 축구협회 김학용 기술 고문을 만나 남북한 여자축구의 교환경기 개최와 아시아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서울개최시 참가 등을 요청</p>	<p>한 북남합의서에도 구매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p> <p>'99 통일대축전 제10차 범민족대회 공동준비위 제1차 회의 진행 (평양)</p> <p>- 북·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 사업 및 범민족 통일대축전 행사일정과 내용, 형식, 축전대표들의 선발문제 등 합의</p> <p>김형직 생일 10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진행</p>	<p>오부치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시범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주룽지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몸부림치는 폭군',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특집을 커버스토리로 게재</p> <p>인도정부, "북한 선박에 미사일 설계도 탑재" 언급</p> <p>* 인도 외무부 라민더싱 자살 대변인</p> <p>- 지난주 인도 서부 칸들라항에서 억류된 북한 화물선이 파키스탄을 위한 전술적 미사일과 부품 등을 탑재하고 있음.</p> <p>- 이 선박에서 압수 수색한 148개의 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0	했음.		자에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적 지대지 미사일과 미사일 유도체(시스템), 미사일 생산을 위한 설계도 등이 포함돼 있음.
7. 11		<p>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조정문제 협의와 관련 '새로운 군비경쟁의 파도' 제하로 비난</p> <p>노동신문, "우리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주장</p> <p>-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란 애당초 정전협정에도 없고 쌍방이 합의한 적도 없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유령선임.</p>	
7. 12	<p>임동원 통일부장관, "신변안전 보장돼야 금강산관광 재개" 언급</p> <p>* 국회상임위 답변</p> <p>- 금강산 관광의 신변안전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광선 출항은 재개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p> <p>- 장전항에서 도선 부두공사 및 온천장 공사를 계</p>	<p>평방,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상태는 남한 정부의 분열주의적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p> <p>- 우리는 6개월간의 시범관광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더욱더 중시하여 현대그룹과 금강산관광사업 조정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내는 생각도 하고 있었음.</p> <p>- 앞으로도 순수한 금강산 관</p>	<p>교도통신, "일본, 북미사일 기지 폭격 극비연구" 보도</p> <p>-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 '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후 대응책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중 폭격하기 위한 연구를 1년간 극비리에 진행 했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공사비는 7천 7십 만 달러임.</p> <p>김대중 대통령, “전쟁방지 정책으로 북한고립” 언급 * 이북5도청 업무보고서</p> <p>- 북한은 우리의 전쟁방지 정책에 의해 완전 고립돼 있음.</p> <p>-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포용정책에 절대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제네바 합의를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p> <p>건설교통부, “항공 Y2K 문제 남북합의서 체결” 언급</p> <p>-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9차 아·태지역 항공항행소위원회에 참석한 남북한 대표가 이같은 합의서에 서명했음.</p> <p>- 금년 12.31. 23:00부터 발효되는 이 합의서에는 양측의 관계기관에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는 구두통보를 현재는 상대방의 비행정보구역에 항공</p>	<p>광을 목적으로 오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할 것임.</p> <p>10차 범민족대회 공동준비위원회 보도 발표</p> <p>- 범민족대회 기간: 8.13~16</p> <p>- 주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이를 위한 과제로 조국통일 3대원칙 구현, 연방제 통일 방안 지지, 반통일 분열세력 반대, 북남관계 개선</p> <p>- 공동행사: 개막행사, 관문점 3자 연합대회, 통일예술축전, '99범민족회의 등</p>	<p>미 국무부, “북한 미사일 다시 쓰면 미·북 관계 중대 결과 초래” 경고 *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p> <p>-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지난 5월) 북한 방문중 제시한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상에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p> <p>로버트 토니첼리 미 상원의원, “북 미사일 2개월내 시험발사” 언급 * 방북(7.10~11) 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p> <p>- 북한은 올여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임.</p> <p>-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포기의 대가로 약속한 대북한 관계개선과 경제제재 철폐 제의를 유보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2	<p>기가 도달하기 20분 전까지 하기로 돼 있으나 이를 30분으로 변경했음.</p>		
7. 13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의 요구 입장 천명 * '민주포럼'</p> <p>- 식량·비료지원과 각종 대북경제사업은 북한의 변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이같은 지원이 없다면 피폐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임.</p> <p>- 이에 따라 우리는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p> <p>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p> <p>-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 14일까지 이틀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공조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음.</p> <p>국립중앙박물관,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7.13~8.29)</p> <p>- 금강산 관련 유물을 한자리에 모은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을 열어 금</p>	<p>중방, 우리측 당국자의 북방한계선 등 관련 발언 논평</p> <p>- 국방부 관계자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떠들어 대며, 오는 10월 백령도에 최첨단 155mm 자주포 KX호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언(7.11)한 것은 침략과 대결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임.</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비난 담화 발표</p> <p>- 일본 당국자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한사코 우겨대며 반공화국 적대시 분위기를 극성스럽게 고취하고 있음.</p> <p>- 우리의 위성발사는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에 속하는 문제임.</p>	<p>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맨미·북 관계 심각한 악영향" 언급 *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p> <p>-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이를 매우 심각한 행동으로 볼 것임.</p> <p>-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반드시 대응할 것이며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짤 것임.</p> <p>노나카 히로무 일본 관방장관,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 할 경우 일본 KEDO 지원금 동결" 시사 * 기자회견</p> <p>-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KEDO 지원에 대한 국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3	<p>강산을 주제로 공예·회화·전적류·사진 등 모두 6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함.</p> <p>-특히 전시품 중 18세기 선비화가 표암 강세황의 금강산 등정기인 「표암고」, 금강산의 사찰과 각종 유적을 담은 1910년대의 유리원판 사진 등은 일반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임.</p>		<p>들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렇게 될 경우 일본로서는 일정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행위의 유보라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음.</p>
7.14			<p>도이치 전 CIA 국장, “북한 대량 파괴무기 수출 미국에 매우 심각한 위협” 언급</p> <p>* 의회보고서</p> <p>-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이 대량파괴 무기 확산 저지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미국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p> <p>-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을지도 모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5	<p>카트만 미 특사 방한</p> <p>- 찰스 카트만 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가 올 8월 개최 예정인 제6차 4자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위해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음.</p>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 63차 상임위 회의 개최</p> <p>-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원칙을 재확인하고 발사시에 대비한 대책을 협의함.</p> <p>여성 대표단, 방북 무기연기</p> <p>- 박영숙 녹색연합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여성계 대표단 7명은 1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방북연기를 요청해와 구체적인 방북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채 계획이 뒤로 미루었음.</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북한 위성발사 재개시 강경 대응 발언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우리의 위성발사는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로 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p> <p>-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면 결심에 따라 아무때나 위성발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중 일관된 입장임.</p>	<p>중국, 중성자탄 기술 보유</p> <p>* 자오치정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미 하원 '폭스 보고서' 반박 기자회견</p> <p>- '70, '80년대 미·소의 핵무기 경쟁이 가열돼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핵무기 기술 발전과 핵무기시스템 개선을 계속 추진했음.</p> <p>- 중국이 이미 원자탄과 수소탄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중성자탄 기술을 터득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임.</p> <p>길먼 미하원 국제위원장, "대북 포용정책 성공 가능성 없다"고 클린턴에 대안 촉구 공개 서한</p> <p>- 최근 북한이 보여준 행태들은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5			<p>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함.</p> <p>-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음.</p>
7. 16	<p>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북 미사일 발사 땀 한·미·일 상응 조치” 언급</p> <p>-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오후 오부치 일본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의해 저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3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p>	<p>「조평통」 대변인, 조성태 국방장관 등의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와 관련한 한·미공조 및 대북방위태세 구축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p> <p>- 미사일 문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걸고 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는 것임.</p> <p>「북적」 중앙위, 「적십자국제위」에 편지 발송</p> <p>- 우리는 귀 단체가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시급히 송환되도록 국제적인 지원운동을 적극 벌여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함.</p> <p>「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국가정보원이 남북민간급 경제협력 사업을 저해·파탄시키고 있다”는 비난 담화 발표</p>	<p>AFP 통신, “김정일, 중국식 개혁 지지하는 만큼 북한식 사회주의 존중 촉구” 보도</p> <p>-북한의 김정일은 지난 6월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앞서 평양 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지지하는 만큼 중국도 북한의 사회주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음.</p> <p>요미우리신문,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 땀 일본, KEDO 분담금 동결” 보도</p> <p>-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 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6		<p>- 소를 폐사시키는 모략을 꾸미고 너절하고 추악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북남 사이의 민간급 협력을 저해하고 파단시키려는 괴뢰 정보원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악랄한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 규탄함.</p>	<p>출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음.</p>
7. 17	<p>정부고위관계자, “북한의 핵 실험 관측소 설치” 언급</p> <p>- 음파를 이용해 북한의 지하핵 실험과 고성능 폭탄 개발을 탐지할 수 있는 관측소가 국내에 처음으로 설치됐음.</p> <p>-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자원연구소와 미국 서감리교대학이 공동으로 지난 7월 북한에 인접한 강원도지역에 이 공중음파 관측소를 설치했음.</p>	<p>「민주전선」 중앙위, 한국전쟁시 미군이 충북 영동 양민학살 사건을 일으켰다는 비난 성명 발표</p> <p>노동신문, 일본의 군사훈련 관련 논평</p> <p>- 새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 제정 이후 일본반동들이 자위대 무력의 현대화,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연습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전쟁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임.</p>	<p>뉴델리 AFP 연합, “인도, 억류 북한선박 선장 구속” 보도</p> <p>- 파키스탄으로 미사일 부품을 수송하던 중 지난달 말 인도 칸들라항에 억류된 북한선박 구월산호의 선장 현대민과 1등 항해사가 인도 당국에 의해 구속됐음.</p>
7. 19	<p>「국정원」, 북한주민 1명 귀순 발표</p> <p>- 북한 주민 윤미현씨(23, 여, 가명)가 제3국을 통해 밀입국, 귀순을 요청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원 및 탈북경위를 조사하고 있음.</p>	<p>조선중앙통신, 억류 카렌 한 추방 계획 보도</p> <p>- 한씨가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6.17)했으나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한 점을 정상 참작, 추방하기로 결정했음.</p>	<p>미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 제6차 4자 회담 개최 발표</p> <p>- 제6차 4자 회담 본회담이 8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림.</p> <p>-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정전협정</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19			<p>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회담에 응하고 있음.</p>
7. 20	<p>국무회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2년간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 지원금 지급 -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93년 12월 22일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 - 한국 도착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인 탈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연금 지급 가능 	<p>노동신문, 한·미합동군사훈련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남조선의 대규모 상륙 훈련(7.16~19, 동해안)은 미제의 모험적인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98에 따른 위협천만만 한 것으로,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전면전쟁을 일으키려는 침략흉계의 집중적 발로임. 일본의 신사회당·오끼나와 사회대중당 공동대표단 및 중국정부 민항대표단 평양 도착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일본의 북한 미사일기지 폭격계획 사실 관련 규탄 성명 발표 	<p>IAEA 국장 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의 올리하이노넨 안전조치국장이 방북하여 3월 이후 중단된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제13차 실무협상 개최 시기를 북측과 조율함. 유엔사, 북한의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7.21) 제의 수락 발표 - 북한이 7.15 북방관계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제의해 이를 수락했음. - 이번 회담에서 지난 5월 이후 북한군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전 당시 유엔군의 유해송환 문제를 제기할 계획임.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0			<p>AP통신, “북한, 역류 한국계 미국인 카렌 한씨 중국으로 추방” 보도</p> <p>- 6.3부터 34일째 북한에 역류돼 있던 한국계 카렌 한(52)씨를 북한 당국이 20일 중국으로 추방했음.</p> <p>매들린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북한의 중국 미사일 부품 도입 철저히 조사” 표명 * 기자회견</p> <p>- 중국 회사들이 지난달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인도했다는 워싱턴 타임스 보도와 관련, 심각한 것으로 간주 철저히 조사할 것임.</p>
7. 21	<p>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판문점 본회의실)</p> <p>-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해상경계선 설정과 서해교전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유</p>	<p>중방,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보도</p> <p>-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측이 기존의 낡은 관념을 대담하게 버리고 돌아가 우리가 제기한 새로운 서해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검</p>	<p>미 하원, 대북 핵협력 규제법안 가결</p> <p>- 미국 하원은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 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1	<p>엔사는 북방한계선은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음.</p>	<p>토해 보고 문제 토의를 위한 실무급접촉에 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권고함.</p> <p>- 서해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 도 경계선 '가·나'를 연장하여 '가'점과 우리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18.5분, 동경 125도 31분, 우리측 섬인 용도와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소협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1.2분, 동경 124도 55분,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사권점 북위 36도 50.75분, 동경 124도 32.5분을 연결한 선임.</p> <p>조선사회민주당 고문 김병식 사망</p>	<p>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음.</p>
7. 22	<p>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어린이 위험도 남한 5, 북한 50" 밝혀</p> <p>* '99년 국가발전백서</p> <p>-한 나라의 어린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겪게되는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어린이 위험도'가 남한은 5인 반면 북한은 50으로 조사됐음.</p>	<p>평방, "북방한계선은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p> <p>-상전과 주구가 입을 모아 떠들어대는 북방한계선이란 놈들에게 있어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p> <p>조국해방전쟁 승리 46돌(7.27) 관련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승오구역에서 진행</p>	<p>유엔사, "남북 해상경계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p> <p>-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에 해결할 사안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남북간 새로운 해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2	<p>-어린이 위험도는 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과 체중미달아 비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생 연령의 비율, 전쟁위험으로부터의 안전도, 15~49세 연령층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 등을 종합해 0~100까지 수치화한 것임.</p>	<p>「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전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생일(7.22) 100돌 즈음 재평가 움직임 관련 담화 발표</p> <p>-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려는 데 없이 이롭고 정당한 투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환영함.</p>	<p>불가침경계선 설정시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이 준수되어야 함.</p> <p>- 현재 중요한 것은 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분리하는 데 있는 만큼</p> <p>▲쌍방 합정간 신호 규정 합의 및 활용</p> <p>▲유엔사·북한군간 비서장급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북측이 우선 받아들여야 함.</p>
7. 23	<p>임동원 통일부장관, “대북 포용정책으로 좌경학생운동 사라졌다”고 언급</p> <p>* 나주 임씨 종친 모임인 전국 화수회 초청 세미나</p>	<p>노동신문,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아가자’는 사실 발표</p> <p>-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모든 역량을 경제사업에 총집중하여 제2의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며 목표임.</p>	<p>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북한이 주권 국가이나 미사일 주권은 포기해야 된다”고 시사</p> <p>*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정치연구회 초청 강연</p> <p>- 북한은 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미사일을 발사할 권리도 있으나 공동사회에서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주권을 포기해야 함.</p> <p>-북한이 미사일을 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3			<p>사하계 되면 이웃 나라들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따르게 되며 이는 역내 불안을 초래하게 됨.</p>
7. 24		<p>중방,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앞으로' 정론 발표</p> <p>-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을 달려온지 반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공업 생산액은 1.2배 장성하였고, 농업생산 전망도 좋음.</p>	
7. 25	<p>제5차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 개최(7.25~29, 베이징)</p> <p>- 세계평화청년연합과 전국 대학 원리연구회 주최로 남북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남북학생통일세미나가 개최됨.</p> <p>- 양측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해증진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의 자주성 ▲통일문화 창조 등 3개분과로 나뉘어 토론에 들어감.</p> <p>통일부, 이달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관광료 지급 불허 방침 발표</p>	<p>노동신문, 일본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 발표</p> <p>- 우리는 일본이 조선을 분열시키고 조선전쟁에 참전하여 저지른 범죄, 전후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하여 우리에게 입힌 피해 등 모든 죄과에 대해 빌고 값을 내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결산하지 않을 수 없음.</p>	<p>LA타임스, "북한 굶주림으로 210만명 사망" 보도</p> <p>-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북한전역에서 기아나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한 주민이 전체 2,300만 인구의 10%에 가까운 210만명에 달할지도 모름.</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5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중국·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 협력 요청</p> <p>* 외교통상부</p> <p>-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7.24),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7.25)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p>		
7. 26	<p>통일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남북환경협력사업 승인</p> <p>- 이에 따라 생태계 공동탐사 및 연구 등 향후 남북간 환경보호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됨.</p>	<p>「외무성」 대변인, 북·미관계 개선 관련 담화 발표</p> <p>- 최근 미국이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보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음.</p> <p>-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우리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함.</p>	<p>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6차 각료회의(싱가포르) 의장 성명 발표</p> <p>- 북한의 '98년 8월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미사일 관련 행동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함.</p>
7. 27	<p>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금품모집 불허 부당 판결</p> <p>- 대법원 특별 2부는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국가를 상대로</p>	<p>범민족통일대축전공동준비위,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결의문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특별결의문 등 발표</p>	<p>미 외교협회(CFR) 대북정책보고서, "대북 경제제재 미국서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p> <p>* 미 정부의 대북정책: 향후 조치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7	<p>넌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음.</p> <p>「민화협」, 거래손잡기추진본부 결성식</p> <p>-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회는 오전 11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99겨레손잡기대회추진본부 결성식을 가졌음.</p>	<p>- 최근 벌어진 서해 해상무장 충돌은 조·미 평화협정체결과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줌.</p> <p>-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보장한다면 북남 정치회담의 문이 열릴 것임.</p> <p>- 비전향장기수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면 최근 서해해상 충돌로 얼어붙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대화의 문은 물꼬를 트고 이땅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임.</p>	<p>-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등 대북 유인책을 우선 추진하고, 만약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나 터무니없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이를 번복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함.</p> <p>한·미·일 외무장관, “북한 인공위성 발사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p> <p>-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싱가포르)이 끝난 뒤 한·미·일 3국 외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고 주변국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음.</p> <p>- 한편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면 일본내 국민감정에 의해 KEDO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언급했음.</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8	<p>코언 미 국방장관 방한</p> <p>-코언 장관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29일 조성태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에 관련한 공동 대응방안과 180km 이내로 제한된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문제 등을 논의함.</p>	<p>평양, 박정희 기념사업회 관련 논평 발표</p> <p>-박정희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괴뢰들은 파쇼폭군의 망령을 되살려 유신독재자처럼 파쇼 폭압과 인민탄압의 방법으로 죽음에 내닫은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되살려 세워보려 하고 있음.</p>	
7. 29	<p>한·미 국방장관, “북 미사일 강행 땀 부정적 결과” 강력 경고</p> <p>-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시 외교, 경제적 제재조치 외에 다른 조치도 포함될 수 있음.</p> <p>-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로 늘리는 데 원칙적 합의,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 범위는 실무협약에서 해결하기로 함.</p> <p>김대중 대통령, “사정거리 500km이상 미사일 개발 필요” 언급</p> <p>*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접견</p> <p>- 한국이 사거리 500km 이</p>	<p>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제네바 북·미회담과 4자회담 참가차 평양 출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29	<p>상인 미사일을 갖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음.</p> <p>-또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함.</p>		
7. 30	<p>한·미, 북 미사일 대응 후속 조치 논의</p> <p>- 김인중 국방부 정책보좌관, 커트 캠벨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국방부에서 국방정책검토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 주변에 배치될 미군전력의 규모와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함.</p> <p>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베트남에 북 미사일 저지 지지 요청</p> <p>- 한·베트남 외무회담에서 베트남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p>	<p>조선중앙통신, "연형묵,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간행" 보도</p> <p>- 김정일의 '98.1~'98.10 사이 자강도 현지지도 서술</p> <p>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일본이 핵물질을 끌어들이는 것은 핵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는 데 있음.</p> <p>「조선반핵평화위」, 일본의 핵폐기물 수송관련 비난 성명</p> <p>- 일본이 플루토늄 수송을 강행하는 것은 핵무장화 책동을 다그치려는 것임.</p>	<p>미, 중국대사관 오폭 피해자에 450만 달러 보상 합의</p> <p>* AP 통신</p> <p>-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나토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3명) 유가족과 부상자(27명)에게 450만 달러 보상기로 합의함.</p>

■ 7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7. 31		<p>「아·태평화위」 대변인,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관련 담화</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신변안전 담보, 당일 귀환 요구 등 금강산 관광을 방해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	<p>통일부 대변인,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 발표</p> <p>-정부는 현대와 북측간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99.7.30)되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키로 함.</p> <p>-「관광세칙」(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참금지 물품,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내용 등을 규정함.</p> <p>-「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발언 관광객의 당일추방 원칙, 엄중한 사건의 경우 동 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동 조정위와 해당기관이 협의·처리하도록 되어 있음.</p>	<p>「조평통」 대변인, '범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담화</p> <p>- 남조선 당국은 민화협과 같은 반통일단체를 내세워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어리석은 놀음을 견어 치워야 함.</p> <p>노동신문, 「범민련」·「한총련」 관련 논평 * 반통일 집단의 악랄한 방해책동</p> <p>- 남조선 당국은 민화협을 내세워 8.15 범민족통일대축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p>	<p>日 산케이신문, “美 미사일 관련 北과 비밀 접촉” 보도</p> <p>-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비밀 접촉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념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탁함.</p>
8. 2	<p>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北 미사일·KEDO 분리 대처 * CNN 회견</p> <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은 북한의 영변 핵동결에 기여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와 분리해 생각해야 함.</p>	<p>조선중앙통신, 최근 「대외경제중재법」 채택 보도</p> <p>- 목적: 대외경제분쟁 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건을 정확히 해결, 분쟁당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p> <p>- 구성: 4장 43조</p>	<p>도쿄신문, “美, 미사일 추적함 日 배치” 보도</p> <p>-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비, 미군은 미사일 추적함 2척과 미사일 관측기 RC135를 일본에 배치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	<p>조성태 국방부 장관, “북 미사일 강행맨 외교·경제적 제재” 언급</p> <p>-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미·일 세 나라는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킬 것임.</p> <p>이회창 총재, 금강산 관광 거부 운동 주장</p> <p>-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인식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p> <p>-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 거부운동을 해야 함.</p>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 사이의 분쟁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분쟁 • 북한 기관·기업소·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과 해외동포·외국인 사이의 분쟁 	
8. 3		<p>「직총」 중앙위 부위원장 이진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관련 「민주노총」 이규제 부위원장에게 편지 발송</p> <p>-8.10부터 통일축구대회 개최, 선수단 규모: 30명 정도, 평양방문 경로: 제3국 경유</p> <p>- 8.5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p>	<p>북·미 고위급회담(8.3~9, 제네바) 개최</p> <p>-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만 미국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 사이의 북·미 고위급회담은 5월말 윌리엄 페리 미국 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p>가질 것을 제외함.</p> <p>'99통일대축전 제10차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진행(평양)</p> <p>- 현재까지 추진된 축전준비 정형총화 및 행사보장을 위한 실무적 문제를 토의함.</p> <p>「외무성」 대변인, 미 코언 국방장관의 발언(7.29)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코언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진행되면 공동대응하여 응징하겠다고 한 것은 침략 무력을 위한 명분을 세워 선제타격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임.</p>	<p>북정책조정관의 방북 이후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6.23~24)에 이어 두 번째 회담임.</p> <p>- 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재발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재발사시 북한이 입을 손실과 재발사 중지시 얻을 혜택을 설명하였음.</p> <p>- 북한측은 이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미·북 미사일회담 추진" 발표 * 브리핑</p> <p>- '4자회담'은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모색하고 있으며 회담일</p>

■ 8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음.
8. 4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 언급</p> <p>*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p> <p>-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에 기여할 것임.</p> <p>-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일관성 있게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p>홍순영 외교부 장관, “북 미 사일 발사시 대북사업축소” 시사</p> <p>* NHK-TV 회견</p> <p>-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류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것임.</p> <p>제6차 4자회담 준비회의 개최(제네바)</p> <p>- 남북한과 미국·중국 4개</p>	<p>노동신문, 북한 인권문제 관련 논평</p> <p>* 하늘을 지배하려는 무모한 짓</p> <p>- 괴뢰들이 어용학생 단체를 내세워 우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여론화 하려는 것은 계획적인 반복모략 소동의 일환임.</p> <p>「외무성」 대변인, 제32차 아세안 외무장 회의 및 제6차 지역연단 회의(7.23~26, 싱가포르)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번 회의들에서 일본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우겨대는 등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악과 환멸을 자아내는 추태를 보였을 뿐임.</p>	<p>미·북, 김계관-카트만 회담 이틀째 회의 개최</p> <p>한·일 해군, 첫 합동 훈련(8.4~6)</p> <p>-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간의 사실 첫 공동훈련이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실시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4	<p>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양자협약에 이어 오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장창천 북한 외무성 국장 등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회의를 열어 5일 시작되는 본회담 일정 등을 협의함.</p>		
8. 5	<p>금강산 관광 45일만에 재개</p> <p>- 금강산 관광선 봉래호는 오후 6시 동해항을 출항</p> <p>※ 현대측은 7월분 관광대가 800만 달러 북측에 송금</p> <p>통일부, 「SN21 엔터프라이즈」가 제출한 제1회 남북대중음악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p> <p>제6차 4자회담 본회담 개최 (제네바)</p> <p>- 박건우 수석대표(한국):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주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제로 이행하고 지켜나갈 남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p> <p>- 김계관 외무성 부상(북한): 미군철수와 조·미</p>	<p>「외무성」 대변인, 제32차 아세안 외무성 회의 및 제6차 지역단회의(7.23~26, 싱가포르)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일본은 우리의 인공지구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우겨대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악과 환멸을 자아내는 추태를 보였을 뿐임.</p> <p>「조선언어학연구소」 대변인, 우리의 한자병용 정책 등 외국어언어정책 관련 성명 발표</p> <p>- 민족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남조선을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매국행위로 규탄함.</p> <p>조선중앙통신, 폭우와 태풍으로 농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p> <p>- 황해도 4만여정보 이상의 농</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미·북 양자회담 건설적이었다”고 언급</p> <p>* 브리핑</p> <p>-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6차 4자회담 본회담을 앞두고 열린 양자회담(8.3~4)에서 북한측과 잘 협의하고 있으며, 이 협의가 가능한 것들을 설계하는 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5	<p>평화협정 체결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임.</p> <p>- 찰스 카트만 수석대표(미국):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것은 간단히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점차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방법임.</p> <p>- 천용년(錢永年) 수석대표(중국): 중국은 앞선 회담에서 여러 제안을 내놓았음. 이번 회담을 위해서도 상당한 준비를 해왔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윤곽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음.</p>	<p>경지 침수, 합남 300여km 관개수로 파괴, 강원도 800여동의 생산건물 및 수백km의 도로 등 파괴됨</p> <p>노동신문, 한일공동군사연습 관련 논평 * 재침의 서막</p> <p>- 일본해상자위대가 남조선 괴뢰해군과 함께 공동군사연습(8.2~, 쓰시미 앞바다)을 시작한 것은 조선재침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임.</p> <p>세계식량계획(WFP) 집행국장 카테린 버티니 일행 방북(8.5~10)</p>	
8. 6	<p>제6차 4자회담 분과위 제1일 회의 개최</p> <p>- 우리측은 긴장완화분과위에서 ▲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 설치 ▲주요 군사훈련 통보 ▲군인사 교류 등 실질적인 문제를 의제로 제의하고, 평화체제분과위에서 남북간 평화합의서 체결을 제의함.</p> <p>- 북한측은 북·미 평화협정</p>	<p>「범민련」 북측본부, 범민족 통일대축전 준비사업과 관련 통보 모임 진행</p> <p>'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남북해외 준비위원회 추진본부, 공동준비위 제2차회의 진행</p> <p>노동신문, 우리 영화인들의 미국영화시장 개방 반대 관련 논평 * 민족의 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6	<p>체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함.</p> <p>민주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합의 발표</p> <p>* 베이징에서 북측 「직총」과 실무회담을 갖고 귀국후 기자회견</p> <p>-남한 선수단 37명이 10일 방북, 12~13일 양일간 평양에서 2차례 축구경기를 갖기로 북측과 합의했음.</p> <p>-남한 선수단은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을 통해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14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임.</p>	<p>- 남조선 영화인들이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압력과 그에 대한 괴뢰들의 굴종행위에 항거하여 강력한 반미, 반괴뢰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함.</p> <p>김계관 「외무성」 부상, “북방한계선 인정 못한다”고 주장</p> <p>- 제6차 4자회담 미국 대표단 주재 리셉션 참석을 위해 숙소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북방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사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음.</p>	
8. 7	<p>「범민련」·「전국연합」 대표 등 5명 밀입북</p> <p>- 한총련 대표(황혜로, 6.1)에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와 「전국연합」 대표 5명 등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밀입북함.</p> <p>제6차 4자회담 분과위 이틀째 회의 진행</p> <p>-남북한과 미·중 대표들은 이틀째 분과위원회를 열고</p>	<p>「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등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p> <p>-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고문과 서원철 청년대표 및 「전국연합」 이성우·강형구·박기수 대표</p> <p>- 「사민당」 김영대 위원장, 「조평통」 서기국 안경호 국장 등 영접.</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7	<p>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함.</p> <p>- 긴장완화 분과위원회 수석 대표: 유진규 국방부 군비 통제관(한국), Theodore W. Lay II(미국), 박명국 외무성 과장(북한), 李濱(중국).</p> <p>- 평화체제 분과위 대표: 송민순 차석대표(한국), 필립운 국무부 선임보좌관(미국), 장창천 외무성 국장(북한), 남푸쿠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중국).</p>		
8. 8	<p>통일부, 남북노동자축구 참가자 방북 승인</p> <p>-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자 37명이 신청한 북한방문(8.10~14)을 승인함.</p>	<p>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미 코언 국방장관의 “군사적 해결기도” 발언 관련 규탄 성명 발표</p> <p>- 미제 호전광들이 다른 나라에서 써먹던 강도적 원리와 힘의 정책으로 우리를 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힘에는 힘으로 침략자들의 오만한 무력행사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인민의 기질이며 입장임.</p>	<p>교도통신, “日, 북한 미사일 재발사 대응방침 마련” 언급</p> <p>-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재발사에 대비, 미사일의 항적을 포착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 3척을 동해에 파견하는 등 대응 방침을 마련했음.</p>
8. 9	<p>민주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석차 출국</p>	<p>'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공동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p>	<p>日, '국가-국가법' 확정</p> <p>- 7월 22일 중의원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9	<p>- 민주노총 방북대표단 37명은 분단 이후 첫 남북한 노동자간 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8.10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p> <p>제6차 4자회담 차기일정 못 잡고 폐막</p> <p>- 남북한과 미국·중국 4개국은 차기 본회담 개최 일자를 잡지 못한 채 닷새간의 6차 본회담을 끝냈다.</p> <p>- 4개국은 폐막과 함께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4자회담」의 정례적 개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4자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7차 본회담 일정을 잡기로 합의함.</p>	<p>- 범민족통일대축전 준비사업 정형 총점검, 남조선의 「전국연합」 대표들을 비롯한 「범민련」 밖의 운동단체들의 참가문제 토의함.</p> <p>김계관 「외무성」 부상, 4자회담 철수 가능성 시사</p> <p>* 4자회담 마지막 일정인 전체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p> <p>-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철수 논의를 거부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4자회담 참가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임.</p>	<p>통과한 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규정한 법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p> <p>에브게니 아파나세프 주한 러시아 대사, 북미사일 재발사 반대 입장 표명</p> <p>* 문화일보와의 인터뷰</p> <p>- 어느 나라든 자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나라를 위협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음.</p>
8. 10	<p>北 주민시체 2구 16일 인도 합의</p> <p>- 남북한 적십자사 판문점 연락관들은 오후 2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접촉을 갖고 홍수로</p>	<p>박동춘 「외무성」 부상, 조·일 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3가지 원칙적 입장 성명 발표</p> <p>- ① 일본은 100년에 걸친 대조선 압살정책을 포기하고, ②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 및</p>	<p>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미·북 고위급 회담 몇 주 내 재개 희망」 표명</p> <p>* 브리핑</p> <p>- 우리는 아직 날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남측에 떠내려 온 북한 주민 시체 2구를 16일 북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함.</p> <p>조성태 국방장관, “북한, 미그 21기 34대 조립중” 언급 *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p> <p>-지난 7월 미그 21기 40대분의 무기 부품 박스가 도입되고, 8월에 그중 34대가 조립중인 것을 확인했음.</p>	<p>철저한 보상을 해야 하며, ③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힘의 대결정책도 포기해야 함.</p> <p>중방, 북한 개성시 홍수 피해 보도</p> <p>-7.31~8.3까지 개성지구에 699mm 이상의 강한 폭우로 개풍군 등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1,300여 정보의 논경지가 매몰 유실되었음.</p> <p>「직총」 위원장 염순길 등,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차 평양에도착한 민주노총 대표단 영접 * 이갑용 위원장의 공항 도착성명 및 고려호텔에서의 기자회견 사실 보도</p> <p>「조평통」 대변인,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담화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그토록 떠들어 온 간첩남파설이야말로 저들의 대북간첩 침투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날조와 모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p>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음.</p> <p>텔렐리 한미연합사령관, “북 미사일 군사 대응 고려 안해” 밝혀 * 용산 주한미군 기지 장교클럽 기자회견</p> <p>-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경제·외교적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사적 대응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p> <p>캐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북 미사일 추진해도 식량 지원 계속” 촉구 * 방북(8.5~10)후 베이징 기자회견</p> <p>- 미사일 발사 문제가 대북식량지원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0			<p>- 올해 수확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7년보다 증가했으나 결국 풍작은 아니며 북한은 여전히 식량 자급할 수 없음.</p>
8. 11	<p>「한적」 총재,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위한 당국간 실무 접촉 대북 제의</p> <p>- 집중 폭우와 태풍 '올가' 등으로 인해 남북한, 특히 임진강 유역에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함.</p> <p>- 임진강은 남북을 관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남북당국간 국장급 실무 접촉을 갖고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위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함.</p> <p>김대통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포용 정책 유지 표명 * 청와대 을지연습준비 보고회의 중</p> <p>-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다른 많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것임.</p>	<p>민주노총 대표단 환영 평양시 노동자 집회 개최(중앙노동자 회관)</p> <p>- 「직총」, 염순길 위원장의 환영 연설: 우리는 남조선 민주노총이 앞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남, 해외의 모든 통일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데서 주동적이며 선봉적으로 늘 것을 기대함.</p> <p>조선중앙통신, 「교육법」 채택 보도</p> <p>- 교육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의무 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 보장, 제6장 교육사업 등 6장 52조로 되어 있음.</p> <p>- 또한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1	<p>- 그러나 안보와 포용정책이라는 기본정책을 유지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업은 계속한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합의사항임.</p> <p>천용택 국정원장, “북한, 대포동 2호 발사준비 완료” 보고 *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p> <p>-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사정거리 4,500~6,000km 짜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하고 마무리 작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음.</p> <p>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카자흐스탄의 대북 전투기 수출관련 유감 표명</p> <p>- 세종로 청사에서 톨레젠 주케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만나 카자흐스탄의 대북 미그기 수출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음.</p>	<p>조치임.</p> <p>노동신문, 「말」지 기자 방북승인 관련 논평 * 통일의 원수들의 간악한 행위</p> <p>-괴뢰들이 「말」지 기자 일행의 공화국 방문을 승인하였다가 취소한 것은 북과 남 인민들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임.</p>	
8. 12	<p>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8.12~13)</p> <p>-「민주노총」과 북한 「직총」간의 남북 노동자 축구대</p>	<p>범민족통일대축전 공동준비위, 4차회의 관련 기자회견(평양 고려호텔)</p> <p>「외무성」 대변인, 제6차 4자회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2	<p>회가 12일 오후 4시 평양 양각도 경기장에서 개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직업총동맹 소속 선수단과 방북중인 민주노총 선수단과의 경기에서 5대 4로 북측이 승리 <p>「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8주년에 즈음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함. -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1999년 6월 3일의 베이징 남북당국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북한측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 <p>국회, 한·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 동의안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KEDO가 서명(7.2)한 차관공여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함. 	<p>개최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차 4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평화협정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체결돼야 한다는 미국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억지주장 때문임. -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조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기꺼이 응할 것임. 	
8. 13	<p>김종필 총리, 訪北 「민주노총」 대표단 목적외 정치성</p>	<p>'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8.13~16) 행사 관련</p>	<p>주일 카자흐스탄 대사, "북에 판 미그21기 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3	<p>활동 의법조치 지시 * 임시 국무회의</p> <p>- 정부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 중인 「민주노총」 대표들이 당초 목적을 훨씬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관계 기관에선 법 질서 위반행위를 엄정 조사해 의법조치 하라고 지시함.</p> <p>「민화협」, 민족화해를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발표</p> <p>-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20세기 마지막 8.15를 맞아 '민족화해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발표했다.</p> <p>- 민족화해를 위한 약속 3가지는 ▲남북정당, 사회단체 공동회의 실현을 통한 민족의 지혜와 역량 집결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문화운동 전개 등임.</p>	<p>- 전민족대단결 결의대회(금수산 기념궁전 광장)</p> <p>- 개막식(김일성경기장) • 김영남(축하연설), 김영대, 류미영, 안경호(개막사), 나창순(축하연설)</p> <p>- 북남 노동자 연대연합 통일 축구경기(김일성경기장) • 「민주노총」 : 「직총」=4 : 4</p> <p>- 범청학련 통일농구대회(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p> <p>- 노동신문, 통일대축전관련 사설 발표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p> <p>「민민전」, 우리의 '임진강 공동治水' 제의(8.11) 거부 입장 표명</p> <p>- 군사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p>	<p>환요구" 언급</p> <p>-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미국의 항의에 따라, 북한에 판매한 미그21 전투기 30대의 반환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음.</p>
8. 14	<p>남북노동자축구 대표팀 귀환</p> <p>- 평양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축구선수단 37명이 14일 오후 5시 22분 판문점을</p>	<p>범민족통일대축전 관련 행사 진행</p> <p>- 제10차 범민족대회 사진·미술전시회 및 조국통일상 수여식·범청학련 통일노래무대·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4	<p>통해 귀환함.</p> <p>- 방북대표단의 이감용 민주노총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고 “내년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열자고 제의해 김 위원장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음.</p>	<p>립 착공식</p> <p>노동신문, 우리측 8.15 계기 대북제의 예상 보도 관련 논평</p> <p>- 남조선 당국자가 조국통일 3대헌장과 세가지 선행실천사항 이행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표명이 없이는 그 어떤 대북제의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p> <p>「조평통」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 미국은 이번 연습(8.16~27)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높아가는 통일열기를 냉각시키고 힘의 시위로 우리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이번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것임.</p>	
8. 15	<p>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p> <p>-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하며,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p> <p>-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의</p>	<p>범민족통일대축전 관련 행사 진행</p> <p>-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연합대회(판문각 앞)</p> <p>- 남·북·해외 통일예술축전(판문각)</p> <p>- 「제10차 범민족대회」(통일각)</p> <p>• 의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p>	<p>정부당국자, “「국적」, 北 수재민에 쌀 100t 지원” 언급</p> <p>-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이 최근 북한 개성지역 이재민 3만 9,136명에게 1인당 하루 300g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5	<p>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함.</p> <p>'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손잡기 대회</p> <p>- 오후 4시 40분경 5만 7,00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부터 통일대교까지 53km 사이에서 손에 손을 맞잡는 '통일염원 인간띠'를 만들었음.</p> <p>범민족대회 '3자연합대회' 무산</p> <p>- 「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으로 구성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범추본)가 15일 판문점에서 열 예정이던 제 10차 범민족대회가 무산됐음.</p>	<p>• 「'99범민족회의 결정서」 채택</p> <p>- 제4차 범청학련총회</p> <p>• 의제: 지난 1년간 「범청학련」 자주교류투쟁 총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p> <p>• 제4차 「범청학련」 총회 결의문 채택</p> <p>-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연방조국 건설을 위한 통일토론회(평양고려호텔)</p>	<p>- 또 개성의 국제적십자사 재난대피소에서 쌀 82t과 담요 2,905장, 취사도구 581세트, 통조림 등의 구호물품을 6일 이재민에게 지원했고, 12일에는 쌀 18t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두 100t의 쌀을 제공했음.</p>
8. 16	<p>「한적」, 북 주민 주검 3구 인도</p> <p>- 대한적십자사는 오전 9시 55분 임진강변 등지에서 발견한 북한주민 주검 3구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함.</p> <p>대한제당, 北에 사료 2만톤 수출 계약 체결 발표</p>	<p>'99통일대축전·10차 범민족대회 폐막식(동평양대극장)</p> <p>- 홍성남의 축하연설: 이번 대축전은 북·남·해외 3자연대를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대결노선에 대한 민족대단결노선의 승리를 과시하고 조국통일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대축전으로</p>	<p>CNN, 평양 생방송</p> <p>- 미국 CNN은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평양 현지에서 「질문과 답변(Q&A)-아시아」 특집으로 TV 생방송을 실시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6	<p>- 국내 사료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북측 금강산그룹과 연간 2만톤의 오리사료 수출계약을 체결했음.</p> <p>- 이번에 수출되는 사료 2만톤은 금액으로 60만달러에 이르며 대금은 현금 대신 북한에서 생산되는 아연 등 비철금속을 구상 무역 형태로 받게 됨.</p> <p>국가정보원, 국군포로一家 등 5명 귀순 발표</p> <p>- 국군포로 박동일(72)씨 가족 4명과 최철규씨 등 북한주민 5명이 제3국을 통해 밀입국, 귀순을 요청해왔음.</p>	<p>훌륭히 장식되었음.</p> <p>「외무성」 대변인, 을지포커스훈련(8.16~27) 관련 비난 담화 발표</p> <p>-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임. 더욱 엄중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문제를 구실로 추종세력과 침략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통일운동이 전례없이 고조되는 시점,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 공회전된 속에서 이런 연습이 벌어진다는 것임.</p> <p>- 사실상 미국이 우리와 확약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노골적 도전 행위임.</p> <p>유엔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소위원회 제51차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등 관련 북한대표가 연설</p> <p>* 안건 6항 '현대형의 노예' 토의시</p> <p>- 일본 당국에 첫째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둘째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죄행에 대하여 보상하며, 셋째 범죄에 책임</p>	<p>- 이날 질문은 주로 북한 기아사태 현황과 지원식량의 배급상태, 북한 미사일 개발 문제에 집중함.</p> <p>- 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장은 “방문객들이 케이크를 주면 우리도 케이크를 줄 것이며, 칼을 들이대면 우리도 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단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음.</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과 관계 개선 용의 표명</p> <p>* 김용순 노동당비서의 CNN방송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p> <p>- 우리는 이 발언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기회를 포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를 희망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6		<p>이 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함.</p>	<p>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북 미사일 관계없이 지원 계속” 언급 * 서울 프레스 센타 기자회견</p> <p>-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임.</p> <p>-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는 사형선고와 같음.</p>
8. 17	<p>제10차 판문점 장성금회담 개최</p> <p>-유엔군사령부는 북한측의 제의로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금회담을 개최함.</p> <p>-이번 회담은 서해상 북방한계선 설정 협의와 좌초된 골재채취 준설선(8.3) 인양문제 등을 협의함.</p>	<p>중방, 임진강 공동치수 제의 관련 논평 * 반인민적 정책의 필연적 후과</p> <p>-임진강유역의 수해는 그 무슨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아 오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입은 것도 아님.</p> <p>조선중앙통신, 판문점 장성금회담 개최 보도</p> <p>-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은 조·미 사이에 토의되어야 하며 우리측 수석대표는</p>	<p>러시아 세르게예프 장관, 北미사일 시험발사 포기 설득 입장 표명 *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일본의 노로타호세이 방위청 장관과의 회담</p> <p>-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도록 외교·정치적 노력을 해나갈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7		<p>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제안을 내놓았음.</p> <p>- 실무접촉안: ①실무접촉을 8월 하순부터 실시, 합의로 앞당길 수 있음 ②각각 대좌급을 단장으로 5~7명 정도 참가, 남조선 군성원들도 참가 가능 ③장소는 판문점 ④접촉주기는 원칙적 10일에 1차, 필요시 합의 가능 ⑤비공개 접촉</p> <p>노동신문, 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 비난 논평 * 식민지 노복의 반통일 냇두리</p> <p>- 남조선 집권자는 거래의 불같은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반북대결정책, 북침전쟁정책을 견어치워야 하며 이제라도 연북화해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함.</p> <p>「외무성」 대변인, 햇볕정책 관련 성명</p> <p>- 햇볕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 전략'의 변종으로 화해와 협력의 미명 아래 우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책동임.</p> <p>- 우리의 제도를 변질·와해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7		<p>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하여 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햇볕정책은 불피코 북남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p>	
8. 18	<p>한나라당 의원 63명, 보안법 개정 반대 성명</p> <p>- 국가보안법을 폐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 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p> <p>北 현지 「현대아산금강산사업소」 개소</p> <p>- 현대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총회사」와 현지에서 직접 협의하는 사업체인 「현대아산금강산사업소」가 장전항 출입국사무소 옆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음.</p>	<p>「외무성」 대변인, 美와 미사일 협상 용의 표명 성명</p> <p>- 적국이 우리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의향을 갖고 진심으로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음.</p> <p>-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위성활동계획과 방위력을 위한 미사일개발계획도 있음. 이 두가지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어떤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음.</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무기수출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미국은 지난 해에 78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비경쟁을 조장시키고 세계평화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음.</p> <p>「범민련」 북측본부, 우리 정부가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 발표</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北, 미사일 개발 중단 땀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 입장 표명</p> <p>* 정례 브리핑</p> <p>- 북한이 미사일 개발·수출을 완전 중단하면, 그 대가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음.</p> <p>- 정상화에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및 외교적 대표기능, 경제제재의 완전 또는 일부 해제조치 등이 포함될 것임.</p>
8. 19	국방부, 국군 40~50만으로	노동신문, 대통령 8.15 경축사	미 국방부, '고고도 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19	<p>감축 계획 발표</p> <p>-우리 군은 남북간에 평화적 공존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는 안보환경을 예상해 2015년쯤까지 병력을 40만~50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임.</p>	<p>관련 논평</p> <p>* 북침 전쟁열에 미친자의 망동</p> <p>-남조선 집권자는 며칠 전 이른바 광복절 경축사라는 데서 그 무슨 당국대화와 포용정책에 대해 떠벌었음. 그런데 그 입술가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북침전쟁을 내놓고 선동하기에 이르렀음.</p>	<p>사일 방위' 본격 개발</p> <p>- 높은 고도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전역 고고도 미사일 방위(THAAD)체제의 시험 요격 발사가 두 번째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를 전면 개발기로 결정했음.</p> <p>리 자오싱 주미 중국대사, "한반도 비핵화 희망" 언급</p> <p>*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브리핑</p> <p>-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남북한 어느쪽도 핵무기를 배치 또는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음.</p>
8. 20	<p>김대중 대통령, "국보법의 찬양고무·불고지 죄 고쳐야 한다"고 언급</p> <p>-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 찬양·고무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고지죄는 국민에게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다는</p>	<p>노동신문, 일 정치인 신사참배 관련 논평</p> <p>* 군국주의자들의 광기</p> <p>- 일본의 정계 인물들이 무리를 지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 신사를 참배(8.15)한 것은 군국주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침략에</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0	<p>것이 적절치 못하므로 개정해야 함.</p> <p>김덕 의원, “국가보안법 개정 무조건 반대는 곤란” 입장 표명</p> <p>-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안보에 해로우니까 보안법 개정에 대해 거들떠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정면 거부하고, 논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생경한 안보논리임.</p>	<p>나서기 위한 것임.</p> <p>「범민련」 해외 각 지역본부 대표단,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 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앞으로 보내는 연대의 글 보도</p> <p>- 이번의 투쟁은 범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고수하고 통일과 반통일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쟁임.</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밀반입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는 미국의 양면적 정체를 보여주는 단면적 실례로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시키고 전쟁접경으로 정세를 몰아가기 위해 그 무슨 위협을 운운하며 최신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있음.</p>	
8. 21	<p>국가정보원, 김영환씨 등 간첩혐의 구속</p> <p>-‘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와 「말」지 기자 조유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p>	<p>노동신문, 을지포커스 훈련 관련 논평</p> <p>* 끝끝내 군사적 선택을 하려는가</p> <p>- 미국이 교전관계에 있는 우리를 '99을지포커스렌즈훈련 등을 통해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p>	<p>와다 시즈오 「일·조우호연대 일본회의」의장, “북 미사일 중지 땀 식량지원” 언급</p> <p>* 방북후 도쿄신문과 회견</p> <p>-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중지한다면 일본 정부가 식량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1		<p>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음.</p> <p>노동신문, 우리측의 방북자 조사 관련 논평</p> <p>* 통일의 원쑤만이 할 수 있는 악행</p> <p>-남조선 괴뢰들이 「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 「전국연합」 대표 및 「민주노총」·민주노동자 통일축구선수단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온 민족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분열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악행임.</p>	<p>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의 구두 메시지를 복한 김용순 「아·태 평화위」 위원장 앞으로 전달했음.</p> <p>카자흐스탄 외무장관, “민간조직서 北에 미그기 판매” 언급</p> <p>* 도쿄신문</p> <p>-도카에프 외무장관은 일본의 다케이케이조 외무성 정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국의 비정부조직이 미그21기 등 옛 소련제 전투기 약 40대를 북한에 팔기로 해 그중 몇대가 북한에 인도됐다고 말했음.</p>
8. 23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방미</p> <p>-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 협상이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내달초 페리 보고서의 미 의회 제출을 앞둔 8.23~29까지 미국을 방문함.</p>	<p>「직총」중앙위, 「민주노총」 대표단 등에 대한 탄압 비난 성명 발표</p> <p>- 「민주노총」 대표단들과 노동자축구선수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탄압책동을 북남 노동자들의 단결과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거래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극악한</p>	<p>美 랜드연구소 특별보고서, “북한 연착륙 가능성 적다”고 주장</p> <p>-북한의 점진적 변화와 개혁을 통한 이른바 연착륙(soft landing)은 희망적 생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실현가능성</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3	<p>-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면담(8.26)</p> <p>한·중 국방장관, 한·중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합의 * 방중기간: 8.23~29</p> <p>- 한·중 국방장관은 베이징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사절단 정례교환 ▲정책실무회의 정례화 ▲육·해·공 장교 교환교육 등에 합의, 오는 11월쯤 우리측 군사사절단이 방중기로 합의 했음.</p> <p>한·일 외무회담, 北 미사일에 완벽 공조 재확인</p> <p>- 일본을 공식 방문중인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외상과 회담을 갖고 대북한 정책에서 한·미·일 3국의 완벽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동입장을 확인했음.</p>	<p>반통일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규탄함.</p>	<p>이 매우 희박함.</p> <p>-향후 남북한의 운명은 ①통합 및 평화적 통일, ②붕괴 또는 흡수, ③분쟁을 통한 통일, ④외부 개입에 의한 남북 불균형 상태의 지속 등 4가지 경우의 가능성이 있음.</p> <p>벤저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 미 하원 북한자문단 구성 발표</p> <p>- 하원지도부가 북한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가하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북한정책자문단' 구성을 의뢰함에 따라 이를 구성·운영키로 했음.</p> <p>-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구도를 의회와 미 국민들에게 제시할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4	<p>조성태 국방장관, “중국 주룽지 총리 한국방문 희망” 언급</p> <p>-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 국방장관은 주총리를 예방, 오는 11월 말이나 내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주총리는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회답함.</p>	<p>한국민족민주전선 창립3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개최(청년중앙회관)</p> <p>「직총」 중앙위 제40차 전원회의 개최</p> <p>-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로작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 할데 대하여」에 제시된 과업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 대책에 대해 토의함.</p> <p>「외무성」 대변인, 이스라엘의 對 韓 Popeye 空對地 미사일 판매 계약 체결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이스라엘 신문 하아펜츠(8.19 자)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선반도에서 절대적인 힘의 우위로 우리를 압살해 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력증강과 새 전쟁도발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됨.</p>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성명 발표</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중태에 빠진 김인서 노인을 비롯한 모든 비전향 장기수들을 가족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무조건 송</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4		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	
8. 25	<p>조성태 국방장관, “주한미군 장래는 北태도에 달렸다”고 발언</p> <p>* 중국 국방대학</p> <p>-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이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북한의 대북 포용정책 수용 정도에 달려있음.</p>		<p>유엔사, 북한군 시신 1구 인도</p> <p>- 유엔군 사령부는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북한군 시신 1구를 북한측에 인도함.</p>
8. 26	<p>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북의 미사일은 대미·대일 협상카드로 사용” 언급</p> <p>* 기독교인론클럽 조찬 강연</p> <p>- 북한은 미사일을 대미 협상카드 뿐만 아니라 대일 협상카드로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p> <p>-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내는 시점에서 북한은 2주 전에 외무성 공식 발표를 통해 대일 3대원칙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음.</p> <p>한국은행, '98년 북한 GDP 추정결과 발표</p>	<p>인민군 대좌 박임수,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와 관련 기자회견(대동강 외교단 회관)</p> <p>-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기준은 정전협정이며, 이 문제는 판문점 미·북장령급회담에서 다루어야 함.</p> <p>- 조선인민군측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미군측이 문제토의를 거부하면 자위권을 수호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p>	<p>토니 홀 美하원의원 방북(8.26~29)</p> <p>- 토니 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식량사정과 의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6	<p>- '97년에 농림어업 생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반등과 제조업 생산 위축속도가 줄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1.1% 성장률을 기록했다.</p> <p>-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17조 5,952억 원으로 남한의 25분의 1, 1인당 GNI는 80만 2,000 원으로 남한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함.</p>		
8. 27	<p>국방부, 北으로 간 준철선 예인</p> <p>- 이달 초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한강하구 북측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민간 모래 준철선 1척을 예인함.</p> <p>통계청, 北 인구 추계 발표</p> <p>- 북한인구는 '99년 7월 1일 현재 2,208만 2,000명으로 남한의 47% 수준이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43만 5,0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p> <p>- 북한 평균수명은 '97년 기준 남자는 59.8세 여자는 64.5세로 남한에 비해 남</p>	<p>NLL 관련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비망기(8.24)를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1999-929호로 배포</p> <p>노동신문, 미·일 TMD 관련 논평</p> <p>* 제2의 군비경쟁의 방아쇠</p> <p>- 최근 미국과 일본이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수립과 관련한 협정을 조인한 것은 군비경쟁의 방아쇠, 제2의 냉전을 불러오는 유령이자 새로운 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7	<p>자는 10.8세 여자는 13.6세나 낮은 것으로 분석.</p>		
8. 28		<p>노동신문, 나까소네 LA 타임즈 기고 관련 비난 논평 * 주제넘은 소리</p> <p>- 전 일본총리 나까소네가 LA 타임즈지의 기고 글에서 미·일 등이 대북경제 개혁요구 및 남북의 비핵공동선언 재확인 등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발임.</p>	
8. 29	<p>임동원 통일부 장관, “페리 보고서 내달 중순께 발표” 표명 *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항 기자브리핑</p> <p>-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의 보고서가 이미 완료됐으며, 북·미 베를린 회담직후 마무리 손질을 거쳐 공개될 것임.</p> <p>- 페리보고서에 담길 대북 권고안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제안인 만큼 서울·워싱턴·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될 것임.</p> <p>- 내달 7~11일 베를린에서 열릴 미·북회담이 한반</p>	<p>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스페인) 여자마라톤 부문에서 정성욱 선수, 2시간 26분 59초로 금메달 획득</p> <p>노동신문, 「범민련」 남측본부 수색 관련 논평 * 민족의 통일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p> <p>- 남조선 통치배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의 강제수색, 진관스님의 보안법위반 체포 등 민간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민족에 대한 우롱이자 도전임.</p>	<p>산케이신문, “북한계 은행 13곳 파산” 보도</p> <p>- 일본내 북한계 조선은행(조은) 신용조합 32개 중 13개가 파산함에 따라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체가 불량채권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 갔음.</p> <p>-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은」 신용조합 부채의 일부가 북한에 부정하게 송금됐다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음.</p> <p>- 일본 정부는 이 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29	<p>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p> <p>조성태 국방장관, “주한미군 발언 오해 유감” 해명 * 귀국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p> <p>-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통일후에도 주변국들이 우리의 미군 계속 주둔 입장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외교적 수사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 졌음.</p> <p>대북지원 단체, 북은 南 구호 단체에도 입북료 요구 주장</p> <p>- 북한이 대북사업을 하는 남한의 기업이나 기관들 외에 남측 대북지원단체들에도 방북료 등의 명분으로 수만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북지원 단체들이 말하고 있음.</p> <p>- 방북료는 북한 당국 차원이 아니라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챙기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행들이 2001년 3월 이내에 파산신청을 하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방침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음.</p>
8. 30	김대중 대통령, “미사일 발	「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도쿄	토니 홀 미 하원의원,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0	<p>포기뎐 北에 보상 할 용의” 표명</p> <p>* IHT지 가고</p> <p>- 북한이 대량파기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한국과 군사적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보상할 의향이 있음.</p> <p>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 「북한 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서」 발표</p> <p>-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동북 3성의 29개 시·현의 2,479개 마을에서 조사된 탈북자 수가 2만 8,472명으로 이를 근거로 29개 시·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는 14만~20만명으로 추정됨.</p> <p>- 이들 탈북 난민중 여성비율이 75.5%에 이르며, 중국 공안에 적발돼 강제송환된 사람은 모두 2천 4백명으로 조사됐음.</p>	<p>연단회의 보고서, 유엔 제출” 비난</p> <p>- 저들의 핵무장화, 군사대국화 야망을 어떻게 하나 가리우고 마치도 일본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그 무슨 역할을 한다는 뉘새를 피우면서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고취해 보려하고 있음.</p> <p>WFP 북한주재 대표, 사리원에서 산림조성과 국토관리에 필요한 소형화물자동차, 비료 농약 등 협조물자 지원</p> <p>「외무성」 대변인, 프랑스 당국의 미국 전역 미사일방위계획 반대 입장 지지</p> <p>- 프랑스 대통령과 외무상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계획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략 핵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므로 배격한다고 언명했는데 이것은 미·일이 강행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위계획 그 자체가 내포하는 위협성으로 하여 아시아 나라들과 유럽 나라들의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p>	<p>“미국에서 대북제재 해제 땐, 북한도 미사일 문제 성의” 표명</p> <p>* 방북(8.26~28) 후 주한미군대사관 기자회견</p> <p>- 방북 중 김계관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도 신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들었음.</p> <p>- 또한 “우리는 지금 중요하고도 미묘한 시기에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데 동의했음.</p>
8. 31	<p>원로화가 11명 방북</p>	<p>평방, 국방부 장관의 訪中 관련 논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8. 31	<p>- 권옥연씨 등 원로화가 10 명이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31부터 9.7 까지 북한을 방문함.</p> <p>- '제1회 원로화가 북녘 산하기행'이란 이름의 이번 방북은 금강산 국제그룹 주관으로 이뤄졌음.</p> <p>「정대협」, 군 위안부 남북공동조사 제안</p> <p>-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에 남북 공동 종군위안부 피해진상규명조사단 구성을 위한 회담을 10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함.</p> <p>- 최근 방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 참의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p>	<p>* 비열한 구걸행각</p> <p>-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주변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대방을 반북 봉쇄고리에 깊숙히 끌어들이며 대북포위망을 형성하려 드는 것이 분명함.</p> <p>「북적」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비전향장기수 김인서(73)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적」 정원식 총재 앞으로 보냄.</p> <p>중방,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 1주년 관련 논평</p> <p>- ①위성 발사국인 우리 조선의 국력은 위대함. ②우리 인민은 위성 발사국 인민으로서의 높은 민족적 긍지를 온 세계에 떨치고 있음 ③위성 발사국인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통일부, 이산가족찾기 신청 「한적」에 이관</p> <p>-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 접수업무를 「한적」에 위탁하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자료를 활용한 이산가족찾기 사업도 「한적」에서 담당하도록 함.</p> <p>제11차 북·미 판문점장성급 회담</p> <p>-북측 제의로 열린 유엔·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서해상 북방한계선 조정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 함.</p> <p>- 북측은 9·10차 회담에 이어 또다시 서해상 NLL을 조정,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실무급 회의 개최를 주장했음.</p> <p>-이에 대해 유엔사측은 NLL은 정전협정 이후 지난 46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협의대상이 아니며 남북간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설정될 때</p>	<p>「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서원철, 이성우, 박기수, 강형구, 한총련 황혜로 등이 김용순 「아·태평화위」위원장과 담화</p> <p>평방, 판문점장성급회담 진행 사실 보도</p> <p>-조선인민군측은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영해 깊이에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무런 결실도 없는 장령급회담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더 이상 마주앉아 시간을 끌 필요를 느끼지 않음.</p>	<p>교도통신, “김정일, 자유시장 폐쇄 명령” 보도</p> <p>-지난 2월 김정일은 자본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창일로에 있는 자유시장운영자들에게 시장폐쇄와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의 복귀를 명령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	<p>까지 현재의 NLL이 준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p>		
9. 2	<p>한·러 국방장관 회담</p> <p>- 조성태 국방장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러시아 잠수함 도입문제 등 한·러 군사 교류 및 현안 등 논의함.</p> <p>한·일 총리회담</p> <p>- 방일 중인 김종필 총리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과 대북포용정책 등 안보현안 및 경제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관계정상화 문제를 조율함.</p> <p>통일부, (주)현대아산의 평양 실내 체육관 건설 승인</p> <p>- 1만1천여석 규모의 평양 실내 종합체육관 건설과 농구경기 등 남북체육교류 사업을 위해 (주)현대아산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협력사업자로 승인함.</p>	<p>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 특별보도</p> <p>-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 18분 30초, 동경 125도 31분 00초) ▲우리측 선인 용도와 미군측 관할 하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소엽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 1분 12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서남쪽의 점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를 지나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측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구역으로 함.</p> <p>- 조선 서해 해상 우리의 영해안에 제 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함.</p> <p>-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p>	<p>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 "탈북자 문제에 한국 개입 불원" 언급</p> <p>* 한국 언론재단 초청토론회</p> <p>- 탈북자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북한문제이며 다른 나라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느 일방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p> <p>- 북측의 공민 중 중국 국경을 넘은 사람을 한국언론은 '탈북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유엔난민사무소도 이들이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p> <p>유엔시, 북 도발시 강력 응징 경고</p> <p>- 유엔사는 북한의 새 해상경계선 선포와 자위권 행사 관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		<p>될 것임.</p> <p>'99 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범민련」, 나창순, 서운철, 「한총련」, 황혜로, 「전국연합」, 이성우, 박기수, 강형구) 판문점을 통해 귀환</p>	<p>마이클 던 소장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NLL은 46년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존재해 왔으며 만약 북한이 NLL 침범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응징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함.</p>
9. 3	<p>국가안전보장회의, 북방한계선 무효선언 관련 네가지 대응방침 확정</p> <p>- NLL은 '53년 이후 남북간에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음(NLL은 유일한 실질 경계선).</p> <p>- '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남북간의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경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함.</p> <p>- 우리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계선은 인정할 수 없음.</p>	<p>평방, “한반도에 전쟁위기” 김정일 발언 보도</p> <p>-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돼 임의의 시각에 긴장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함.</p> <p>- 서해사태는 미제의 지령 밑에 괴뢰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전형적인 무장도발 사건임.</p> <p>「조국전선」·「조평통」·「민화협」·「범민련」 북측본부·「범청학련」 북측본부, 평양에서 비상연합회의 개최</p> <p>-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남측</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	<p>- 남북간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NLL을 확고하게 지킬 것임.</p> <p>합동참모본부, 北 북방한계선 무효선언 관련 성명</p> <p>- 우리군은 북한군이 지난 2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데 대하여 결코 인정할 수 없음.</p> <p>- 북방한계선은 46년간 엄연히 존재해 왔고, 현재도 실질적인 경계선임.</p> <p>- 우리군은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고 북한이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군은 이를 도발로 간주해 용납하지 않을 것임.</p>	<p>대표들을 체포·구속한 남한 당국의 탄압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당면 대책 토의</p>	
9. 4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세계 마라톤 여왕 정성옥에게 영웅칭호와 인민체육인 칭호 수여</p>	
9. 5	<p>국방부·건설교통부, “북한, '97년에 NLL 인정했다”고 언급</p> <p>-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97년 한국의 비</p>	<p>김계관 「외무성」 부상, “베를린 회담서 NLL 문제도 거론” 표명</p> <p>*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베를린 테겔 공항 도착 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5	<p>행정보 구역을 조정할 때 북한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은 NLL의 존재와 효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임.</p> <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NLL을 북쪽한계점으로 하는 한국의 비행정보 구역 변경을 지난해 2월 26일 정식 발효시켰음.</p> <p>- ICAO는 한국의 새 비행정보 구역을 '93년 1월 5일 처음 고시해 시범운영하며 이해관계국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나, '9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관제이양지점을 논의할 때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ICAO는 변경안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p>	<p>-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통제수역 문제도 거론할 것임.</p> <p>-쌍방 관심사는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임.</p> <p>「조평통」대변인, 통일대축전 참가자에 대한 남한당국의 체포행위를 규탄 성명 발표</p> <p>-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간 대표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탄압만행을 통일염원에 대한 유린으로 파쇼폭거로 낙인하며 이를 준열히 규탄함.</p>	
9. 6	<p>통일부, "90년 이후 在北가족 송금액 77만달러" 집계</p> <p>-북한에 사는 이산가족에게 남한의 가족이 개별적으로 전달·지원한 돈은 이산가족 만남을 법적으로</p>	<p>「조평통」, 주한미군 주둔 54주년(9.8) 즈음 성명 발표</p> <p>-첫째,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거시킬 데 대한 의지를 명백히 표명하여야 함.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민족</p>	<p>日, 한반도 전쟁 대비 첫 도상훈련 실시 * 도쿄신문</p> <p>-일본 해상자위대는 9.6~9까지 나흘간 사상 처음으로 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6	<p>로 허용한 '90년부터 '99년 8월까지 신고기준으로 578건 77만 7,200달러(8억 5,492만원), 건당 평균액은 1,345달러(147만 9,500)로 집계함.</p> <p>현대그룹 관계자, “北, TV 10만대 현대에 요청” 언급</p> <p>-북한은 수해로 TV가 많이 못쓰게 됐다면서 지난달 말 「아·태평화위」를 통해 TV를 5만대 가량 공급할 수 있는지 현대아산측에 문의해 왔음.</p>	<p>의 염원에 맞게 자주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임.</p> <p>-둘째, 미군 철거 시간표를 제시해야 함. 미군철거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자주의지를 검증하는 척도가 될 것임.</p> <p>-셋째, 미군 강점을 법화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해야 함.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체결한 모든 예측적인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자기에게 썩워진 울가미를 스스로 벗어 던져야 함.</p> <p>「민족화해협의회」, 범민족통일대축제 관련 성명 발표</p> <p>-남측 당국이 범민족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통일단체 대표들을 탄압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 범죄를 계속 감행하고 있음.</p>	<p>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상정한 주변사태 대응용 대규모 도상훈련(CPX)을 실시함.</p> <p>-이번 가상훈련은 러시아군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기존의 훈련과 달리, 처음으로 주변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 제정을 반영한 큰 방향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p>
9. 7	<p>김대중 대통령, “北 해상경계선 불인정” 표명</p> <p>* 국무회의</p> <p>-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음.</p>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남조선 강점 54년 관련 담화</p> <p>-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는 오늘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즉시 포기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실제적 걸림돌인 미군을 하</p>	<p>美·北 고위급회담(9.7~12, 베를린) 개최</p> <p>-미국과 북한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 등 핵심현안과 상호 관계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7	<p>-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공동위에서 논의할 사항임.</p> <p>- 우리는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p>	<p>루빨리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함.</p>	<p>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음.</p> <p>- 찰스 카트만 미국 의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첫날 베를린 미 대사관 분관에서 열렸음.</p> <p>- 김계관 부상은 회담을 마친 뒤 “진지하고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 교환을 했으며, 회담결과는 미측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음.</p> <p>교도통신, “북한, 몽골 대사관 폐쇄” 보도 * 몽골 외무부 당국자 말 인용</p> <p>- 북한은 8.25 몽골 외교부에 외교문서를 보내 이 날자로 울란바토르의 북한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통보해 왔음.</p>
9. 8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 경협 중소기업에 저리대출”</p>	<p>중국의 장쩌민(江澤民)·리펑(李鵬)·주룽지(朱鎔基) 등, 북한정</p>	<p>美·北 고위급회담 이틀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p>*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 북경협 아카데미 기조연설</p> <p>-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남북협력기 금에서 장기저리로 대출 을 시행할 계획임.</p> <p>-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경분리는 포용정책 추 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음.</p> <p>-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 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 대북사업채 금융지원 ▲ 유휴설비 이전 적극 추진 ▲물류비 인하를 위한 북 한 항구시설 개선과 지정 선적 이용 ▲해주·남포 지역 등의 공단조성 ▲남 북 농업협력사업 등을 추 진할 계획임.</p> <p>국방부 관계자, “北, NLL침 범 작년 35차례” 언급</p> <p>- 북한 함정들이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내세워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것은 지 난 '94년 4차례에 불과했 으며 '95년엔 8차례, '96년 엔 5차례, '97년엔 11차례 였으나 지난해엔 35차례</p>	<p>권 창건 51돌 즈음 김정일·김 영남·홍성남 등에게 축전 발송</p> <p>정권창건 51돌 경축 중앙보고대 회(4.25문화회관)</p> <p>* 김영남, 홍성남, 한성룡, 이용 무 등 참가</p> <p>8.15 범민족대회 10년사 관련 상보 발표</p> <p>- 지난 10년간은 가장 공명정대 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노선 과 방안을 합의·확정하였으 며 해·내외 통일애국세력의 승리를 가져온 역사적 기간 이었음.</p> <p>- 지난 10년간의 범민족통일은 동 과정은 대외 반통일세력의 분열노선과 분열주의적 책동 의 반동성이 만천하에 여지없 이 폭로 단죄된 나날이었음.</p>	<p>- 미국과 북한은 베를 린 북한 이익 대표 부에서 북한 미사 일과 미·북관계 개 선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감.</p> <p>- 북한은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회담 에서 미·북 관계 개선과 미사일 문 제 해결 등을 위해 서는 “미측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신 의를 갖고 응하겠 다”며 미측의 선행 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행 등을 요구함.</p> <p>- 미국은 윌리엄 페 리 대북정책 조정 관이 제의한 미· 북 관계정상화 합 의의 조속한 개시 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장 거리 미사일 발사실 험 일시중단 조치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8	<p>에 달했음.</p> <p>통일대비 최대 정책과제는 '지역 등 내부갈등해소' 47%</p> <p>*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여론 주도층 154명 설문 결과</p> <p>-대학교수, 국책연구원장 등 여론주도층은 통일에 대비한 최우선 과제로 내부 갈등해소를 꼽았으며, 지역·계층·세대 등 사회적 갈등이 지난 3~4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p> <p>-통일에 대비한 우선적 정책과제에 대해 우리 내부의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소 46.9%,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32.9%, 남북주민간 이질감 해소 10.6%, 적극적 정부정책 홍보 7.1% 등 순이었음.</p>		
9. 9	<p>국가정보원, 민혁당 5명 간 첩협의 구속</p> <p>-북한이 80년대 대학가의 주사파 세력을 포섭해 구축한 남한내 지하당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을 적발, 김영환('강철서신' 저자), 조유식('말'지 기자), 하영옥(무직), 심재춘(대학강사),</p>	<p>공화국 창건 51돌 즈음 '당 및 국가지도들이 금수산 기념 궁전을 찾아가 경의를 표시</p> <p>* 김영남, 홍성남, 이을설 등 참석</p> <p>러시아 대통령 옐친, 공화국 창건 51돌 즈음 김정일에게 축전</p> <p>-나는 국가의 자주권 존중, 선</p>	<p>美 CIA, "北, 15년 내 ICBM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p> <p>-2015년께 미국은 러시아·중국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9	<p>김경환(「말」지 기자)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함.</p>	<p>린,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두나라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함.</p> <p>노동신문, '당의 영도따라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아가자' 제하의 사설</p> <p>-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세련된 선군혁명 영도 밑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국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음.</p>	<p>-북한이 ICBM을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란은 어느 정도 있고, 이라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p>
9. 10		<p>「조선로동당」·「사민당」·「조평통」 등 23개 정당 단체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9.2)를 지지하는 연합 성명</p> <p>-우리가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조선정전협정 및 국제법에도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현실적인 것이므로 미국과 남조선들은 북방한계선을 당장 철회하고 반북대결 전쟁책동을 지체없이 걷어치워야 함.</p>	<p>북·미 베를린회담 3일째 회의 개최</p> <p>-북한과 미국은 7~8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국에 보고한 후에, 훈령을 받기 위해 9일 하루 쉬고 10일 오후에 주미대사관에서 3일째 회의를 열어서</p> <p>-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유예하고 미국</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0			<p>은 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협상의 틀에는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나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함.</p> <p>- 미사일발사 유예에 관해서 찰스 카트만은 여론과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공식적·가시적 방법을 요구했으나 김계관은 추후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우회적 방법을 취했고</p> <p>- 제재완화 폭과 관련하여 북측은 대북적대정책 해소에 걸맞은 대폭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1~2개를 우선 단행한 뒤 양국의 관계가 진전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p>
9. 11	<p>한·중 정상회담</p> <p>-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p>	<p>북한 「공보위원회」, 이집트 공보성과 공보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이집트 카이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1	<p>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이익을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p>	<p>조선학생위 대변인, 당국의 방북 남측대표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구금조치를 비난하는 담화 발표</p> <p>전국 「농근맹」 경제선동경연(9.11~16, 평양) 개최</p> <p>중방, “김정일,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1억 780만원의 교육원조비·장학금 전달” 보도</p> <p>-이제까지 총 145차에 걸쳐 441억 4,596만 3천원 전달함.</p>	
9. 12	<p>한·미·일 정상회담</p> <p>-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미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베를린회담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음.</p>		<p>북·미 베를린회담 타결</p> <p>- 북한 미사일과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타결됐음.</p> <p>-공동발표문 요지</p> <p>• 양자관계와 여타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p> <p>• 양측은 경제제재와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관해 생산적인 협의를 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2			<p>졌음. 각측은 이런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필요성을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잠정 조치로 양자관계를 증진시키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긍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각각 노력하기로 합의함.
9. 13	<p>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北, 결국 페리 제안 수용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p> <p>-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중인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북·미회담의 타결과 관련, “북한이 페리 제안을 전부 수용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단계를 거쳐 결국 그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음</p>	<p>중방, ‘북남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제하의 보도</p> <p>- 북남대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다음의 기초가 필요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국통일 3대원칙에 의한 대화의 진행 ② 외세공조 및 합동군사연습 중지, 보안법철폐, ‘통일에 국세력’에 대한 탄압 중지 등 대화 분위기 조성 ③ 당국자들을 포함해서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 각계 	<p>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대북 제재 해제 검토” 표명</p> <p>- 오를랜드에서 북·미 협의 결과에 대해 “전향적인 진전이 있었던 점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음.</p> <p>- 그러나 “식량지원 동결 등의 대북 대항조치를 해제할 지는 미사일 발사 동결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이 될 지 주의깊게 지켜본 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3		<p>각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전 민족적,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 등</p>	<p>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9. 14	<p>김대중 대통령 기자 간담회 * APEC정상회담을 마치고 웰링턴으로 출발 전 기자간담회</p> <p>- 베를린 북·미 회담 타결은 희망적인 성과였으며 한·미·일의 공조와 중국과 러시아도 포용정책을 지지한 결과였으며 '북한에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전략' 즉 '원원전략'이 성공했다는 좋은 교훈임.</p> <p>-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고 관계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대화나 협력에 응할 용의가 있음.</p> <p>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정부 고위관리,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p> <p>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안모씨는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북한체제를 비난해서 복측으로부터 추방당함.</p>	<p>외무상 백남순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 제54차 유엔총회 참가차 평양 출발</p> <p>노동신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비난</p> <p>-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연공, 연북통일기운에 질겁한 괴뢰들이 통일애국 세력들을 초토화하기 위해 꾸며낸 악랄한 모략극이자 우리에게 대한 계획적 도발임.</p> <p>남포지구에 대외무역기지 대홍항 부두 조업식</p> <p>- 부지면적 8만여㎡, 수천톤급의 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창고, 경영활동의 컴퓨터화 등을 구축</p>	<p>노로타 일 방위청장관, "北 미사일 발사 계획 연기 안했다"고 언급</p> <p>-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동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p> <p>- 따라서 방위력 향상을 위해 공중 급유기와 기타 군사장비를 구입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p> <p>北·中 접경지대 대규모 아편 재배 * 美 국무부 보고서</p> <p>- 북한이 불법적인 아편재배를 권장해 4천 2백~7천 ha에 달하는 북부지방 경작지에 연간 3만~4만 4천t의 아편을 수확하고, 이를 이용해 연간 3천~4천 5백t의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5	국가정보원, 금강산 관광도중 월북을 기도한 박종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p>조국통일연구원, '공화국을 위협하는 전략무기 배비 실태' 백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전략무기 대부분은 아·태지역에 집중되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고 있음. - 전략무기의 조준점은 우리 공화국임. - 미제의 일본과 남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호·조장하는 이중구조는 허용될 수 없음. <p>「외무성, 대변인, APEC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이번 APEC 수뇌자회의 기간에 추종세력들과 우리를 겨냥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해 낸 데는 국제회의 마당을 빌어 다시한번 일치한 행동보조로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모종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불순한 기도가 작용한 것임. 	<p>페리조정관, '對北 정책 권고안' 美 의회 보고(9.1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리엄 페리 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 유도과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등 3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함. - 또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한·미·일 공조체를 유지할 위해 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존속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5개항 당면정책을 권고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5			<p>벤저민 길먼 미 하원 위원장, 對北 경제제재 해제 반대 표명</p> <p>* 페라보고서 의회 브리핑 직후 성명 발표</p> <p>-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미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고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됨.</p>
9. 16	<p>양영식 통일부 차관, “기본 합의서 성실 이행이 남북 화해 여는 지름길”이라고 언급</p> <p>* 인제대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기조 강연</p> <p>- 분야별 공동위원회 본격 가동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이야말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여는 지름길임.</p> <p>- 한반도 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협의, 해결해 나아가야 함.</p> <p>한국국방연구원 심경옥 위</p>	<p>인민무력성, 김정숙 사망 50돌 (9.22) 관련 연구토론회 개최 (4.25문화회관)</p> <p>*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등 참석</p> <p>-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혁명의 어머니’(조명록),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신 충신의 최고 귀감’(김일철) 등 토론 진행.</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태국 주재 특명전권 대사로 조인철 임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6	<p>원, “北 지하 군사시설 8,000 곳 완성되었다”고 주장 * 공군 50주년 심포지움</p> <p>-북한은 전투기 격납고, 탄도미사일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00곳이 완성되어 있음.</p> <p>-북한은 '91년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군사시설의 지하 요새화를 적극 추진함.</p> <p>-북한의 지하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 80m에 건설되어 있으며 특히 휴전선 인근에 1,800여곳에 달함.</p>	<p>「직총」·「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담화,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 선포에 도전하는 미제와 남조선 당국들을 준열히 비난함.</p>	
9. 17	<p>외교통상부 관계자, “중국 억류목사 신병인도” 언급</p> <p>-탈북자 보호와 선교를 목적으로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성(遼寧) 등 중국 동북 3성에 서 활동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박문수·전영수 목사 등 3명의 한국인이 17일 풀려났으며 며칠 안에 귀국할 예정임.</p>	<p>백남순 북 외무상 뉴욕 도착</p> <p>-북한 외무상이 제5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 이형철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영접을 받음.</p> <p>조국통일연구원, '남조선 민생백서' 발표</p> <p>-① 최악의 실업사태, ② 급증하는 극빈층, ③ 세금과 물가의 폭등, ④ IMF 이산가족 ⑤ 인간생지옥, ⑥ 민생대란,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p>	<p>빌 클린턴 미대통령,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발표</p> <p>-이번 제재완화는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3개 법안에 의해 규정된 ▲물자수출입 ▲금융거래 ▲투자 ▲북·미간 항공기·선박 운항 금지 등 4개 분야의 제재조치를 해제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7		고 사대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제도를 뒤집어 엎어야 함.	<p>-그러나 테러국 지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 대상인 ▲대북한 무기·방산물자 수출금지 ▲원조금지 ▲최혜국대우·GSP(일반특혜관세)·수출입은행 보증금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됨.</p> <p>윌리엄 페리 조정관, "한반도 전쟁 먹구름 걷혔다"고 언급 * 미 국무부 페리 보고서 설명회</p> <p>-지난 40여년간 한반도 전쟁재발에 대한 걱정이 먹구름처럼 우리의 머리 부위에 맴돌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조치 완화에 따라 이제 그 먹구름은 사라지기 시작했음.</p> <p>-베를린 회담에서 양측이 주고 받은 합의는 작은 걸음에 불과하지만 양측은 모두 관계 정상화를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8	<p>국가안보회의, 미 정부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관련 정부입장 표명</p> <p>-미 정부의 대북한 제재완화조치는 한·미·일 3국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 일치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환영함.</p>		<p>日 오부치 게이조 총리, “北 미사일 중단할 때 대북제재 조치 풀 것”이라고 표명</p> <p>-미국의 대북한 제재완화는 미·북 관계를 일보 진전시킨 조치로 지지함.</p> <p>-향후 미·북간 교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이 확실할 때 일본은 북한에 취한 제제조치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p>
9. 19	<p>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北과 언제든 대화 가능” 표명 *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p> <p>-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개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도와야 함.</p>		<p>샌디버거 백악관 보좌관, “북 미사일 발사엔 美 제재 복원” 경고 * NBC 「언론과의 만남」</p> <p>-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이미 완화했던 미국의 제제조치를 즉각 복원시킬 것임.</p> <p>-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미사일 계획을 동결한 셈이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19			<p>부 기초적인 경제 제재를 완화했음.</p>
9. 20	<p>김대중 대통령, “北 미사일 중단 지켜보아야 한다”고 언급 * 전직 대통령들과 청와대 오찬</p> <p>-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에 이르렀다는게 중요함.</p> <p>-북한이 합의하게 된 데는 중국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내 우익 세력들에게 명분을 줄 것을 우려하기도 함.</p> <p>CTBT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p> <p>-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지구상에 핵실험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p> <p>통일부, (주)현대아산이 신청한 평양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사업계획을 남북협력 사업으로 승인</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채취공업상을 길송남에서 손종호로 교체</p> <p>백남순 외무상의 유엔 총회(뉴욕) 동정</p> <p>- 쿠바·이란·싱가폴·덴마크·필리핀·이탈리아·중국 외상들과의 면담(9.20~24), 미·일·영국 등 20여개 국가의 신문·방송 기자 회견(9.25, 유엔 청사) 등</p>	<p>국제원자력기구(IAEA), 北核 안전이행 촉구문 채택</p> <p>* 빈에서 열린 이사회(9.20~24)</p> <p>- 북한의 핵안전 조치·이행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핵안전 조치에 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거 정보보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IAEA와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유효성과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촉구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0	<p>-이에 따라 (주)현대아산은 북한의 「아·태평화위」와 공동으로 평양 보통강변에 1만 2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하게 됨.</p>		
9. 21	<p>임동원 통일부장관, 탈북자 2년이상 고용 보장 * 탈북자 정착시설 하나원 방문</p> <p>-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p> <p>-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해 적어도 2년동안 취업을 보장하도록 하고 연금혜택도 줄 방침임.</p> <p>남북친선대회 공식명칭 「통일농구 경기대회」</p> <p>- (주)현대아산은 9.28~29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친선농구대회의 공식명칭을 '통일농구경기대회'로 정하는 등 선수명단, 경기방식, 일정을 북측과 합의함.</p> <p>-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농구 외에도 배구, 탁구 등을 통해 북측과 정기교류를 갖기로 함.</p>	<p>조선중앙통신, 미 경제제재 완화 다행이라고 첫 반응 표명</p> <p>-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나머지 제재도 해제함으로써 전면적이고 실제적인 해제가 되도록 신의를 보여줘야 함.</p> <p>조총련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개최</p> <p>- 재일 조총련은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통폐합·축소, 재일동포 생활 밀착형 색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향후 활동방향을 채택하고 현 한덕수 의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음.</p>	<p>北·EU 사상 첫 각료급 회담</p> <p>-북한의 한수헌 외무성 부상과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핀란드의 유카 발타사리 외무차관이 2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만나 첫 각료급 회담을 가짐.</p> <p>보스위스 주한美대사, "北·美 관계개선 北 상응조치 따라야 한다"고 표명 * 한·미협회 주최 초청강연</p> <p>-미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궁극적으로 남한과 북한, 즉 한국인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함.</p> <p>- 또 미국이 북·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1			관계 개선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경우, 여기에 상응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
9. 22	<p>페리 조정관, 김대중 대통령 예방 대북포용 정책 논의</p> <p>-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이 오후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동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p> <p>- 페리 조정관의 방한(9.22~23)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과 필립 윤 보좌관이 수행함.</p> <p>정부, 방북자 신변안전대책 협의회 구성</p> <p>- 정부는 오전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방북자 신변안전대책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함.</p> <p>남북 첫 임업전문가회의 개최</p> <p>- 국내 민간단체 「평화의 숲」과 북한 국토환경보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2	<p>성 산하 「산림보호연구소」는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임업전문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 문제를 논의함.</p> <p>- 이 회의에서 북측은 땀나무 공급과 수목종자, 농약, 비료 등 산림자재 지원을 요청했으며 남측에선 시범양묘장 운영,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지원 허용 등을 요구했음.</p>		
9. 23		<p>이종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83세) 병환으로 사망</p> <p>- 장례식은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위원장: 김영남, 위원 62명)하여 國葬(9.25)으로 진행</p>	
9. 24		<p>「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유예 선언</p> <p>- 미국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해제 조치는 비록 늦은 감이 있고 전면적이지는 못하지만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의 반영임.</p> <p>-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회담에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회담이 진행되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4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임.	
9. 25		<p>백남순 외무상, 미사일 유예 공식 재확인</p> <p>* 유엔총회 연설</p> <p>-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회담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p>	<p>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백남순 북 외무상의 미사일 발사 유예 발표 환영</p> <p>* 유엔총회 참석중</p> <p>-북한의 성명은 미·북관계개선에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합의를 공식화 한 것임.</p> <p>- 앞으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의 권고안에 따라 한·일 정부와 협력해 북한과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함.</p>
9. 26		<p>「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9.9)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미 국무성이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종교활동을 하면 가혹한 형벌이 가해진다는니 하며 곁고든 것은 대조선 적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6		<p>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부질 없는 또 하나의 압력소동임.</p>	
9. 27	<p>통일농구단, 평양에 도착</p> <p>- 현대의 남녀농구선수단 25명 등 8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 일행은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평양에 도착함.</p>	<p>백남순 북 외무상, 남북정상회담 용의 표명</p> <p>*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p> <p>- 남측이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3대 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한 우리의 협상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을 것임.</p> <p>-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이며, 햇볕정책은 화해의 미명 아래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변질시켜 자유주의 체제에 흡수 통일시키려는 반북 대결책동임.</p> <p>-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보상에 따라 유예할 수 있지만 시험발사·개발·수출은 전적으로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아무때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험발사를 할 것임.</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적도 기네공화국 주재 특명전권대사 박명학 임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8	<p>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해 訪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5명은 28일 남북통일농구대회 관람과 평양 실내체육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을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함. <p>황원탁 외교안보수석, 백남순의 정상회담 발언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 외무상의 언급은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진지성이 결여돼 있음. - 남북관계가 최악상태라고 얘기한 것도 문제이며, 햇볕정책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 <p>현대, 금강산 관광비 2억 5천만달러 지출 초과</p> <p>* 통일부 국정감사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8.11~'99.8월말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1억 8,297만2천달러의 수입을 올렸음. - 그러나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3억1,833만3천달러를 지출했으나 	<p>「아·태평화위」 농구팀과 현대그룹 농구팀간의 '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평양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 여자경기(단결팀 133:127로 승리), 혼합 남자경기(단합팀 129:104로 승리) <p>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일행 방북 동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평화위」 위원장 김용순과의 담화(만수대 의사당), 김정일에게 선물전달, 통일농구경기대회 참관 등 <p>KEDO 고위급 전문가 협상 대표단 방북(9.28~10.2)</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28	5천992만6천달러의 수입을 얻는데 그쳐 2억5,840만7천달러를 지출초과 함.		
9. 29	<p>임동원 통일부장관, “북한 실용·실리주의 정책으로 변화” 등 언급</p> <p>* 민주평통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 출범회의</p> <p>- 북한이 작년 헌법개정과 김정일체제 정비 이후 실용주의적 자세로 변화 조짐이 보임.</p> <p>- 북한의 실리추구적 태도를 감안할 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p>	<p>통일농구경기대회 이틀째 진행</p> <p>- 여자경기(북 회오리팀, 현대팀에 95:93로 승리), 남자경기(북 벼락팀, 현대팀에 102:71로 승리)</p> <p>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일행의 이틀째 방북 동정 보도</p> <p>-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착공식 참석, 북한 농구팀과 현대그룹 농구팀간의 경기 참관, 세계마라톤 우승자 정성욱의 가정 방문</p> <p>KEDO·北 전문가 회의</p> <p>-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9.29~10.1 북한 묘향산 향산호텔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p> <p>- 이번 회의에선 효율적인 본공사 추진을 위해 무궁화위성으로 독자 통신망을 연결하는 방안과 화물선 운항편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협의함.</p>	<p>AP통신, 한국전 미군 양민 400여명 학살 보도</p> <p>- AP통신이 미군 관계자와 생존자들의 증언, 최근 비밀해제된 미군 문서 2건을 토대로 작성한 노근리 사건은 미군이 피난민을 ‘적군’처럼 취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힘.</p> <p>- 노근리 사건은 '50.7.25~29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피난민 4백여명이 미군의 무차별 포격과 사건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임.</p>
9. 30	임동원 통일부 장관, “北에 국군포로 244명 생존” 발언	정당·단체연합회, 국가보안법 관련 남조선 정당·단체들에게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9. 30	<p>- 현재 북한에서 신원이 확인된 미귀환 국군포로 244명이 생존하고 있음.</p> <p>- 국가정보원이 지난 3월 231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귀환 국군포로의 증인 등을 토대로 숫자가 더 늘어남.</p> <p>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北 대화 호응엔 더 많은 지원” 언급</p> <p>* 제54차 유엔총회 연설</p> <p>- 북한 당국이 대화에 호응할 경우 한국 정부는 식량과 비료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p> <p>국가정보원, “北, 59년 NLL 공식 인정” 발표</p> <p>-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59. 11.30 발행한 「조선중앙년감」은 황해도 지역을 설명(254쪽)하면서 우리측 서해 5도섬 중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와 북한측 웅진반도 사이의 해상에 표기한 군사분계선을 유엔사령부가 '53년에 설정한 NLL과 일치시켰음.</p>	<p>호소문 채택</p> <p>- 남조선의 정당·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진정으로 민주와 통일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철폐를 위해 전민족적 투쟁에 적극 합류해 나가야 함.</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文化相을 최재현에서 강능수로 교체 임명</p> <p>제13차 평양국제탁구초청 경기대회 개막식(9.30~10.3, 청춘거리탁구경기관) 진행</p> <p>* '92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회를 7년만에 부활함</p> <p>전국 분주소장회의(9.30~10.1, 평양) 진행</p> <p>* 分駐所: 사회안전기관의 최하부 말단 단위</p> <p>김정일·김영남·홍성남,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돌에 즈음하여 중국의 당·국가 영도자들에게 축전 발송</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1		<p>김정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 접견·오찬</p> <p>-현대그룹 선수와 실무단은 단군릉과 평양지하철도 참관</p> <p>유엔 北대표부 김창국 차석, 햇볕정책 비난 * 54차 유엔총회</p> <p>-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가장하고 북한의 체제를 바꾸려는 반통일·반북한 정책이며, 북한 체제를 부인·제거하려는 남측의 시도는 어느 때라도 불가피하게 전쟁과 갈등으로 이끌 것임.</p>	<p>IAEA, 北에 핵안전협정 이행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p> <p>* 제43회 총회(오스트리아 빈)</p> <p>-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에 필요한 정보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p>
10. 2	<p>정주영 명예회장, 김정일 면담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p> <p>* 오전 판문점 기자회견</p> <p>-10.1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과 서해공단개발 사업을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음.</p> <p>정몽헌 현대회장, 방북후 귀국 기자회견</p> <p>-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10.1 함경남도 서호초대소에서 성공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김용순 위원장</p>	<p>경수로 건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KEDO 고위급 협상대표단 평양 출발</p>	<p>미 CIA, 북한 인구 7월말 현재 2,129만명</p> <p>* 한국 정부 관계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 인용</p> <p>- 북한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94명</p> <p>- 연령구조: 유년층 26%, 생산가능인구 68%, 노령인구 6%</p> <p>- 연평균 인구증가율: '99.1 기준 1.45%</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2	<p>이 현대를 방문토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서해공단 사업계획이 확정될 무렵 다녀오도록 허락함.</p> <p>- 서해안 경제특구공단사업에 대해 정 명예회장과 김용순 위원장은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공단사업을 빨리 추진한다는 데 합의함.</p>		<p>- 평균수명: 남자 67.4세, 여자 72.9세</p> <p>미 국방부, "ICBM 요격 첫 성공" 발표</p> <p>- 캘리포니아주 밴더버그 공군기지에서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니트맨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한 후 10분 뒤, 태평양상의 마셜군도에서 요격미사일(EKV)을 발사해 225km 상공에서 시속 2만 5700km의 속도로 명중시켰음.</p>
10. 3	<p>임동원 통일부장관, "北 위성 TV 시청 곧 허용" 언급 * 중앙일보 인터뷰</p> <p>- 북한 TV·라디오 방송의 전면 개방에 앞서 우선 북한 위성TV 방송의 시청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방침을 정했음.</p> <p>- 북한 방송 개방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함.</p>	<p>개천절 행사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주최로 단군릉에서 진행</p> <p>- 북·남·해외 공동결의문 채택 ① 연방통일국가 건설 ②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 ③ 민족의 통일 번영 위업에 기여 ④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인사 석방 ⑤ 북과 남, 해외의 3자연대 운동을 위하여 투쟁</p> <p>백남순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비행기로 귀국</p>	
10. 4	<p>임동원 통일부 장관, "정주영 명예회장, 北 통천에 경공업</p>	<p>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토론회(인민대학습당) 개최</p>	<p>도밍고 시아손 필리핀 외무장관, "北, 필리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4	<p>단지 추진” 언급 * 기자간담회</p> <p>-북한과 현대가 정주영 명예회장 고향인 강원도 통천군에 소규모 경공업단지 건설을 검토 중임.</p> <p>-정 명예회장이 10.1 김정일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통천을 대상으로 구상 중인 사업이 없느냐”는 김정일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고 있음.</p> <p>정부, 4자회담 수석대표에 장재룡 임명</p> <p>-지난 1년간 4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온 박건우 대사의 후임으로 새 수석대표에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함.</p> <p>국방부, '98주한미군 간접지원비 1조 8천억원 언급 * 국정감사 자료</p> <p>-간접지원비를 부분별로 보면 토지임대료 평가액 1조 5,900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억 7,000만원 ▲공항이용료 면제 4억 2,700만원 ▲서울시 혼잡통행료 면제 1,100만원 등임.</p>	<p>* 김영대, 류미영, 오익제 등 참석</p> <p>중국을 방문하는 박동춘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함</p>	<p>에 수교협상 재개 제의” 언급</p> <p>- 유엔총회 도중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했음.</p> <p>-백남순 외무상이 양국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북한은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4	<p>- '98년 우리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4,342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기타 직접 지원금으로 437억원을 냈.</p>		
10. 5	<p>남북회담사무국, 70년대 이후 남북회담 사료 인터넷 통해 일반에 공개</p> <p>- 남북회담사무국은 시연회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남북대화사료를 인터넷(http://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 공개함.</p> <p>통일부, '현대, 北에 TV 3만대 수출' 승인</p> <p>- 현대가 북한의 「아·태평화위」와 체결한 연불수출 계약에 따라 국산 컬러 TV 3만대의 대북 반출을 승인함.</p> <p>- 이 TV는 OEM방식으로 제작, 북한의 주문에 따라 '금강산' 상표를 달며, 운송가격을 포함한 전체 반출액은 총 4,447,500달러임.</p> <p>민주평통일자문회의, 10개 대북정책안 정부에 건의 * 제9기 전체회의</p>	<p>김정일·김영남·홍성남, 조·중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중국의 당·국가 영도자들에게 축전 발송</p> <p>* 江澤民·李鵬·朱鎔基, 중·조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김정일·홍성남 등에게 축전·선물 전달</p> <p>백남순 北 외무상과 탕자쉬안(唐家璇) 中 외교부장 회담 (만수대 의사당) 개최</p> <p>조·중 외교관계 설정 50돌 기념 공동 우표 발행, 평양에서 진행</p>	<p>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북한방문</p> <p>-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이뤄진 탕부장의 이번 방문은 91년 첸치첸(錢其琛) 전 외교부장의 방북 이후 8년만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5	<p>-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관련 ▲대북정책의 신축적 적용과 일관성 유지를 통한 북한 호응 유도 ▲북한 군사적 도발 원천봉쇄를 위한 군사수단 확보 ▲대북 군사교류 제의 및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비정치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확대</p> <p>- 남북이산가족 정책안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생사·상봉확인 ▲제3국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북측에 적십자사를 통한 송금 허용 ▲이산가족 정보의 체계적 관리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비한 호적관계 등 법률문제 정비를 건의했음.</p>		
10. 6	<p>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北 탈북난민 1만~3만명 추정 * 기자 간담회</p> <p>- 북한을 탈출해 중국·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난민수는 1만~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p>	<p>북한·중국간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외무성 연회(옥류관) 개최</p> <p>* 탕자쉬안 中 외교부장·백남순 北 외무상 등 참석</p> <p>노동신문, 노근리 사건관련 논평</p> <p>* 천백배로 갚아야 할 죄악의 대가</p>	<p>미, 내년 KEDO 지원금 2,000만 달러 삭감</p> <p>- 빌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중유 공급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KEDO 예산으로 5,500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6	<p>- 탈북난민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이 공론화 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국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함.</p>	<p>- 노근리 사건 관련 미국은 남조선에서 대학살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한 데 대해 조선인민 앞에 사죄하고, 반세기 이상 온갖 범죄행위로 인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함.</p> <p>김영남, 탕자쉬안 中 외교부장 일행과 담화(만수대 의사당)</p>	<p>하 양원은 3,500만 달러로 삭감함.</p> <p>뉴욕타임즈, "역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32명, 미국상원에 核禁조약 비준 촉구" 보도</p> <p>- 미국의 포괄핵실험 금지조약(CTBT) 승인은 불가피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중의 핵심임.</p>
10. 7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北 위성 TV 본방송 보고 허용 발표</p> <p>- 정부는 북한의 위성TV 방송에 대한 시청 허용 여부를 북한이 시험방송을 마치고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갈 때 그 내용을 보고 결정키로 함.</p>	<p>「외무성」 대변인, 日 핵무장 관련 담화 발표</p> <p>- 지난 9월말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끌어들이는 것은 핵 무장화·대국화의 야망 때문임.</p> <p>- 일본당국은 무모한 핵무장화, 핵대국화 야망이 초래한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위험한 핵물질 반입채동을 중지해야 함.</p> <p>제54차 유엔총회 전원회의 사회발전 수뇌자 회의결과 이행에 관한 문제토의에서 북한대표가 연설</p> <p>- 자주·평등·호혜의 원칙에 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7		<p>초한 공정한 국제경제관계가 수립되어야 함.</p>	
10. 8		<p>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4.25문화회관) 개최 *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전병호, 김일철 등</p> <p>김정일의 당비서 추대 2돌·당 창건 54돌 각종 경축 기념모임 진행</p> <p>-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직맹원들의 경축무대 등</p> <p>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최근 일본과 한국의 플로토늄 반입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p> <p>「조국전선」·「조평통」, 미국의 6.25전쟁 당시 대규모 학살만행을 비난하는 공동성명 발표</p> <p>- 미국은 엄연한 사실인 노근리 학살만행 등을 인정·보상해야하며 남조선에 있는 침략군과 모든 살인장비들을 거두어 물러가야 함.</p>	<p>래리 그리어 국방부 대변인, “북·미, 미군 유해 직접 송환 합의” 발표</p> <p>-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유해를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음(지금까지 미군유해 송환은 판문점을 통해 인수·인도함).</p> <p>- 유엔군사령부는 미군유해 인도식과 관련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유해 송환임.</p> <p>포괄적 핵금지조약 회의, CTBT 서명·비준 촉구 성명 채택 * 오스트리아 빈</p> <p>-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95개국 대표는 핵 비확산</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 8			<p>및 핵군축을 위한 CTBT 조기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조속한 서명 및 비준을 촉구함.</p>
10. 9		<p>조·중 외교관계 설정 50돌 행사에 참가했던 唐家璇 中외교부장 일행이 귀국</p>	
10.10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제1목표는 이산가족 교류” 언급 * 이북도민 체육대회</p> <p>- 정부는 대북정책의 제1목표를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에 두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 끈질기게 노력할 것임.</p> <p>- 이산가족 상봉이야 말로 최고의 인도적 문제이며, 이산가족들이 머지 않아 북한의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거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임.</p> <p>- 북한은 겉으로 뭐라고 말하건 현실에서는 포용정책에 기반을 둔 한·미·일 3국의 공동 노력에 점차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p>	<p>조선중앙TV, 위성방송 시작</p> <p>- 아시아 모든 지역과 유럽,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음.</p> <p>- 중계시간은 16시30분~23시30분</p> <p>北, 인터넷 사이트 개설</p> <p>- 북한은 노동당 창설기념일(10.10)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를 통해 공식 인터넷 사이트(www.dprkorea.com)를 개설했음.</p> <p>- 이 사이트는 김정일의 활동과 최신뉴스, 법규집, 주요업체 소개, 투자·산업정보, 수출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음.</p> <p>「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서울 개최 NGO대회(10.10~16)시 우리의 정부가 어용단체들을 내</p>	<p>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백남순 北 외무상, 홍콩식 ‘1국가 2체제’ 통일방안 시사” 보도</p> <p>-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지난 9월 뉴욕의 유엔총회 참석시(9.17~28) 사석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통일방안으로 홍콩식 ‘1국가 2체제’를 원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음.</p> <p>- 북한 외교관들도 홍콩의 순조로운 주권이양('97.7.1)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혀 백남순의 발언 내용을 확인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0		<p>세워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p>	
10.11		<p>평방, 「연방제」 관련 논평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p> <p>-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국가 형성의 원칙과 방도,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 및 호상관계, 국호와 시정방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밝힌 설계도임.</p> <p>-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보안법 철폐, 정보원 해체, 남조선 당국 타도, 남조선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함.</p> <p>중방, '독수리훈련' 비난 논평 * 불은 불로 다스릴 것이다</p> <p>- 조·미 관계가 일련의 진전이 있었고 회담이 예견되는 시기에 독수리합동군사연습(10.26~11.5)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도전적 행위임.</p> <p>- 우리에게 총포를 내던 이상 우리도 역시 그에 강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p>	<p>브루스 커밍스 교수, 2년내 북·미 최상의 관계 가능성 전망 * 조선신보 인터뷰</p> <p>- 북·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2년내 좋은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p> <p>-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앞으로 북·미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p> <p>- 페리 보고서는 북·미 기본합의문의 의의를 확인한 토대위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착수했음을 말해 줌.</p> <p>- 페리 보고서가 한국의 포괄적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조·미 접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한국정책이 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1		북한, 말리공화국 정부와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 (평양)	린턴 대통령의 정책 전환에 도움을 줌.
10.12	<p>김대중 대통령, 북·일 관계 개선 환영</p> <p>* 교도(共同)통신 회견</p> <p>- 일본이 북한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국교를 정상화 하는 것을 환영함.</p> <p>- 북한이 미국, EU 회원국 등 서방나라와도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한국도 공식적으로 협력할 것임.</p> <p>외교통상부 관계자, “북·미 뉴욕서 유해송환 협상” 언급</p> <p>- 북·미 군 당국이 뉴욕에서 10.12~13 접촉, 지난 6월 공동작업을 통해 발굴한 4구의 미군유해를 미국측에 직접 인도하는 문제를 중점 협의하게 됨.</p> <p>- 리오타-이근 주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 대표간에 개최됨.</p>		<p>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대북 협상·위협 저지 양면전략 강조</p> <p>*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p> <p>-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포함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되 안보를 확인하고 위협을 저지할 대응수단을 갖추는 양면전략이 바람직함.</p> <p>-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 정책제안에 복합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대미 관계개선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합의를 이행할 것임.</p> <p>-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하며 지금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돼야 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3	<p>김대중 대통령, 대북정책 초점은 평화통일 언급 * 통일고문회의</p> <p>- 한반도 문제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p> <p>- 북한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한·미, 노근리 사건 관련 한·미 조정그룹 설치 합의</p> <p>- 방한(10.12~14) 중인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는 홍순영 외교통상부·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후, 노근리 사건에 대해 각각 조사하되, 양측간의 공조를 위해 비상설 협의기구인 양자조정그룹(BCG)을 설치키로 합의함.</p>	<p>민족화해협의회 제3차 전원회의 진행(평양)</p> <p>- 전체회의에서 의정 ①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고 북과 남·해외의 3대연대 공동투쟁대책에 대하여 ②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위한 활동정형 총화와 금후사업방향에 대하여 토의했음.</p>	<p>美 공화당,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주장 * 미 하원 국제관계 위 대북청문회</p> <p>- 벤저민 길먼 미 하원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의 원조가 북한이라는 야만 정권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음.</p> <p>- 이에 대해 페리조 장관은 “대북 봉쇄 등 강경책은 수백억달러의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반면 포용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p> <p>미국 상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안 부결</p>
10.14		<p>중방, 함경남도 금야군의 광명성 제염소 준공 보도</p> <p>- 김정일 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된 광명성 제염</p>	<p>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中에 탈북난민 존재 발표 * UNHCR 인터넷 홈페이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4		<p>소는 연간 수만톤을 생산하는 현대적 소금생산 기지로, 나라의 화학공업과 함경남도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튼튼한 토대임.</p> <p>「외무성」 대변인,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반대 *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한·미·일이 10.14 제주도에 서 남·북과 미·일·중·러 등이 참가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계획은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는데 이용하려는 위협한 시도임.</p> <p>- 조선반도 문제는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 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면 해결되는 문제임.</p>	<p>- '97년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작업을 벌여 '99년 5월 중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가운데 난민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음.</p> <p>-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UNHCR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p>
10.15	<p>통일부, 올 대북지원금 총액 518억여원 발표</p> <p>- '99.1.1~9.30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에 339억원, 민간차원 173억 830만원 등 모두 518억 830만원임.</p> <p>• 정부차원: 베이징 남북차</p>	<p>「외무성」 대변인, 미군의 주민 대량학살사건 관련 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노근리 사건 등 미군의 민간인 살인만행 자료는 지난 조선해방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만행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p>	<p>미 국방부, “북한, 미군유해 4구 인도 합의” 발표</p> <p>- 미국과 북한대표단이 이번주 뉴욕에서 금년초 발굴한 미군유해 4구를 송환하기 위해 협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5	<p>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제공한 비료 11만 5천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 ▲대한적십자사, 123억 3,300억원 ▲20개 민간단체(「한적」창구), 23억 8677만원 ▲9개 민간단체(개별창구), 32억 6,053만원 <p>국가정보원, 북한 권력서열 軍인물 급부상 * 국감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록 국방부 제1부위원장이 권력서열 3위를 굳힌 것을 비롯해 국방위원들의 서열이 상승하고 있음. - 특히 '98년 9월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 기능이 강화된 후, 당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음. - 이같은 군부의 권력상승은 김정일의 군 중시사상이 권력체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p>로 우리는 언제든지 미제의 죄행을 결산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이 완전히 종식되어야 함. 	<p>을 갖고 이에 대해 합의했으며, 유엔군사령부 대표도 협상에 참여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대표단이 10.25 평양에서 유해를 넘겨받을 예정이며 주한미군의 유해 송환팀이 동행할 것임.
10.16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한 입국 희망 탈북자 수용 방침 표명 * 국정감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6	<p>-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해외공관에 밝힌 탈북자는 수백명 수준이며, 정부는 남한 입국 희망자는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임.</p> <p>- 이들의 입국문제를 체류국 당국, 유엔 고등난민판무관 등과 협조해서 해결할 방침임.</p>		
10.17		<p>평방, 북한 미사일 미국 강경보수세력의 정책 비난</p> <p>* 어리석은 놀음은 그만두라</p> <p>- 미사일 개발은 전적으로 미국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임.</p> <p>-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간의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대북적대 정책을 버리고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함.</p> <p>조총련 '99분회대표단대회(도쿄 조선문화회관) 개최</p>	
10.18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여건 조성 경험 확대 등 추진</p> <p>* '페리보고서 이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p>	<p>조선신보, 「문화·스포츠 축전」 개최 예정 보도</p> <p>- 북한은 조만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평화·친선을 위한</p>	<p>NHK, 북·일 싱가포르 접촉 보도</p> <p>- 일본과 북한의 정부 관계자가 10.18~10.20 싱가포르에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8	<p>-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을 보다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혀갈 방침이며, 남북당국간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민간교류가 당국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기로 함.</p> <p>- 북한은 지난해 체제정비 작업에 나서 올 하반기 이를 완료했으며 경제부문에 서도 회복추세를 보임.</p>	<p>문화 스포츠 축전'을 개최할 것임.</p> <p>- 10.14부터 방북중인 이노키 간지 신일본프로레싱주식회사 회장은 15일 평양에서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축전을 갖기로 합의했음.</p>	<p>만나 수교교섭 재개 등 현안 등을 협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음.</p> <p>- 지난 4월 국장급 접촉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당국자 접촉에는 북한 외무성 송일호 일본과장과 일본 외무성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 등이 참석했음.</p>
10.19	<p>농림부, 금강산 솔잎 혹파리 남북공동방제 85% 효과 발표</p> <p>- 한국수목보호연구회가 방북(10.14~17)해서 솔잎혹파리 방제약을 수간주사('99.6.9~14) 했던 금강산 삼일포지역 1ha(3,000여평)를 현장조사한 결과, 85%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음.</p> <p>김대중 대통령, 남북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 국회 시정 연설</p> <p>-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p>	<p>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 남한의 친일파 청산운동 관련 담화 발표</p> <p>- 친일파 청산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왜곡되어 온 역사를 바로 세우며, 남조선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냄.</p> <p>노동신문, 다자안보협력체제 비난 논평 * 아직은 때가 이르다</p> <p>- 우리와 미·일·남조선들 사이에 교전관계, 적대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속에서</p>	<p>美 국방부 테리 서덜랜드 해군 소령, "미 관리들, 실종 미군유해 인수차 방북" 발표</p> <p>- 실종 미군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의 로버트 존스 부차관보가 유해 인수팀을 이끌고 10.25 방북할 예정임.</p> <p>- 유해 인수팀은 4구의 유해를 인수하여 도교를 거쳐 하와이 미군유해 신원확인연구소로 갈 예정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19	<p>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임.</p> <p>-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다자안보협력체라는 것을 내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하고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 뿐임.</p> <p>제8차 전국연극축전(10.19~28, 평양) 개최</p>	<p>日 해상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상정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발표</p> <p>- 10.27~11.9 주변해역에서 모든 주요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함.</p> <p>* 훈련은 '8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째로 지난 8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이 시행된 후 주변 사태시의 대미 후방지원과 해외 일본인 수송 등은 이번이 처음임.</p>
10.20	<p>백두문화연구소 이형석 박사, 백두산 천지일대 北 영토로 편입 발표</p> <p>- 북한과 중국간의 체결된 1964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에 따라, 북한이 1909년 청·일간 간도협약보다 2백 80평방km(백두산 천지 60%, 백두봉과 소화강 상류지역 일부)의 땅을 더 확보했음.</p>	<p>「외무성」 대변인, 미·북기본합의문 발표 5주년(10.21) 즈음 담화</p> <p>-우리가 지금까지 할 바를 다한 조건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신의를 보이는 것 뿐임.</p>	<p>일본인 관광객 실은 北 만경봉호 日 출발</p> <p>- 11일간 북한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160명의 일본인과 재일 북한인들을 실은 북한 선적 만경봉호가 일본 북해도를 떠나 북한으로 출항했음.</p>

■ 10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0	<p>-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총리는 '62년 10월 평양에서 북·중간 새 국경선 설정에 합의, 6개월의 현지조사를 거쳐 '64년 3월 변계의정서를 체결했음.</p> <p>국제옥수수 재단, “北에 자전거 1,000대 제공 예정” 발표</p> <p>- 북한 옥수수심기사업과 소량의 물자 수송에 사용될 중국의 Ningbo(닝보)사 짐 자전거 1,000대 생산이 오늘 완료됐으며, 이달 중 기차편으로 운송을 시작해 늦어도 11.20까지는 북한 신의주에 도착할 예정임.</p>		<p>미 국무부 관리 등 2명 식량조사차 방북 * 한국 정부관계자</p> <p>- 미국이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에 대해 분배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부 관리와 국제개발처 요원 등 2명을 북한에 파견(10.20~26)했음.</p> <p>-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조사단을 파견하기는 '97년 10월 이후 두 번째임.</p>
10.21	<p>정부, 中企 대북교류·민간인 인도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p> <p>- 임동원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 규정’을 의결했음.</p> <p>-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북경협과 위탁가공용 원·</p>	<p>중방, 평양시 통일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의 공사진척 상황 보도</p> <p>유엔개발계획, 북한 농경지 복구와 소금밭 건설에 필요한 협조물자 기증식(평양) 진행</p> <p>- 조선주재 유엔개발계획 임시 대리대표 커스텐 조겐센이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협조물자들을 넘겨주었음.</p> <p>중방,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p>	<p>벤저민 길먼 美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 美 대통령 대북특사 임명 촉구 *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p> <p>- 페리보고서와 별개로 제출될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보고서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 등 최고지도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미</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1	<p>부자재 및 설비 반출에 필요한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1년에서 7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연 6%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음.</p> <p>- 또한 대북 이재민 구호 및 긴급피해 복구와 농업 개발, 보건위생 및 영양 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 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사업을 벌이는 민간 대북지원사업자도 최고 50%까지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p>	<p>전자감시제도 도입 움직임 비난 논평</p> <p>* 간악한 인권유린행위</p> <p>- 남한 당국들이 기만적인 개정 높음으로 보안법을 계속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자감시제까지 도입해서 통일애국인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려 하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임.</p>	<p>고위인사를 빌 클린턴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할 것</p> <p>▲미국의 대북정책은 독자적 추진보다 한국·일본 등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함</p> <p>▲대북정책은 확고한 대북 군사력 우위를 통한 억제력이 기초가 돼야 함</p> <p>▲미국은 전역미사일방위(TMD)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우선권을 줘야 함</p> <p>▲북한이 경제개방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미국도 대북지원을 하는 조건적인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임.</p>
10.22	<p>통일부, 언론사의 북한 위성 TV 수신 허용</p> <p>- 정부는 신문·방송·통신사 등 언론사가 북한TV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활용하고, 일반국민도 특수시설(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시청할</p>	<p>조선올림픽위원회, 정성욱 선수의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조선인 국적으로 재등록할 것을 제기하는 편지 발송</p>	<p>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러시아, 방사능 검출된 북한행 열차 2대 억류 조치" 보도</p> <p>-러시아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열차 2대에 대해 방사능 측정기를 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2	<p>수 있도록 결정했음.</p> <p>- 개인 또는 단체가 북한 위성TV를 단순 시청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음.</p> <p>합동참모본부, 표류 북한선박 2척 송환 발표</p> <p>- 오전 7시 30분경 백령도 동북방 1마일 해상에서 북한주민 14명이 탄 예인선·바지선 2척이 레이더에 포착돼 백령도로 예인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이날 오후 5시 북측에 송환했음.</p>		<p>용한 현지 세관의 검사 결과, 이 열차의 기관실에서 시간당 85~90 마이크로 원트겐 상당의 방사능이 검출돼 극동 연해주의 하산정류장에 억류되었음.</p> <p>- 이들 열차의 북한 입북 여부는 연해주 위생 검역국 조사원들의 정밀 조사 후 결정될 것임.</p> <p>마이너지(毎日) 신문, “김정일, 北·美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 보도</p> <p>-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는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했음.</p> <p>- 이번 결정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완화에 따른 것이며 설치 시기는 김정일 생일(내년 2.16), 또는 김일성 생일(4.5)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3	<p>주한외국인 첫 금강산 관광 * 현대아산</p> <p>- 엘런 팀 블릭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부소장을 비롯한 16명의 외국인은 풍악호에 탑승, 금강산 관광에 나섬.</p>	<p>평방, 조·미기본합의서 관련 논평</p> <p>*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p> <p>- 조·미 기본합의문의 기본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고 우리는 후연감속로를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그 이행에서 생명은 동시행동원칙인데, 지난 5년간 합의문 이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p> <p>-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써 신의를 보여야 함.</p> <p>조선 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당국의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제 도입계획 비난 성명 발표</p>	
10.24			<p>요미우리(讀賣)신문, “김정일, 訪中 의사 전달” 보도</p> <p>- 북한 노동당 김정일 총비서는 올봄 평양 주재 완융상(萬永祥) 중국대사와 가진 회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p>

■ 10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4			<p>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올 하반기 중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p> <p>대만 자유시보, “北, 대만전력공사에 2,000만 달러 요구” 보도</p> <p>-북한은 대만에 핵폐기물 폐기장을 제공하려다 무산된 것과 관련('97년 북한과 대만전력공사는 이를 합의했으나 한·중·미의 압력으로 사실상 폐기됨), 지난 5월 대만전력공사에 대해 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음.</p> <p>- 대만전력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최고 300만 달러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북측은 “핵폐기물보관소 건설을 위해 이미 투자된 금액만큼 보상해야 하며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5	<p>김대중 대통령, 北·美협상 진전시킬 것이라고 언급</p> <p>* 아·태 민주지도자회의(FDL-AP) 국제회의</p> <p>-우리는 북한이 보이고 있는 약간의 변화조짐에 주목하고 있음.</p> <p>-멀지않아 북·미회담이 열리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과의 합의에 의해 북한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킬 것임.</p> <p>정부고위관계자, “쫄 전대통령, 지난 7월에 방북추진 의사 정부에 타진” 언급</p> <p>-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가 김정일 총비서와 면담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김총비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으나, 정부는 당시 “서해교전 직후여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하는 입장을 전 전대통령측에 전했다.</p>	<p>조선중앙통신, 미군유해 4구 평양에서 직접 인도 보도</p> <p>-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측과 합의('99.10.15, 뉴욕)한 새로운 인도인수절차에 따라 미군 유골 공동발굴작업에서 발굴한 4구의 유골을 평양에서 미군측을 대표하는 국방성 부차관보 로버트 엘 존스에게 넘겨주었음.</p> <p>- 이제부터 미군 유골 공동발굴작업에서 발굴되는 유골들을 유엔측이 아니라 미 군부가 받게 됨.</p> <p>「외무성」 대변인,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관련 담화 발표</p> <p>- 미국이 남조선 전역에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등에 칼을 박는 배신행위이며, 대화마당에서는 홍당무를 내흔들고 돌아앉아서는 채찍을 준다는 것과 같음.</p>	<p>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북의 미군 유해 직접 인계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p> <p>* 국무부 특별브리핑</p> <p>- 실종 미군의 유해 송환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만일 북한측이 4구의 미군 유해를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미군 관리들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함.</p>
10.26	<p>임동원 통일부장관, 금강산관광 육로연결 추진계획 언급</p> <p>*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p>	<p>「조평통」 대변인,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실시 관련 성명</p> <p>- 남조선 전역과 그 주변 해역</p>	<p>양원창(楊元昌) 中 외교부부장, 中·美와 관계개선에 북한 외교역량 집중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6	<p>- 북한 서해안공단에 대한 남북 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전력망 연결 등을 고려할 수 있음.</p> <p>- 금강산 관광 요금을 낮추기 위해 남북한 육로 연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p> <p>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베이징) 개최</p> <p>- 한국통일포럼과 북한사회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95년 첫 개최 후 5번째)가 10.26·27일 중국 베이징(北京) 켐핀스키호텔에서 개최됨.</p> <p>- 26일 회의는 ‘남북의 통일정책’과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및 조국통일의 선결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7일에는 ‘교류와 협력’ 및 ‘민족단합의 실천적 방도’에 대해 논의한 뒤 종합토론을 가짐.</p> <p>현대 평양체육관 건설 실무협상단(김인겸 현대건설 전무 등 6명) 방북</p>	<p>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연습은 침략적인 틴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의 재판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전쟁책동임.</p> <p>-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p>	<p>*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한·중 외무차관 회담(베이징)</p> <p>- 북한은 최근 중·미와의 관계개선에 외교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7	<p>통일부, '99.1~9월중 남북교역 규모는 257,960천달러</p> <p>- '99.1~9월중 남북교역 규모는 257,960천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77.9% 증가하였음. 반입은 25.0% 증가한 79,983천달러이고, 반출은 119.7% 늘어난 177,977천달러임. 이는 남북교역이 가장 많았던 '97년보다 3.5% 증가한 규모임.</p> <p>- 교역액 중 실질교역(상업적 매매 거래와 위탁가공교역 등)은 127,584천달러, 비거래성 물자교역(대북지원, KEDO 중유, 경수로·금강산사업 등 협력사업의 반출입)은 130,376천달러임.</p> <p>-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은 71,401천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1% 증가하였음.</p>	<p>조국통일연구원, 미국의 '학살죄행록' 발표</p> <p>- 노근리 사건, 신천리 대학살 등은 미제 침략군이 이 땅에서 저지른 집단적 대학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조직적·국가적인 범죄임.</p> <p>- 미국은 자기의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민족앞에 사죄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끼쳐온 피해에 대해 무조건 보상해야 함.</p>	<p>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북한 대포·로켓 발사대 비무장지대 대거 배치" 언급</p> <p>* 미 상원 군사위원회</p> <p>- 북한은 작년 이후 총체적인 군사력 증강 계획에 박차를 가해 왔음.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포와 다단계 로켓 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했다는 사실임.</p> <p>페리 조정관, "북·미 고위급회담 대표에 페리·셔먼 국무부 자문관" 언급</p> <p>*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특별회견</p> <p>-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올해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북한쪽에서는 누가 회담대표로 참석할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7			<p>았으나 미국쪽에서는 나(페리)와 셔먼 자문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할 것이 확실함.</p>
10.28	<p>경수로기획단 관계자, “KEDO, 초음파 측정기로 대북중유 감시” 언급</p> <p>- KEDO가 지난 95년부터 매년 북한에 난방 및 발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유 50만t('99년 7월말까지 대북지원 중유는 190만t)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급파이프에 초음파 유량측정기, 질량유량계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있음.</p> <p>- 현재까지 KEDO의 공급량과 북한이 난방 및 발전용으로 사용한 양은 일치하고 있음.</p> <p>노근리 사건 실무조사단 방한(10.28~30)</p>	<p>김정일, 엄을룡이 지배인으로 있는 식료공장 현지 지도</p> <p>* 조명록, 이영춘, 김일철 등 동행</p> <p>노동신문,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북한 군사우선정책 포기 촉구 발언 비난</p> <p>* 가련한 자들의 비명소리</p> <p>-외교장관 홍순영이 제54차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대해 수작을 꾀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에게서 독설의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 것임.</p> <p>「외무성」 대변인, 민주공고 평화협정 이행문제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민주공고 평화협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쟁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p> <p>- 미국은 앞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제창하고 뒤에서는 딴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p>	<p>정부당국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농촌복구비 3,300만달러 지원 승인” 언급</p> <p>-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10.19~20 로마에서 열린 3차 집행이사회에서 종전의 대북 긴급 식량지원과 함께 2000.1.1~12.3까지 33,632천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의 농촌재건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장기 농촌재건복구계획(PRRO)을 승인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29	<p>현대, 금강산 시설 30년 독점 사용 발표 * 정몽헌 현대회장 기자회견</p> <p>-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물 독점사용에 대한 장기(30년) 보장서를 10.27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고위 간부로부터 넘겨받았음.</p> <p>담배인삼공사, 북한과 남북브랜드 「한마음」 시판 합의 발표</p> <p>- 「한마음」 담배를 2000년부터 시판기로 북한의 민족경제연합회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합의했음.</p> <p>- 2000년 1월부터 남북한에 동시 판매되는 남북공동 브랜드 「한마음」 담배 생산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김경환 본부장 등 실무진 16명이 11.6 방북함.</p>		
10.30	<p>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박사 등 나진·선봉지역 방문</p> <p>- 한민족복지재단의 김형석 박사(사무국장) 등 관계자 3명이 북한측의 초청을 받아 중국 연지(延吉)를 거쳐 나진·선봉지역에 들어갔음.</p>	<p>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 제18차 전원회의 진행(평양)</p> <p>- 김정일 서한('99.9.29,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토의.</p> <p>「조평통」 대변인, "미국 군산복</p>	

■ 10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0.30	<p>-김 박사 일행은 11.3까지 머물면서 제약공장 건립 등 사업재개 방안을 협의함.</p>	<p>합체들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에서 대형 무장장비 생산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고 비난 담화 발표</p> <p>- 미국 군산복합체들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저들의 범죄적인 무장장비 생산놀음에 남조선 큰 기업체들을 끌어넣고 있음.</p> <p>- 남조선 기업가들이 말려드는 것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는 물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해를 주는 행위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1		<p>「조국전선」·「조평통」, '2·3제의' 관련 남북·해외의 정당단체 등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발표</p> <p>-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공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보안법 철폐, 통일애국단체·인사들의 활동보장 등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하여 선행실천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데 결코 방임할 수 없음.</p> <p>-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남북·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함.</p> <p>중방,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하의 논평</p> <p>- 몇해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됨으로써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실천적으로 확정되었듯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한 가장 합리적인 민족의 통일방안임.</p>	
11. 2		<p>「조평통」 대변인, 보안법 철폐 관련 담화 발표</p>	<p>교도통신, 北 대외경협위원장 김용술 취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법 개정 책동은 남조선 사회를 파쇼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며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고의적·계획적 범죄행위임. -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완전 철폐되어야 함. 	<p>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북관계 정통한 소식통 인용 - 북한 대외경제협력창구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임태덕 위원장이 최근 경질되고 후임에 김용술이 취임했음. <p>장치위에(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탈북자 난민인정 불가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중국내 탈북자 중에는 소수 난민이 존재한다는 것(10.14)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언론에 보도하듯이 많은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탈북자들도 월경 목적으로 볼 때 난민으로 볼 수 없음.”
11. 3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 대회(4.25문화회관) 개막	아사히신문, 주한 日 대사 데라다 데루스케 내정 보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3		<p>-김영남(당 축하문 전달), 홍성남(보고), 김일철, 김기남(개회사) 등 참석</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政命, 체육성을 내각 체육지도위원회로 개명</p> <p>* 현재 북한내각은 32개 부서로 구성(2위원회, 26성, 1원, 1은행, 2국)</p> <p>장재언 「북적」 위원장, 비전향 장기수 송환 관련 정원식 「한적」 총재에 편지</p> <p>- 우리는 귀측이 지난날의 관념을 털어버리고 올해안으로 남조선에 있는 모든 비전향 장기수들을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함.</p>	<p>- 일본 외무성은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대사의 후임으로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 60) KEDO 담당대사를 내정했음.</p> <p>美의회 공화당 북한자문단, '대북정책보고서' 공개</p> <p>-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능력은 5년 전에 비해 증가했음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5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단기전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능력이 있음 ▲미국의 원조(식량·중유 등)가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한 백악관 계획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 능력을 확대시킬 뿐임.</p>
11. 4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 대회 폐막	페리 美 대북정책조정관, 日의 TMD 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4		<p>* 폐막사: 김기남,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p> <p>몽골 수상 렌친나윈 아마르자르갈과 그 일행, 평양도착 및 동정</p> <p>-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및 대성산 혁명열사능의 김정숙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병산관 참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및 내각총리 홍성남과 담화 등</p>	<p>여 반대 표명</p> <p>* 아사히 신문 인터뷰</p> <p>-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에서 일본을 지키는 데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충분하며, 일본의 TMD 참여는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유발해 안보장에 좀 더 불확실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전역미사일방위(TMD)체계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권하지 않음.</p>
11. 5	<p>양영식 통일부 차관,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표명</p> <p>*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연</p> <p>-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실리추구 태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남북관계는 부분적으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p> <p>-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험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당국간 대화재개 노력 등을</p>	<p>「범민련」 각 지역본부들간의 3자협의회(11.5~6), 평양·서울·도쿄에서 문건교환방식으로 진행</p> <p>- 금년 11.20~명년 9.15까지 북·남·해외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지지 서명운동을 3대헌장기념탑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명년 2월에 조국통일 3대헌장 대토론회를 진행할 데 대하여 합의함.</p> <p>-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북·남·해외 공동추진위원회」 구성</p> <p>• 북측: 안경호(위원장), 이관익, 정득기</p>	<p>유엔, 국보법 7조 조속 개정 필요 표명</p> <p>*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B규약)에 근거해 '91~'95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p> <p>-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p>통해 통일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임.</p> <p>대북지원단체, “평양제약공장, 각종 필수약 2억정 생산” 언급</p> <p>- 북한은 올해 기독교 국제 자선단체 ACT와 독일 의료단체로부터 원료를 지원받아 평양제약공장에서 아스피린, 항결핵제, 항생제 등 각종 필수약 2억정을 생산했음.</p>	<p>• 남측: 강희남(위원장), 김양무 이현수, • 해외: 최일수(위원장), 양은식, 양영동, • 공동사무국 : 박 용</p> <p>조선중앙통신, 북·미 베를린회담 개최 예정 보도</p> <p>- 11.15부터 김계관부상과 카트만 대사간 회담이 진행되며,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회담의 연속임.</p> <p>- 회담의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현안문제임.</p> <p>조·중,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 협정조인(평양) * 보건성 최창식 부장과 중국 위생국 팽옥 단장 서명</p> <p>몽골 수상 렌친나윈 아마르자르갈 일행 평양 출발</p>	<p>처리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p> <p>유엔, '2000년 유엔합동어필계획' 발표</p> <p>- 유엔은 내년 대북 지원 목표액이 올해보다 13.5% 늘어난 33,170만달러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량차원 30,362만 달러 ▲보건·영양부문 2,133만달러 ▲식량·위생 431만달러 ▲교육 93만달러 ▲사업조정 150만달러 등으로 책정함.</p> <p>월터 슬로검 미 국방부 차관, 북 미사일 대응 미사일망 구축 계획 발표 * 국제전략연구소(CSIS) 후원한 연설</p> <p>- 미국은 향후 15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직면할 가능</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5			성이 가장 높으며, 이에 대한 대응1단계로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국가미사일 방위(NMD)체계를 구축할 것임.
11. 6	<p>김경재 국회의원, 음악공연 등 논의차 방북 * 통일부 관계자</p> <p>-김의원은 11.6~13 북한에 머물면서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프리모 칸단테의 평양 공연을 논하고 대북 지원단체인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가 10. 20~22 북한에 보낸 밀가루(333.3톤), 옥수수(1,000톤) 등의 분배현황을 확인할 것임.</p>	<p>「조평통」 서기국, 햇별정책 비난</p> <p>- 햇별정책은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남조선 당국자의 창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모조품으로써 선임자들의 반공정책과 아무 것도 다른 것이 없음.</p> <p>조선중앙통신, 조선일보의 북한내 소요사태 관련 기사(11.2)를 허위모략이라고 비난</p> <p>- 조선일보가 우리의 어느 한 지역에서 그 무슨 소요가 일어났다는 허위 모략 보도(11.2)를 낸 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려는 악랄한 범죄행위로서, 우리는 그 어느 때건 반드시 결산할 것임.</p>	
11. 7	<p>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비용 평균 9,291달러 발표 * 지난 1년간 북한 내 가족과 교류한 적이 있는 이산가족 220명을 대상</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7	<p>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p> <p>-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제3국 중개인이나 국내 교류주선 단체 등을 통해 북한 내 가족의 생사확인(건당 2,459달러)에서 상봉(건당 6,832달러)까지 평균 9,291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음.</p> <p>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발간</p> <p>- 인구: '99년 남한인구는 4,685만 8,000명, 북한은 2,208만 2,000명, 남북한 합쳐 6,894만명임. 46년 분단 이후 출생한 인구는 남한이 3,945만 6,000명(84.2%), 북한은 1,842만 8,000명(83.5%)를 차지했음.</p> <p>- 소득: '98년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3,168억달러로 북한의 126억달러 보다 25.1배임. '98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823달러, 북한의 573달러보다 11.9배임.</p>		
11. 8	제6차 TCOG회의 개최(11. 8~9)		美 국무부, 북·미 미사일 협상에 일본 참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8	<p>- 한·미·일은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를 갖고 11.15부터 열릴 북·미 베를린회담 대책을 포함한 대북정책 조율문제 등을 논의했음.</p> <p>- 이 회의에서는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자문관,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음.</p> <p>렌친나윈 아마르 자르갈 몽골 총리 방한(11.8~10)</p>		<p>여 가능성 배제</p> <p>*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p> <p>-우리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구도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p> <p>- 우리와 북한의 양자교류에 관해 일본 및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은 계속될 것임.</p> <p>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99 Military Balance」 발간</p> <p>-북한은 지상군 병력을 92만3천여명에서 95만명으로 늘려 해·공군을 포함한 총병력이 108만2천여명에 달하며 T62·T59형 등 전차도 5백여대를 증강, 3천5백여대임.</p>
11. 9	<p>김대중 대통령, 동아시아 안보 포럼 등 제안</p> <p>* 독일 한델스 블라트 신문과 회견</p>	<p>개천시 대각갑문~태성호 자연흐름 물길 건설 착공식</p> <p>* 이길송 평남 도당 위원장, 박영훈 평남 농촌경리위원장</p>	<p>WFP·FAO, 북한식량 내년 129만 부족 전망</p> <p>* '99.10.9~19 방북해 현지조사 등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 9	<p>-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대화기구인 동아시아 안보 포럼을 창설하고 ▲1단계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구상에 성과가 있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임.</p> <p>- 유럽연합(EU)이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등 참석</p> <p>평방, 미국의 힘의 우선 정책 비난</p> <p>- 미제는 세계제패를 위해 과도한 군사비(내년 군사예산 2,680억달러) 지출, 전역미사 일방위체계 배비 등 군사적 우위, 힘의 우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미제의 힘의 제한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파산을 면할 수 없음.</p>	<p>근거로 작성한 「특별보고서」</p> <p>- '99년 11월~2000년 10월까지 북한의 식량 필요량 476만 5,000t, 올 식량 생산량 347만 2,000t, 이에 따른 부족량은 129만3,000t 임.</p> <p>존 홀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자문관, “북, 5년내 미 본토 위협 미사일 개발” 언급</p> <p>* 기자브리핑</p> <p>-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년 이내에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p> <p>- 미국이 러시아측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같은 세력에 대해 제한된 1단계 방어를 하기 위한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0	<p>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발표</p> <p>- 북·미 베를린 합의(9.12)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 발표 등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p> <p>- 향후 대북정책에서도 3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유지키로 했음.</p> <p>렌친나원 아마르 자르갈 몽고 총리, “北지도부, 남한과 대화 희망” 밝혀 * MBC 인터뷰</p> <p>-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홍성남 내각총리 등 북한 고위관료들이 남북간 직접대화를 희망했음.</p> <p>- 북한측과 몽골주재 대사관 폐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대사관 폐쇄 결정은 경제적 사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p>	<p>평방, “북한이 남한 기업인들의 라진·선봉지역지대 방문 허용했다”는 국내언론 보도(11.1)를 부인</p> <p>- 남조선의 일부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정보원의 사측에 의한 허위 모략보도임. 경제협력의 간판을 내걸고 반공화국 책동을 감행하려는 못된 자들에게는 결코 라진·선봉 무역지대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임.</p>	<p>日 지식인들, 北에 인권존중 촉구</p> <p>* 「북한난민구원기금」 대표인 나카다이아 겐키치(中平健吉) 변호사 등은 도쿄에서 각계인사 51명이 서명한 ‘북한민중을 위한 인권선언’ 발표</p> <p>- 이들은 인권선언문을 통해 ▲북한 민중의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당 1당 독재와 전체주의 배경 ▲북한 인권을 위해 강제수용소 폐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 ▲이산가족·북송자 고향왕래 허용 ▲집회·결사·언론·신앙 자유 보장 ▲한국·프랑스 지식인 선언 지지 ▲한·일 지식인의 양심에 따른 동참 등을 촉구함.</p>
11.11	<p>통일부, 서울~금강산 자동차 경주대회 승인</p> <p>- '99.12.30부터 2000.1.2까지</p>	<p>중방, “미국, 중유 50만톤 공급” 보도</p> <p>-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에</p>	<p>주언타오(朱恩濤) 中 공안차관, “탈북자는 中·北 국경협정에 따라 처리” 밝혀</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1	<p>서울~평양~속초와 내금강~외금강 구간에서 벌어지는 '99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렐리를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승인했음.</p>	<p>따라 올해 우리에게 제공할 50만톤을 KEDO를 통해 11.6 까지 전부 납입함.</p> <p>- '94년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납입한 중유는 모두 215 만톤임.</p> <p>중방, 북남 해외학자들의 통일 회의(10.26~27, 베이징)를 뒤늦게 보도</p> <p>- 회의 참가자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군철수 문제와 보안법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음.</p> <p>- 북과 남, 해외측 단장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데 대해 공동문건을 채택함.</p>	<p>* 제68차 인터폴 서울 총회</p> <p>-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로 보며, 이 문제를 양국이 계속 협의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p> <p>-중국과 북한은 국경관리 협정을 체결했으며, 친선적으로 국경을 유지하고 있음.</p> <p>미국대표단, 평양에서 북측으로부터 유해 3구를 인수</p>
11.12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리비아 아랍사회주의공동체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에 최인섭 임명</p> <p>김계관 외무성 부상, 북한 체제 보장문제도 논의 언급</p> <p>* 11.15부터 열리는 북·미 베를린 회담을 위해 독일 테겔 공항 도착후</p>	

■ 1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도 논의하겠음. - 이번 회담은 지난 9월 베를린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관계개선 사항이 논의될 것임. 	
11.13		<p>조선중앙통신,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 추진은 모략 보도”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의 그 누구와도 우리 교예단이 서울에 가고 말고 하는 일을 논의한 바 없음. - 얼마전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 교예단이 11월에 공연하게 된다고 요란스레 광고하더니, 최근에는 현대가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모략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음. <p>「아·태 지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우주운영에 관한 제2차 상급회의(인도)에 참가하는 이광호 원장 등 과학원 대표단이 평양 출발</p> <p>「조평통」 서기국, 남조선 당국자들의 최근 무력증가 강화 비난 보도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3		<p>- 괴뢰 호전광들이 감행하는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을 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계획적인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함.</p>	
11.14	<p>김경재의원, 한국예술단 평양공연 북측과 합의 * 김경재의원 11.6~13 평양 방문</p> <p>-35명의 공연단이 12.14~19 평양을 방문해 16일이나 17일 봉화대극장에서 「화해와 단결을 위한 통일음악회」라는 명칭으로 한차례 공연을 갖기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위원장 김영대)측과 합의·서명했음.</p>	<p>노동신문, 코언 미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 관련 비난 논평</p> <p>- 미국 고위층의 호전적 발언은 세계의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조·미 회담들에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것임.</p>	
11.15	<p>정몽준 축구협회회장 방북</p> <p>- 「조선 아태위」(위원장 김용순)의 초청으로 방북한 정회장은 11.19까지 평양에 머물며 이일환 조선축구협회 주석 등과 월드컵 축구 북한 분산개최 등을 논의함.</p> <p>서해공단후보지 조사를 위해 현대 실무조사단, 베이징을 통해 방북</p>	<p>조선중앙통신, 정몽준 회장 평양 도착 보도</p> <p>- 정몽준 회장등은 평양에 도착했으며, 송호경 「조선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등이 일행을 맞이하였음.</p>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에 결단성 있는 조치를 요구</p> <p>- 남조선 적십자측이 우리측 편지(11.3)에 대해 아무런 응</p>	<p>北·美 고위급회담 개최(11.15~19, 베를린)</p> <p>- 북한과 미국은 베를린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회담을 열고 고위급정치회담 실행 일정,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함.</p> <p>- 이번 회담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5	<p>- 실무조사단은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등 16명으로 구성함.</p> <p>* 현대는 99.10.1 북측과 '공단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후보지에 대한 의견차이로 두차례 걸쳐 부지조사단 방북을 연기했음.</p> <p>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남북 경협 논의 위해 訪中</p> <p>-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손병두 상근부회장 등 4명을 북한측과 유휴설비 대북 이전사업과 평양 무역사무소 건설 등 민간차원의 경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했음.</p>	<p>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족의 염원에 대한 묵살·무시이며 저들에게는 인도주의적 이념도 민족적 양심도 인간의 도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p>부상과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함.</p> <p>후쿠오카(福岡) 현 경찰본부 등 합동수사본부, "대만 밀수선, 北에서 각성제 선적했다"고 발표</p> <p>- 밀수선 신생호(新生號)는 대만 북부의 한 항구를 떠나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가고시마(鹿兒島)로 직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음.</p> <p>* 지난 10월초 가고시마 해안에서 대만의 밀수단원들이 이 배에 싣고 들어오다 적발된 각성제(565kg)는 일본 마약단속 사상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분량이며, 이 사건으로 16명의 대만인이 체포됐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6	<p>통일부, “「북적」, 비료 등 대북지원 분배결과 통보” 언급</p> <p>- 「북적」(위원장 장재언)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한에서 보낸 비료 10만톤을 ▲황남(18개 시·군) 20,606t ▲평북(23개 시·군) 13,990t ▲함남(18개 시·군) 13,201t 등 북한 전역에 분배했다고 전해 왔음.</p> <p>- 또 '98.10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등 민간단체가 대한적십자를 통해 보낸 밀가루 50t, 씨감자 150t, 옥수수 1,000t 등을 각각 지정지역과 단체에 나눠 주었다고 밝혔음.</p> <p>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북한측과 협의결과 발표</p> <p>* 손 부회장 11.15~16 중국 방문 북한인사와 접촉</p> <p>- 11.15 오후 북한에서 은고위인사와 만나 남북간 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p>	<p>중앙TV, 정몽준 축구협회장 일행, 만경대 방문·주체사상탑·5월1일경기장 참관 후 내각 체육지도위원장 박명철과 담화 등 방영</p>	<p>北·美 베를린 회담 이틀째 개최(베를린 주재 미 대사관)</p> <p>日 지지(時事) 통신, 박경옥 전 북한 「조평통」 베이징 대표 망명설 보도</p> <p>* 워싱턴 소식통의 말 인용</p> <p>- 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베이징 주재 대표를 겸하고 있던 박경옥은 몽골을 경유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 같음.</p> <p>* 박경옥은 북한의 원자력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95~'98년에는 미사일 부대 사령관을 역임했음.</p>
11.17	<p>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서두르지 않겠다”고 표명</p> <p>* 국회 통일외교통상위</p>	<p>중방,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관련 보도</p>	<p>헝가리 외교부 대변인, 평양대사관 폐쇄 발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7	<p>-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회담성사에 연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음.</p> <p>-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해결을 추진하며서, 제3국을 통한 교류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음.</p> <p>현대, 금강산 관광 1년간 관광객 14만명 발표</p> <p>- '98.11.18부터~'99.11.17까지 14만명이 넘게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총289회 운항해 1회 평균 500명 가량임.</p> <p>- 연령별로 50~60대가 전체의 46.08%, 지역별로는 서울(32.3%), 경기(18.5%), 울산(6.8%) 순이며, 성별로 남성이 52.7%, 여성이 47.3%였음.</p>	<p>- '95년 미 육군성이 존 글렌 상원의원에게 보낸 비밀문건에 의하면, 미군은 '68년과 '69년에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작전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쪽 약 6,600평방 미터에 고엽제 2만여 리터를 뿌렸음.</p> <p>- 이러한 미제의 만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p> <p>「민족화해협의회」, 우리 당국의 비전향장기수 미송환 관련 비난 담화 발표</p> <p>-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가족 친척들이 기다리는 공화국 북반부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p> <p>「조국전선」·「조평통」,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 건립을 위한 해·내·외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p> <p>- 민족의 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애국애족의 일념을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 건립사업에 남김없이 바쳐나가자.</p>	<p>-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재정적인 이유로 11.6 폐쇄했으며 베이징 주재 헝가리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하고 있음.</p> <p>- 헝가리 주재 북한 대사관도 업무를 중단했으며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헝가리 대사를 겸임하고 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7		<p>- 북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과 인사들은 조국통일 3대 현장을 민족공동의 통일 대장으로 높이 받들고 다가오는 2000년을 조국통일의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빛내 이자</p>	
11.18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9차 대북지원 물품 출항식</p> <p>-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은 밀가루 51톤, 귀리 18톤, 라면300 상자 및 축구공 500개등 5,000만원 상당의 9차 대북지원 물품 출항식을 인천항에서 가졌음.</p> <p>한·미 미사일 문제 양자 협의(11.18~20)</p> <p>-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과 방한한 로버트 아이혼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차관보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중단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함</p> <p>- 현재 180km로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거리를 310km까지 늘리고, 순수 연구·개발범위는 500km까지 확대하는</p>		<p>일본 KEDO 대사 다카노 내정</p> <p>-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일본 외상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담당대사 겸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대표에 다카노 고지로 (高野幸二郎, 55)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8	문제를 협의함.		
11.19	<p>정몽준 회장, 월드컵 남북 단일축구팀 원칙적 합의</p> <p>* 4박 5일간 방북 후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명철 내각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의 체육 고위관계자들과 2차례 만나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경기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와 관련 그 경기를 능라도경기장에서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32경기중 10%도 안되는 2경기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음. <p>김정배 고려대 총장, 내년 평양서 단군 학술토론회 개최 발표</p> <p>* 11.9~16 방북 후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내년 개천절에 남북의 학자들이 단군에 관한 학술교류 모임을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했음. - 김일성 종합대학 박관오 	<p>북한, 한국계 미국인 간첩 혐의로 추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미국 공민 서순덕을 추방하였음. - 서순덕은 합영투자의 명목으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체류하면서 나라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간첩 행위를 감행하다가 9.29 현장에서 체포되었음. <p>「조평통」, 우리나라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규탄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이 감행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책동을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인정함. <p>조선중앙통신, 정몽준 회장 일행 평양 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평화위」 송호경 부위원장과 관계간부들이 일행을 전송하였음. 	<p>북·미 베를린 회담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미군은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베를린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회담을 마쳤음. - 11.15부터 계속된 이번 회담을 마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과 관련한 현안문제와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벌였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기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p>조시 부시 텍사스 주지사, 對韓 방위공약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외교정책 연설 - 미국은 한국에 대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19	총장을 만나 고려대와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양측이 긍정적인 논의를 했음		한 외부 침공을 억제하는 공약을 계속 지켜나갈 것임. -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서로 협력해야 함.
11.20	서해공단 후보지 조사단 귀국 -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은 이번 방문기간(11.15~11.20) 동안 신의주, 해주, 남포 등 3개 후보지 가운데 신의주 지역을 살펴보고 돌아왔음.	「조국전선」, 한국 전쟁시 미군의 학살 만행 관련 북·남·해외 공동조사단 제의 -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와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미제의 살인만행을 밝혀내는 공동조사단을 무을테 대한 우리의 건설적 제의에 적극적 호응을 기대함.	
11.22	국가정보원, 국군포로 일가족 6명 귀환 발표 - 국군포로 박홍길(72)씨가 가족 5명과 함께 북한을 탈출, 귀환해 와 경위를 조사 중임. - 6.25 직후 입대한 박씨는 '53년 2월 포로가 돼 오성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해왔으나, 국방부는 박씨를 전사자로 처리,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인해왔음.	「직총」 중앙위·「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우리나라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비난 성명 각각 발표 「남조선의 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남조선 집권자들은 개정 놀음을 견어치우고 악법을 없애버려야 함.	유성일 체육지도위 대외사업국장, 2002 월드컵축구 예선 불참 선언 *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 주요 국제대회에 오랫동안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백이 크기 때문에 지역예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2			<p>요미우리 신문, 日 방위청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내년 2월 도상훈련계획 보도</p> <p>- 내년 2월 미·일 합동군사훈련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주변사태를 상정한 지휘소연습(CPX)을 처음으로 본격 실시함.</p>
11.23	<p>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 회(SCM)회의와 제21차 군사위원회(MCM)회의 개최(워싱턴)</p> <p>- 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 아래 연합방위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기로 했음.</p>		<p>NHK, KEDO의 북한 경수로 건설 관련 보도</p> <p>-북한에 건설할 경수로의 주요 부품을 제공키로 한 미국의 GE사가 북한의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수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KEDO는 금년 중 공사착공이 어려워지고 있음.</p>
11.24	<p>정원식 「한적」 총재, 「북적」 위원장에게 편지 발송</p> <p>- 귀측이 제기하는 현안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남과 북이 서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p>	<p>북한·EU, 제2차 정치대화 개최(브뤼셀)</p> <p>- 지난해('98.12.2)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EU측은 의장국인 핀란드 외무부 간부와 각료회의 및 집행위 관계자 등 4명의 대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4	<p>직 하다고 봄.</p> <p>- 남북 쌍방이 제기하는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귀측이 우리측 제의에 하루 빨리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함.</p>	<p>자가 참가했고 북한측은 김춘국 외무성 유럽국장 등이 참가하여 상호관계 강화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차기회담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음.</p> <p>장재언 「북적」 중앙위 위원장, 「한적」 총재에게 편지와 함께 범민련 북측 본부의 초청장 발송</p> <p>-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상임부의장의 신병치료를 위해 본인과 방조 성원으로 권오창씨를 평양에 초청함.</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전자공업성」 신설 발표</p> <p>* '98.8 전면적 내각개편 이후 '99.3 「도시경영성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 '99.11 「체육성」을 「체육지도위원회」로 개편이후 3번째 개편임.</p>	
11.25	<p>강원대, 29일 강원 씨감자 30t 북송계획 발표</p> <p>- 강원도산 씨감자 30t을 강릉 육계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을 북한 「아·태평양평화위」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운반은 대형 바지선을 이용함.</p>	<p>조선중앙통신, 미국에 가는 김형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태평화위」 대표단 출발 보도</p> <p>평양,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11.24, 워싱턴)관련 비난 보도</p> <p>- 위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대북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5	<p>조경철 박사, 北동생 50년만에 상봉</p> <p>-11.20 북한 방문길에 올랐던 조경철 박사는 50년만에 동생 조경두씨와 감격의 상봉을 했음.</p> <p>-조씨의 상봉은 올해 남한의 이산가족이 남북 당국의 승인 아래 북한에 들어가 이산가족을 직접 만난 다섯 번째 사례임.</p> <p>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p> <p>-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탈북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탈북주민 임금의 2분의 1을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토록 했음.</p> <p>- 또 탈북주민이 희망하면 농업교육훈련 등 영농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탈북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들의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음.</p>	<p>있으며 '그들이 무모한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얼마나 몰아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p> <p>북한과 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4차회의 개최(만수대 의사당) 후 의정서 조인</p> <p>- 의정서 조인식에서 강정모 무역상과 리비아측 알 히자지 청소년 체육부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의정서를 서명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6	<p>국가정보원, “북한주민 4명, 제3국을 통해 귀순” 발표</p> <p>- 북한주민 이정석(31, 가명) 등 4명이 제3국을 통해 입국, 귀순을 요청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자세한 신원과 탈북 동기를 조사중임.</p> <p>- 이들의 귀순으로 올해 남한 입국 탈북자는 모두 113명임.</p>		
11.27	<p>MBC, 남북대중음악제 평양 공연 생중계 계획 발표</p> <p>-MBC와 (주)SN21 엔터프라이즈는 11.23~27 평양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 및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12.16 평양의 봉화에 술극장에서 남북대중음악제를 개최하고 공연실황을 남북한에 생중계하기로 합의했음.</p>	<p>중방, 유엔아동기금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장 콜찬드라가우탐의 평양 도착 보도</p>	<p>대북지원단체 관계자, “북한, 세계 두 번째 유엔 원조 수혜국” 언급</p> <p>-유엔이 발표한 2000년 각국 인도적 지원 및 호소계획에 의하면 총 지원액 233,798만달러 가운데 북한지원에 약 33,171만달러를 책정하여 옛 유고연방(65,983만달러)에 이어 2위의 수혜국이 됨.</p> <p>- 유엔의 대북지원 규모 계획도 '96년 4,000만달러, '97년 18,000만달러, '98년 38,000만달러, '99년</p>

■ 11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27			<p>29,000 만달러로 늘어났음.</p> <p>- 그러나 실제 대북지원집행 실적은 '96년 3,120만달러(78.85%), '97년 15,120만달러(84.3%), '98년 21,000만달러(55.8%), '99년 10월말까지 15,000만달러(51.5%)로 집계됐음.</p>
11.29	<p>김대중 대통령, 필리핀·북한수교 원칙적 찬성 표명</p> <p>* 필리핀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과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회담</p> <p>- 필리핀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국교정상화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한국과 충분히 협의도 필요함”을 밝힘.</p>	<p>김정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 시찰 및 동 부대 관하 민경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p> <p>- 조명록·김영춘, 김일철,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 등 동행</p>	<p>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미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MTCR 기준 준수” 언급</p> <p>* 우드로 윌슨센터 초청 세미나</p> <p>-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임.</p>
11.30			<p>일본, 북한 괴선박 대비 첫 실전해상훈련 실시</p> <p>-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북한 공작선의 영해침범</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1.30			<p>을 막기 위해 동해 쪽 노토(能登)반도 앞 해상에서 순시 선을 동원한 첫 합 동 실전훈련을 실 시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1	<p>김양무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북한 의약품 전달받아</p> <p>-방북 후 12.1 서울에 돌아온 김순권 박사가 북측으로부터 압치료제 '장명' 10명과 인삼 3상자를 받아 전달해 주었음.</p> <p>패티김, 설운도 등 가수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2000년 평화 친선 음악회」(11.5)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p>	<p>김용순 노동당 비서, 북·일 관계 개선은 양국 국민의 염원 시사</p> <p>*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초당파 의원단 환영 연 인사말</p> <p>-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양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임.</p> <p>-불행한 역사를 청산해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염원임.</p> <p>조선중앙통신,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등 일본 정당대표단의 평양 도착, 김용순 비서와 담화, 「조선노동당중앙위」 주최 연회 참석 등 보도</p> <p>「외무성」 대변인, 미군 투입 시간표 발표(11.20) 관련 비난 성명 발표</p> <p>-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의 뒤에서 반공화국 침략 전쟁 모의훈련을 벌이고, 조선반도 유사시 미군투입 시간표까지 공개하는 것은 평화적 해결보다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대북한 정책임을 보여줌.</p>	<p>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 베를린회담 조속재개 모색 언급</p> <p>-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베를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모색중임.</p>
12. 2	<p>삼성전자, 북측과 남북공동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체결 발표</p>	<p>미국 대중음악가수 로저 클린턴 일행 평양 도착</p>	<p>교도 통신, 북·일 수교 협상 연내 재개등 보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2	<p>- 「아태평화위」 주관 아래 북한 「조선컴퓨터센터」 및 「개선무역 총회사」와, 남북공동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평양에서 컬러TV 등 전자제품을 임가공 형태로 생산하기로 하는 '세부남북경제협력 계약'을 11.27 베이징에서 체결했음.</p> <p>조선일보, "탈북자를 즉각 송환하는 러·북 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도</p> <p>* 러시아 현지에서 조약문 입수 공개</p> <p>- 북한과 러시아가 '90년말 두만강 하류 17km를 경계로 한 국경확정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로 탈북한 주민들은 러시아가 지체없이 체포해 북한에 송환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조약14조)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킴.</p>	<p>- 「아태평화위」 이종혁 부위원장, 문화성 송석환 부상이 일행을 맞이함.</p> <p>조선중앙통신,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김정일 총비서에게 친서 전달 보도</p> <p>- 방북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이 친서를 김용순 노동당 비서에게 전달했음.</p> <p>일본 정당 대표단과 조선노동당 대표단 사이의 회담(만수대 의사당) 진행</p> <p>* 김용순, 김양건, 송호경, 문재철, 장인수 등 참가</p>	<p>- 조선 노동당과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방북단의 회의에서 ▲올해 안에 정부간 수교교섭을 재개하며, 장소는 평양과 도쿄, 베이징 중 한 곳으로 하고 ▲남치 의혹 등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교 교섭과 병행해 쌍방의 직접 자사와 정부간에 협의를 진행하며 ▲내년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음.</p>
12. 3	<p>권병헌 주중 한국대사, "중국 이 탈북난민 5,000여명 송환했다"고 밝혀</p> <p>* 베이징 외신기자 클럽</p> <p>-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난민 수가 적어도 수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중 5,000~</p>	<p>일본 정당 대표단 동정</p> <p>-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과 담화</p> <p>-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김용순)과 공동발표문 발표(평양 고려호텔)</p>	<p>교도통신, "北, 월드컵 예선 불참 FIFA에 수일 전에 통보했다"고 보도</p> <p>* 방일한 키스 쿠퍼 FIFA 홍보부장 말 인용</p> <p>- 북한은 2000년 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3	<p>6,000명이 송환됐음.</p> <p>- 그들이 송환된 후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므로, 중국은 북한 난민의 송환을 자제해야 함.</p> <p>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12.1~3, 서울) 폐막</p> <p>- 참가자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전세계 인류가 북한정권에 대항하고 그들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p> <p>-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폭압적 정권 종결 ▲정치범 수용소 폐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해매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요구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 정부간 회담재개의 중요성에 관해 합의하고 각자 정부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함. • 양국이 관심사인 인도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합의하고, 각국 정부의 협력 하에 적십자에 이를 위한 상호협력을 권고함. • 양국간 불신을 해소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류와 왕래를 강화함. <p>-일본으로 귀국(노동당 김양건 부장·송호경 부부장 등 전송)</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 파키스탄 대사에 임희성, 駐 나이지리아 대사에 길문영을 각각 임명</p> <p>조선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 우리측 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이 구축된 지 20년이 되어 온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정당·단체들에 이의 해체를 요구하는 호소문 발송</p>	<p>일 양국에서 공동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의 대륙별 예선전에 불참할 것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했음.</p>
12. 4	<p>김대중 대통령, 보안법 실정에 맞게 개정 지시</p> <p>* 여당 정책위 의장 등과 청와대 오찬</p>	<p>조선농업근로자연맹, 제36차 전원회의 개최(평양)</p> <p>- 제국주의의 사상적 침투를</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4	<p>- 국보법은 내용에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 북한이 국가를 참칭(僭稱)한다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축구경기, 남북화해가 가능하겠느냐?</p> <p>- 외국에서는 고무·찬양 조약을 전부 폐지하라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음.</p>	<p>막고, '동맹안'에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p> <p>「민족화해협의회」, 보안법 철폐 관련 「전국연합」에 연대성 편지 발송</p> <p>- 우리는 「전국연합」이 광범위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열렬한 지지를 표시함.</p> <p>로저 클린턴 일행 동정</p> <p>- 「아·태평화위」 김용순 위원장과 담화</p> <p>-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가</p>	
12. 5	<p>「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p> <p>- 코레콤과 북한 「아·태평화위」가 공동 주최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가 1시간 30분동안 북한 주민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렸음.</p> <p>- 남측에서는 핑클, 제스키스, 패티킴 등 6팀이, 북측에서는 인민배우 전혜영 등이 공연했으며, 로</p>	<p>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83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양어장 시찰</p> <p>중방, 로저 클린턴 일행의 공연(봉화예술극장) 보도</p>	<p>오부치 게이조 日 총리, 대북제재 해제 지시</p> <p>-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상을 만나 초당파 의원 방북단과 노동당간의 합의된 수교협상 조기 재개문제를 협의한 후, 고노 의상에게 '98.8 북한의 미사일 발</p>

■ 1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5	저 클린턴의 특별출연도 있었음.		사 후 취한 식량지원과 국교정상화 협상 동결 등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음.
12. 6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미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고엽제 살포 관련 제소장 발표	<p>마이니치 신문, “북·일, 평양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록 합의” 보도</p> <p>- 북한 노동당 간부들과 일본 국회의원 초당파 의원들의 전체회의(12.2)에서, 무라야마 방북단장이 김용순 노동당 비서에게 고구려 고분을 북·일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자고 제안했으며, 김 비서가 이를 받아들였음.</p> <p>워싱턴 타임즈, ‘北 경제회복으로 통일 지연’ 보도</p> <p>- 북한체제가 경제회복, 군사력 안정, 대미(對美) 관계개선 등의 등을 통해 다시 강화되고 있</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6			<p>어, 한반도 통일이 무기한 미루어지게 되겠음.</p> <p>교도통신, “일본, 대북 식량제재 해제 3단계 방식 추진” 보도</p> <p>-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 교섭 재개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조치를 3단계(①금지조치 해제 ②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③직접 지원)에 걸쳐 해제할 방침임.</p>
12. 7	<p>임동원 통일부 장관, “크고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 천명</p> <p>*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심포지움 기념사</p> <p>-정부는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크고 새로운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p> <p>-냉전에 의해 희생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도적 문제를 남북이 보다 열린 자세로 해결할 수 있도록</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p> <p>- 駐 캄보디아 신임대사 김정남 임명</p> <p>- 만수대 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예술인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식(동평양 대극장) 진행</p> <p>「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참가한 패티김, 설운도 등 한국 가수들과 로저 클린턴 동정</p> <p>-「아·태평화위」의 연회 및 국</p>	<p>요미우리 신문, “리평순인대위원장, 北·日 수교지지” 보도</p> <p>* 기자회견</p> <p>- 일본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지지함.</p> <p>-일본이 대북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명한 조치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7	<p>노력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포도 민족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행복을 누려야 하며,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음. -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남북간 정치문제든, 군사문제든, 경제문제든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북한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음. - 북한은 남북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p>제천선전람관 참가(12.6), 김영남과 담화(로저 클린턴) 및 판문점 참관</p> <p>노동신문, '한·미·일 군사동맹'을 아시아판 NATO라고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들이 아시아판 삼각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극화에로 나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큰 장애를 조성하는 것임. 여기에는 미국의 지배전략이 놓여 있음. 	
12. 8	<p>「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공연팀(패티김, 설운도, 로저 클린턴 등) 귀국</p>	<p>「외무성」 대변인, 미 국회의 대북정책에 불만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미 국회에서는 조·미 사이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날로 표면화되고 있음. - 우리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서로 상반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8		<p>는 양단의 대조선 정책안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미국의 정책으로 되겠는지에 대하여 종잡을 수 없음.</p> <p>- 이러한 형편에서 나라의 미사일 능력 문제와 같은 중대사를 이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현행 정부와 토의결정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음.</p> <p>중방, "몽골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 물자를 북한주재 몽골대사 받디니 드밤바가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p>	
12. 9	<p>현대상선, 금강산 관광 외국인 본격 유치 계획 발표</p> <p>-중국인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설 연휴를 전후로 내년 2월쯤 중국·대만·홍콩을 비롯, 동남아 화교 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차례에 200~300명씩 모두 7~8차례에 걸쳐 2,000여명의 중국인들의 금강산 관광에 나서도록 할 방침임.</p> <p>-내년 상반기중 부산 지역에서 금강산 유람선을 띄</p>	<p>노동신문, "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완전 철폐 하라"고 주장</p> <p>-몇일전 남조선 집권자가 보안법을 전부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췌친 것은 이 법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자 악랄한 도전임.</p>	<p>우다웨이(武大偉)주한 중국대사, "동북아 미군주둔 관련국이 해결" 밝혀</p> <p>* 연합뉴스 인터뷰</p> <p>- 중국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입각해, 어떤 나라든 본토 외에 군대를 주둔시켜서는 안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동북아지역 미군 주둔 문제를 해</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 9	<p>위 일본인 관광객도 대거 유치할 계획임.</p> <p>한국전력, 경수로 본공사 12.15 착공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집행이사국은 15일 한전과 경수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한전」은 지난 97년 8월 경수로 본공사를 위한 초기 현장 공사에 들어가 모두 7,192만 달러를 들여 2년 만인 지난 8월 완공했음. - 「한전」은 그동안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부대설비인 숙소 3채와 600명 수용 규모의 식당을 마련했으며, 통신과 도로 등에 대한 기초시설을 갖쳤음. 		<p>결해야 할 것임.</p>
12.10	<p>한·중 외무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외무장관의 정례적인 연례 교환방문에 합의했음. - 또한 양국 고위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을 확대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 	<p>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올해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투쟁이 세계적 판도에서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그 상황을 알리는 통보 발표</p>	<p>국제교육연구소(IIIE) 연례보고서, “미국 내 북 유학생 총 142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99학년도에 미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북한 유학생은 대학 44명 대학원 94명이며 어학연수 등 학위취득외의 교육프로그램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0	<p>기에는 츠하오텐(漣浩田) 중국 국방부장, 하반기에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합의했음.</p> <p>- 홍 장관은 탈북자는 단순히 중국·북한간 국경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견해를 전달했음.</p>		<p>에 참가중인학생도 4명이 있음.</p>
12.11		<p>중방, 한·미 합참의장 회의 비난 논평</p> <p>- 서울에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쉐턴과 남조선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영길 사이에 군사동향과 군사동맹 강화 문제를 논의했음.</p> <p>- 이는 그 어떤 사건을 날조하고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려는 기도를 노출시킨 것임.</p>	
12.13	<p>「민화협」,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개최</p> <p>- 민화협은 기념식에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 공동회의 예비회담을 내년 1월</p>	<p>평방, 주한미군 범죄행위 관련 비난 보도</p> <p>-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 있는 미제침략군이 부평소년직송 기사건·파주나무꾼사살사건 등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p>	<p>KEDO 이사회, 한전 대 북경수로 주계약 승인</p> <p>- KEDO는 도쿄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3	<p>초 서울이나 평양 또는 북쪽이 원하는 장소에서 열고 본회담은 내년 3월1일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음.</p> <p>- 또 최근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음.</p>	<p>이번에 군산비행장 사용료를 김포비행장의 2·3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당장 물러가야 함.</p>	<p>-이날 이사회에는 찰스 카트먼 미국 한반도평화회담 담당 특사와 데리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일본 KEDO 담당 대사도 참석했음.</p>
12.14		<p>노동신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 제하 논평</p> <p>- 최근 국방부는 북방한계선 관련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할 때 미군측이 이 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을 밝혔음.</p> <p>- 북방한계선이야말로 미군측이 조선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비법적인 선임.</p>	<p>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일본 관방장관, "日, 대북제재 전면 해제" 발표</p> <p>-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 환경이 정비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 예비회담의 연내 개최를 희망하며, 북한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대응을 촉구함.</p> <p>- 이로써 일본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조치로 취한 ▲KEDO 자금협력 동결 ▲전세기 운항 중단 ▲식량지원 중단 ▲</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4			<p>국교정상화 협상 동결 등 4개항의 재조치는 약 1년 3개월만에 풀렸음.</p> <p>보스워스 주한미대사, 한·중·일 협의체 반대 표명 *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서울)</p> <p>-동북아 3국간의 대화와 협력 증진은 바람직하나 새 협의체 구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기 상조라고 생각함.</p> <p>유에스에이 투데이, "국제적십자, 내년 북한 구호활동 6백만불 책정" 보도</p> <p>-국제적십자는 북한, 유고슬라비아 등에 대한 내년 구호활동을 위해 1억 9천 800만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세계 각국에 요청했음.</p> <p>-이 중 북한의 식량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구호자금으로 책</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4			정된 금액은 600만 달러임.
12.15	<p>임동원 통일부 장관, 통일논의 위해선 북한변화 전제</p> <p>* 민주평통사무처 주최 통일문제토론회</p> <p>- 남북한간에 의미있는 통일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p> <p>-북한은 자본주의 경영 방식 연수를 위해 중견 경제관료들 해외에 연수시키고 있으며 경제가 다소 호전되어 감에 따라 미국·일본 등 대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실용주의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p> <p>- 최근 북한의 변화조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노동신문, 일본의 비핵 3원칙 정책추진 비난 논평</p> <p>* 비핵 3원칙은 빈껍데기이다</p> <p>-일본이 핵무기 생산·보유·반입금지 등 비핵 3원칙을 부르짖으면서 반핵투사의 행세를 하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일본은 이미 비핵국가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핵전쟁 세력의 하나임.</p>	<p>KEDO·한국전력 경수로 주계약 체결</p> <p>- KEDO는 서울에서 한전과 1백만 KW급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주계약서에 서명했음.</p> <p>- 한국은 2008년까지 3조 5천 4백억원을 공사비로 내며 이는 총공사비(46억 2천만달러)의 70%에 해당됨.</p> <p>- KEDO 사무총장은 계약식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원전 건설과 별도로 북한내 송·배전 설치작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음.</p>
12.16	「한적」, 「민화협」의 '남북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개최제의 서한 북측에 전달	중방, 북한과 일본 사이 적십자회담과 정부간 회담을 위한 외무성 국장급 예비회담(12.19~20, 베이징) 개최 보도	야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 “北·日 수교예비회담, 적십자회담 개최 예정” 발표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6	<p>-정원식 「한적」 총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위임을 받아 우리측 「민화협」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관을 통해 북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음.</p> <p>-서한에는 '남북정당사회단체공동회의'를 2000.3.1 개최할 것과 회의 개최를 위해 예비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북측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p> <p>경수로기획단, "북한 경수로 송·배전 시설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p> <p>-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송·배전시설의 건설문제는 북한쪽의 자체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북한이 자체노력으로 상업차관 도입 등을 추진할 때 KEDO가 이런 노력을 측면 지원할 용의는 있음.</p>	<p>평방,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p> <p>- 조·미 사이에 하루빨리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조·미 교전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p>	<p>-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12.19~20, 국교정상화 예비회담(국장급)을 12.20~21 각각 베이징에서 개최함.</p>
12.17	<p>환경부 鮮于榮俊 국장, "北 농업 원상회복 됐다"고 언급</p> <p>*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주최 세미나</p>	<p>「북적」 중앙위 위원장 장재언·「범민련」 북측 본부, 판문점을 통해 「한적」 총재·「범민련」 남측 본부에 김양무 남측 본부 상</p>	<p>교황청 외교관 2명 북한 방문(11.23~27)</p> <p>* 홍콩 시사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7	<p>* 「환경보전과 농업에 있어서의 미생물의 성공적 활용 사례와 그 이유에 관한 고찰」</p> <p>- 북한은 EMI농법을 이용해 이미 완전회복단계에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자급자족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큼</p>	<p>임부의장의 병치료와 관련한 편지를 각각 전달</p> <p>-우리는 김양무 상임부의장 선생이 우리측 의료기관에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이와 함께 범민련 남측 본부의 책임적인 일군들과 환자의 부인이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임.</p> <p>북한 기상수문국, 중국 기상국과 기상·과학기술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 조인(평양)</p> <p>조·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9차 회의 결정서 조인(베이징)</p>	<p>뷰(FEER)</p> <p>-북한이 교황청의 무시노 셀레시노 미글리오르 대외담당 차관보와 대외담당부 동남아 전문가인 폴 깔라거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교황청과 접촉을 계속중임.</p> <p>미 국방부, “미·북 미군유해 발굴 협상(12.15~17) 실패” 발표</p> <p>- 이번 협상(북한측: 박임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좌, 미국측: 앨런 리오타 국방부 유해담당 부과장)은 북한측이 유해발굴 작업과 인도적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실패했음.</p> <p>- 후속회담 재개 일정에 관해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p>
12.18	<p>정원식 「한적」 총재, “남북 기본합의서 현재 상황에 맞</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18	<p>계 수정·정비” 주장</p> <p>* 민주평통 민족화해협력특별위원회 회의 주제발표</p> <p>-북한은 남북간 인적교류, 방송 및 언론개방 등을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를 담고 있어 북한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p> <p>-남북기본합의서가 민족 화합을 실현하는 대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이 수용·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손질해야 함.</p>		
12.19		<p>중방, 마카오의 중국 귀속을 환영하는 논평 보도</p> <p>-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식에 따라 홍콩에 이어 마카오가 중국에 귀속된 사실은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설득력 있게 실증해 줌.</p> <p>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마카오의 중국 귀속에 즈음하여 중국 강택민 주석에게 축전 발송</p>	<p>북·일 적십자회담 개최</p> <p>-북한과 일본의 적십자회담(12.19~21)이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2년만에 재개되었음.</p> <p>- 호해룡 북한 적십자회 부회장과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輝) 일본 적십자 부총재가 양측의 적십자 대표로 참석했음.</p>
12.20	<p>「민족통일음악회」 평양서 개최</p>	<p>「조평통」 서기국, 6.25 50주년 행사 추진 관련 비난 보도</p>	<p>미·러 연구소 공동보고서, “북한관리들 헛</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0	<p>-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린 「민족통일음악회」는 2000여명의 북한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차인태(남)와 백승란(북)의 공동사회로 90분 동안 진행됨.</p> <p>-1부는 남한측 가수 공연으로 신형원, 안치환, 김종환, 오정해, 현철 등이 출연했으며, 2부는 북한측 공연으로 주창혁, 로용현, 김순희, 김숙녀 등의 고전·현대 무용 위주로 구성함.</p> <p>-이번 공연은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공연일정이 미루어지면서 계획된 생방송 대신 녹화중계되었음.</p>	<p>-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한 그 무슨 기념행사를 벌여 놓고 미군 병사들의 공적을 찬미하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은 침략전쟁에 대한 악랄한 왜곡으로 살인마들을 비호 두둔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준열히 단죄 규탄함.</p> <p>「조평통」 서기국, 국정원내 언론기관 전담기구설치 및 탈북자 체험수기 배포 등 관련 정부 당국 비난(보도797호)</p> <p>- 현 정부 당국자들이 국정원내 언론기관 전담기구 설치, 탈북자의 체험수기를 중국 동북3성 배포, 어용단체를 내세워 북한인권문제 거론 등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책동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조성한다면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p>	<p>정책 긍정 평가" 밝혀</p> <p>* 미국 몬테레이 국제문제연구소와 러시아 현대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작성한 북한보고서</p> <p>- 한 북한 관리는 "김대중 정부가 과거 역대 정권의 반북한 정책을 허물었음. 평양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와 유대를 강화·고무 시킨 점"이라고 말했다.</p> <p>- 그러나 "북한은 남한정책이 북한 내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부의 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남한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p>
12.21	<p>「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계란·청바지·콜라 북에 전달</p>	<p>중방, 북·일 적십자회담(12.19~21) 진행사실 및 공동발표문 보도</p>	<p>「북·일 적십자회담」, 일본인 처 고향방문 재개 등 합의</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1	<p>- 인천항에서 대북지원 출항식을 갖고, 계란 5백만 개·청바지 및 스웨터 1만 5천벌·815 폴라 및 당근쥬스 5만 8천 8백개 등 10억원 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음.</p> <p>통일부 당국자, “정부, 김양무씨 방북 불허” 표명</p> <p>-정부는 김양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권오창 반미반제비상대책위원회 대회장의 병치료 및 간병을 위한 북한 방문 신청을 불허했음.</p> <p>- 이번 결정은 이들의 방북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부의장의 법적 지위에 따른 것이며 이미 김 부의장 측에도 통지를 하였음.</p>	<p>- 내년봄 제3차 재조일본여성들의 고향방문 진행, 일본측이 의뢰한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 일본 정부의 대북식량지원문제 검토, '45년 이전 행방불명된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안부조사문제 협의 등을 합의함.</p> <p>조선중앙통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조선대표부 편지(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 및 군사분계선에 고엽제 살포 등)'가 12.16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된 것을 보도</p>	<p>-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는 12.21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4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발표'에 서명한 뒤 적십자 회담을 마쳤음.</p> <p>-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내년 봄에 재개함.</p> <p>- 북한측에 납치된 의혹이 있는 일본인 행방불명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실히 조사하도록 북한의 해당기관에 의뢰하기로 함.</p> <p>- 일본의 대북식량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시하도록 일본 적십자사가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함.</p> <p>- 1945년 이전에 행방불명된 북한인의 안부확인에도 노력하기로 함.</p>

■ 1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1			<p>「북·일 수교예비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 외무성 국장급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려 '92년 11월 이후 중단되고 있는 수교협상의 의제와 방식 등을 협의했음. - 북한 오을록 외무성 제14국장, 일본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음. <p>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 “부시 당선땀 대북강경노선”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 1·2월호에 기고한 글 - 미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한 단호한 행동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1			<p>을 취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같은 정권에 단호하고 결연하게 접근한다는 점임. - 북한이 설사 대량 파괴 무기를 손에 넣더라도 이를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 진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2.22	<p>통일농구 북한 선수단 서울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아·태평화위」 관계자 8명, 농구선수단 38명, 평양교예단 14명, 텔레비전 중계요원 2명 등 모두 62명의 북한 방문단은 22일 김포공항에 도착함. - 북한선수단의 서울 방문은 '90년 통일축구대회와 '91년 청소년 축구대회 서울 평가전에 이어 세 번째임. - 현대 정몽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9월 평양경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8돌과 김정숙 탄생 82돌’ 기념 각종 행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여맹예술소조공연(여성회관) - 청년동맹 초급단체 예술소품공연(청년동맹회관) <p>중방, 통일농구 북한대표 남한 방문 동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그룹 초청으로 통일농구 경기대회에 참가할 송호경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이 평양 출발 	<p>「북·일 수교 예비회담」(12.21~22)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이틀째 예비회담(베이징)을 가진 북한과 일본은 내년 중 빠른 시기에 2차 예비회담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마쳤음. - 이날 회담에서는 국교정상화 협상을 조기에 재개할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북한의 미사일·일본인 납치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2	<p>기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북 신뢰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사에서 "이번 경기가 새천년을 맞아 남북이 서로 화해·단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에 서울에 왔다"고 화답함.</p> <p>현대·「아·태평화위」, 남북 축구대회 정례화 합의</p> <p>- 현대(정주영 명예회장)와 북한「아·태평화위」(송호경 부위원장)은 서울 현대사옥에서 남북통일농구대회에 이어 남북친선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씨름도 교환경기 종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함.</p>	<p>-농구대표단 서울 도착(정몽헌 현대회장 영접, 송호경 단장 서울 도착 성명 발표, 정몽헌 회장의 환영연설, 송호경 단장 답례연설 등)</p>	<p>의혹·일본의 식량 지원 등 제반 현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음.</p> <p>유엔 고위 관계자, "WFP 등 21개 단체, 북한의 구호물자 배급·검증 방해 관련 공동성명 발표" 언급</p> <p>-WFP 등 21개 단체들은 12.11 평양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구호 프로그램들의 집행이 계속 제약받는 상황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검정하는 데 심각한 방해물이 되고 있음. 오직 구호활동원칙(검증·접근·투명성 등)들이 지켜져야만 우리는 책임 있게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 성명'을 채택했음.</p>
12.23	<p>박재규 신임 통일부 장관 임명</p> <p>-김대중 대통령은 신임 통</p>	<p>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진행</p>	<p>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 한·일 대북지원 공동추진 제안</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3	<p>일부 장관에 박재규 경남대총장을, 신임 국정원장에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임명함.</p> <p>-박 통일부 장관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국민적 합의 속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앞으로 대북정책 방향은 남북경제협력, 남북통일음악제 등 가능한 것부터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p> <p>「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서울)</p> <p>-남북 남녀 선수들은 12.23 잠실체육관에서 1만 4000여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농구 첫날 혼합팀 경기를 갖고 화합을 과시함.</p> <p>-여자부 경기는 전주원(남)과 계은경(북) 등이 속한 단합팀이 박명화(남), 이명화(북) 등의 단결팀을 133:125로 이겼음.</p> <p>- 남자부 경기는 이상민(남), 박천중(북)이 이끈 단합팀이 강동희(남), 이</p>	<p>-김영남, 조명록(보고), 홍성남, 강현수(사회) 등 참가</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전자공업상에 오수룡 임명</p> <p>외무성 대변인,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본계약 체결(12.15)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KEDO가 지금껏 끌어온 이 계약이 뒤늦게나마 체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국측이 우리와 이미 합의한 경수로 완공시일을 제멋대로 늦춘다면 우리의 핵동력 공업과 경제를 희생시킨 손실 보상이나 다른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p> <p>조·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참가할 수산성 김규락 부상 등 북한측 대표단 비행기로 평양 출발</p>	<p>*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p> <p>-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의료·어업·농업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p> <p>-대북 의료지원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기구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의약품을 보내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3	<p>명훈(북)이 속한 단결팀을 142:138로 승리함.</p> <p>- 경기중 평양교예단은 고유의 민속놀이를 발전시킨 줄넘기, 널뛰기, 봉놀이 등 세계 최고의 교예를 선보임.</p> <p>성혜람, 남북·월북인사 200명의 명단과 근황 공개</p> <p>- '96년 2월 서방으로 탈출한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처형 성혜람씨는 저서 「소식을 전합니다」를 출간, 자신이 북한에서 만난 남북·월북인사 200명(조지훈의 부친 조현영, 지리산 유격대장이현상의 가족, 범조인 이인씨의 동생 이용숙씨 등)의 명단과 근황을 공개했음.</p> <p>- 또한 성씨는 책에서 자신의 아들 이한영씨의 피살과 관련, “남·북한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생 성혜람씨의 탈북설을 부인함.</p>		
12.24	<p>「남북통일농구대회」 이틀째 경기 진행</p>	<p>노동신문,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8돌('91. 12.24) 관련 사실 발표</p>	<p>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 북 식량지원 시기상조 언급</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4	<p>-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이틀째 경기에서 남자는 우리팀(북)이 현대(남)를 86:71, 여자는 현대산업개발(남)이 회오리(북)를 86:84로 각각 승리함.</p> <p>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새해 대북정책 방향 등 논의</p> <p>* 박재규 통일·홍순영 외교·조성태 국방·임동원 국정원장,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참석(남북회담사무국)</p>	<p>* 위대한 영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끝없는 영광 빛내여 나가자</p> <p>-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데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새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p> <p>함북 남청진-사봉 사이 궤도전차선 개통식 진행</p>	<p>* 각의후 기자회견</p> <p>-북·일 적십자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하기로 합의(12.21, 베이징)한 것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힘.</p> <p>아사히 신문, “북, 유해회담(12.15~17, 베를린)때 미국에 옷공장 건설 요청했으나 미국 거부” 보도</p> <p>-북·미간 미군유해 발굴 송환 협상에서 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리찬복 대표가 의복공장을 세워 약5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옷을 공급해 달라고 미국쪽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부적당한 조건이라며 거부했음.</p>

■ 12 월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4			- 협상은 이 문제로 난항을 겪었음.
12.25	<p>북한 통일 농구단 출국</p> <p>-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북한 통일농구선수단과 교예단 등 62명이 김포공항에서 중국 전세기 편으로 출국함.</p> <p>-세계 최장신 선수 이명훈은 기자회견을 자청, 대회기간에 남측이 보여준 환영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음.</p>	<p>통일농구경기대회 TV녹화 중계</p> <p>-남녀 각 혼합팀 경기 및 교예단 공연(12.23): 12.25 중계</p> <p>-남녀 현대팀과 우뢰·회오리팀과의 농구경기(12.24): 12.26 중계</p> <p>조선중앙통신, 통일농구대회 북한 선수단 평양 귀환 보도</p>	
12.26	<p>통일부, 남북경협 유공자 (주)현대아산 등 선정</p> <p>-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업체들을 남북경협 유공자로 뽑아 포상키로 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착시킨 (주)현대아산을 대통령 표창, 한일합섬·미드랜드코리아를 국무총리 표창, 삼성물산·LG상사·효산물산을 통일부장관 표창업체로 선정함.</p>		<p>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북한 핵 반대" 밝혀(베이징)</p> <p>* 일본 특파원들과 기자회견</p> <p>- 북한 공식 방문시 (10.5~9)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진 ▲남북한 관계개선 추진 ▲한반도 비핵화지대화 희망 등 3개항을 북한측에 전달했음.</p> <p>-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무엇보다</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6			<p>유리한 방안이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음.</p> <p>- 중국과 북한은 지도자간 상호 방문 전통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임.</p> <p>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 부인</p> <p>* 일본 특파원들과 기자회견(베이징)</p> <p>- 누구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음.</p> <p>* 아세안+3(한·중·일)회의(11.28,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으며, 이 회담에서 3국은 경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등에 합의하고 정상회담 정례화의 가능성도 거론했음.</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7	<p>김대중 대통령, “내년 남북 관계 큰 진전 가능성” 시사</p> <p>* 시민·사회단체 145명 청와대 초청 오찬시</p> <p>- 내년에는 남북관계에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음.</p> <p>-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북이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함.</p> <p>‘민가협’ 등 30개 인권·종교·사회단체,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결성</p> <p>- 민가협,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 등 30개 인권·종교·사회단체들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가칭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음.</p>	<p>「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우리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 부의장 김양무씨의 평양방문 치료 불허를 비난하는 담화 발표</p> <p>「조평통」 서기국, 우리측 당국이 서울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막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김영태를 불법연행 관련 보도 발표</p> <p>「농근맹」 중앙위 대변인, 우리 당국이 농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담화 발표</p>	
12.28	<p>국방부, 연변체류 탈북자의 북한에 국군포로 23명 생존 주장 관련 “생존여부 확인 중” 언급</p> <p>- “’70년대 함경남도 단천군 검덕광산에 국군포로 400명이 수용됐으며 이중 23명이 생존하고 있다”는 60대 연변 체류 탈북자의</p>	<p>「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한총련 학생들의 노동자들과 동반투쟁 관련 담화 발표</p> <p>-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합류해 나선 것은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이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냄.</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8	<p>주장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 국군포로의 명단과 생존여부를 확인중임.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포로 23명의 명단을 조회한 결과, 이중 15명의 이름이 6.25 전쟁 전사자 명부에 있음(동명이인인지 생존 중인지 확인되지 않음). - 이들 23명은 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생존 국군포로 244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p>한국중공업, 북한 경수로 주기 공급 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공업(이창식 전무)은 한국전력(최양우 전무)측과 서울에서 북한 경수로 사업에 들어가는 8,500억 원 규모의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 등 KEDO원자력 발전소 1·2호기용 주기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p>노동신문, 경수로 건설 기본계약 체결(12.15) 계기 일본 외상의 성명 발표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상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주체념은 언행에는 경수로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있게 될 조·일회담에서 몸값을 올리고 우리에게 양보를 받아내려는 정치적 기도가 깔려 있음. 	
12.29	<p>김대중 대통령, “송년특별사면(12.31)시 장기수 2명 등 석방” 발표</p> <p>* 20세기 송년 특별담화</p>	<p>조선중앙통신, “간첩혐의로 일본인 1명 구금”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말 방북했던 스기시마다카시(일본 시장경제연구소 	<p>AP통신, “미군, 한국전 때 북한군·피난민 구별못한 채 공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해제된 미군 군사문서와 목격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29	<p>- 간첩으로 납파된 장기수 2명(신광수, 손성모)을 석방할 것이며 이로써 이 나라는 장기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음.</p> <p>통일부, 4개 대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p> <p>- 남북경제협력 질서 확보 차원에서 4개 업체(성화 국제그룹, 신일피혁, 세원 커뮤니케이션, 아이엠시스템)에 대해 대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했음.</p> <p>- 이로써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승인을 받은 기업체는 42개에서 38개로 줄어 들었음.</p>	<p>연구원, 60)는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에 저촉되는 정탐행위를 하여 12.4 해당기관에 억류되었음.</p> <p>- 조사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당 및 국가·군사·대외정책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정탐한 것으로 판명됨.</p> <p>「조평통」 서기국, 남한당국의 1년간 행적 결산 보도</p> <p>-역사와 민족은 지난 1년간 친미·친일 행위, 민주세력 탄압, 반공화국 정책, 조국통일에 장애를 조성한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p> <p>비전향장기수 김인서의 딸 김화심·김정심 및 누이동생 김봉선,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민주법률가협회·적십자 국제위원회·국제대사령에 비전향장기수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는 편지 발송</p>	<p>자 증언 인용</p> <p>- 미군 전투기들이 한국전 당시 피난민 속에 침투하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 민간복 차림의 피란민에게 공격을 가함.</p> <p>- '50~'51년 상당수 피난민들이 미군 제트기의 공격을 받고 숨졌으며,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서는 '51년 1월 20일 미 공군의 소이탄 발사로 동굴에 숨어 있던 주민 3백 명이 숨졌음.</p>
12.30	<p>김대중 대통령, “통일 서두르는 것 좋지 않다”고 언급</p> <p>* 일본 사민당 기관지 「社會新報」 신년호에 실린 도이 다카코(土井賀子) 사민당수와 회견 내용</p> <p>-통일을 서두르는 것은 북</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p> <p>-2중3대혁명붉은기: 3월 17일발 전소 제3호발전직장 등 4곳</p> <p>- 3대혁명붉은기: 평양화력 발</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0	<p>한에도 한국에도 좋은 일이 아님. 지금 곧 통일해도 우리에게서 북한을 지원할 능력이 없으며,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함.</p> <p>- 내가 보는 한 북한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 경제개방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주체사상·자급자족을 계속 추구하면 발전할 수 없음.</p> <p>- 북한과 일본관계도 서로 대화·협력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양국에 있어서 필요할 것임.</p>	<p>전소 보온직장 등 30곳</p> <p>노동신문, 우리 당국의 비전향장기수의 통일농구경기 관람 저지 관련 비난 논평</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비전향장기수의 통일농구경기관람을 가로막는다는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차단하여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속심이 깔려있음.</p> <p>중방, 미군의 대북정찰 올해 1,706차례 보도</p> <p>- 미국은 RC-12, RF-4C, EH-60 등 각이한 사명의 전술정찰기들과 전자전 직송기들을 투입하여 우리에게 대한 주야공중정탐행위를 계속적으로 벌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그 횟수는 1,760여 차례에 달함.</p> <p>조·러 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 귀환</p> <p>- 조·러 어업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러시아)에 참가했던 수산성 김규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러 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이 비행기로 귀국함.</p>	

月日	韓 國	北 韓	周 邊 動 向
12.31		<p>노동신문, 김대통령의 장기수 등 3,501명 가석방을 주내용으로 하는 송년특별담화(12.29) 관련 비난 논평</p> <p>- 남조선 당국자가 한 송년특별담화는 저들이 가져온 처참한 현실을 가리우고 심각한 통치 위기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며, 남조선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모순과 갈등, 위기와 혼란은 해소될 수 없음.</p> <p>중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총련 한덕수 의장에게 새해 축전” 보도</p> <p>- 나는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경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필승의 신념과 낙관에 넘쳐 총련애국사업에 새로운 성과와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p>	<p>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사임</p> <p>-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 TV를 통해 전격 사임을 발표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것임을 밝혔다.</p> <p>- 옐친은 사임성명에서 “훌륭한 인물이 있는 마당에 내가 굳이 버틸 이유가 없음. 국민은 이번 총선(12.19)에서 새로운 선택을 했으므로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인물에게 맡겨야 함. 국민의 꿈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 용서를 구함”이라고 말했다.</p>

南北對話年表

(1999. 1. 1~12. 31)

發行日：2000年 2月 10日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dialogue.unikorea.go.kr)

印刷處：웃고文化社(☎ 2267-3956)

